성배 이야기와 아서의 최후

The Story of the Grail and the Passing of Arthur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1853–1911)

1910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The Story of the Grail and the Passing of Arthur" (Charles Scribner's Sons 1910)

저자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1853–191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60405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자 및 일러스트레이터가 집필하고 삽화를 그린 책들

호워드 파일

찰스 스크리너스 선즈에서 발행함

아서왕과 그의 기사들의 이야기

원탁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

서 랜슬롯 경과 그의 동행자들의 이야기

노팅엄셔에서 널리 명성을 떨친 로빈 후드의 즐거운 모험

달 뒤의 정원이었노라. 달의 천사에 관한 실화.

은빛 손을 가진 오토

[일러스트레이션: 성배의 갈라해드 경.]

[일러스트레이션: 성배 이야기와 아서의 최후(The Story of the Grail and the Passing of Arthur).]

호워드 파일 지음.

뉴욕: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스 1910

저작권, 1910년,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스 소유

1910년 9월 간행

[일러스트레이션] 서문

본 권에는 잉글랜드의 왕 아서왕의 생애와 왕권에 관한 사적(史蹟)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연작이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먼저 제레인트 경의 운명이 어떠하였는지, 다음으로 랜슬롯 경의 아들 갤러해드 경이 성배를 어떻게 성취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서왕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왕관을 위해 왕답게 싸워 적들을 물리쳤으나, 자신이 중상을 입힌 적 한 명에게 살해당하게 된 연유가 서술되리라.

이 일에는 슬픈 일이 많으나, 또한 슬프지 않은 일도 많으니라. 모든 끝은 슬프고, 어느 영웅의 임종은 슬프게 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러한 인물의 사건들과 모험들, 그리고 업적들은 슬픈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이 일의 대부분은 슬프나, 그 나머지는 슬프지 않다고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이 네 권의 책을 집필한 지 이미 칠 년이 지났노라. 그 속에 내가 가진 바 가장 나은 말을 다 담아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 서술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네가 내가 이렇게 쓴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네가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헛되이 쓴 것이 되리라. 그러나 네가 이 이야기들과 그 속에 서술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좋아하시거든, 네가 나의 일에 승인의 인장을 찍어 주시리니, 그러면 나의 보상이 가득 차리라.

너희는 알라, 어떤 이에게나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모든 사람이 인정을 얻기 위해 글을 쓰고, 만일 그 길이

열려 있다면 모두 동료들의 인정을 얻으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바는, 너희가 이 책들에 인장의 도장을 찍어 인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라.

일부 기록에는 이 중대한 시대를 다룬 다른 사서들에 수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내가 기록한 대다수의 내용은 이미 그러한 사서들에 전해져 온 바이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이 옛적에 기록한 그대로, 즉 원전의 고풍스러운 문체를 오늘날 독자들의 취향에 맞게 다듬어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생명을 이 일을 완성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내가 원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여전히 보존해 주시기를 소망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을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것은 나에게 큰 아쉬움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역사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이에 관한 많은 글을 읽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시작했던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었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말일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노라.

이제 나는 이 책의 문턱에서 너희와 작별하며, 독서가 형통하기를 빌노라. 너희가 읽게 될 첫 번째 모험은 “제레인트 경의 이야기”이니, 이는 처음에 고대 웨일즈어로 기록되었으나, 이제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 내가 서술하는 바와 같이 다시 쓰여졌노라.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차례]

제1부

제레인트 경의 이야기

제1장

제레인트 경이 그 기사와 그 기사에게 속한 난쟁이의 주군인 부인을 따라간 일. 그가 무너진 성에서 하룻밤을 묵고, 입을 갑옷을 찾은 일. 9

제2장

새매호크 기사와 결투한 제레인트 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백작령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왕의 궁정으로 돌아온 일. 17

제삼장

제레인트 경이 캐멀롯에서 에니드 부인과 함께 살던 이야기. 그가 그녀의 충성을 의심하던 일, 그 의심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모험을 찾아 그녀와 함께 떠났던 일. 또한 그들이 숲에서 세 가지 기이한 사건을 만났던 일. _27_

제4장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가 숲을 벗어나 한 백작의 영지로 들어온 일. 그들이 한 여관에 머물렀고, 그 후 일어난 일을 서술함. 39

다섯째 장

제레인트 경은 다른 한 기사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노라. 그때 아서왕의 궁정에 있는 이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였더라.

제6장

어찌 제레인트 경이 길가의 거인 세 명을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그가 부상을 입고 어떻게 에니드 부인과 함께 그 땅의 한 기사가 납치했는지. 또한 어찌 제레인트 경이 그 기사를 죽였는지.

제이부

갤러해드 경의 이야기

제1장

갤러해드 경이 기사로 임명된 일과, 그가 아서왕의 궁정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여러 기적들에 관하여.

제2장

백색 프리아르 수도원에 이르는 길에 낯선 처녀의 인도를 받은 갤러해드 경의 이야기. 그곳에서 원탁의 기사 두 명을 만나게 된 일. 바데마구스 왕이 방패를 착용하게 된 일과, 그 방패가 그에게서 빼앗겨 갤러해드 경에게로 전달된 일. 또한 그 방패에 얽힌 사연.

제삼장

갤러해드 경이 멜리아스 경을 만나던 일. 멜리아스 경이 패배하던 일, 그리고 갤러해드 경이 그의 적들을 물리치던 일. 또한 갤러해드 경이 처녀들의 성에서 행하던 일.

제사장

어찌 랜슬롯 경과 퍼시벌 경이 갤러해드 경을 만나,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한 어찌 랜슬롯 경이 꿈속에서 성배를 목격했는가.

다섯 번째 장

퍼시벌 경이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뻔한 말을 만나고, 또한 아름다운 낭자를 만나 그녀와 함께 잔치를 나눈 일. 마침내 그는 배에 올라 그곳에서 안식과 위로를 찾았노라.

제육장

어떻게 보르 경이 숲의 은수자에게 자백하였는가. 어떻게 그가 한 기사를 격파하였는가, 그리고 그가 해안가에 이르러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칠 장

갤러해드 경이 가웨인 경을 쓰러뜨린 일과, 그가 아름다운 부인을 데리고 해안가로 갔던 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제삼부

아서왕의 최후

제1장

구이니비어 왕비가 숲속의 랜슬롯 경을 방문한 일과, 랜슬롯 경이 예전처럼 궁정으로 돌아온 일, 그리고 그가 다시 한 번 궁정을 떠난 일을 전하노라.

제2장

구이니비어 왕비가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에서 아일랜드의 패트리스 경이 독살당하였더라.

제삼장

어떻게 보르 경이 여왕의 호위를 면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마도르드 라 포르 경이 패배하였는가.

제4장

어찌하여 궁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으며, 어찌하여 호수의 랜슬롯 경이 가웨인의 형제들에게 습격받았는가.

제5장

아서왕이 조이우스 가드에서 랜슬롯 경을 습격하던 일과, 라이오넬 경이 죽임을 당하고 보스 경이 부상을 입었던 일

제육장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여왕을 캐멀롯의 아서왕에게로 모셔오니라. 그가 잉글랜드를 떠남에, 아서왕과 가웨인 경이 그를 쫓아가니라.

일곱 번째 장

아서 왕이 작은 브리타니아로 돌아오심에 관하여, 그리고 랜슬롯 경과 가웨인 경 사이의 전투에 관하여

211

제8장

아서왕이 잉글랜드로 돌아오신 일과, 그가 모드레드 경과 치른 최후의 전투에 대하여

223

제구장

아서왕이 어떻게 모드레드 경을 죽였으며, 그 자신이 중상을 입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는지. 엑스칼리버가 어떻게 던져졌으며, 어떻게 세 명의 여왕이 아발론에서 와서 그를 데려갔는지.

제십장

_호수 경 랜슬롯이 구이니비어 왕비에게 나아가던 일과, 구이니비어 왕비가 수녀가 되었던 일. 호수 경 랜슬롯이 숲으로 들어가 은자가 되

었던 일과, 그의 동료 일곱 명이 그에게 합류하였던 일. 또한 호수 경 랜슬롯의 죽음에 관하여._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목록

성배의 갈라해드 〈표지그림〉

페이지

머리 그림 -- 서문 -- vii

꼬리 그림 -- 서문 -- 8쪽

머리 그림--목차 ix

꼬리 장식——목차——xiv

머리 그림--삽화 목록 xv

그림 목록

에르빈의 아들 제레인트 경

머리그림--서문 3

꼬리 그림 -- 서문 6

〈일러스트레이션: 가든 속 에니드와 제레인트〉

머리 그림 -- 제1부 9

제레인트 경과 스파로호크의 기사

16

제레인트 경이 잠들었더라.

[Illustration: Enid talks with the Earl]

[Illustration: _Enid and Geraint ride past the Town bridge_ _48_]

[Illustration: The King’s physicians attend Sir Geraint]

아서왕의 의사들이 제레인트 경을 돌보다

끝머리 -- 제1부 64

숲의 은수자와 함께 갤러해드 경이 이르러

제2부 머리 그림--67

호수의 부인과 갤러해드 경 78

갤러해드 경과 멜리아스 경의 조우

성배가 현현하시니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잠들었노라

퍼시벌 경은 검은 말을 몰고 달렸더라.

보스 경은 백색 갑주를 입은 기사와 함께 달렸노라

갤러해드 경이 그 부인과 함께 말을 몰아가더라

끝그림—제II부 144

왕비 시종들이 랜슬롯 경을 옷 입히더라

머리 그림--제3부 147

마도르 드 라 포르 경

[Illustration]

마도르 경이 목숨을 구걸함

랜슬롯 경, 문호를 수비하시니라

로체스터 주교와 왕

184

가웨인 경, 랜슬롯 경을 도전하다 198

가웨인 경의 최후 210

배신자 모드레드 경

아서왕의 임종

구이니비어의 최후 248

말미 장식 — 제3부 258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에르빈의 아들 제레인트 경]

[일러스트레이션] 서문

〈각주: 아서왕이 사냥을 선포하더라.〉

어느 때, 미카엘마스 때에, 아서왕은 그의 궁전인 카를레온어폰어스크 근처에서 성대한 사냥을 열었다. 이 사냥을 위해 정해진 날 아침, 왕의 모든 시종들은 떠나기 위해 성의 안뜰에 모여들었다. 왕이 눈길을 두루 돌리시되, 그는 왕비를 곁에서 보지 못하셨다. 왕이 이르시되, "오늘 아침 왕비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녀를 여기 보지 못하노라." 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전하, 그녀는 아직 침상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녀를 깨우러 갈까요?" 왕이 이르시되, "아니요, 그녀가 사냥하기보다 잠을 자고자 한다면, 침상에 누워 있게 하라."

그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전하, 제레인트 경도 여기 계시지 않사옵니다. 그를 부르시겠습니까?" 아서왕이 웃으며 이르시되, "아니로다. 그가 졸리다면 잠자리에 머물게 하라." 이에 그들은 말에 올라 새벽 이슬의 달콤한 향기 속으로 달렸으니, 새들은 돌림노래를 지저귀고 해는 온 대지를 거대한 황금빛 목욕탕에 담그듯 적셔주었더라.

그들이 모두 이같이 물러간 후, 구이니비어 왕후는 몸을 일으켜 깨어났다. 그녀가 시녀들에게 물으니, “왕께서 어디에 계시뇨?” 시녀들이 아뢰되, “부인, 왕께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숲속으로 사냥을 떠나셨나이다.” 이를 들은 왕후는 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시녀들이 아뢰되, “부인, 왕께서 당신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명하셨나이다.” 왕후가 이르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반드시 사냥을 구경하러 가겠소.” 이에 왕후는 일어나 바다빛 녹색 타피타 옷을 입었고, 황금 띠를 허리에 두르며, 시녀들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금실 그물로 묶게 하였노라.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왕후와 그녀의 신하들은 말에 올라 숲속으로 나가 왕과 그의 신하들을 찾으러 갔더라.

〈각주: 구이니비어 왕비와 그녀의 시종들이 숲으로 말을 타고 들어간다.〉

〈각주: 그들은 제레인트 경을 만나니라.〉

그때 여왕과 그 여종들과 수종들은 차분하고 고요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뒤따라오는 한 기수가 가벼운 구보로 달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여왕은 말의 고삐를 당기며 곁에 있는 여종들에게 물으셨다. “저 뒤따르는 신사는 누구인가?”

수종 중 한 명이 아뢰었다. “폐하, 제 생각에는 저분이 제레인트 경인 듯하옵니다.”

여왕이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확실히 제레인트 경이로구나.” 이에 모두 말의 고삐를 당기고 멈춰 서서 제레인트 경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

렸다. 제레인트 경이 그들에게 다다르자 여왕이 그에게 이르셨다. “제레인트 경이여, 너 또한 나태한 자라니 기쁘도다. 이제 너는 우리의 보속을 삼아 우리 곁에서 시종하게 하리라.”

제레인트 경이 아뢰었다. “폐하, 이는 보속이 아니라 기쁨이니이다. 이처럼 아름다우시고 상쾌한 아침에 폐하와 그 궁정을 모시는데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리이까?”

“경,” 구이니비어 왕후가 이르시되, “그 말씀은 참으로 좋도다. 이제 내가 경에게 내 곁을 따라 타라고 명하노니, 함께 우리 왕을 찾으러 가리다.”

이때 제레인트 경은 구이니비어 왕비와 함께 그와 같이 행차하시니, 두 분은 가던 길에 여러 흥미로운 일들을 나누어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숲속을 느긋이 걸어가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길 너머로 작은 기마대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더라.

이들 기수 중 첫째는 갑옷을 두른 매우 강건하고 위엄 있는 기사였노라. 그 옆에는 붉은 옷을 온전히 두른 아름다운 귀부인이 함께 달렸고, 이 두 사람 뒤에는 푸른 옷을 입은 기형으로 뒤틀린 난쟁이가 뒤따르니라. 그 난쟁이는 높은 산 위의 개구리처럼 큰 말 위에 앉아 있더라.

그때 구이니비어 왕비가 이르되 “저편에는 어떤 무리가 있느냐?” 하나 아무도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더라. 이에 왕비는 자기 시녀 한 명에

게 이르되 “가라, 처녀여. 그 따르는 기사의 정체를 그 난쟁이에게 물어보라.”

〈각주: 처녀가 난쟁이에게 말을 걸다.〉

이에 왕후가 말한 처녀가 그 무리를 향해 나아가서 난쟁이를 맞으며 이르되, “이놈아, 내가 네게 청하노니, 네가 따르는 그 고귀한 기사는 누구인가?” 하거늘, 난쟁이가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하니, 처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네가 나에게 이토록 무례하므로, 내가 직접 그 기사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보리라. 내가 생각하건대, 그는 그의 이름과 신분을 말하지 아니할 만큼 무례하지는 않겠지.” 하거늘, 난쟁이가 이르되, “내가 네게 그것을 금하노니, 네가 앞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군은 그와 같은 신분을 지니셨으니, 너와 같은 자는 그와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그가 왕후의 처녀가 기사의 뒤를 따르려 함을 보고, 그의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뒤로 밀어내니, 처녀는 떨어질 위기에 처하였더라.

그때 처녀가 이르되 “너는 내 말에서 손을 떼라!” 하되, 난쟁이가 그 손을 놓자 그녀는 고삐를 당겨 왕비에게로 돌아와 난쟁이의 무례함을 호소하며 이르되 “폐하, 저기 한참 무례하고 예의 없는 자가 있사오니, 그는 내가 그의 주인께 말씀드리지 못하게 하였사오며, 내가 그의 간섭을 물리치고자 할 때에 그는 내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뒤로 물러나게 하사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사오나이다.”

구이니비어 여왕이 찌푸리며 몹시 불쾌해하시며 이르시되, “제레인트 경이여, 저기 있는 그 기사가 누구인지 찾아오라.” 하시니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리하겠나이다.”

〈각주: 제레인트 경이 난쟁이에게 말을 걸다.〉

이때 제레인트 경은 다른 이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세 사람을 뒤쫓아 마침내 그들을 추월하더라. 그가 난쟁이에게 다가가 이르되, “야, 저 기사의 이름을 내게 말하라.” 난쟁이가 대답하되, “그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름을 당신에게 말함이 마땅치 않음이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청하리라.” 하고는 곧장 기사의 앞으로 향하여 말에 채찍을 가하였으나, 난쟁이는 그의 의도를 보고 길목을 가로질러 말에 채찍을 가하여 제레인트 경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난쟁이는 소리쳐 이르되, “경이시여, 멈추소서. 경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시니이다.”

〈각주: 난쟁이가 제레인트 경을 치니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놈, 물러서라!” 하며 그 왜소자를 덮치려 하였으나, 그 왜소자는 격분하여 안장에 서서 손에 쥔 채찍으로 제레인트 경의 얼굴을 내리쳤다. 채찍은 제레인트 경의 뺨과 눈꺼풀을 가로질러 치니, 곧 그의 얼굴 위에 커다란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더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그 타격의 고통을 느끼며 분노에 휩싸여 난쟁이에게로 몸을 돌리고 손에 칼집을 얹었으나, 곧장 손을 거두며 이르되, “너 같은 자야, 이는 너의 기사에게 불행한 날이 되리라!” 하고는, 즉시

말머리를 돌려 구이니비어 여왕이 그를 기다리던 곳으로 되돌아갔노라.

그리고 여왕께 아뢰되, “폐하, 그 기사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였사오나, 폐하의 허락이 계시거든 그를 뒤쫓아가리이다.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 다다르면 갑옷을 마련한 후, 그를 강제로 폐하께로 되돌려 보내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그의 난쟁이가 폐하의 공녀에게 저지른 모욕에 대한 사죄를 받게 하리이다.”

그때 구이니비어 부인이 제레인트의 얼굴을 보았노라. 난쟁이가 내려친 자국이 그 얼굴에 선명히 드러나 있더라. 부인이 외쳐 이르되, “제레인트 경, 당신의 얼굴에 무슨 일이 있나이까?”

제레인트가 이르되, “난쟁이가 채찍으로 저를 쳤나이다.”

왕후가 이르되, “그런 타격을 입혔으니, 너는 그에게 무엇을 갚았는가?”

제레인트가 대답하되, “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난쟁이가 아니라 그의 주인인 기사와 맞서기 때문이니이다.”

구이니비어 부인이 이르되, “경이 그 일에서 옳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그 무리를 뒤쫓아 그 난쟁이의 주인인 기사와 할 수 있는 대로 처결하시오.”

제레인트 경이 매우 자랑스러운 어조로 이르되, “이런 작은 키의 사내에게서 받은 타격에 대한 복수는 필요치 않노라. 다만 나는 이 기사

가 너에게 오게 하여, 그 이름을 밝히고, 이 처녀에게 그의 종의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고자 하노라." 왕후가 이르시되, "가라. 그를 따르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그 기사의 뒤를 따라 떠났노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왕비의 명을 받들어 그 기사와 부인, 그리고 난쟁이를 따라 떠났더라.

* * * * *

이때부터 제레인트 경의 모험이 시작되니, 이 서사를 끝까지 읽는 자라면 그와 관련된 많은 사실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리라.

[그림]

제1부

제레인트 경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노라 제레인트 경의 이야기라. 이 이야기는 아서왕 치세를 다룬 많은 고대 사서들에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이어질 아서왕의 이야기 맥락에 부합하므로 여기에 삽입하노라.

[일러스트레이션: 정원에 있는 에니드와 제레인트:]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제레인트 경이 어떻게 그 난쟁이가 속한 기사와 부인을 뒤따랐는가. 그가 어떻게 폐허가 된 성에 묵었으며, 어떻게 입을 갑옷을 찾아냈는가.

이에 제레인트 경은 그 기사와 부인, 그리고 난쟁이를 따라갔노라. 처음 그들이 그를 이끄는 길은 캐멀롯을 향하였으나, 이내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다른 방면으로 그를 인도하였노라. 곧 그들은 한 갈림길에 이르러 그곳으로 꺾어들었고, 뒤이어 그들은 한 계곡을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마루에 닿았노라.

그 계곡은 그들 아래로 펼쳐졌으니, 초원과 골짜기, 숲과 황무지가 마치 상아나 단단하고 고운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된 듯하였노라. 그 형상이 이처럼 정밀하고 놀랍게도 조형되어 있어, 마치 한 사람이 그의 손바닥으로 그 땅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듯한 기이한 아름다움이 있더라.

그때부터 잠시 후, 그들은 이 벌거숭이 언덕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그들이 본 것은 나무와 푸른 잎사귀뿐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숲속 새들의 달콤한 노래뿐이었다. 그들은 예쁘게 굴곡진 선율을 부르며 노래했다. 곧 그들은 이 곳에서 내려와 마침내 넓은 강 옆으로 이어진 큰길에 이르렀다. 강물은 밝게 빛나며 천천히 움직이는 바지선과 빠른 배들이 은빛 실처럼 매끄럽게 반사되는 수면을 가로질렀다.

이렇게 하여 산간과 평야, 농가와 숲, 수로를 지나 기사와 부인, 그리고 난쟁이는 그날 종일 여행을 계속하였고, 그날 종일 제레인트 경은 그들을 인내심 있게 뒤따라갔더라.

저물 무렵 그들이 언덕 위에 자리한 한 고을에 다다르니라. 그 고을을 내려다보는 곳에는 높은 회색 성이 서 있었고, 성을 비롯하여 고을 전체를 둘러싼 성벽이 둘러쳐져 있더라. 그리고 그 고을과 성을 마주 보는, 맞은편 언덕 위에는 또 다른 성이 있었으나, 그것은 매우 폐허가 되어 방치된 상태였더라.

〈각주: 그 기사가 성 안으로 들어오더라.〉

기사, 부인, 그리고 난쟁이가 성내로 들어오니, 제레인트 경이 그들을 뒤따라갔더라. 그가 거리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온갖 군중들을 보았으며, 그의 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웃음소리와 수다, 그리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들로 어지러워졌더라. 이 모든 사람들이 기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난쟁이가 성내로 들어올 때, 그들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를 쳤기 때문이니, 그들이 뒤를 바삐 따라가며 그들을 에워싸고 기사의 갑옷이나 그의 말에 손이 닿기를 갈망하였더라. 곳곳에서 대장간 불빛이 타올랐고, 풀무가 바람을 내뿜었으며, 갑옷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끊임없이 방울처럼 울려 퍼졌더라. 온 성이 마치 군대를 전쟁에 대비하듯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니라.

그 사이 그 기사와 그 부인 그리고 난쟁이는 그들 주위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군중과 소동 속을 헤쳐나갔다. 거리에는 곧 사람들이 가득 찼고, 다른 사람들은 창문들에 나타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것

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스카프를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장소 주변 어디에서나 큰 소란이 일었다.

〈각주: 제레인트 경이 기사의 사정을 묻노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곁에 있던 자에게 이르되 "부디 말하노니 친구여, 이 모든 소동과 소음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냐?" 하니, 제레인트 경이 묻는 자는 "참새매다! 참새매다!" 하며 급히 달아났더라.

이때 제레인트 경이 다른 이에게 묻기를,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이오?" 하니, 그가 이르되, "참새매요, 친구여, 참새매요!"라 하고 또한 재촉하여 달아났더라.

그때 건장하고 붉은 빛을 띤 얼굴의 사내가 지나가니, 제레인트 경이 그에게 물었노라. "이 모든 소란과 떠듦은 무엇인가? 청컨대 내게 말하라." 그 뚱뚱한 사내가 이르되, "참새매입니다, 훌륭한 경님, 참새매라니이다."

그때 제레인트 경은 노하여 말에서 내려 그 뚱뚱한 사내의 옷깃을 잡아당겨 단단히 붙잡았노라. 그리고 이르되, "너 이놈아,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모든 소란의 뜻을 내게 말하기 전까지는. 저기 저 기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 경이시여, 알지 못하시오?" 뚱뚱한 사내가 이르되, "저곳의 기사는 참새매의 기사요, 그는 내일 전투가 있기까지 머물게 될 성으로 향하는 길이오."

〈각주: 제레인트 경이 숙소 마련에 관해 묻더라.〉

"그렇구나,"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알아두는 것이 좋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마을에서 내가 묵을 곳과, 한 기사로서 자신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게 말하라."

그 뚱뚱한 사내가 이르되, "이런 때에 이 마을에서는 묵을 데가 없으며, 어디에서도 무기를 구할 수 없노라. 그러나 아름다운 경이여, 만약 당신이 계곡을 건너 저 폐허가 된 성으로 가시거든, 밤을 지낼 숙소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요, 아마도 무기도 찾으실 수 있으리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참새매의 기사가 투기장에서 자신에게 대드는 자들을 모두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자신들을 따르던 세 사람이 이미 하루의 여정을 마쳤음을 보고는, 그 남자를 놓아주었더라. 남자는 즉시 여전히 기사와 부인, 그리고 난쟁이를 따라오던 군중 속으로 달아났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말의 고삐를 당겨 돌렸고, 그는 그 마을을 떠나 계곡을 건너 반대편에 있는 폐허가 된 성으로 향하였으니, 이는 그가 조언을 받아 행한 바였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폐허가 된 성에 다가가니라.〉

〈각주: 그가 노인을 부르다.〉

제레인트 경이 성곽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성벽의 난간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였다. 이 존귀한 노인이 제레인트 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성벽에서 내려와 성문까지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제레인트 경을 맞았다. 제레인트 경은 그 노인이 키가 크고 위엄 있는 용모를 지니고 있으며, 고귀하고 장중한 얼굴빛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제레인트 경은 그가 가난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음을 보았는데, 옷감은 회색이었고 곳곳이 기워졌으며, 솔기 부분은 닳아 헐거워져 있었다. 제레인트 경이 그에게 이르되, "신사여, 청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 오늘 밤 이 성곽에서 숙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제가 입을 수 있는 적당한 갑옷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시는가?"

노인이 이르되 "고귀한 기사여, 당신의 품격에 맞는 자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지는 이미 오래되었노라. 이는 가난하고 황폐한 집이며, 가난하고 황폐한 자의 집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어떠하든, 당신을 환영하노라. 들어오시옵소서. 갑옷에 관하여는, 구식이고 낡은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시거든 제가 마땅히 그것을 갖추어 드리리라 믿노라."

이렇게 말하며 노인은 제레인트 경의 말 고삐를 잡고 성의 안뜰로 이끌고 들어갔다. 그가 거기에 이르자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매우 크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더라. 곧 성의 옆문이 열리며 젊고 우아한 처녀 한 명이 나왔으니, 키가 매우 크고 몸매가 가늘었더라. 그녀는 평범한 푸른 옷을 입었으며, 곧고 슬림한 자태에 푸른 가죽 띠로 허리를 동여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꼬아 땋아 올렸고, 어떤 그물이나 장식품도 쓰지 않았더라. 그러나 제레인트 경은 그녀를 매우 깊이 응시하였으

니, 이는 그에게 이 여인이 세상에서 그가 본 적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보였기 때문이었더라.

처녀가 그들에게 이르러 오자, 노인은 그녀에게 제레인트 경의 말을 마구간으로 데려가 적절히 손질하고 돌보라 명하셨노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이 봉사를 사양하려 하였으나, 노인은 이르되 "경이시여, 청컨대 그대를 막지 마옵소서. 이 집에 하인이 없사오며, 손님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나이다. 그러므로 내 딸이 손님을 모시는 기쁨을 얻으리라" 하니라.

〈각주: 처녀가 제레인트 경의 말을 돌본다.〉

이에 제레인트 경은 말에서 내리니 처녀가 이를 거느리고 마구간으로 데려갔더라. 그 후 노령의 영주가 제레인트 경을 성채 안으로 들이시어, 그가 묵게 될 위층 방으로 모셨노라. 그리고 가웨인 경을 위해 미지근한 목욕물을 준비하시고, 색은 바랬으나 한때는 단아하고 고운 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헐거운 옷을 가져다 주시니, 그 옷감은 매우 부드럽고 편안하였더라.

그때 노인이 아내를 불러, 그녀의 손에 돈을 쥐여주며 이르되, "이 돈으로 마을에서 네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장만하여라. 이 신사가 지닌 위엄과 고귀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지 못했노라."

그리하여 그 노부인은 마을로 내려갔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식량이 가득 든 큰 바구니를 메고 온 하인을 데리고 왔다.

이때 저녁 식탁을 준비하는 동안, 제레인트 경과 성의 노령 영주는 정원을 거닐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각주: _제레인트 경이 참새매의 기사에 관해 묻다._〉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어르신, 간청하오니 여러 가지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첫째, 저곳이 어찌하여 저 참새매에 대하여 미친 듯이 된 것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사여," 노령한 영주가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리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나는 저 마을의 백작이요, 그 지역의 최고 영주였노라. 그러나 내 아우가 주민들을 선동하여 나를 배반하고, 최근에는 나의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쥐어 버렸노라.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서 온갖 화려함을 누리고 있고, 나는 여기, 보시듯 이 신세에 머물렀노라."

"이제 너희는 내 형님이 지극히 위대한 기사들을 모아 자신의 곁에 모시려 한다는 것을 알라. 이에 그는 순은으로 만든 참새매를 만들게 하였으니, 그 참새매는 은봉의 꼭대기에 장엄히 올려져 있노라. 이 참새매를 두고 수많은 기사들이 기마 창시합에 임하였으니, 이는 누구든 이 참새매를 획득하여 삼 년 연속으로 이를 간직하는 자는 '참새매의 기사'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이 명예를 두고 다투었노라."

"두 해 동안 황야의 기사, 가우데무스 경이라 불리우는 자가 그에게 대항한 자들을 모두 물리쳤노라. 만약 그가 올해 다시 도전하는 모든 기사들을 물리친다면, 그는 참된 참새매의 기사로 인정받으리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갑옷을 청하노라.〉

이때 무너진 성의 노령한 영주가 이같이 말하매, 이에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영주님, 귀하께서 말씀하신 그 갑옷으로 보아, 내일 그 기사와 결투하고자 하오니, 그 갑옷을 제 방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

노령의 영주가 이르되, "경이시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는 한 벌의 갑옷이 있사오나, 경께서 그것을 착용하실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사옵니다. 그것은 구식이며 상한 갑옷이기 때문이오이다. 그러나 경께서 고대의 갑옷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진대, 제가 경을 위해 그것을 준비해 드리기를 기뻐하리다."

"경,"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내가 경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노라. 이제 나는 또 다른 일로 나아가노라. 잠시 전, 나의 눈이 본 아름다운 처녀들 중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노라. 이제 그 낭자가 섬길 기사가 없다면, 내일 스패로우호크의 광장에서 그녀의 이름을 걸고 싸울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노라."

노인이 이르되 "경이여, 그 낭자는 내 딸이요 내 유일한 자식이라. 그 이름은 에니드라. 만약 그녀가 경을 자신의 기사로 받아들일진대,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함을 기뻐하리. 그러나 내가 그녀를 경에게 보내리니, 경은 그 일을 직접 그녀에게 말하시오."

〈각주: 아름다운 에니드를 향한 제레인트 경의 고백.〉

이와 함께 노령의 영주는 그 자리를 떠났고, 곧이어 아름다운 에니드가 정원 안으로 들어와 제레인트 경이 기다리던 그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녀의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다다르자, 그는 그녀의 손을 매우 부드럽게 잡으며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이시여, 여기 있사옵니다. 아서왕의 원탁 기사이며 그의 궁정 기사이온 저를. 저는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 허리띠와 박차가 저를 전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믿사옵니다. 부인은 스무 살도 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되나, 저는 그 두 배에 가까운 나이라 할지라도, 부인을 바라보는 것에서 큰 기쁨을 찾사옵니다. 이제 간청하오니, 부인의 마음이 저에게 기울어 내일 대회의 저를 부인의 기사로 허락해 주시겠나이까? 저는 그때 이 '참새매'를 위해 힘쓰려 하오니, 그러한 기회에 제 마음의 부인으로 삼을 만한 다른 부인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이때 에니드는 매우 놀라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레인트 경을 오랫동안 똑바로 바라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하며, 강인하고 지극히 고귀한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았노라. 이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기울었고, 그녀는 말하되, "고귀한 영주여, 만일 당신의 높은 신분과 빛나는 명성이 나의 가난한 처지를 돌아보시겠다면, 당신을 나의 기사 투사로 받들게 됨을 기쁘게 여기겠나이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입을 옷을 사줄 돈이 없으며, 우리의 거처인 이 무너진 성채 외에는 그 어떤 명예나 재력도 가지고

있지 않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높은 신분과 높은 품격을 지닌 자를 바라보는 것은 마땅치 않나이다."

이에 제레인트 경은 그녀를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았노라. 그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가 한층 더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에니드, 네가 지금 처한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을지라도, 네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를 나의 참된 여주인으로 삼고자 하노라. 네가 이를 허락한다면, 내가 너와 네 아버지를 위해 큰 도움과 원조가 될 수 있으리라."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을 나의 참되고 충실한 기사로 받아들이노라"

〈각주: 에니드가 제레인트 경에게 자신의 허리를 감고 있는 띠를 건넨다.〉

이에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이제 내게는 당신의 정표가 없으니, 구하노니 당신의 허리춤에 두르신 띠를 내게 주시오. 내일 내가 그것을 내 팔에 감아 착용하겠사오니." 이에 에니드는 자신의 가죽 띠를 그에게 주니, 그는 그것을 자신의 팔에 채워 매었다.

이에 그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녀도 또한 그에게 손을 내주었더라. 그리하여 손에 손을 잡고 두 사람은 그 곳을 떠나 성채로 들어갔노라.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스패로호크의 기사와 제레인트 경]

[일러스트레이션] 제2장

어찌 제레인트가 참새매의 기사를 맞아 싸웠으며, 어찌 그가 백작령의 부당함을 바로잡았으며, 어찌 그가 왕의 궁궐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스패로우호크의 기사와 제레인트 경 사이의 그 유명한 전투에 대해 말하리라.

〈각주: 전투의 장소에 대하여.〉

성 아래 평탄한 들판에는 기사들이 창을 부딪치기에 알맞은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더라. 그 곳에는 그 고을의 백작과 그의 궁정을 위해 높은 의자가 마련되었는데, 그 의자는 은색 그리폰이 수놓인 진홍빛 천으로 치장되어 있었노라. (그 그리폰은 바로 그 성주의 문장이었더라.)

시합장이 내려다보이는 그 곳 근처에는 은색 참새매가 놓여 있었는데, 여섯 명의 시종들이 그것을 호위하고 있더라. 그 시종들은 모두 은색 그리폰이 수놓인 진홍빛 옷을 입고 있었노라. 참새매는 순은으로 만들어져 찬란한 햇살 아래서 매우 빛나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순은으로 만든 가로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은색 가로대는 땅에 꽂은 은색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더라.

이미 참매의 기사(Gaudeamus)는 그 아침 동안 여러 상대들과 싸워 이미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더라. 하나 둘씩 차례로 격파되었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더는 그를 상대할 자가 없자, 그는 자신의 천막 안에서 정오가 될 때까지 기다렸노라. 그 시각에 은색 참매가 그에게 수여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경기를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은 점점 초조해져 여기저기 거닐며 수군거렸으니, 이는 아무도 다시 참매의 기사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과 그의 동행들이 전투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

그러나 문득, 너른 초원을 가로질러 네 명의 작은 무리가 나타나더라. 그들 중 앞선 이는 그 고을의 노령 백작이었고, 그 곁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한 한 기사가 함께 타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백작의 부인과 그의 공녀가 따랐더라. 이들은 매우 칙칙하고 어수선한 모습을 드러냈으니, 백작은 닳고 헤진 검은 옷을 입었고, 제레인트 경은 백작이 그에게 내려준 낡고 망가진 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로써 그는 마치 옛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기이한 풍모를 드러냈더라.

거기에 있던 자들이 제레인트 경이 두른 갑옷이 얼마나 빈약하고 낡은 것인지 깨달았을 때, 웃음소리가 일기 시작하여 퍼지고 커져 마침내 우렁찬 조롱의 폭포수 같았노라. 그러나 그 고을의 백작은 이 웃음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오히려 큰 위엄을 갖추어 자리에 앉아, 웃지도 않고 미소조차 띠지 아니하였노라. 비록 그의 궁정 전체가 큰

웃음을 터뜨리며 제레인트 경을 조롱하는 광대라도 된 양 갑옷을 입은 그를 향해 박수를 치고 떠들었음이라.

그러나 제레인트 경은 이러한 모든 흥겨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앞을 지나쳐 나아갔노라. 그가 함께한 노령의 영주와, 그 백작의 부인, 그리고 에니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뒤, 그는 백작의 높은 자리 곁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노라.

"주여, 여기 서 있사오니, 이 아서왕의 궁정과 그의 원탁의 기사로서, 이 곳의 여인 에니드를 위하여, 저 은색 참새매를 두고 싸우려 하오니, 이제 청하노니, 그대여, 내가 그 싸움에 임할 허락을 주시옵소서?"

이때 더 이상 그 궁정의 귀족들과 부인들로부터는 웃음소리나 조롱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모두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으나, 그의 투구 면갑이 내려져 있어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더라.

"기사여," 백작이 이르되, "이 대결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대에게도 또한 자유롭도다."

〈각주: 제레인트 경이 참새매의 기사를 도전하다.〉

이에 제레인트 경은 백작과 그 궁정을 향해 인사를 올리고, 전장의 초지를 가로질러 가우데아무스, 즉 참새매의 기사의 천막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그의 창을 그 기사의 방패에 내리쳤다. 방패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때 참새매의 기사가 그의 천막 문간에 나타나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낡고 이국적인 갑옷을 입고 나의 방패를 창으로 치

는 자여. 너는 광대인가? 만약 그렇다면, 네 장난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나는 광대가 아니라 오직 너와 싸우러 온 자라. 그러므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내가 너를 크게 분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노라. 만약 운이 나를 따른다면, 오늘 너는 너의 난쟁이와 그가 그녀에게 저지른 무례함에 대해 한 고귀한 부인에게 속죄하리라."

"하!" 참새매의 기사라 일컫는 자가 이르되, "이는 매우 기이한 일이라. 너는 낯설고 기형적인 난쟁이를 상대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논쟁을 일으켰는가? 그러나 네의 도전에 대해서는 즉시 응전하리라." 이에 참새매의 기사가 다시 그의 천막으로 들어가 투구를 쓰고 전투를 준비하더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의 자리로 나아가, 다가올 이 격돌에 지혜롭게 대비하며 몸을 가다듬었더라.

그때 참새매의 기사가 왔으니, 빛나고 지극히 화려한 갑옷으로 온몸을 두른 채라. 그의 방패에는 은빛 참새매가 새겨져 있었고, 그의 투구 꼭대기에도 얇은 은색 수건으로 감긴 은빛 참새매가 장식되어 있더라. 그 두 형상을 본 자들은 모두 그의 외모의 장엄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제레인트 경의 기묘한 모습에 웃지 않을 수 없었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참새매의 기사를 맞서다.〉

이 두 기사가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각자의 자리에 서매, 시합장의 의전관들이 나팔을 불어 공격을 알렸고, 그들은 천둥처럼 서로 돌진하여, 말발굽이 내리찍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떨리더라.

그들은 길목 한가운데서 격돌하여, 부러진 창끝의 굉음과 함께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쳤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참새매의 기사를 쓰러뜨리니라.〉

그 격돌에서 참새매의 기사 창은 스무 조각이나 부러졌으나, 제레인트 경의 창은 견고하여 다른 기사의 방패를 뚫고 들어갔으며, 그를 안장에서 완전히 들어 올려 거친 힘으로 땅바닥에 던져, 그가 떨어지는 것을 멈추기 전에 세 번 굴렀더라.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시합자가 고대 갑옷을 입은 그 기이한 기사에게 땅에 쓰러뜨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매우 크게 불쾌해하며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 기사는 누구인가? 이 이방 갑옷을 입은 자가 우리 시합자를 쓰러뜨린 자가 누구인가? 그는 영웅인가? 호수의 랜슬롯 경인가? 아니면 그는 누구인가?”

그러나 이같이 말하고 있을 때에 참새매의 기사는 그 끔찍한 낙하의 격렬함에서 회복되어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정신이 흩어진 새떼처럼 돌아오며, 함께 그의 전복당한 수치스러운 현실도 되돌아왔다.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나 검을 뽑으며 외쳤다. “기사여, 내려와서 발로 싸우시오! 비록 당신의 창으로 나를 쓰러뜨렸으나, 아직 나를 정복하지는 못했소.”

그리하여 그곳에 모인 다른 이들도 외치기 시작하더라. “내려오소서, 기사여! 내려와서 그를 대적하소서!”

〈각주: 제레인트 경이 참새매의 기사를 상대한다.〉

이에 제레인트 경은 말에서 내려 칼을 뽑아 들었노라. 그리고 방패를 앞에 내밀고 적에게로 다가가니, 이때 가우데무스 경도 이미 그 공격에 대비하여 준비를 마쳤더라. 곧 두 사람은 격투하는 두 마리의 사나운 황소처럼 동시에 돌진하여, 다시 또 다시 칼날을 휘둘렀노라. 먼지가 일며 그들을 둘러싸고, 잠시 동안은 지켜보는 자들 중 누가 승세를 잡았는지 분간할 수 없었더라.

그러나 마침내 제레인트 경은 그토록 막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연타를 퍼부었노라. 이에 참새매의 기사라 불리던 자는 그의 공격이 약해졌고, 방패를 매우 낮게 내려 막으며 물러섰노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힘을 모아 적에게 맹렬히 내리쳤고, 가우데무스 경은 방어용 방패를 떨어뜨리고 말았노라.

그리하여 제레인트 경은 다시 온 힘을 다해 방패도 없이 드러난 적의 투구 정수리에 내리쳤노라. 그 타격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어서, 칼날이 투구의 철갑을 뚫고 두개골의 뼈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노라.

〈각주: 그가 그 기사를 물리치니라.〉

그 타격에 참새매의 기사 두뇌는 물처럼 흐트러졌고, 그의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의 허벅지는 떨렸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제레인트 경의 허벅지를 붙잡으려 했으나, 제레인트 경은 그를 피하여 앞으로 몸

을 내밀어 그의 투구를 잡아 벗겨냈다. 이어 참새매의 기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앞으로 당기며, 마치 그의 머리를 땅에 내려쳐 베어내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참새매의 기사는 죽음이 자신 위에 맴도는 것을 보고, 막힌 목소리로 외쳤다. “저를 용서하소서, 기사여,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이에 제레인트 경이 외쳐 이르되 “내가 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기사여. 다만 네가 무릎을 꿇고 내게 네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진대라.”

〈각주: 그 기사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더라.〉

“나의 이름은 참새매의 기사, 모어의 가우데무스 경이라,”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오직 네가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구이니비어 여왕에게 네 이름과 네 무공의 등급을 고하리라 맹세할진대라.”

“이 모든 것을,” 그가 이르되, “나는 온전히 약속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다만 네 난쟁이가 네와 함께 가서, 난쟁이가 모욕한 왕비처녀에게 그 무례함을 사죄하게 하리라 약속할진대라.”

“이것도,” 그 기사가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하여 행하리라 맹세하노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그 기사의 생명을 구하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일어나라, 가우데무스 경이여,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니라. 이에 가우데무스 경이 일어나 서거늘, 그의 몸은 여전히 전투의 약함으로 떨리고, 그의 머리 위 큰 상처로부터 피가 강물처럼 흐르더라. 이때 여러 시종들이 달려오자, 제레인트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데려가서 그의 상처를 돌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후에 전장의 한복판에 전령이 나타나, 제레인트 경에게 다가가 이르되 "경, 이 성의 백작께서 경을 뵙고자 하사 오시라 하셨나이다" 하니,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였더라.

이에 전령이 앞장서고 제레인트 경이 그 뒤를 따랐으며, 마침내 그는 백작과 정면으로 마주 섰더라. 백작이 그에게 이르되, "기사여, 내가 맹세하노니 너는 강인하고 무서운 기사도다. 내게 네 이름을 알려주라. 내가 누구에게 승리의 상을 줄지 알기 위함이니라."

"경,"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나는 제레인트라 불리며, 에르빈의 왕의 아들이요, 아서왕의 궁정과 그의 원탁의 기사라."

"호!" 백작이 이르되, "그렇다면 경이 그토록 쉽게 승리를 거두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로다. 경의 업적은 모든 기사도 궁전에서 명성이 높으니. 이제 내가 경께 청하노니, 경께서 내 성으로 오셔서 오늘 밤 나와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나는 이토록 유명한 기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노라. 온 세상이 경과 경의 업적을 알고 있나니."

이에 제레인트 경이 그를 매우 엄숙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르되, "영주여, 내가 어찌하여 그대가 백작의 지위를 주장하며, 전직 백작으로부터 그 지위와 재산을 몰수한 권세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한, 그대와 식탁을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백작의 얼굴이 어두워졌으나 곧 그가 말하되 "내가 만일 네가 내 성으로 함께 온다면 이 일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모두 네게 말하리라. 내 형제인 노 백작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도 함께 오리라. 우리가 연회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모든 일을 네 앞에 펼쳐 보이리니, 너는 노 백작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되, 이 사건의 권리에 관하여 네가 내린 결정에 나는 따르리라."

"그렇다면,"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우리는 당신과 함께 성으로 가겠나이다."

〈각주: 제레인트 경이 젊은 백작과 함께 잔치를 즐기더라.〉

그 밤, 제레인트 경을 기리기 위해 큰 연회가 열렸노라. 제레인트 경과 노령의 백작, 그의 백작부인, 그리고 그들의 딸 에니드는 백작과 그의 궁정 사람들이 모인 성에서 함께 좌석에 올랐노라. 제레인트 경은 백작의 오른편에 앉았고, 그의 왼편에는 노령의 백작이 앉았더라.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포도주를 앞에 둔 채 앉아 있을 때,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청하노니 이제 내 공경하는 영주여, 당신께서 행하리라 약속하셨던 바를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즉, 당신과 이 도시의 노령 영주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말하소서."

"기사 각하," 젊은 백작이 이르되, "그리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러하니이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성읍은 내 형제에게 물려주셨고, 그 골짜기 너머 저쪽의 폐허가 된 성채는 내게 남겨두셨나이다."

"이때 내 형제는 지극히 소극적인 자로서, 그 곳의 법을 바로잡거나 죄인을 징벌하며, 혹은 그곳에 기사도의 법정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이바지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각주: 젊은 백작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다.〉

"국가의 모든 일은 내 지휘에 맡겨졌거늘, 내 형제는 오직 가정적인 삶에 만족하며 국가의 일을 거의 다스리지 않았노라. 그러므로 이 고을 백성들은 나를 찾아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더라. 결국 나는 우리 모든 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노라. 이 같은 상황은 수년간 계속되다가, 마침내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백작을 왜 우리가 지지하랴?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이 영주는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느 밤에 일어나 백작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을 성채와 고을에서 쫓아냈노라. 그 이후로 그는 내가 찾았던 그 옛 폐허가 된 성채, 곧 과거 내 것이었던 곳에 거주해 왔고,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노라. 제레인트 경이여, 이것이 우리 사연의 참된 이야기니라."

이때 제레인트 경이 노령의 백작을 돌아보며 이르되 "백작 각하, 청컨대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실인가?"

노령의 백작이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진실한 듯하오이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내가 내리는 판결은 이러하니라. 현직 백작은 그가 과거에 그러했듯 이 고을을 다스리게 하되, 그는 이 고을의 모든 수입금의 절반을 노령의 백작에게 바쳐야 하노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노라. 또한 내가 추가로 명하노니, 이 고을을 다스리는 백작은 그가 후계자로 선택할 후손이나 승계인에게 그 통치권을 물려주어야 하노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두 백작의 운명을 선포하더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자신의 판결을 내렸으되, 그가 한 말은 모든 이에게 만족스러웠더라. 그는 그 곳에 여러 날을 머무르며, 그 동안 에니드를 많이 보았고 그녀를 볼수록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그때 어느 날, 두 사람은 낡은 성의 정원을 혼자서 거닐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내 일생 동안 많은 아름다운 부인들을 보았노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토록 귀하게 여겨지는 이를 본 적은 없었노라. 이제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내게 네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노라 말하라.” 그녀가 이르되, “예, 나리, 나리께서는 큰 은총을 입었나이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내가 그토록 은총을 입었는가? 즉, 내가 너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 나의 아내로 삼으리라는 것인가?” 에니드가 이르되, “나리, 나리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리의 아내가 되어 나리께서 명하시는 곳 어디로든 따르리이다. 진실로 이제 내 마음속에는 나리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나이다.”

이에 제레인트 경은 그녀에게 입맞추었으니, 이로써 그들의 혼약이 성취되니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에니드와 약혼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인하였다. 혼인식 이전에 그 젊은 백작이 말하되, "제레인트 경이시여, 신부께서 혼인의 날에 입으실 금실로 수놓은 비단을 마련하여 드리기를 청하노라." 하니 제레인트 경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라, 영주여. 내가 그녀를 얻었을 때 그녀는 이 평범한 푸른 천 옷을 입고 있었노라. 나는 그녀를 아서왕의 궁정으로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데려가 구이니비어 여왕께 바치리라. 그리고 여왕께서 그녀를 위해 마땅한 새 의복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노라."

이에 젊은 백작이 고개를 숙이며 이르되 "네가 말한 바와 같이 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제레인트 경은 혼인식을 치렀고, 결혼 다음 날 아침 그와 그의 부인은 그 마을을 떠났다. 그는 안장에 앉은 부인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말의 고삐를 아서왕의 궁궐을 향하여 돌린 뒤, 그렇게 길을 떠났더라.

* * * * *

이제 우리는 구이니비어 여왕과 왕의 궁전으로 돌아가노라.

〈각주: 가우데무스 경이 구이니비어 왕비의 궁정에 도착하더라.〉

제레인트 경이 떠난 지 사흘 후, 왕비께서 사냥을 나가셨고 그녀의 궁녀들이 함께하였다. 그중에는 난쟁이가 따르는 기사의 이름을 물었던 젊은 낭자도 있었다. 그들이 말에 올라타고 수군수군 수다를 떨며

웃음을 터뜨릴 때, 맑은 목소리로 지저귀는 빛깔 곱고 찬란한 새떼처럼 떠들며 달리던 중, 그들이 마주 오는 행렬을 보게 되었다.

먼저 그들은 여러 하인이 메고 오는 안좌를 보았는데, 그 안좌에는 다친 기사가 누워 있었다. 안좌 뒤에는 기사의 말이 따랐고, 그 말은 빛나는 그의 갑옷을 싣고 있었으며, 한 시종이 말줄을 잡고 이끌었다. 말 뒤에는 적포도색 옷을 입은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흰 패프레이를 타고 따랐고, 그녀 뒤에는 작고 기형적인 난쟁이가 있었다.

이 무렵 그 무리가 조금 더 가까이 오매, 구이니비어 왕후는 난쟁이의 얼굴을 또렷이 알아보고, 그가 바로 며칠 전 자신의 시녀를 쫓아낸 그 난쟁이임을 깨달았노라. 이에 왕후는 앞서 난쟁이를 만나던 하인 중 한 명에게 물으시되, “저자가 며칠 전 당신을 쫓아낸 그 난쟁이가 아니오?” 하시니, 시녀가 아뢰되, “그렇사옵니다, 폐하.” 하거늘, 왕후가 이르시되, “그렇다면 그 기사의 주인이 제레인트 경과 마주쳐서 그 격투에서 패배한 듯하오. 이제 나를 찾아오려 하는 것이오.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합시다.” 하시더라.

그리하여 왕비와 그 궁중 사람들은 재촉하여 나아갔고, 마침내 수레 곁에 이르렀더라. 이때 왕비가 이르시되, “경이시여, 내가 청하노니 내게 말하시오, 경은 무슨 병고에 시달리는고?”

그가 이르되, “부인이시여, 나는 전장에서 상처를 입은 한 기사로소이다.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게 아시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구이니비어 왕비를 찾을 수 있겠는가?”

왕후께서 이르시되 “경이여, 나는 곧 나니라.” 기사가 이르되 “부인아, 경이 내게 진실로 말하는 것이오, 아니면 나를 장난하는 것이오?” 왕후께서 이르시되 “경이여, 이는 진실이니이다.”

이에 가두아무스 경은 가마 위에서 팔꿈치에 기대어 몸을 일으키며 이르되, “부인, 저는 제레인트 경의 명을 받아 왔사옵니다. 그가 전장에서 저를 무찔렀사오며, 그의 명을 받아 제가 무어스의 가우데무스 경이라 알리옵고, 그의 명을 받아 저의 난쟁이가 무례를 범한 그 처녀를 찾게 되었사옵니다.”

구이니비어 여왕이 이르시되, “이 처녀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때 가우데무스 경이 낭자에게 이르되, “아름다운 낭자여, 내가 당신의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나의 난쟁이가 지은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노라.”

이에 구이니비어 왕후의 마음은 그 기사에게 불쌍히 여겨짐으로 움직여, 그에게 이르시되 “무어스의 기사 가우데무스 경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난쟁이는 그녀와 나에 의해 완전히 용서되었나이다. 이제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상처를 살피고 고칠 성으로 곧장 오시옵소서.”

이에 왕비가 앞장서서 왕의 성으로 향하였고, 모두 그 뒤를 따랐노라. 그들이 성에 이르자, 왕비는 상처 입은 기사가 밝고 쾌적한 방의 침상에 눕도록 명하였고, 왕의 의사를 불러 그의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하게 하였노라. 그리하여 가우데무스 경은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사흘 또는 나흘이 지났다.

〈각주: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가 아서왕의 성채에 도착하더라.〉

어느 아침, 구이니비어 여왕이 자신의 누각 창문 너머로 내다보았을 때, 한 기사가 성채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의 안장 앞에는 금발의 아름다운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여왕은 자신의 시녀들을 부르며 물었다. "저기서 다가오는 그 기사는 누구인가?" 시녀 중 한 명이 대답하였다. "저분은 제레인트 경이신 듯하옵니다." 여왕이 이르시되, "그렇도다, 나도 그가 맞다고 생각하였노라. 서둘러 그를 맞이하자."

이에 그녀와 그 여종들이 재촉하여 성문의 입구에서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를 맞이하였노라. 왕후가 이르되 "제레인트 경이여, 그대 곁에 있는 이는 누구인가?" 하거늘, 그가 이르되 "부인, 이는 제 아내이오며, 저는 이제 막 그녀와 혼인하였나이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푸른 천으로 옷을 입고 있던 대로, 저를 이 곳에 데려왔사오나, 그대의 자비로 그녀를 그대의 신분에 어울리게, 즉 백작의 딸이자 기사왕의 부인, 그리고 제 아내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으로 입히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왕후가 이르되 "환영하노라, 부인이시여! 내가 너를 환영하노라!" 하고는 곧이어 에니드가 말에서 내리도록 보좌하였더라. 그 후 그녀를 자신의 처소로 모시고 가 거기서 그녀에게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옷가지로 입혔더라. 은과 금으로 수놓은 그 의복 속에서 에니드

의 얼굴은 한여름 밤, 그녀를 에워싸지만 가리지 않는 가느다란 금빛 구름 사이로 빛나는 달의 얼굴처럼 빛나니라.

이와 같이 아서왕의 궁정에 아름다운 에니드가 모셔졌더라.

[일러스트레이션: 제레인트 경이 잠들어 있더라]

[그림] 제3장

어떻게 제레인트 경이 엔이드 부인과 함께 캐멀롯에서 살았는가. 어떻게 그가 그녀의 진실을 의심했는가. 어떻게 그의 의심은 확인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녀를 데리고 모험을 찾아 떠났는가. 또한 그들이 숲에서 세 가지 놀라운 모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한 남자가 자기 나이 절반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니라. 그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바를 그 여인은 생각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녀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바를 그는 생각하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그의 연륜에 걸맞게 진지했고, 에니드는 그녀의 청춘에 어울리듯 경쾌하고 우아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즐겨하던 수많은 유희와 낙천적인 놀이들이 많았거늘, 그는 멀리서, 때로는 불쾌한 눈초리로 그것들을 지켜보았노라.

아서왕의 궁정에는 페레그랜스 경이라 이름난 한 젊은 기사가 있어, 그는 코른월의 왕 러드의 아들이었노라. 이 고귀한 왕족의 젊은 기사는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 있었더라. 그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넘쳤으며, 굵고 검은 눈썹과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노라. 그는 언제나 손에 잡히는 모든 유희와 놀이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

어느 때인가, 그와 에니드는 여러 가지 모임과 유희에 함께하며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더라. 제레인트 경은 그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어 눈치 채이는 것을 자존심 때문에 꺼렸으나, 실상은 이를 잘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이 크게 움직였노라.

그는 때때로 혼자 중얼거리곤 하였노라. "슬프도다, 나의 사랑스러운 공녀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페레그랜스 경처럼 그녀와 잘 어울리는 자에게가 아니라, 나의 나이와 검소함에 묶여야 하느냐!"

그러나 제레인트 경은 에니드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을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노라. 그리하여 그는 그녀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며 물러났더라.

이 일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에니드 부인은 지켜보았노라. 때때로 그녀의 주군에게 어떤 곤란이 닥쳤거나, 혹은 그녀가 그를 불쾌하게 했는 듯이 여겨졌으나, 그녀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불쾌함을 주었는지 알 수 없었노라. 그녀에게는 페레그랜스 경과 같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실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것은 그녀로서는 자연스럽고 마땅한 행위였기 때문이니라.

〈각주: _제레인트 경이 깊은 사색에 잠겨 앉았더라._〉

그때 제레인트 경이 이러한 일들을 묵상하며 앉아 있더라. 그가 앉아 있자 그의 눈은 성왕의 성채 밖을 바라보았노라. 그의 시야에는 넓고 비옥한 초원과 들판, 그리고 그 아름다운 평야를 마치 순수하고 빛나는 은 리본처럼 감돌고 있는 강이 펼쳐졌더라. 그 시각 해는 비스듬한 광선을 땅에 쏘아, 이 아름다운 전경이 마치 순수한 황금빛에 젖어 있는 듯하게 보였노라. 수평선 너머에서는 거대한 구름들이 푸르고 빛나는 하늘로 기어올라, 서로의 어깨 너머로 내다보며 평화로운 땅을 내려다보고 있더라.

이 모든 것을 제레인트 경의 눈이 바라보았으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영혼의 시선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려져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였고, 거기서 그는 어둠과 침울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노라.

그곳에 앉아 있던 그에게 에니드 부인이 찾아왔으니, 그녀는 그를 보았으나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가 그곳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양 행동하였더라.

〈각주: _에니드가 제레인트 경에게 오니라._〉

그때 그녀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녀는 가느다란 희고도 아름다운 팔을 그의 목에 둘렀고, 손가락을 서로 꼬아 맞물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이르되, “사랑하는 내 주님, 내가 어찌하여 주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는지,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태도가 더 이상 저를 향하여 처음 이곳 궁정에 왔을 때와 같지 않사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매우 부드럽게 말하되, “에니드, 너는 내게 조금도 실례한 바 없노라” 이르니라.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남편이여, 무엇 너를 괴롭게 하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근심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하되 “에니드, 내가 너에게 한 말씀 드리노라” 하며, 그의 손에 묶여 있던 그녀의 두 손을 풀고 앉아서 그 중 하나를 자신의 손에 쥐고 이르되 “때때로 어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느니라. 나도 또한 나의 유년기와 청춘의 시절을 보낸 고향을 사랑하노라. 그곳에 내 아버지는 존귀하게 거하시고, 내 어머니도 계시니라. 내가 그곳을 본 지는 이미 많은 해가 지났노라. 이제 나는 그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녀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저곳으로 가옵시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에니드여, 너는 떠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인 왕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날 허락을 내려주시는 대로, 즉시 그렇게 하리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아서왕께 잠시 궁정을 비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고, 아서왕은 그의 청을 받아들여 물러가도록 허락하셨더라.

〈각주: 두 사람은 제레인트 경의 성으로 떠난다.〉

그 날 이튿날,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는 아서왕의 궁정을 떠나, 소수의 고귀한 수행원들과 함께 제레인트 경의 아버지의 성채, 곧 아마도라

(Amadora)라 불리던 곳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쉬지 않고 세 날의 여정 끝에 그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들은 여러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그 동안 사냥과 매사냥, 그리고 검술 시합이 이어졌다. 그 날들은 가능한 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그의 성에서 유희를 즐기더라.〉

그러나 그 동안 제레인트 경은 기사다운 대담함이나 모험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차 아마도라의 백성들이 서로 이 일을 가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 이르되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공자, 곧 제레인트 경은 정녕 그의 부인을 두고 미혹되었도다. 그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옛적에는 그가 그 기쁨을 누렸으나, 그 기쁨의 때가 지나면 그는 많은 기사다운 대담한 업적을 행하였었노라. 이로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노라. 이제 그가 그러한 어떤 일에 임하는 때는 언제인가? 결코 없노라. 그는 사냥이나 매사냥, 혹은 투기에서 항상 첫 자리에 있었으나, 그의 청춘의 영광은 이제 그에게서 떠나갔노라. 그러므로 그는 마치 그의 머리를 아내의 무릎 위에 두고 영원히 누워 있는 듯하도다."

이처럼 백성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마침내 이러한 말들, 혹은 이와 비슷한 말들이 에니드 부인의 귀에 닿아 그녀를 몹시 괴롭혔더라.

〈각주: 에니드가 제레인트가 잠든 그를 바라본다.〉

어느 여름날 아침, 그녀는 일찍이 잠에서 깨어나 보았더라. 그 때 로드 제레인트가 그녀의 곁 침대에 누워 있더라.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그 거대한 가슴과 팔과 어깨를 드러낸 채, 부드러운 공기의 감촉을 느끼며 누워 있더라. 그녀가 그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위대하고 힘찬지, 그리고 그 힘과 기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

그녀는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더라. 얼마나 가늘고 희며,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지라.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더라. “말들이 하듯, 나의 희고 연약한 사지가 나의 남편을 그가 속한 그 위대한 모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을 수 있다는 말이 진실인가? 나의 팔이 그를 좁고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둔다는 말이 진실인가? 슬프도다! 여인의 사랑이 활동적인 그의 일생에서 모든 목적과 야망을 앗아갈 수 있다는 말이 진실인가? 아니로다. 다른 부인들과 결혼한 많은 기사들이 여전히 모험의 광장에서 고결한 기사로 남아 있노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 주군의 연약함은 실로 내게 있도다.”

이때 그녀가 매우 깊게 한숨을 쉬었더라. 그 깊은 한숨소리에 제레인트 경이 잠에서 깨어나, 눈은 여전히 감은 채 누워 있더라. 그러자 그녀가 속삭이듯,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이르되. “내가 잘못되었노라. 나는 이 고결한 영웅에게 진정한, 올바른 부인이 아니로다.”

〈각주: 제레인트 경이 그녀의 말을 듣더라.〉

이때 제레인트 경은 눈을 감고 누운 채, 그녀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던 마지막 말들을 엿듣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진정한 아내가 아니며, 자신의 배신자임을 자백하는 듯이 들렸다. 이 생각은 마치 갑

작스럽게 빛나며 깊게 찔러 들어온 단검과 같아 그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운 채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녀가 거짓된 자라니, 내가 아서왕의 궁전에서 그녀를 데려온 것이 너무 늦었던 것인가? 불행한 나!"

이에 그는 눈을 뜨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으니, 그녀도 그가 깨어났음을 보고는 그의 눈으로 미소를 보내었더라. 그러나 그는 그 미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부인, 여기 계시오?"라 하였노라. 그러자 그녀의 눈빛에서 미소는 천천히 사라졌으니, 이는 그녀가 그가 노여움을 품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더라.

그때 그가 갑자기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소서, 부인, 옷을 갖추소서." 하니 그녀가 그의 명령대로 행하더라. 그는 또한 자신의 부분에서 자신의 완전한 갑옷을 갖추었으니, 그 갑옷은 방의 돌벽에 예전에 빛나고 있었더라.

그가 이같이 차려입자 그녀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녀가 이르되, "어디로 하시오, 주님?"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두 사람은 함께 그 방에서 나와, 그는 계단을 내려가 마당으로 가고, 그녀는 그를 따라 마당에서 마구간까지 갔으나, 그 동안에도 그는 그녀에게 한 마디도 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는 아직 새벽이 깊어 해가 막 동녘 하늘로 둥글고 붉게, 그리고 낮의 영광을 가득 안고 솟아올랐을 때라. 새들은 힘껏 지저귀고 있었으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잠들었더라. 공기는 서늘하고 온화하

여 지극히 쾌적하였고,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는 성 아래로 흐르는 강물에서 멀리 들려오는 소리가 가득 찼으니, 그 강물은 푸르고 미끄러운 바위들과 이끼 낀 협곡을 통해 거세게 울부짖으며 내려가고 있었더라.

제레인트 경은 마구간으로 들어가니, 에니드는 그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며 마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마구간에서 나와, 한 손으로는 에니드의 말의 고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말의 고삐를 잡고 이끌었다.

그가 에니드에게 이르되 "부인, 말에 오르소서" 하고, 그의 손을 내밀어 그녀를 안장 위로 매우 가볍게 들어 올렸노라. 그 후, 그는 차례로 자신의 말에 올랐더라.

〈각주: _그들은 성채를 떠난다._〉

그가 안장에 몸을 일으켜 앉자, 그의 아내 에니드 부인에게 이르되, "부인, 오늘 하루와 아마도 여러 날 동안 내가 아직 내게 힘과 생명이 남아 있음을, 그리고 내가 여전히 강인하고 유능한 기사로서 내 젊은 시절의 전성기 때나 다름없이 어떤 여인의 사랑에도 손색없음을 증명하려 하노라. 너는 앞서 나아가 길을 인도하라. 나는 너를 따르리라. 그러나 명심하라. 내가 말을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단 한 마디도 말하지 말라. 그저 너의 뜻하는 대로 곧장 나아가라."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따르리이다" 하더라.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간파하지 못한 채 성을 떠나 달렸으니, 그 시간에는 성문 앞에 어떤 호위병도 서 있지 않았고, 문지기는 그의 초소에서 졸고 있었기 때문이라.

* * * * *

이때 제레인트 경의 명에 따라 에니드 부인이 그 앞을 먼저 달리고, 그 자신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르니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몇 리를 더 나아갔다. 그 사이 해는 매우 둥글고 충만하게 떠올라 뜨거운 빛을 땅에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들은 짙고 어두운 숲의 외곽에 다다랐고, 그들이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레이디 에니드는 나뭇잎 사이로 갑옷의 빛이 번뜩이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써 그녀는 그들 앞에 어떤 위협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그 장소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세 명의 무장한 남자를 보았고, 곧이어 그들이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세 명 중 우두머리가 다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좋은 운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도다. 여기에는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진 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도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부인이 있도다. 이제 우리가 셋으로 하나를 상대한다면, 그가 우리의 공격을 견딜 가능성은 적으니, 그와 그의 말과 갑옷, 그리고 그의 부인은 전장의 권리에 따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각주: 에니드가 강도 두목의 말을 엿듣는다.〉

이 말씀들, 혹은 이와 비슷한 말들을, 에니드 부인은 강도들의 우두머리가 함께 있던 두 다른 자들에게 하는 것을 엿듣게 되니, 그녀가 스스로 말하되, "여기 내 사랑하는 영주께 큰 위태로움이 닥쳤도다. 글쎄, 내가 그에게 경고한다면 그는 나를 매우 노여워하시며, 심지어 그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설령 이것이 그러하다 할진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리이까?" 그리하여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말을 돌이켜서 서 제레인트 경께로 다시 달렸더라.

〈각주: 그녀가 제레인트 경에게 매복에 대해 일러주니라.〉

그가 그녀의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매우 분노한 듯 보이며 이르되, "부인, 무엇께서 당신을 괴롭게 하옵니까?" 그녀가 말하되, "사랑하는 영주여, 제가 말씀드려도 좋사옵니까?" 그가 이르시되,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그 허락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녀가 말하되, "영주여, 저 숲 가장자리에서 저는 세 명의 악의를 품은 자가 덤불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곧 당신을 습격할 계획이라고 말함을 엿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들의 존재를 경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왔사옵니다."

이에 제레인트 경은 눈썹을 찌푸려 그 눈이 밝은 녹색 빛으로 빛나게 하더라. "부인이여," 그가 이르되, "아마도 당신은 내가 세 명의 남자들의 공격 앞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만남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머물며 제 명령을 어긴 불순종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제 허락 없이 저에게 말하지 말라는 제 명령을 깨뜨리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제레인트 경은 투구의 안면을 닫고 잠그고, 창을 손에 들고 숲 가장자리로 나아갔더라.

이때 제레인트 경이 숲 가장자리 가까이 다다랐을 때, 숨어 있던 세 명의 무장한 자들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향해 전격적으로 돌진하였다. 이에 제레인트 경도 또한 전마에 박차를 가하며 그들을 향해 맞섰다.

그들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의 격렬함은 천둥소리보다도 더 위력적이었으니, 세 명의 창이 모두 제레인트 경의 방패를 강타하였으나, 그는 창을 적절히 돌려버려 세 자루 모두 수많은 조각으로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제레인트 경의 창은 정면으로 향했던 대상에게 그대로 관통하여, 방패를 뚫고 갑옷을 관통하여 마침내 그의 몸속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충격으로 그는 안장에서 날아올라, 말 뒤로 창 한 자루와 팔 한 자루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죽어 떨어졌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강도들을 처단하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창을 내던지고 빛나는 검을 뽑아 들었노라. 그는 말을 급선회시켜 검을 들고 나머지 두 악당에게 돌진하였더라. 그는 안장에서 몸을 일으켜 외치되 "하, 악당아!"라 하고, 이에 한 명을 베어 내렸노라. 이어 몸을 돌려 다시 외치되 "하, 악당아!"라 하고, 그 소리와 함께 나머지 한 명을 베어 내렸노라. 각기 한 번의 검타에 쓰러졌더

라. 이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오랫동안 그 땅을 뒤덮고 있던 세 악당을 모두 베어 죽였노라.

제레인트 경이 이 일을 마치고 난 뒤, 그는 칼을 닦아 칼집에 꽂았다. 이어 쓰러진 자들 각각의 갑옷을 벗겨내어, 그 갑옷이 속한 말의 안장 고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세 필의 말에 달린 고삐를 모두 하나로 묶어, 그가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에니드가 앉아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제레인트 경이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이 세 필 말의 고삐를 받으시오. 그리고 앞서 가던 대로 앞서 나아가시오. 다만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말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시오. 내가 한 번은 용서하였으나, 두 번은 용서할 수 없노라."

이 말에 에니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세 필의 말의 고삐를 고운 흰손에 쥐고서는 숲속으로 나아가 말들을 이끌고 갔으며, 제레인트 경은 이전과 같이 그 뒤를 따랐더라.

이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낮이 될 때까지 계속 나아갔으며, 그들 앞이나 뒤, 혹은 좌우에 오직 숲만 보였더라.

〈각주: 에니드는 네 남자의 말을 엿듣는다.〉

이와 같이 그들은 거의 그 숲의 한가운데에 다다랐는데, 그 곳에서는 높은 대로가 갑자기 꺾여 두 개의 높고 매우 가파른 절벽 사이로 좁은 협곡으로 들어섰다. 이 곳에서 에니드는 멀지 않은 곳에, 매우 흉악한 네 명의 무장한 기병들을 보았는데,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는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기 우리에게 좋은 전리품이 오고 있구나. 아름다운 처녀 한 명과 세 벌의 훌륭한 갑옷, 그리고 세 필의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는 무장한 사내는 단 한 명뿐이다. 그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에니드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죽을 수는 오직 한 번뿐이라. 비록 내 주군이 나의 명을 어긴 죄로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손에 죽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나는 돌아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리라.”

이에 그녀가 말을 돌려 뒤로 제레인트 경에게로 향하니, 그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찡그렸다. 그러나 그녀가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주님, 말씀드릴 허락을 얻었사옵니까?”

그가 매우 비통한 어조로 이르되, “부인, 당신이 말씀하시려 할 때에 나의 허락이 필요치 않음을 보았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각주: 그녀가 제레인트 경에게 말하더라.〉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뢰옵고자 하나이다. 저편에 매우 강력하고 완전히 무장한 네 명의 사내가 있사오니, 그 중 우두머리가 동무들에게 이르기를, ‘그를 죽이고 그의 말과 갑옷과 이 처녀와 세 필의 말과 갑옷을 우리 뜻대로 나누자’ 하더이다.”

"이것이 네가 내게 말하려는 전부냐?" 그가 이르되, "말을 하고자 하는 네 기쁨이 크니 네가 멈출 수 없구나. 여기 머물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 이 자들을 상대하여 너의 길을 깨끗이 하리라."

이에 그는 투구의 얼굴 가리개를 닫고 잠그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그는 적들을 맞서기 위해 전진하였더라.

그때 갑자기 네 명이 좁은 길로 인해 두 명씩 나란히 타며 그에게로 돌진해 오는 것이 보였다.

이에 제레인트 경이 그의 전마를 몰아 돌진하매, 두 사람은 큰 굉음과 소란 가운데 서로 부딪쳤으니, 그들의 창이 방패의 한가운데를 강타하였더라.

그러나 그 격투에서 두 사람의 창은 모두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으나, 제레인트 경의 창만은 부러지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 창은 명중시킨 방패를 뚫고 지나갔고, 갑옷을 관통하여 그 갑옷을 입은 자의 몸을 찔렀으므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 땅에 쓰러졌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창을 던져 버리고 검을 빼들었으며, 안장에 서서 일어나 그 상대에게 거세고도 가혹한 일격을 가하니, 그 타격은 방패와 투구를 찢어뜨리고 두개골을 관통하여 뇌수까지 파고들었더라. 그리하여 이같이 치명상을 입은 자는 가장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내가 죽었노라! 내가 죽었노라!" 하고 외친 뒤, 곧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말머리를 급히 돌리며 말의 옆구리에 채찍을 가해, 동지들이 얼마나 쉽고도 빠르게 쓰러뜨려졌는지 경악하여 그 자리에 굳어 서 있던 나머지 두 명을 향해 우레와 같은 기세로 돌진하더라. 그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들 위에 덮쳤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르니라. 이때 한 명의 방패 틈을 발견한 제레인트 경은 그에게로 급선회하여 온 힘을 다해 내리쳤고, 그의 칼날은 그 남자를 어깨에서 명치까지 갈라버렸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네 사내를 베어 죽이니라.〉

그때 네 번째 악당도 동료가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이미 죽음은 그를 뒤따르고 있었더라. 그가 보니 제레인트 경이 안장에 서서 검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곧이어 그 검이 천둥번개처럼 내려찍혔고, 그 또한 뇌수가 녹아 죽음으로 떨어졌노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마상에서 내려 거친 칼날을 닦아 다시 칼집에 꽂았노라. 그리고 시체들에서 갑옷을 벗겨내어, 각각의 갑옷을 그 주인에게 마땅한 말 위에 묶었노라. 그 후 네 필의 말 고삐를 서로 연결하여 모두 에니드에게 맡기며,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아직 기사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힘과 심지어 젊음조차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네게 증언하노라. 이제 네가 가진 세 필의 말과 이 네 필의 말을 모두 거느리고, 예전처럼 내 앞서 가라. 일곱 필의 말을 이끄는 것이네.”

"그러나 이번에는 나를 돌아보며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전장의 격분이 내게 가득 차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자제하기 전에 무모하게도 네게 칼을 휘둘러 다칠까 두렵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그때 그녀가 제레인트 경 앞에 앞서 가니라. 비록 그녀는 침묵하며 달렸으나 그 마음은 무거워졌으니, 이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 주군과 같이 높고 높으신, 그리고 고귀한 영주를 지닌 여인이 나보다 앞서 있었으랴?"

〈각주: 에니드는 다섯 강도들의 말을 엿듣는다.〉

이때 기쁨에 들떠 나아가던 에니드는 그 근처 덤불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문득 듣게 되었다.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에게 이르되, "보라! 아름다운 낭자가 일곱 필의 좋은 말들을 이끌고 오느라. 각기 호화로운 갑옷을 싣고 있고, 이 모든 행렬을 호위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로다. 우리 다섯 명이 여기에서 매복하여, 앞뒤로 그를 습격하자. 그리하면 그를 쉽게 제압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노라."

이에 에니드가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 주군이 그 말대로 행하여, 내가 세 번째로 그에게 말하여 거역한다면, 그 성내심에 칼로 나를 치실지니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랴? 그의 분노를 사랑 없이 견디는 것보다, 그의 손에 죽는 것이 낫도다."

그때 그녀가 말머리를 돌려 그에게로 돌아왔고, 가까이 다다르자 이르되 “주여,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허락하시옵소서” 하였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이번에는 반드시 주께 말씀드려야 하옵니다. 다른 길이 없사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런 것 같구나. 그렇다면, 계속 말하라.”

〈각주: 그녀가 제레인트 경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를 일러준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내가 말씀드려야 할 바가 있사오니, 주님 앞길에 주를 멸하려 하는 자 다섯이 매복하여 있나이다” 하더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너의 할 말이 이것뿐이뇨?” 하니 그녀가 대답하여 이르되 “소인, 옳습니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잠시 여기 네 말들과 함께 머물라. 내가 너의 길을 닦아드리기 위해 홀로 앞서가리라.”

이에 에니드는 그 곳에 머무르며, 제레인트 경은 그를 위해 준비된 매복지점으로 나아갔다.

그가 그 매복 지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다섯 명의 사내가 모두 그를 향해 그리고 그를 에워싸며 튀어나왔더라.

그때 제레인트 경과 그를 습격한 자들 사이에서 크고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노라. 그들 사이로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그는 때로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였노라. 그의 검이 번쩍이는 빛은 번개 같았고, 그의 매서운 타격마다 거칠고도 두려운 전쟁의 함성을 내질렀노라. 이는 이제 그의 마음속에 전장의 격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노라. 처음에는 다섯 명이 그를 공격하였으나, 곧 네 명, 세 명, 두 명으로 줄어든 끝에 마지막에는 한 명만이 남았노라. 그 자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노라. "저를 용서하소서, 영주여! 저는 항복하나이다."

〈각주: 제레인트 경이 다섯 사내를 베어 죽이니라.〉

〈각주: _에니드가 열두 필의 말을 이끈다._〉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그의 머리를 두 동강으로 갈라 죽음을 당하게 하매 그가 땅에 쓰러져 죽었더라. 이같이 다섯 적을 모두 무찌른 후, 제레인트 경은 헐떡이며 그의 검을 닦아 칼집에 꽂았고, 다섯 시체의 갑옷을 벗겨 각기 말에 입혔으며, 다섯 말의 고삐를 모두 묶어 다른 말들의 고삐에 연결하여 열두 마리를 에니드의 손에 맡기며 이르되 "이들을 인도하여 앞서 가라,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 * * * *

그들이 숲 속을 지나 길을 계속 가니, 해가 저물어 황혼의 회색빛이 내려앉기 시작하더라. 에니드는 열두 필의 말을 애써 이끌었다. 이를

본 제레인트 경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으나, 그들은 여전히 말을 몰고 전진하더라. 이때 어둠이 내리고 달이 떠올랐으니, 매우 밝고 또렷하며 동그라미 달빛이 나무 꼭대기를 은빛으로 물들여, 나뭇잎 그림자 사이사이에 은빛 자국을 땅 위에 드리웠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이 에니드를 불러 이르되, "부인, 우리가 오늘 밤이 숲을 벗어나기는 어려우리라.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쉬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말해도 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더라. 그녀가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여인아, 기사가 외롭게 여행하는 경우, 오늘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이 지내는 일이 종종 있느니라.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이기도 하지. 그것이 충분하리라."

그리하여 그녀는 침묵하며 한숨을 쉬었으니,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

그사이 제레인트 경은 나뭇잎을 모아 일종의 침상을 만들고, 그 위에 망토를 깔아 놓았더라. 그리고 에니드가 지극히 피곤해 있음을 보고, 그녀의 고단함에 대한 연민으로 말하되, "여기 누우소서, 부인이여. 내가 밤새도록 지킬 것이오."

〈각주: 그들이 그 밤을 숲에서 지냈다.〉

이에 에니드는 나뭇잎으로 만든 침상에 몸을 눕혔고, 지친 몸으로 매우 아팠노라. 잠시 동안 그녀는 멀리 서 있는 자신의 주군, 제레인트 경을 바라보았노라. 그녀는 여름 밤의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그의 광택 나는 갑옷에 달빛이 반짝이고 빛나는 것을 보았노라.

또한 말들이 제자리에 서서 움직일 때 나는 소리와 발굽 소리를 들었노라. 멀리서 울려오는 밤꾀꼬리의 노래도 가끔 어둠 속에서 들렸고, 가끔은 고요한 속삭임 같은 침묵이 찾아오기도 하였노라. 이때 모든 소리와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지자, 어둠은 사라졌고 그녀는 잠들었노라.

* * * * *

이것이 그 여정의 첫날이었노라. 이제 그 이튿날의 일을 읽고자 하거든, 이하에 이어지는 바를 읽으라. 이는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 내가 기록한 바니라.

[그림: 에니드가 백작과 대화하는 모습]

[일러스트레이션] 제4장

<각주: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가 숲에서 나와 한 백작의 땅으로 나아감. 그들이 한 여관에 머물렀으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제레인트 경이 일어나 에니드를 깨우니라. 그녀의 배고픔이 몹시 컸으나 그녀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아니하더라. 그 후 그녀는 말에 올라타 열두 마리의 말의 고삐를 손에 쥐고 떠나가니, 제레인트 경이 전날과 같이 그녀를 따랐더라.

〈각주: 제레인트와 에니드가 다시 벌판으로 나온다.〉

잠시 후, 숲속의 나무들은 드문드문해졌고, 햇살이 가지 사이로 더 자유롭게 비추어 들었다. 또 잠시 후, 숲의 나무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하여 에니드와 제레인트는 숲을 벗어나 다시 넓은 평야로 나아왔더라.

길 좌우에는 울타리가 늘어섰고, 그 너머에는 들판과 넓은 시야가 펼쳐져 있었다. 초원에서는 건초를 베는 이들이 일하고 있었다.

〈각주: 그들이 강을 건넜다.〉

그들 앞에 강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그 강을 향해 길을 나섰다. 강에는 건널목이 있어 그들은 강물로 들어섰고, 모든 말들이 고개를 숙여 물을 마셨다. 이후 그들은 건널목을 건너 강 반대편의 가파른 높은 언덕을 올랐다.

이 언덕 꼭대기에는 금발의 날씬한 청년이 서 있더라. 청년의 어깨에는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우유가 담긴 항아리가 들려 있었노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그 청년에게 말을 걸다.〉

제레인트 경이 그 젊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름다운 젊은이여,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젊은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시면 보실 수 있는 마을에서 왔나이다.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감히 여쭙고자 하나이다. 주께서는 어디에서 오셨나이까?”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우리가 저 숲에서 왔노라. 어제 종일 숲을 지나갔고, 밤에는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었노라”

“그렇구나,” 그 청년이 이르되, “그곳에서 얻으신 대접이 그리 좋지 못했을 것이옵고, 오늘 무척 시장하실 것이옵니다.”

“이 부인에게 먹을 것을 구해 드리리다. 가능할진대,”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청년이 대답하되 “그리하면 우리는 뜻밖의 인연이로다. 이 주머니에 내가 풀 베는 이들의 아침으로 가져가는 빵과 치즈가 있고, 이 항아리에는 그들이 아침으로 마실 우유가 있노라. 너희가 이를 나누어 먹기를 원하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접대하리라.” “감사하노라, 아름다운 벗이여,”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대의 환대를 기꺼이 받으리다.”

〈각주: 그 청년은 그들을 먹이더라.〉

이에 그 청년은 에니드 부인이 안장에서 내리도록 도왔고, 그녀와 제레인트 경은 능금나무 그늘 아래 길가에 자리하였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의 가방에서 흰 빵과 치즈를 꺼내 그들에게 먹였고, 항아리에 담긴 우유를 마시게 하니, 두 사람은 크게 상쾌함을 얻었더라.

두 사람이 이같이 배부르게 먹은 후, 청년이 이르되 “이제 경의 허락을 받아, 타작꾼들을 위한 양식을 더 구하러 떠나오리다”라 하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그 청년에게 말과 갑옷을 주었더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나는 네가 와서 있는 고을로 돌아가 우리에게 그 곳의 가장 좋은 숙소들을 마련해 주기를 청하노라. 또한 나는 네가 이 작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부인이 인도하는 말들과 갑옷들 중 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 말과 갑옷 한 벌을 선택하길 청하노라. 그리고 나는 네가 그 말과 갑옷을 너 자신을 위해 간직하기를 청하노라.”

청년이 이르되, “영주여, 내가 어떠한 큰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단 말인가? 이는 지극히 작은 봉사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러나 내가 명하는 바를 행하기를 청하노라.”

청년은 기쁨에 넘쳐 마음에 드는 말과 갑옷을 하나 골랐고, 그것들을 이끌고 제레인트 경의 명을 받들어 숙소를 구하러 성으로 떠났더라.

그때 그 청년이 성내로 들어갈 때, 그 성의 백작의 하인이 그를 만나 하인이 청년에게 이르되, “너는 그 말과 그 갑주를 어디서 얻었느냐?” 청년이 이르되, “열 한 필의 다른 말과 갑주를 가진 고결하고 기사도적인 영주가 이 하나를 내게 주셨노라” 하더라.

종이 이르되 “이는 기이한 말씀이로소이다. 나와 함께 백작께로 가사 이 일들을 그에게 아뢰소서” 하더라

〈각주: 그 청년은 제레인트 경에 대해 백작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때 백작의 하인이 그 청년을 그 영주에게로 데려가니, 청년은 백작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고귀한 기사와 부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부인이 갑옷을 싣고 온 열두 필의 말을 이끌고 왔는지, 그리고 그 영주가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말 한 필과 갑옷 한 벌을 내어주었는지를 이야기하더라. 백작은 이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고는 청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그 영주를 이곳으로 데려오라. 내가 그와 그의 부인을 만나보고 성에서 그들을 대접하고 싶노라. 그는 나와 함께 묵게 될 것이니라."

이에 그 청년은 급히 달려가, 능금나무 그늘에 앉아 에니드와 함께 쉬고 있던 제레인트 경에게 이르되, "영주여, 저 마을의 백작께서 그대를 모셔다가 묵게 하라 하사 저를 보내셨나이다."

이에 제레인트는 분하여 청년에게 이르되, "어찌된 일이뇨? 내가 네게 백작이 아니라 좋은 여관에 우리를 마련해 주라고 명하였노라. 나는 백작의 집에 묵지 아니하고, 그런 여관으로 가리라."

이에 그 청년은 부끄러움을 느껴 이르되 "내가 당신을 여관으로 모시리다" 하더라

〈각주: 그 청년은 그들을 여관으로 인도하더라.〉

이에 그 청년은 제레인트와 에니드를 데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으며, 마을에서 가장 좋은 여관으로 그를 인도하였더라. 이때 여관주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니, 제레인트가 이르되 "이곳에서 가장 좋은 방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하니, 여관주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제레인트

가 에니드에게 이르되 “너는 그 방의 저편에 머물고, 나는 이편에 머물리라. 나는 피곤하여 잠을 자고 싶노라” 하니, 에니드가 이르되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제레인트가 그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깨어날 때, 너는 여기서 나를 섬기라” 하였더라.

청년이 이르되,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에얼에게 가서 귀하가 머무시는 곳을 알리려 합니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시되, “가라, 그러나 다시 돌아오라.”

이때 제레인트 경이 잠든 사이, 그 젊은이는 서둘러 백작의 성으로 달려가 백작에게 아뢰었노라. “백작이시여, 진실로 이 분은 공자이시거나 왕의 기사이시니이다. 그분은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명하시나이다.” 이에 백작이 묻되, “그분께서는 어디에 묵고 있느냐?” 하거늘, 젊은이가 그 곳을 일러 말하되, “지금 잠들었사오니, 깨어나시면 곧바로 시중들려 하옵니다.” 백작이 이르되, “그분이 깨어나거든 내게 문안하라.” 하니, 젊은이가 대답하되, “그리하겠사옵니다.” 하였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여관주인에게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게 하라 명하더라.〉

그 날 오후, 제레인트가 눈을 뜨자 식탁에 앉을 시간이 되었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여관주인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라고 명하였으니, 주인은 이에 응하겠다고 답하더라. 그러자 제레인트 경은 주인에게 함께 대접하고 싶은 동행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은 여러 명이 있다고 대답하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그들을 불러 모으고,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과 술을 준비하라고 명하였노라.

"비록 내가 불행하더라도," 그가 이르되, "내 주변 사람들이 가능한 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노라."

이에 주인이 나가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연회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이 모든 연회는 제레인트 경의 비용으로 치러졌더라. 그 결과 여관 전체가 빛과 웃음, 소란과 즐거운 놀이로 가득 찼더라.

〈각주: 백작이 제레인트 경을 방문하다.〉

그날 저녁, 백작이 제레인트 경을 방문하러 왔고, 그와 함께 그의 궁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 열둘을 데리고 왔다. 이에 제레인트 경이 일어나 그를 맞이하였고, 백작은 제레인트 경에게 인사를 올린 뒤 앉아서 그와 담소를 나누었노라. 백작은 제레인트의 여정 목적을 물었으니, 제레인트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의 목적은 오직 기사도적 삶을 영위하는 데 어울리는 모험을 찾음에 있습니다."

그때 백작의 시선이 에니드에게로 향하여, 그는 그녀를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았노라.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아름답고 고운 부인을 본 적이 없었음을 느꼈노라. 그가 그녀를 응시할수록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흘러갔고, 그는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노라. 이에 그는 제레인트에게 이르되, "저 낭자와 대화할 수 있게 허락하시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음을 보았사오니." 제레인트가 이르되, "기꺼이 허락하노라."

〈각주: 백작이 아름다운 에니드를 구혼하노라.〉

그리하여 백작은 에니드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당신의 손은 부드럽고 희며 당신의 몸은 연약하고 섬세하도다. 이 사내와 함께 거칠고 잔인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당신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으리라." 그녀가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든 그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나에게 불쾌한 일이 아니옵니다."

백작이 이르되 "부인, 당신을 모시고 시중들며 섬길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있어야 하오" 하거늘, 그녀가 이르되 "나에게는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나를 모시고 시중드는 화려한 생활보다, 저 남자와 함께 홀로 여행하는 것이 더 즐겁소" 하더라.

"들으라," 백작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좋은 충고를 하리라. 그 남자를 버리고 나와 함께 가라. 네가 그렇게 하거든 나의 백작령 전체가 네 손에 맡겨지리니, 너는 그 땅과 나와 나의 생명의 여주인이 되리라."

이에 에니드 크게 노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감히 주를 따라가지 못하겠나이다. 알거니와 저 사람은 이 땅과 그 모든 왕국과 영지, 공국과 백작령보다도 내게 더 귀중하옵나이다. 그는 내가 신의를 맹세한 첫 번째 사람이요, 나의 신의는 그에게서 결코 거두어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물며 이 작은 땅 하나를 위해 그를 버리고 주와 함께 치욕 가운데 살며 그를 홀로 세상에 내보내리이까?"

이에 백작이 이르되, "부인, 당신께서 이 일에 그르셨나이다. 내가 그 사내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가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면, 내가 당신을 싫어할 때에 당신을

세상에 내버려두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진하여 내게 오거든, 내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당신을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간직하리이다. 나와 함께 가시오. 그리하면 저 사내는 무사히, 온전한 몸과 힘으로 떠날 수 있사오나,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는 죽으리이다."

이때 에니드는 백작이 자신에게 한 말에 크게 괴로워하니, 그에게서 제레인트 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뜻과 권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들으소서, 위대한 영주이시며 백작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나의 명예를 위함이었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뜻이시라면, 차라리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노이다. 내일 아침 열두 명의 무장한 기사들과 함께 여기로 오소서. 그리고 나를 강제로 데려가시는 듯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서만 굴복한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니이다." 백작이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리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백작은 일어나 그 곳을 떠나니라.

그러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에니드는 제레인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백작에 대한 분노로 인해 눈이 멀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그 때를 위하여 그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의 갑주를 차리는 에니드.〉

그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였노라. 잠시 후 제레인트 경은 깊은 잠에 빠졌으나, 에니드는 잠들지 못하였더라. 그가 내는 깊은 숨소리를 들은 에니드는 매우 조용히 일어나 그의 갑옷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였노라. 그리고 그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 갑옷들을 쌓아 두었더라. 그 후 그녀는 다시 누워 잠들었노라.

〈각주: 에니드가 제레인트 경에게 백작에 대하여 말하더라.〉

해가 뜨기 전, 그녀가 일어나 조용히 제레인트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가슴에 손가락을 얹자, 그가 잠에서 깨어 놀라 일어났다. "주군," 그녀가 이르되, "이 성의 백작이 어제 밤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오?" 제레인트가 이르되, "내게 말하라." 이에 에니드는 백작이 자신에게 제안한 모든 일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때 제레인트는 매우 노하여 이르되, "네 아름다움은 네가 어디로 가든 재앙을 가져오도다. 이제 나는 이 곳을 떠나기 전에 이 백작을 죽이리라. 그가 나에게 불명예를 제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 에니드가 이르되, "백작은 내버려 두시오. 너를 향하여 많은 원수가 있으니, 너는 오직 한 사람일 뿐이라. 오히려 갑옷을 입고 우리 함께 이 곳을 떠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속도로 말일세. 아직 탈출할 시간이 있으니, 오직 이 방법으로써만 우리는 평안히 탈출할 수 있노라."

이에 제레인트는 그녀의 말이 지극히 옳음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음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그는 일어나 갑옷을 착용하고, 여관주를 부르니 여관주가 그의 앞에 나아왔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모든 말과 모든 갑옷을 여관주인에게 주었노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내가 이 집에서 받은 접대에 대해 너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좋은 친구여?”

여관 주인이 이르되, “별것 아닙니다, 영주여.”

“좋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네가 이 열한 필의 말들과 그 부속 갑옷을 모두 받아라. 이것이 우리의 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늘이 영주님을 축복하소서!” 여관 주인이 외치되, “영주님은 내가 받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영주님은 이 집에서 단 한 필의 말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모만 하셨습니다.”

“좋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너는 한층 더 부자가 되겠구나. 그러나 너는 겉옷과 모자를 쓰고 나와서, 우리가 들어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를 이 곳 밖으로 인도하라. 내가 내 임무를 서두르기 때문이다.”

여관 주인이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영주여.”

이렇게 말한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곧이어 그는 다시 돌아왔는데, 행차에 차려입은 차림이었다. 이때 제레인트 경은 말에 올라타고, 에니드도 자신의 말에 올랐다. 그들은 여관 주인을 따라 그 곳을 떠났다.

〈각주: 여관 주인이 그들을 마을에서 인도하더라.〉

그러므로 주막 주인이 그들을 마을의 다른 길로 인도하여 데리고 갔고, 해가 뜨자 제레인트 경은 그를 그들의 시중에서 물러나게 하셨더라.

〈각주: _백작이 제레인트 경과 아름다운 에니드를 뒤쫓더라._〉

그때 여관주인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러 사내들이 그 곳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사내들은 그 고을의 백작과 그의 영지로부터 모인 열두 명의 주요 기사들이었으며, 모두 완전한 갑옷을 두르고 있었노라. 백작은 매우 노여워하며, 여관주인을 보자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노라. “동무여, 어제 밤 너와 함께 있던 그 기사와 그 부인은 어디 있느냐?”

“나리,” 여관주인이 이르되, “그들은 이미 떠났사오며, 이제 이 곳으로부터 여러 마일 떨어져 있으리이다. 제가 친히 그들을 길 저편까지 모셔다 드렸사오며, 방금 그들을 안내하고 돌아온 바입니다.”

백작이 이르되, “그들이 어느 길로 갔느냐?” 하니, 여관주인이 그에게 말하더라. 이에 백작과 그의 기사들이 그 곳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은 여관주인이 가리킨 길로 빠르게 말을 몰고 갔노라. 곧 그들은 땅 위에 선명하게 남은 말굽 자국을 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노라.

*****

이때 에니드와 제레인트 경은 앞길을 재촉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에니드는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았으나, 마침내 먼지가 일어난 구름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먼지 구름 안에는 백작과 그의 기사들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러자 에니드는 제레인트 경을 향해 외쳤다.

"경, 싸움을 준비하십시오. 저편에서 적들이 오고 있사옵니다."

이때 깊이 사색에 잠겨 있던 제레인트 경은 다른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에 그는 투구의 안면을 닫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대결에 임하려 하였노라. 그 후 그는 대로 한가운데서 말을 돌려 멈추고, 적들을 기다리며 서 있더라.

그들이 곧장 그에게 다다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의 고삐를 당기니라. 이때 백작이 앞으로 나아가 제레인트 경에게 말하여 이르되, "기사여, 우리들은 그대에게 해를 끼칠 뜻이 없노라. 다만 그대와 함께 한 그 여인을 그대에게서 거두어 가기를 청하노라. 그대는 그 여인이 원치 않음에도 그녀를 억지로 붙들고 있나니, 그녀가 바라는 바는 오직 우리와 함께 가는 것뿐이니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에니드를 돌아보며 이르되, "부인이여, 이것이 진실인가? 만일 그 영주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 내가 허락하노라."

"아니오," 그녀가 대답하되,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차라리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오."

이에 제레인트 경이 백작에게 이르되, “백작이시여,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잘못 생각하셨다며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더이다.”

백작이 에니드에게 이르되 “부인이여, 어제 네가 내게 말한 바가 무엇이냐?” 하거늘, 에니드가 이르되 “영주여, 저는 당시의 형편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는 바 되어, 영주를 혼란케 하려는 말을 많이 하였사옵나이다” 하더라.

그때 백작은 잠시 동안 자신의 부하들과 나지막이 수군거렸다. 곧이어 그는 제레인트 경을 향해 불렀다. “기사여, 나는 네가 이 기사들 중 몇 명과 겨루어 한두 번 넘어져 보지 않는 한, 너를 놓아주지 않겠노라. 이는 네 부인, 그녀의 빛나는 눈과 가느다란 몸매를 위함이라.”

“좋소,” 제레인트 경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이나 언제든 네 기사들과 싸우기에 응하노라.”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과는 이러하리라,” 백작이 이르되,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너는 자유롭게 갈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기면 네 부인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돌아가야 하느니라.”

제레인트 경이 말하되, “이는 참으로 가혹한 말로소이다.”

〈각주: 제레인트 경은 백작의 추종자들과 격투를 벌이니라.〉

이때 그 기사들 중 가장 강인하고 힘센 자가 그에게 돌격을 준비하게 하였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그와 제레인트는 서로를 향해 격렬

한 돌격을 감행하였더라. 세 차례나 돌격을 거듭한 끝에, 세 번째 돌격에서 제레인트 경은 그를 거침없이 쓰러뜨렸으니, 그 기사는 마치 죽은 자처럼 높은 대로 한복판에 누웠더라. 이때 열두 기사 중 나머지 기사들이 차례로 제레인트 경을 공격하였으나, 그들 모두 차례로 거침없이 땅에 쓰러졌더라.

그때 백작이 제레인트 경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경은 자기의 부인을 위하여 잘 싸웠고 또한 매우 용감하였으니 진실로 경은 그녀를 얻었노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에 제레인트 경이 큰 분개하여 외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상대할 자가 하나 더 있나니, 그 한 분은 경이시니이다. 내가 이 곳을 떠나기 전에 경과 반드시 결판을 내려니이다" 하더라.

"좋소," 백작이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너와 싸우리니, 너나 내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찌를 때까지라. 그리고 상대를 넘어뜨린 자에게 네 여인이 속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각주: 제레인트 경이 백작을 쓰러뜨리니라.〉

각자가 그 대결을 위해 몸을 가다듬고, 모든 준비를 갖추자마자 그들은 말의 옆구리에 박차를 가하여 서로를 향해 돌진하되, 그 격렬함이 마치 천둥소리처럼 굉음을 내며 길목 한복판에서 부딪쳤다. 그 격돌 속에서 제레인트 경은 분노에 불타올라, 적의 방패를 정확하고도 힘차게 내리쳤다. 그러나 백작의 창은 산산조각이 났다. 제레인트 경의 창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백작의 방패를 관통하여, 그를 안장 위에서 들어

올려 말의 뒷부분 너머로 여러 길이나 던져버렸으니, 그는 마치 죽은 자처럼 땅 위에 누웠더라.

그때 제레인트 경은 백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즉시 투구를 벗어던지고 검을 뽑아 들었으며, 백작의 긴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목을 당겨 몸과 머리를 분리하려 하였다. 이에 백작은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죽음이 눈앞에 바짝 닥쳐왔음을 깨닫고 제레인트 경의 허리를 감싸 쥐며 매달리며 소리쳤다. "기사님,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내가 어찌하여 너를 살려야 하느냐?" 제레인트 경이 매우 격분하여 소리쳤다. "너는 나의 목숨을 해하려 하지 않았느냐? 또 나의 명예와 나의 부인의 명예를 해하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네 고을의 손님이 되지 않았더냐? 나는 결코 너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한 방을 가하려 하듯 검을 휘둘렀다.

〈각주: 제레인트 경은 백작의 목숨을 살려주니라.〉

그때 에니드가 와서는 제레인트 경의 팔을 꽉 잡으며 이르되, "고귀한 기사여, 제레인트 경이시여!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려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그를 죽이시려 하나이까? 그로써 얻으실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일단 이 부인이 네 목숨을 내게서 구했으니, 내가 그에게 맡기노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

에니드가 이르되, "주군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백작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평안히 물러가라!”

그 후 제레인트 경은 다시 말에 올랐고, 그와 에니드는 그 곳을 떠나 이전과 같이 길을 재촉하더라. 즉, 에니드는 먼 길을 앞서 가고, 제레인트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녀를 따랐노라.

그러나 그 격투에서 그가 쓰러뜨린 기사들 중에는, 회복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오기까지 많은 주일이 걸릴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입은 자들이 적지 않았더라.

* * * * *

이제 이 때의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의 또 다른 모험들을 따라가노라. 그러므로 이하에 나타나는 바를 읽기를 청하노라.

[그림]

[그림: 에니드와 제레인트가 마을 다리를 지나간다]

[일러스트레이션] 제5장

제레인트 경은 다른 기사와 맞서 싸우는 도중 부상을 입었노라. 그 때 아서왕의 궁정에 있던 이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의 상처를 낫게 하였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는 이같이 여행하여, 마침내 얇고 작은 숲을 지나 또 다른 넓은 곳으로 나아갔더라.

그들이 나아가 보니, 그들 앞에 기이한 아름다움을 지닌 계곡이 펼쳐져 있더라. 계곡 중앙을 가로질러 넓고 고요히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양쪽에는 초지와 들판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들이 머무른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매우 크고 중요한 한 도시가 있었더라. 그 도시 전체는 매우 높고 단단한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도시 주변에는 높은 성곽성이 우뚝 서 있어 도시와 주요 도로를 내려다보며 감시하고 있더라. 그들이 여행하던 주요 도로는 강 위를 건너는 다리를 지나 도시로 들어갔으나, 다리에 도달하기 전 두 갈래로 나뉘어 그들 있는 쪽 강가 한쪽을 따라 이어져 있었더라. 다리 입구 양쪽에는 두 개의 높은 탑이 서 있어 다리를 내려다보며 그것을 호위하고 있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그 기마꾼에게 성에 관해 묻더라.〉

이때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는 잠시 동안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들이 더 오래 바라볼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기쁨에 찼더라. 그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한 기마꾼이 마을에서 나타나 다리를 건너오다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그들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마꾼은 제레인트 경이 그에게 말을 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니, 제레인트 경이 나아가 그를 맞이하자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더라.

그리하여 제레인트 경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간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저편의 그 마을은 무엇이라 불리는가, 그리고 이 아름답고 고운 계곡과 저 마을의 영주는 누구인가?”

"영주님이시여," 다른 자가 이르되, "내가 기꺼이 경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노라. 내가 아는 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리다. 그 마을 자체는 레드랜드의 마을이라 불립니다. 이 땅 전체의 영주는 매우 용감하고 명성 높으며 용맹한 백작, 곧 '작은 왕'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영주들로부터 떨어져 이 곳을 다스리니, 마치 그가 자신의 권리로 이곳의 왕인 양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저 다리의 입구, 두 탑이 있는 곳으로 다리를 건너지 않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겠는가?" 다른 자가 대답하되, "영주여, 내가 진실로 말씀하노라. 작은 왕이 그의 허락 없이는 그 땅으로 들어서는 자를 허락하지 않겠노라 명하셨으므로, 그는 저 다리를 건너 그 너머 땅으로 들어가는 기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시느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나는 그의 뜻에 거스르더라도 그 다리를 건너 그 너머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그의 뜻이 어떠하든 말이며."

"만약 그대를 그렇게 행한다면," 다른 자가 이르되, "그대는 수치와 오욕을 당할 것이 분명하리라."

"그것은 상관없노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나는 그러한 위험조차 감수하리라."

이에 다른 자가 웃으며, 그들은 다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 기사는 길을 떠났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가 교량의 머리 부분을 지나간다.〉

그때 제레인트 경은 에니드 부인을 따랐고, 그녀가 앞서 가고 그가 뒤를 따랐더라. 이렇게 둘은 함께 강가로 내려갔노라. 강가에 이르자, 그는 그녀에게 다리를 건너지 말라 명하였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다리와 그 다리 입구에 서 있는 두 탑을 지나쳐 강변을 따라 달렸노라.

이때 에니드가 앞서 가고 제레인트 경이 그 뒤를 따르는 사이, 그들은 상당한 거리를 달렸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발굽 소리가 들렸노라. 제레인트 경이 고개를 돌려 보니, 무장한 한 기사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그들을 뒤쫓고 있더라.

이에 제레인트 경은 말의 고삐를 당기며 멈춰 서서, 다른 한 기사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노라. 그 기사가 제레인트 경이 선 곳까지 거의 다다르자, 그 역시도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추었더라.

그 기이한 기사가 이르되, “기사여, 당신이 나의 영토를 허락 없이 가로질러 여행함은 무지 때문인가, 아니면 방종 때문인가?”

이에 제레인트 경은 매우 자존심 가득한 어조로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여, 내가 이 길이 통행하는 자들에게 금지되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아니로다,” 다른 자가 격분하여 이르되, “너는 나의 영토에 나의 허락 없이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늘, 그러므로 너는 내 영

주의 법도를 어겼노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내 궁정으로 가서 내게 보상을 바치라."

"나는 너의 성으로 함께 가지 않겠노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또한 너에게 어떤 보상도 바치지 않겠노라. 이는 높은 대로요, 원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

"좋으리라," 그이가 이르되, "어찌되었든 상관없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두노니, 오늘 너는 반드시 내게 보상을 바치거나, 아니면 내 손에 패배할 것이라."

"그것은,"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하늘이 미리 정하신 대로 될 것이니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기사와 전투를 벌이다.〉

이에 각 기사들은 결투를 준비하였고, 에니드는 일어난 일을 지켜보기 위해 한쪽 구석에 서서 바라보았더라. 곧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고, 각자 기마 창시합을 위한 자리를 잡았더라.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각 기사들은 자신의 말에게 외쳤고, 각자 박차를 자기 말 옆구리에 박았으며, 각자 놀라운 속도와 맹렬함으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경주의 한가운데서 천둥과 같은 굉음과 함께 부딪혔고, 그 충돌에서 각 기사의 창은 단단히 견디어, 각 기사의 말은 그 공격의 충격으로 인해 떨리며 뒷다리에 주저앉았더라.

각기 기사들은 창을 내려놓고 안장에서 뛰어내렸으며, 각기 검을 뽑아 서로 맹렬한 황소 두 마리처럼 격렬한 싸움을 위해 돌진하였더라.

서로에게 가혹하고도 무서운 타격을 여러 번 가했으며, 잠시 동안은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더라. 제레인트는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고, 또 여러 차례 더 상대를 상처 입혔더라. 이렇게 그들은 오랫동안 싸웠고, 제레인트는 많은 상처를 입었으나, 마침내 그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 그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고, 그의 힘에 힘을 더하였더라.

그때 제레인트는 공격자에게 빠르고도 격렬한 타격을 쏟아부었으며, 무서운 폭력으로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치고 들어갔으니, 그 속도와 격렬함, 그리고 폭력성과 격분함이 너무나도 빠르고 격렬하여, 작은 왕은 지친 몸과 상처로 인해 방패를 낮게 들고 그에게 밀려났더라. 이때 제레인트는 상대가 열어준 틈을 보았으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향해 돌진하여, 헬멧의 정수리에 온 힘을 다해 일격을 가하였더라.

그 타격이 이토록 격렬하여, 투구를 쪼개고 그 아래 있는 철제 모자를 찢으며, 모자 밑의 뼈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그 기사를 쓰러뜨리니라.〉

그때 작은 왕의 지혜는 마치 파리 떼가 날아가듯 그의 머리에서 사라졌고, 그의 힘은 그를 버렸으며, 그의 허벅지는 떨려 그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었더라. 이에 제레인트가 그에게 돌진하여 그의 머리에서 투구를 벗겨냈고, 이어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앞으로 당기며, 마치 머리를 몸통에서 잘라내려는 듯 검을 높이 휘둘렀더라.

그때에 작은 왕의 의식이 돌아왔고,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달으니, 그는 즉시 제레인트 경의 무릎을 움켜쥐고 크게 소리쳐 호소하더라. “폐하, 제 목숨을 용서하소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노라. 곧 너는 이제부터 나를 진정한 동지로 삼아, 내가 너를 믿는 바와 같이 너 또한 나를 충실히 섬기리라 맹세할진대라. 진실로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기사보다도 고결하고 가장 값진 기사이니라.”

그때 다른 이가 무릎에서 일어나니라. “기사여,” 그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오.”

“나는 제레인트요,”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에르빈 왕의 아들이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노라,” 작은 왕이 이르시되. “너에 대하여 자주 들었노라. 만약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면,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았으리라.” 이때 작은 왕이 제레인트 경에게 이르시되, “기사님, 제레인트 경이시여. 내가 보기에 당신은 여러 곳에서 다치셨으니,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로소이다. 보시오, 당신의 갑옷의 다리 보호대는 피로 물들어 있고, 여러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소. 당신은 뜨거운 햇살 아래 여행할 형편이 못 되니, 당신과 당신의 부인이 함께 내 성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청하노라. 그곳에서 당신은 상처로부터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 계속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제레인트 경은 그를 거절하더라. “아니오,”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성으로 함께 가지는 않노라. 그 대신 내가 내 길을 계속 나아가리라.”

그때 작은 왕이 에니드를 바라보았노라. 그가 보기에 그녀는 지극히 연약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제레인트가 수많은 중상을 입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 수 있었노라. 이에 그는 그녀를 깊이 불쌍히 여겼노라.

“영주여,” 그가 제레인트 경에게 이르되, “당신은 자신을 쉬게 하지 않고 상처를 돌보지 않음으로 잘못하였나이다. 만약 이와 같은 또 다른 모험에 부딪히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오. 만약 당신에게 해가 생긴다면, 당신의 부인을 돌볼 이는 누구겠나이까?”

그때 제레인트 경이 매우 격렬하게 외쳤노라. “선생님, 이미 저는 당신께 제가 제 길을 계속 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마시오. 저와 제 부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자신의 말로 달려가 안장에 올랐고, 창을 손에 쥐었으며, 그 자리를 떠나 달렸노라. 그는 에니드 부인에게 앞서 가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전에도 그랬던 바와 같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곳을 떠났노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그의 상처로 인해 고난을 겪었노라.〉

〈각주: _제레인트 경은 나무 아래에 서 있더라._〉

이때 날은 매우 무더워, 피를 흘리던 일이 그친 뒤에도 제레인트 경의 갑옷 속 피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 그의 몸 위에 마르고 말았더라. 그러므로 제레인트 경이 입었던 상처들은 피로 인해 갑옷에 달라붙어, 그가 상처를 입었을 때보다 이제 세 배나 더 큰 고통을 겪었노라.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몰아갔노라.

마침내 그는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므로, 숲의 참나무들이 길가까지 내려와 높은 길을 그늘지게 하는 한곳에서 잠시 멈추라고 에니드 부인에게 요청하였노라. 이에 에니드 부인은 그를 내려주려 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그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금지하며 이르되, "저 나무 아래로 가서 서 있거라. 내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므로 잠시 혼자 있고자 하노라" 하였노라.

이에 에니드는 다른 나무 아래로 가서 서서 울었노라. 제레인트 경은 말에서 내려 자신의 나무 아래에 서서, 상처로 인한 매우 쓰라린 고통을 견디었노라.

이같이 그들이 서 있을 때, 갑자기 말들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으니, 그 소란의 원인은 아서왕과 그의 궁정이 이웃한 숲으로 사냥을 하러 왔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케이 경이 시종하는 하인 중 한 명이 그들을 발견하였으므로, 제레인트 경이 어찌하여 도망할까를 생각하던 중, 그 하인에게 발각되었더라.

이 시종은 케이 경에게로 갔고, 그가 이르되 "경, 저 나무 아래에 깨지고 더러워진 갑옷을 입은 한 사내가 있는데, 그는 부상을 입은 듯하

오”라 하니, 케이 경이 “그는 어디 있소?”라고 묻고 나서야 그 역시 제레인트 경을 보았더라.

〈각주: 케이 경이 제레인트 경에게 말을 걸다.〉

이때 케이 경이 제레인트 경이 있는 곳으로 이르러, 그의 도착을 보자 에니드 부인은 부끄러움에 나무 뒤에 숨었노라. 이는 케이 경이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었더라. 케이 경은 제레인트 경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제레인트 경은 케이 경을 알아보았노라.

케이 경이 제레인트 경에게 이르되, “경이여, 어찌된 일이오? 경이 다쳤음을 보았소. 경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오?”

제레인트 경이 대답하되, “나는 이 나무 그늘 아래 서서 더위를 피하노라. 햇빛 아래서는 갑옷이 상처에 달라붙어 고통스럽기 때문이니라.”

케이 경이 이르되, “경은 어디로 가며, 경은 누구인가?”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내가 누구인지야 중요치 않소. 나의 여행에 관하여 말하건대, 경이 알다시피 나는 모험을 찾아 헤매고 있소.”

케이 경이 이르되, “경은 오늘 하루 동안 이미 충분한 모험을 겪었소. 나와 함께 가시오. 내가 경을 가까운 곳에 계신 아서왕께 모시겠소.”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나는 경과 함께 가지 않겠소. 나는 왕 앞에 서기에 적합치 않거든.”

케이 경이 이르되, “경은 반드시 나와 함께 가야 하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 제레인트 경의 팔을 잡았노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케이 경을 치니라.〉

이 모든 시간 동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레인트 경은 케이 경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나, 케이 경은 제레인트 경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의 방패는 전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었고 갑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케이 경이 제레인트 경을 붙잡으려 할 때, 상한 자의 마음속에는 격한 분노가 치솟았더라. 이에 그는 창을 들어, 창끝으로 치는 것을 천하게 여겨 창 자루 끝으로 케이 경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타격의 힘에 의해 케이 경은 도살자가 망치로 소를 때릴 때처럼 땅에 쓰러졌더라.

잠시 후 케이 경이 몸을 움직이며 일어난다. 그는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자리를 뜨고, 제레인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이때 퍼시벌 경의 천막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케이 경이 그곳으로 향하니, 퍼시벌 경이 천막 안에 있었다. 케이 경이 퍼시벌 경에게 이르되, “내 시종이 내게 말하길, 저 나무 아래에 갑옷을 입은 부상자가 서 있다고 하더군. 너는 가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아서왕에게 데려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퍼시벌 경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

냐?" 케이 경이 이르되, "저기 있노라.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성급한 성품을 지녔으니, 너는 접근할 때 각별히 조심하라."

〈각주: 퍼시벌 경이 제레인트 경에게 말을 걸다.〉

그때 퍼시벌 경이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 거기서 제레인트 경이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그의 갑옷은 심하게 훼손되고 상처 입었으며 피로 얼룩져 있어 퍼시벌 경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노라. 하지만 제레인트 경은 퍼시벌 경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노라. 퍼시벌 경이 제레인트 경에게 이르되, "경, 왕의 장막으로 오셔서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받으시지 않겠나이까?" "아니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각주: 퍼시벌 경은 아름다운 에니드를 아느니라.〉

이때 에니드 부인은 퍼시벌 경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차렸는지라,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니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 그녀가 퍼시벌 경을 향해 외치되, "퍼시벌 경이여, 내가 간청하노니 그를 설득하여 아서왕께 가도록 하소서."

이에 퍼시벌 경은 에니드 부인을 알아보고, 부상당한 자가 필시 제레인트 경임을 깨달았노라. 그가 소리쳐 부르되, "제레인트 경이시여, 당신인가?" 하니, 제레인트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로다. 나는 제레인트 경이 아니라."

그러나 퍼시벌 경은 이 말을 물리치고 이르되, “어찌 된 사정인가, 너와 네 부인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어디로 가려느냐? 만일 너는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 것이요, 만일 여기 머무르면 죽을 것이니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내가 앞서 가리라” 하니, 이 말을 들은 에니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더라.

이때 한 시종이 약간 떨어져 서 있더라. 퍼시벌 경이 그를 손짓하여 부르고, 시종이 퍼시벌 경에게로 나아오는지라. 퍼시벌 경이 시종에게 속삭이며 이르되, “가서 아서왕을 찾아, ‘제레인트 경이 여기에서 부상을 입어 서 있노라’고 전하라” 하매, 시종이 재촉하여 달려가니라.

그때 퍼시벌 경이 곁으로 다가와 에니드 부인에게 속삭이며 물었노라. “어찌된 연유로 당신과 당신의 영주가 이 낯선 땅에 계시나이까?”

에니드가 대답하되, “어찌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제 영주가 저를 데리고 기사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하셨기에 따랐사옵니다.”

퍼시벌 경이 이르되, “진실로 나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노라.”

〈각주: 아서왕이 고운 에니드와 제레인트 경을 만나러 오시니라.〉

아서왕과 그의 조정(朝廷)의 여러 신하들과 구이니비어 여왕과 그녀의 궁정 신하 여러 명이 그 곳에 이르렀더라. 퍼시벌 경이 아서왕께 아뢰되 “폐하, 보시옵소서, 이 슬픔과 우울에 잠긴 자가 바로 제레인트 경이로소이다.” 그러나 제레인트는 아무 말도 없이 오직 매우 비통한 신음소리만 내었더라. 아서왕이 에니드 부인에게 물으시되 “에니드야,

어찌하여 너는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에니드가 대답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오, 다만 주군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 또한 따라가야 할 뿐이니이다." 이에 아서왕이 구이니비어 여왕께 이르시되 "여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에니드 부인을 데려다가 돌보아주라. 제레인트 경에 관하여는 내가 그의 치료를 내 의술가들에게 맡기리라."

"폐하여," 제레인트 경이 외치며 간구하되, "제발 제가 가려던 곳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리하면 너는 죽음으로 향하리라. 너는 미쳤도다. 네 몸은 새롭고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로 가득 차 있나니, 그러한 상처를 안고서는 살 수 없느니라."

이에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렇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아서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라.

〈각주: _의사들이 제레인트 경의 상처를 살핀다._〉

이때 아서왕은 그 곳에 천막을 치게 하였고, 그 천막 안에는 부드러운 침상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아서왕은 제레인트 경을 그 침상에 눕히셨다. 또한 아서왕은 자신의 의관들을 불러 제레인트 경의 상처를 살피게 하고, 약을 발라주며 붕대를 감게 하셨으니, 그들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제레인트 경은 큰 위안을 얻었더라.

이때 왕비는 에니드 부인을 자신의 천막으로 데려가, 그녀가 입었던 승마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하였다. 그리고 왕비는 에니드에게 많

은 질문을 던졌고, 에니드는 자신의 모험담을 많이 말하였다. 에니드가 전하는 이야기에 모두들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였더라.

* * * * *

이때 제레인트와 에니드는 아서왕의 그 숲속 궁전에 거의 한 달 동안 머무르며, 에니드는 왕의 궁정에서 매우 잘 대접받았더라. 비록 그녀가 제레인트 경을 보거나 그와 말하게 허락받지는 못했으나, 그녀는 날마다 그로부터 가까이서 소식을 듣고, 그의 상처가 차츰 치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노라. 한 달이 지나자 제레인트 경의 상처는 모두 아물어 하얗고 아름다운 살로 덮였기 때문이라.

그때쯤 되어 제레인트는 안달이 나기 시작하였으니, 그의 몸이 강해질수록 그는 그가 깨어났을 때 아침에 에니드 부인이 내뱉은 말을 더 선명하게 기억해 내고, 다시금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날 그가 아서왕께 아뢰되, "폐하, 청컨대 이 곳을 떠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여정에 나서야 하오니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제레인트가 대답하되, "저는 알지 못하오나, 다만 모험을 찾아 방황하는 기사가 되고자 하오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대 부인이 이 곳에 머무르라."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분께서 여기 머무를 수 없사옵나이다. 반드시 저와 함께 타지로 떠나야 하옵니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광기라. 그대 부인의 육체는 너무도 연약하고 섬세하여, 그대가 겪어야 할 고난을 견뎌내기에 적합치 않노라." "상관없사옵나

이다,"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저가 어디로 가든 반드시 저와 함께 떠나야 하옵니다."

이에 아서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이르시되 "경이 완전히 낫았다고 의사들이 말하기 전까진 결코 놓아주지 않겠노라." 제레인트 경이 대답하되 "의사를 부르소서."

이때 아서왕은 의술가들을 소환하여, 제레인트 경이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었는지 물으시니, 의술가들은 그가 이미 완쾌되었음을 아뢰었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가 왕의 궁정을 떠난다.〉

이때 아서왕은 제레인트 경에게 떠날 허락을 내리시니, 제레인트 경은 그 날 아서왕과 그 궁정을 향해 작별 인사를 올렸고, 그와 에니드 부인은 전과 같이 떠났노라. 다시 말하면, 에니드 부인은 제레인트 경보다 앞서 조금 먼 거리를 달렸고, 제레인트 경은 에니드 부인보다 뒤로 조금 먼 거리를 따랐으니, 이는 전과 같은 이치였더라.

* * * * *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후의 모험들을 기록하노라. 이를 읽고자 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바를 읽어보라.

[그림]

[그림: 아서왕의 의관들이 제레인트 경을 돌보다.]

[일러스트레이션] 여섯 번째 장

어찌 제레인트 경이 대로의 세 거인을 멸하였는지. 어찌 그가 부상을 입었으며, 어찌 그와 에니드 부인이 그 땅의 한 기사에게 납치되었는지. 또한 어찌 제레인트가 그 기사를 죽였는지.

〈각주: 제레인트 경이 슬픔에 잠긴 한 부인을 발견하다.〉

이들께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길을 가시니, 한 숲에 이르렀더라. 숲은 매우 울창하고 어둡고 음울하여, 그 숲 속 어느 곳에서는 한 목소리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더라. 이에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시니, 곧 숲속의 빈터에 다다랐더라. 그곳에서 그들은 한 부인과 두 마리 말, 그리고 피투성이로 땅에 누운 한 기사의 시체를 보았더라.

제레인트 경이 그 부인에게 이르시되, "부인, 어찌된 일이시오?"

"슬프도다!" 그녀가 말하되, "저쪽으로 길을 가다가, 세 명의 거대한 무지한 자들이 숲속에서 우리에게 덤벼들었나이다. 그들이 그를 죽였으니, 보시는 바와 같사오며, 그리하여 저는 여기서 그를 위해 슬퍼하며 앉아 있나이다."

"네가 말하는 그 거인들은 어느 길로 갔느냐?" 제레인트 경이 물으니, 그녀가 이르되 "저쪽 길, 그 길로 갔노라" 하더라.

제레인트가 에니드에게 이르되, "여기 이 부인과 함께 잠시 머물러 있으라. 내가 앞서 나아가 그 세 거인들을 징벌하리라." 에니드가 이르

되, “주군, 주께서 이제야 고통의 침상에서 깨어나셨음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제레인트 경은 에니드가 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인이 가리킨 길로 말을 몰아 전진하였더라. 잠시 후 그가 바라보니, 세 명의 거인이 길가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이 그의 앞에 드러나더라.

각자는 거대한 갑옷을 몸에 두르고, 어깨 위에는 철로 덧댄 거대한 곤봉을 메고 있더라.

〈각주: 거인이 제레인트 경을 내리친다.〉

이때 제레인트 경이 그들 앞에 돌진하여, 세 명 중 첫 번째를 창으로 몸통을 관통하매, 그는 곧장 창을 빼내어 다시 세 명 중 두 번째를 향하여 돌진하여 창으로 그를 꿰뚫었노라. 그러나 그가 다시 창을 빼내기도 전에, 세 명 중 마지막 하나가 그의 방망이로 거친 일격을 가하여 그의 방패는 갈라지고 투구도 갈라지며 갑옷은 어깨에서 벗겨졌노라. 그 일격에 제레인트 경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으며, 그의 모든 상처에서는 피가 새어 나오니 마치 새로 입은 상처인 양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렸노라. 그는 검을 뽑아 거인을 향해 돌진하여 검으로 그를 베니, 그의 머리와 목과 어깨가 가슴까지 갈라지며 찢어졌고, 그 거인도 또한 땅에 쓰러져 죽었노라.

〈각주: 제레인트 경은 죽음과도 같은 실신에 빠지니라.〉

그때 제레인트는 그 세 사람을 그대로 남겨둔 채 다시 말에 올라타, 자신이 에니드와 과부 부인을 남겨둔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들에

게 다다랐을 때, 그는 말을 걸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부인—"이라고 시작했으나 이내 말을 멈추었고, 몸을 좌우로 흔들다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다.

이에 에니드가 달려가 그의 머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노라. 그의 얼굴이 흰 밀랍처럼 창백하여 에니드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죽었다고 믿은 에니드는 목청을 높여 매우 크고 날카롭게 울부짖었노라.

그때 우연히 리모르 백작이 그 숲의 한쪽에 있었고, 그의 가신 기사들이 몇 명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에니드의 슬픔을 나타내는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듣자, 리모르 백작이 이르되, "들으라! 그 소리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의 가신 기사 중 한 명이 이르되, "그것은 누군가가 슬픔에 잠겨 있는 소리입니다,"라고 했다. 백작이 이르되, "그곳으로 가자,"라고 했다.

〈각주: 리모르 백작이 그 곳에 도착하더라.〉

이에 리모르 백작과 그의 시종들이 그 곳으로 급히 달렸고, 곧이어 그들은 숲 속의 한 개활지로 나아갔다. 거기서 그들은 네 필의 말과 두 부인, 그리고 두 기사를 목격하였더라.

리모르 백작이 에니드에게 이르되, "부인, 어찌하여 이리 슬퍼하시오?"

"슬프오이다, 경," 그녀가 부르짖되, "내가 사랑한 바 있고 장차도 사랑할 그 유일한 사내가 죽었나이다."

그때 리모르 백작이 다른 부인에게 이르되, “부인, 어찌하여 이리 슬퍼하시오?”

그녀가 이르되, “그들도 또한 내 남편을 죽였나이다.”

“누가 그들을 죽였나이까?” 리모르 백작이 물으니,

“내 남편은 세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사옵니다. 이 다른 기사는 그 세 거인을 쫓아갔사오니, 그가 돌아왔을 때에 보시듯 하였습니다.”

“그 거인들은 어디로 갔나이까?” 백작이 묻거늘,

그녀가 대답하되, “저쪽으로 갔사옵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오.” 리모르 백작이 이르니라.

〈각주: 백작이 죽은 강도들을 발견하더라.〉

그때 백작은 자신의 기사 몇 명을 거느리고 그 방향으로 향하였고, 잠시 후 세 거인이 모두 땅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그가 이르되, “저곳에는 세 거인을 모두 죽일 만한 매우 강인한 기사가 있었도다.”

〈각주: 백작은 제레인트 경을 자신의 성으로 모셔간다.〉

그 후 그는 다시 숲속의 공지로 돌아가 그곳에 누워 있는 기사들을 살폈다. 그들 중 한 기사는 이미 죽어 있었으나, 제레인트 경은 아직 완

전히 죽지 않은 듯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기사는 묻어 주었고, 제레인트 경은 방패 안쪽에 눕혀 등 뒤에 그의 검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를 관 위에 올린 뒤, 두 명의 낭자가 그들을 따라오는 가운데 성으로 그를 모셔 갔더라.

백작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성채로 들어갔고, 그는 제레인트 경의 방패 위에 누운 제레인트를 성채의 홀로 들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사를 불러 제레인트를 진찰하게 하였으니, 의사가 와서 그를 살피니라. 그 후, 충분한 진찰 끝에 의사는 그가 아직 죽지 않았으나, 죽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섰다고 말하였더라.

이때 백작은 두 부인에게 옷을 갈아입고 이 홀의 품위에 더 어울리는 의복을 갖추어 입을 것을 명하였노라. 다른 한 부인은 그의 명을 따랐으나, 에니드는 거절하였더라.

리모르 백작이 그에게 이르되, “부인이여, 이는 지혜로운 처신이 못되나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선한 뜻으로 말하노라. 당신의 용모가 내게 매우 기쁘도다. 당신의 주군이 죽거든, 내가 장차 당신과 결혼하여, 나 자신과 이 성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이 땅들과, 내게 속한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에니드는 오직 울기만 할 뿐, 이르되, “슬프도다!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나이다. 나는 매우 외롭사오니이다. 내 주군이 죽거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다시는 기쁨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리이다.”

리모르 백작이 이르되 “용기를 내라, 나의 사랑스러운 자여.” 하거늘 그녀가 이르되 “나는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하매 백작이 명하여 연

회를 준비하게 하였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여지니라. 연회가 차려지자 그가 에니드에게 이르되 "오라, 내 곁에 앉아 먹으라." 하거늘 그녀가 이르되 "내 주께서 함께 앉지 아니하시면 나는 먹지도 아니하며 식탁에 앉지도 아니하리이다." 하매 백작이 웃으며 이르되 "부인,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 당신의 기사는 다시는 식탁에 앉지 못하리니, 그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음이라." 하매 에니드가 다시 심히 격렬히 울니라.

〈각주: 리모르 백작이 아름다운 에니드를 치니라.〉

백작이 이르되 "내 곁에 앉아라. 너의 기사는 식탁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므로 그가 시켜서 기어이 누워 있는 제레인트 경을 식탁 곁으로 가져오게 하였더라. 이에 그는 에니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식탁으로 이끌어가 그녀가 자신 곁에 앉게 강요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백작이 그녀에게 잔을 내밀며 이르되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네 슬픔을 잊게 하리라." 하거늘 그녀가 이르되 "내 남편이 일어나 나와 함께 마시지 않는 한 나는 마시지 않겠노라" 하더라. 이때 리모르 백작이 노하여 외치되 "너와 너의 기사에게 재앙이 있을지어다!" 하며, 이 말과 함께 손을 들어 그녀의 귀를 때려 주었더라.

그때 에니드는 전례 없이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제레인트가 곁에 있었다면 리모르 백작이 감히 자신을 이같이 대접하지 못했을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는 그 타격을 느끼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크게 비명을 지르니라.

이때 제레인트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으나,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자신에게 행해지는 일과 말들을 듣고 있었다. 그는 에니드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음을, 그리고 그 땅의 백작이 그녀의 얼굴에 내리친 타격을, 그리고 그 고통으로 그녀가 지른 비명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렸고, 그가 얼마나 광기 어린 자였으며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보았노라. 또한 그녀가 무슨 말을 했든 에니드가 그에게 얼마나 충실했는지 깨달았노라.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부끄러움이 불처럼 타올랐고, 기절할 때의 마지막 안개는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열 사람의 힘이 서려 있음을 느꼈노라.

〈각주: 제레인트 경이 리무아 백작을 베어 죽이니라.〉

이에 그가 자신의 방패 속 구멍 곁에 놓인 검을 쥐어 잡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얗고 창백한 얼굴로 그 방패에서 일어났을 때, 그를 본 자들은 그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일어남을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은 비명 지르고 비명을 질러 그의 앞에서 피하더라. 그러나 제레인트는 방패 속 구멍에서 뛰어 나와 리무아 백작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달려가, “네가 내 아내를 치기를 감히 하겠느냐?”라고 외치며 온 힘을 다해 그의 머리를 쳤더라. 그 타격은 너무나도 무서웠기에, 백작의 머리와 목, 가슴이 갈라졌고, 검날이 내려올 때 식탁의 참나무 판자에 부딪혀야만 멈출 수 있었더라.

이에 이같이 죽은 자가 죽음에서 일어나 그 일격을 가하는 것을 본 자들은 모두 크게 비명 지르며 포효하고, 그 자리에서 공포와 경악에

질려 도망쳐 버렸느니라. 다만 제레인트와 에니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려움스럽게 앉아 있는 죽은 자만이 남았더라.

이에 에니드가 이르되 "오, 내 주군이여! 주군께서 죽으셨나이까, 아니면 살아계십니까?" 하니, 제레인트가 이르되 "사랑하는 자여, 나는 살아 있고 건강하노라." 하니, 에니드가 이르되 "내가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거늘, 제레인트가 이르되 "우리 이제 이 곳을 벗어나 도망치자. 곧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니," 하고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 말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사오나, 주군님의 말은 저 집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군님의 말을 그곳에 들여보내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였더라.

이에 제레인트와 에니드는 가까운 집으로 가서, 제레인트는 자신의 말을 찾았더라. 제레인트는 말을 마구간에서 끌어내어 타자, 에니드의 손을 잡아 땅에서 들어 올리고, 자신의 뒤로 말을 태웠노라. 에니드는 두 팔을 그의 몸에 감싸 쥐며, 큰 기쁨과 희열로 그의 몸을 느끼었더라.

〈각주: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가 그 곳을 떠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곳을 떠나 가니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모두 그들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타고 가는 줄로 여겼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햇살 아래로 나왔을 때, 제레인트 경은 머리를 돌려 그의 부인 에니드의 얼굴을 바라보았노라. 그는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고, 자신의 분노와 불의가 그녀에게 강요한 고난으로

인해 얼마나 야위고 연약해졌는지를 깨달았더라. 그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머리를 숙였노라.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말을 몰았다. 각자는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길 양쪽에 높은 생울타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많은 말들의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그들은 생울타리 너머로 하늘을 배경으로 수많은 창끝들을 보았다. 이에 제레인트는 에니드를 생울타리 너머로 데리고 가서, 다가오는 자들과 맞서기 위해 준비하였다.

〈각주: 작은 왕이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를 발견하다.〉

그때 갑작스레 갑옷을 입은 기병들의 작은 무리가 그 길로 나타나니, 그들 중 가장 먼저 온 자는 작은 왕이더라. 이에 제레인트가 기쁨의 외침을 지르며 이르되, "그대이시뇨, 작은 왕이여?" 하니, 다른 자가 대답하되, "맞나니, 내가로소이다. 그러나 그대는 누구인가?" 그는 제레인트 경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에게 피가 묻어 있었고 외모가 변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제레인트가 이르되, "나 제레인트, 에르빈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때 작은 왕이 나아와 그를 포옹하더라. 은신처에 숨어 있던 에니드가 모습을 드러내니, 작은 왕이 그녀에게 예를 올렸노라. 작은 왕이 이르되, "내가 너를 찾고 있었노라, 제레인트 경. 네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노라." 이에 제레인트 경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간의 약속 조건에 따른 것이니라."

이때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 그리고 작은 왕은 작은 왕의 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 돌아왔다. 그들이 성에 도착하자, 제레인트 경의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하였으며, 그는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안락하게 되었다.

[일러스트레이션] 결론

이때에 나는 이 적기(適期)에 제레인트 경과 에니드 부인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말하노라.

〈각주: 옛적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노래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흔히 노래로 불려 왔고, 또 널리 전승되어 왔으므로, 독자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거나 읽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시인에 의해 노래되었으며, 또한 웨일스의 고대 바드들에 의해 전해져 왔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인이나 나나, 모두 이 이야기를 웨일스의 마비노기(Mabinogi)에 기록된 고대 연대기들로부터 얻어냈노라.

그러나 이 이야기가 아서왕과 그의 궁정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니, 이는 마땅히 그 차례가 되었을 때 서술되어야 하리라. 이에 나도 또한 그 때에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이 글을 읽으시고 아서왕의 원탁에 속한 가장 유명한 기사 중 한 명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시라.

이제 나는 갤러해드 경의 도래와, 아서왕과 그의 원탁 기사들 중 일부가 성배를 찾아가던 여정, 그리고 다른 몇몇 기사들이 그 여정에서 실패하였던 일을 너희에게 말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뒤이어 이어지는 글을 읽는 자는,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진실되고 실재하는 것으로 믿었던, 지극히 경이로운 일들을 모두 알게 되리라.

[그림]

제2부

갤러해드 경의 이야기

여기서 갤러해드 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니, 이 이야기에는 성배의 회복과 사라스 대성당에의 안치, 그리고 천국으로의 승천에 대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느니라. 다음과 같더라.

[그림: 숲의 은수자와 함께 온 갤러해드 경]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갤러해드 경이 어떻게 기사로 서원받았으며, 그가 아서왕의 궁정에 어떻게 도착하였는지, 그리고 그 때 일어난 여러 기적들에 대하여

〈각주: 한 처녀가 왕의 궁정에 이르다.〉

어느 날, 당시 그곳에 모여 있던 고귀한 신분의 많은 영주들과 부인들 사이에서 랜슬롯 경이 궁정에 앉아 있더라. 갑자기 한 처녀가 그 곳으로 들어왔으니, 그녀는 길고 곧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몸통 중간에

는 붉은 가죽 띠로 매여 있었노라. 그리고 그 띠에는 금실이 자수로 놓여 있었더라. 이 처녀는 대청의 문에 서서 높고 매우 맑은 목소리로 외치니라. "호수의 랜슬롯 경—그 기사는 누구인가?"

이에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니이다. 뉘게 무엇을 구하시오?" 처녀가 말하되 "랜슬롯 경이시여, 일어나 나를 따르소서." 그가 이르되 "어디로?" 그녀가 이르되 "보게 될 것이니이다."

이에 랜슬롯 경이 일어나, 그 모습 그대로 어떠한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그녀를 뒤따라갔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그녀와 함께 말을 달린다._〉

정문 밖에는 두 마리의 말이 서 있더라. 그 중 하나는 흰색 팔프레이(승용마)였고, 다른 하나는 검은 종마였노라. 랜슬롯 경은 처녀를 흰색 팔프레이에 태워 드리고, 그 자신은 검은 종마에 올라타니, 이같이 함께 그들은 캐멀롯을 떠나 길을 떠났더라.

그들이 얼마간 길을 가다가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렀다. 이때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온종일 수풀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그 날 해질 무렵이 되자 주변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한 넓은 터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고요하고 매우 비옥한 계곡이 펼쳐져 있어 사방으로 1리그나 되는 길이와 너비로 넓게 뻗어 있었다. 그 계곡에서 랜슬롯 경은 과수원과 밀과 보리가 무성한 들판,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는 초원들을 보았으니, 실로 그곳은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었더라.

이 골짜기 한가운데에는 흰 벽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수도원이 서 있었다. 수도원 위로는 맑고 빛나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 매우 푸르고 떠다니는 구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골짜기 전체를 따라 불어왔고, 그 바람 위에는 멀리서 들리는 수탉의 울음소리와 쟁기질을 몰고 가는 농부의 목소리가 실려 왔다. 그 농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갈라진 땅 위를 쟁기질하며 그 뒤에서 힘겹게 따라가고 있었다.

처녀가 이르되 "그곳이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하는 곳이라"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어떤 목적 때문이냐" 하거늘, 처녀가 이르되 "너는 곧 보게 되리라" 하였더라.

〈각주: 그들이 수녀원에 이른다.〉

이때 처녀가 계곡으로 내려가자 랜슬롯 경이 그녀를 뒤따랐다. 그리하여 잠시 후 그들은 쾌적하고 고요한 수도원에 다다랐다. 그곳의 문은 아름답고 젊은 종자가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그곳의 문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나와 그들을 내려주도록 돕고, 랜슬롯 경과 처녀의 말들을 받아들이었다.

그 뒤 처녀는 랜슬롯 경을 수도원 사각 광장을 지나 예배당으로 인도했고,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갔다. 여기서 랜슬롯 경은 제단 앞의 네 개의 쿠션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네 명의 부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부인들 곁에는 각각의 쿠션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명의 기사도 있었다. 네 명의 부인 중 한 명은 그 수도원의 원장이었고, 두 명의 기사 중 한 명은 가니스의 보르스 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라이오넬 경이었다.

〈각주: 랜슬롯 경은 자신이 아는 두 사람을 발견하더라.〉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들이 그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니, 랜슬롯 경은 보르 경과 리오넬 경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도 또한 그를 알아보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영주들이여, 무엇이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왔느냐?" 하니, 보르스 경이 대답하되, "경이여, 우리는 먼 곳에 있었사오나 각자에게 한 아름다운 처녀가 찾아와, 그녀가 각인을 이 곳으로 인도한 사신이었사오니, 저희가 온 이후로 경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경께서 여기 계시니이다." 랜슬롯 경이 묻되,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되었느냐?" 리오넬 경이 이르되, "경께서 보시게 되리이다." 그러자 리오넬 경이 수녀원장에 이르되, "그를 데려오라. 랜슬롯 경이 그를 보게 하라."

〈각주: _랜슬롯 경이 그의 아들을 발견하더라._〉

이때 수녀원장님은 곁에 서 있던 수녀 중 한 명을 돌아보며 나직이 말씀하시니, 그 수녀는 그들을 떠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왔는데, 열여덟 살 된 한 소년을 데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매우 크고 용모가 단아했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실크 옷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랜슬롯 경이 수녀원장님께 아뢰되, "부인, 이 소년은 누구인가?"

수녀원장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되, "경, 이는 경의 친아들인 갤러해드라 하오. 그의 어머니는 미녀 엘레인 공녀였소."

그때 랜슬롯 경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아들을 두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어느 흑암스럽고 두려운 날에,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이 캐멀롯의 배 안에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부두에 서 있었고, 그녀의 배는 내 발 아래로 떠내려 갔노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았노라. 결코 이를 잊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녀가 아들을 남겼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수녀원장이 이르되, “그녀는 분명히 아들을 남겼노라.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이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왔노라. 보르스 경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때부터였느니라. 우리와 함께 거처한다는 것을 아는 자는 가니스의 보르스 경 외에는 없었노라. 그러나 이제 그가 우리를 떠날 때가 왔으니, 성배를 찾으려는 시기가 임박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성배를 성취할 자라. 이제 그를 기사로 봉할 터인데, 그를 기사로 삼기 위해 네가 불려왔노라. 이것이 네가 이곳으로 끌려온 이유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내가 그를 기사로 삼으리라. 내가 그를 기사로 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각주: _랜슬롯 경이 갤러해드를 기사로 임명하다._〉

그 밤, 갤러해드는 예배당에서 자신의 갑옷을 지켰고, 보르스 경과 라이오넬 경이 그의 곁에 앉아 경계를 함께했다. 아침이 밝자 두 사람은 그를 데려와 목욕시켰고, 보르스 경은 그의 오른쪽 어깨에 십자가의 표지를 새겼으며, 라이오넬 경은 왼쪽 어깨에 십자가의 표지를 새겼다. 각자 목욕물의 물로 말이다. 그 후 그들은 그를 희고 순수하며 얼룩

하나 없는 옷으로 입혔고, 랜슬롯 경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랜슬롯 경은 관례에 따라 그를 기사로 서임하였다.

이때에 갤러해드 경은 그의 아버지, 호수의 랜슬롯 경의 손에 의해 기사로 서임받았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궁정으로 돌아오니라.〉

이제 이 의식이 끝난 후, 랜슬롯 경은 갤러해드에게 아서왕의 궁정으로 함께 가달라고 간청하니, 왕께서 그를 뵙게 하려 함이었더라. 랜슬롯 경은 갤러해드가 온 기사계의 세계에 드러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갤러해드가 대답하되, "경이여, 나는 아직 왕의 궁정으로 갈 수 없노라. 나를 그 길로 준비할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곧 내가 그곳으로 오리라. 그 동안에는 아서왕의 궁정에서 나를 기다리오라." 하더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 그리고 가니스의 보르스 경은 그 수도원을 떠나, 바로 그 날 캐멀롯에 있는 왕의 궁정에 도착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궁정에 갤러해드의 기사 서임에 관하여는 아무 말도 아니 하였으니, 당시에는 세상에 갤러해드라 하는 자가 있고 그가 바로 랜슬롯 경의 아들이며 랜슬롯 경이 기사의 반열에 올린 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할 때였기 때문이라.

*****

그리하여 성령 강림절 날이 이르렀으니, 이는 원탁의 잔치가 열리던 때라. 이날에 이 곳에 기록된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이후로 널리 회자되고 또한 많이 기록되기에 이르렀느니라.

〈각주: 검의 기적에 관하여〉

그 날 아침 이른 때, 물 길으러 강가로 내려가던 물길이들이 그곳에서 매우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더라. 강가 곁에 커다란 붉은 대리석의 큰 돌덩이가 서 있는 것이었으니, 그 돌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다듬어져 유리와 같이 매끄럽게 광택이 나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돌의 한가운데로 한 자루의 검이 꽂혀 있었으니, 칼날의 절반쯤이 돌 속으로 깊이 박혀 있었더라. 검의 손잡이와 칼자루는 크기와 색이 제각기 다른 보석들로 가득 박혀 있어, 보기에 매우 화려하고 장엄하였더라. 그리고 그 검의 칼날 (보이는 부분)은 빛이 번개처럼 반짝였더라.

그때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자들은 모두 재촉하여 왕의 성으로 달려가, 자신이 본 바의 소식을 곧바로 전하였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왕과 그 곁을 모신 여러 영주들의 귀에까지 닿았더라. 이에 왕은 그 영주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듣기로는 무슨 기이한 일이냐? 즉시 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각주: 왕과 그 신하들이 검을 바라보더라.〉

이에 아서왕과 그 곁을 따르던 궁정의 영주들은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자 강가로 내려갔다. 그 중에는 호수의 랜슬롯 경과 웨일스의

퍼시벌 경, 가니스의 보르스 경, 라이오넬 경, 에커 경, 가웨인 경, 그리고 기사도의 고귀한 영주들이 여럿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검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검날 주변에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보았더라. 이에 아서왕은 랜슬롯 경에게 그 글자를 읽으라고 명하셨고, 랜슬롯 경은 다음과 같이 읽었노라.

"이 검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사와 성배를 쟁취할 자를 위한 것이니라."

그때 그가 읽었노라.

"이 돌에서 이 검을 뽑아내는 자에게는 그 검이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뽑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날카로운 칼날에서 상처를 입으리라."

이때 아서왕이 호수의 랜슬롯 경에게 이르시되, "경이여, 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라. 성배를 얻으실지도 모를 일이다. 그 검을 뽑아보라." 하시니라.

〈각주: 랜슬롯 경은 검을 뽑아 들기를 시도하지 아니하리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라 믿지 아니하나이다. 또한 저는 죄인인 고로 성배를 얻어내지 못할까 두려워하옵니다. 보소서, 여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 대리석에서 이 검을 뽑아내려다 실패하는 자는 그 날카로운 칼날에 다칠 것이라고 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검을 뽑아내려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아서왕이 돌아서서 가웨인에게 이르시되, “경이여, 그 칼을 뽑아 보게나. 아마도 경이 그 대리석에서 칼을 뽑아낼 수 있을지라.” 가웨인이 이르되, “폐하, 만일 랜슬롯 경이 그 칼을 뽑아보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저도 또한 감히 그러하지 못하리이다.” 아서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가웨인, 경의 충성을 걸고 내가 경에게 그 칼을 뽑아보라고 명하노라.” 가웨인이 이르되, “사랑하는 나의 주군, 만일 폐하께서 저의 충성을 걸고 명령하시다면, 저는 폐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리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이와 같이 경을 명하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검을 들어 올린다.〉

이때 가웨인 경이 나아와 검의 손잡이에 손을 얹고 힘껏 당겨 보았으나, 그 검이 박혀 있던 대리석 돌에서는 머리카락만큼도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말하여 이르되, “슬프도다, 가웨인 경이여. 그대의 시도가 실패하였도다. 그대의 그 빛나는 날카로운 칼날에 상처를 입게 되면, 세 성채를 잃는 것보다 더 큰 해를 입게 될지 모르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럴 수도 있사오나, 왕의 명령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내게 마땅한 의무였사오니이다.”

〈각주: _퍼시벌 경이 검을 시도하다._〉

이때 퍼시벌 경이 일어나 이르되 “폐하, 저도 그 검을 뽑아보려 하나이다. 만일 그 검이 가웨인 경을 향하여 쓰임이 될진대, 나도 또한 그 검이 나를 향하여 쓰이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직 나의

것으로 그 검을 돌에서 뽑아내리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너는 그 검을 뽑아보라." 하시니라. 이에 퍼시벌 경이 그 검에 손을 대고 매우 힘껏 당겨보았으나, 머리카락 한 올의 폭만큼도 움직이지 못하더라.

그 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어떤 영주도 이 검을 들어 올릴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두 멀리서 이를 피하였으며, 그 검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대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그 곳을 떠나며 그 기적을 경탄하더라. 그리고 그 날 종일, 많은 이들이 그 검과 대리석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고, 이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더라.

이와 같이 검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 이르렀노라.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바는, 옛날의 책에서 내가 읽은 바와 같으니라. 그 책에는 이러한 모험들과 여러 가지 다른 모험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 * * * *

이러한 기적의 날이 시작되자, 곧 원탁의 잔치 때가 찾아왔다.

〈각주: 갤러해드 경이 원탁의 잔치에 이른다.〉

이때 원탁의 기사들이 모두 그 탁자를 둘러싸고 각자의 자리마다 앉아 있거늘, 뒤로는 각 기사마다 한 명의 젊은 기사가 서서 음식과 음료를 시중들고 있더라. 그들이 이같이 앉아 있을 때, 문턱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 뒤에 문턱에 흰옷을 두른 한 노인이 나타났노라. 그 노인은 숲의 은수사였으며, 그와 함께 그는 키 크고 아름다운 젊

은 기사를 데리고 왔으니, 그 기사는 갤러해드 경이었노라. 그 때 갤러해드 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꽃빛 갑옷을 입고 있었으나, 어깨에 방패를 메지 않았고, 옆에 빈 껍데기처럼 매달린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지 않았노라. 그의 어깨에서는 불꽃빛 천으로 된 긴 망토가 드리워졌고, 그 망토는 사블(검은 비단)로 안감을 댄 데다 사블로 테두리를 두르고 장식하였더라.

노인은 목소리를 높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에게 이르되, "대인들아, 여기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대들 가운데 왔노라. 그는 이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기사가 될 자요, 또한 성배를 성취할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 곳으로 데려왔노라."

이에 아서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룩한 경이여, 만일 그대가 참말을 하노라면 이는 실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이로다. 그러나 곧 이를 시험하리라. 저기 원탁의 위태로운 자리가 있으니, 이 동안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려 감히 하지 못하였노라. 이 청년이 그 자리에 앉게 하라. 그 자리는 육신의 죄가 없는 자를 위한 것이라. 그가 앉는다면 우리가 그대가 말하는 바를 믿으리라. 또한 강가 아래에는 대리석 정육면체 안에 박힌 기묘하고 경이로운 검이 있노라. 그 청년이 그 검을 뽑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반드시 믿으리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위태로운 자리를 차지하리라.〉

노승이 이르되 "임금 폐하, 폐하의 소원대로 행하리니 그가 그 자리에 앉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노인이 한 손으로 그를 잡고 아서왕이 일어나 다른 한 손으로 그를 잡으니, 이같이 함께 위태로운 자리로 갤

러해드 경을 인도하였더라. 그가 거기에 앉으매, 보라! 그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 잠시 후, 랜슬롯 경이 앞으로 나아가 갤러해드 경이 앉은 자리의 등받이에 걸린 비단 덮개를 걷어내니, 보라! 자리의 등받이에는 금자로 새겨진 한 단어가 있더라. 그 단어는 이러하니라.

=갤러해드 경=

그때 원탁의 모든 기사들로부터 큰 함성이 올라왔으니, 이는 바로 위험한 자리가 차지되었고 이로써 원탁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

이때 아서왕이 이르시되 "보라! 이 청년이 바로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자라. 원탁의 기적이 이로써 성취되었노라. 이제 그를 대리석에 꽂힌 검 앞으로 데려가라. 그가 그 검을 뽑아내리니, 그 검이 그의 것이 될 것이요. 너희는 알지니, 이 청년이 바로 성배를 성취할 자임이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검을 뽑노라.〉

이에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그들은 갤러해드 경을 강가까지 모셔갔다. 거기에 그는 대리석으로 된 돌과 그 돌에 꽂힌 검을 보았으며, 주변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검이 내 것이 분명하도다. 내가 가진 검이 없기 때문이며, 바로 이 검을 얻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노라" 하였노라.

그리하여 갤러해드 경은 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돌에서 검을 빼어냈는데, 매우 매끄럽고도 쉬이 뽑아냈노라. 검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돌에 자취 하나 남기지 않았으니, 보라! 돌은 단단하고 온전하며 어떠한 흠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때 갤러해드 경은 빛나는 날을 옆에 매달린 칼집에 꽂았더니 칼집에 딱 맞게 들어맞았으며, 이로써 그는 무장을 갖추었노라.

그후 아서왕은 그를 손에 잡고 양 뺨에 입을 맞추며 이르시되, "영광이 있기를, 갤러해드 경이여! 만천하에 영광이 있기를! 이는 네가 나의 통치 기간 전체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이기 때문이라. 나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신비와 기적이 일어났으나, 네의 도래야말로 그 모든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 이르시되, "자, 성으로 올라가자. 내가 너를 왕비께 소개하리라."

〈각주: 갤러해드 경은 캐멀롯에 머물지 않겠노라.〉

이에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아니옵니다, 주여! 지금 저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사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분이 오시려 하오니 그분과 함께 가야 하옵니다. 저는 먼저 발란의 방패를 찾으러 가리니, 그 방패는 우서 펜드래곤 시대에 형제 발린을 무심코 죽인 자의 것이었사옵니다. 그로 인해 성배는 세상에 잃어졌사오니, 저는 먼저 그 방패를 회복한 후 성배를 찾아야 하옵니다. 그 방패로 무장한 뒤, 비로소 성배를 찾아 나서리니,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이기 때문이니이다.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하오니, 지금 여기 있는 기사 중 두 분이 저와 함께 성배를 얻으리이다. 그러나 그 두 분이 누구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각주: 한 처녀가 갤러해드를 찾아오니라.〉

이때 갤러해드 경이 이같이 이르거늘,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멀리서 흰 옷을 두른 한 처녀의 모습이 나타났노라. 그 처녀는 흰 발프레이를 타고 오다가, 그 손으로는 거대하고 건장한 검은 용마의 고삐를 이끌고 왔더라.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갤러해드 경이 그녀를 맞으러 나아가니, 처녀가 매우 높고 또렷한 소리로 이르되, "갤러해드 경이여, 당신은 준비되었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예, 준비되었사옵니다."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오라!" 하더라. 이에 갤러해드 경이 검은 용마에 올라타, 아서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랜슬롯 경에게, 그리고 보르스 경과 라이오넬 경에게도 인사를 드렸노라. 그 후 그는 그 곳을 떠나 가버렸고, 그들의 도착과 떠남,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그들을 크게 경외와 놀람에 빠뜨렸더라.

그가 떠나가자, 아서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향해 돌이켜 이르시되, "이는 실로 경이로운 현상이니, 이 청년이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우리에게 왔고, 천사처럼 다시 떠났도다. 이제 우리는 원탁의 홀로 돌아가기 전에 미사를 들으러 가자."

이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미사에 나아가고자 할 때,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영주여, 이는 당신에게 슬픈 날이로소이다. 이제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위대한 기사가 존재하거든." 이에 랜슬롯 경이 대답하되, "그렇지 않사옵니다, 영주여. 이는 저에게 슬픔이 되지 못하리이다. 아시옵소서, 이 사람은 저의 친자요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그러므로 저는 그의 아버지로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 영광을 그에게 기꺼이 양도할 만하노라. 비록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주기는 원치 않으나."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이 말하였으므로, 세상은 이제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곧 그간 오직 보르스 경과 라이오넬 경만이 알고 있던 사실, 즉 갤러해드가 호수의 랜슬롯 경의 참된 아들이라는 사실이었더라.

〈각주: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나서기로 서약하더라.〉

이제 대성당의 미사가 끝난 후, 원탁의 기사들은 모두 원탁의 홀로 물러나 제각기 차례에 따라 앉았더라. 모든 이들이 앉자, 아서왕이 일어나 이르시되, "원탁의 기사들이여, 영주들이여, 너희 모두는 방금 전 갤러해드 경이 말한 바를 들었노라. 그는 바로 너희 중 두 명이 그와 함께 성배를 성취할 것이라 하였노라. 이제 내 생각에는, 너희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몇몇 그 거룩한 잔을 찾아 나서야 하리라. 그래야만 그와 합류할 수 있으니까. 만일 가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은 그 위대한 영광을 성취할 기회를 놓칠지 모르노라."

이와 같이 아서왕이 이르시니, 이에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각기 제 자리에서 일어나니라. 그리고 각기 자기의 검을 빼어 들고, 그 칼잡이를 십자가 삼아 눈앞에 높이 들었노라. 그리고 각기 그 십자가 위에 맹세하되, 곧장 왕의 궁정을 떠나 성배를 찾으리라,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혹은 성배를 성취할 때까지 찾으리라, 하였더라.

〈각주: 아서왕이 슬픔을 안으시니라.〉

그때 아서왕은 깊은 슬픔에 잠기었으니, 이는 그의 모든 기사가 이와 같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그 중 많은 자들은 아서왕이 자신의 궁정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노라. 그러나 아서왕이 가장 크게 상심한 것은 가웨인 경의 떠남이었으니, 이는 그가 궁정의 모든 기사 중에서도 가웨인 경을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가웨인 경은 왕이 가장 아끼던 자매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니라.

이에 아서왕이 가웨인 경에게 이르시되, "슬프도다, 가웨인아, 너는 나의 삶의 기쁨을 죽였도다. 너희가 모두 서약한 이 맹세로 인하여, 이 궁정에 있던 모든 기쁨이 사라졌노라. 지금까지 캐멀롯의 이 궁정에는 큰 기쁨과 좋은 평화가 있었으나, 이제 그 기쁨은 날개를 달고 날아갔도다. 비록 너희 중 많은 자가 이 곳으로 돌아오리라 할지라도, 나는 많은 자가 죽을 것을 보노라. 또한 나는 이 때부터 큰 쓴맛과 원한이 따르고, 곧이어 죽음과 황폐함이 우리 모두를 덮칠 것을 보노라. 이는 멀린이 예언한 때이니, 너희 모두 그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예언에 따르면, 오늘 원탁이 완성되었으니, 이후 원탁은 곧 전쟁과 분쟁으로 흩어져 완전히 파괴될 것이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아서왕을 위로하시니라.〉

이때 랜슬롯 경이 왕께 아뢰되 "폐하, 위로하소서. 비록 원탁이 이와 같이 소멸할지라도, 그것이 해체되기 전에 폐하와 우리 모두에게 큰 영예와 위대한 영광이 이르리니이다. 원탁의 기사들이 성배를 성취하는 것보다 폐하께 더 큰 영광이 어찌 있겠사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탐색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모험하는 것보다 더 큰 영예가 어찌 있겠사옵니

까? 우리가 모두 여기저기서 죽음을 찾아 헤매고 있사오니, 만약 이 사연으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리석은 다툼이나 헛된 모험으로 죽음을 맞는 것보다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아서왕이 이르시되, "랜슬롯이여, 네가 말하는 바는 지극히 참되도다. 그러나 나는 이 일로 인해 크게 근심하노라. 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슬픔을 바라볼지라도, 그 슬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면, 그것이 감추고 있는 영광보다 훨씬 더 커 보여 우리의 눈을 가리우느니라. 랜슬롯이여, 이 또한 내게 해당되도다. 내 기사들이 성배를 성취할 영광을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원탁이 해산된다는 슬픔은 내게 지극히 크도다. 아, 슬프다, 슬프다, 이것이 어찌 그리 되어야 하랴!"

* * * * *

이와 같이 원탁의 기사들은 성배를 찾아 나섰으니, 그 수가 모두 오십인이었더라. 이렇게 떠난 자들은 모두 기이한 모험을 겪었고, 그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이 기록이 전하는 자들은 오직 랜슬롯 경, 가웨인 경, 퍼시벌 경, 보르스 경, 그리고 갤러해드 경과 한 두 명의 다른 기사들뿐이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모험에 관하여 이제 말하리라. 그러므로 이하에 기록된 일들의 역사가 이어지느니라.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호수의 부인과 갤러해드 경]

[그림] 제2장

백색 수도승들의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한 이상한 부인이 갤러해드 경을 인도한 일. 그 곳에서 그는 원탁의 기사 두 명을 만나게 된 일. 바그데마구스 왕이 방패를 착용하게 된 일과, 그 방패가 그에게서 빼앗겨 갤러해드 경에게로 전해진 일. 또한 그 방패에 얽힌 이야기.

갤러해드 경은 아서왕의 궁정이 있던 캐멀롯을 떠나, 온통 흰 옷을 입은 처녀를 뒤따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 나아갔고,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그 곳에서 처녀가 이르되, "갤러해드 경, 이제 여기서 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저 길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시면 곧 만나고 대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각주: 갤러해드 경이 낯선 땅에 이르러라.〉

이때 갤러해드 경이 처녀의 지시를 따라 그 길을 따라 나아가니라. 그가 숲 속을 멀리 멀리 달려가니, 마침내 그는 아로이 숲, 즉 모험의 숲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말을 몰고 있자, 마침내 그는 매우 기이한 곳에 닿았더라.

그가 보니, 나무들이 그 주위에서 점점 드물어지더니, 마침내 나무들이 그 주변에서 사라지고, 그는 넓고 트인 평야의 가장자리에 서 있게 되었더라. 그가 보니, 이 평야 사방에는 백합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고, 수선화도 자라고 있었더라. 모든 꽃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며, 마치 그에게 인사하듯 움직였더라.

갤러해드 경이 보니, 이 곳은 실로 놀라운 곳이었더라. 그 곳을 비추는 빛은 해의 빛도 달의 빛도 아니었노라. 그것은 두 천체에서 오는 빛이 아닌, 빛나는 황금빛 영광이었더라.

그리고 그 꽃밭 평야 한가운데서 갤러해드 경은 넓은 호수를 보았노라. 그 호수는 그 위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맑은 물로 된 매끄러운 거울과도 같았더라.

이때 갤러해드 경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더라. 그는 이것이 평범한 대지의 땅이 아니요, 요술의 땅임을 깨달았노라.

그때에 그는 갑자기 큰 기쁨의 목소리들이 외치는 것을 듣더라. "환영하노라, 갤러해드 경!"이라. 그러므로 그가 둘러보니, 한쪽에는 푸른 실크로 만든 아름답고 빛나는 천막이 서 있더라. 그리고 그 천막 근처 들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부인들과 영주들, 그리고 하인들도 섞여 있어 모두 매우 화려하고 무지개빛 옷을 입고 있어, 마치 그곳에 다양한 깃털을 가진 요란한 새떼가 모인 것 같더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그 활기차고 즐거운 무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들이 아름다운 꽃들로 화환과 화관을 엮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들, 곧 호수의 부인을 모시는 시종들이라 알지니, 그 호수는 그녀가 거처하는 곳이요, 그가 그 곳으로 인도된 것은 그녀와 다른 이들이 그를 보고 알게 하려 함이라.

〈각주: 갤러해드 경은 그곳에 나흘을 머무르니라.〉

이곳은 갤러해드 경에게 지극히 기쁘게 여겨졌는지라, 그는 그곳에 머무르며 그 즐거운 동료들과 함께 삼 일 동안을 보냈노라. 그는 그들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렸으니, 그들은 때로는 연회를 벌이고 때로는 노래를 불렀으며,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나누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삼 일은 갤러해드 경에게 매우 즐겁고도 빠르게 지나갔더라.

〈각주: 호수의 부인이 오시더라.〉

이에 나흘째 되는 날의 아침이 밝자, 그들의 한가운데에 한 부인이 나타나니,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지극한 공경과 높은 존경을 바쳤더라. 이 부인은 지극히 기이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노라.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푸른 실크 옷을 두르고 있었고, 그 머리카락은 길고 유난히 검으며, 지극히 부드럽고 윤기가 났더라. 그녀의 얼굴은 상아처럼 희고, 그 눈은 상아에 박힌 보석처럼 빛났노라. 그리고 그녀의 목과 팔 둘레에는 에메랄드 돌을 박은 금사슬과 팔찌가 감겨 있었더라.

이러한 것들과 그녀를 둘러싼 모든 광경을 보시며, 갤러해드 경은 그 부인이 인간이 아님을, 곧 요정임을 깨달았노라.

(실로 이는 호수의 부인이었으나, 그는 그때나 그 후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풀밭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니라.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띠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갤러해드여.

나를 향해 무릎을 꿇지 말라. 나는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흙의 존재니라." 하시고는 다시 이르시되, "너의 방패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아뢰되, "부인, 제게는 방패가 없나이다." 그녀가 이르시되, "자, 함께 가서 너를 위한 방패를 찾아보자."

그때 곧바로 여러 시종들이 달려와, 그중 몇몇은 갤러해드 경을 위해 그의 검은 기마를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부인을 위해 우유처럼 하얀 아름다운 재넷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 재넷의 등에는 진홍빛 스페인 가죽으로 만든 안장이 올려졌는데, 이는 금과 보석으로 새겨져 있어 큰 광채와 찬란함으로 빛나고 반짝이더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자신의 말을 타셨고, 낭자는 자기를 재넷 위에 태우셨으며, 그리하여 두 분은 함께 그 곳을 떠나 가시니라.

〈각주: 호수의 부인이 갤러해드 경을 방패 앞으로 이끌어가니라.〉

이렇게 그들은 하루 종일 말을 몰았으며, 오후가 기울어갈 무렵 캐멀롯 마을이 있는 숲의 반대편 끝자락에 다다랐다. 그 곳에는 백색 수도승들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부인은 그곳을 가리키며 갤러해드 경에게 이르되, "그곳에 너는 방패를 찾으리라" 하였노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하셨으나, 보라! 그녀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는 홀로 남았노라. 이때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매, 갤러해드 경은 그 거룩한 집으로 내려가시니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수도원에 들어오더라.〉

그가 수도원에 이르러 창끝의 손잡이로 성문을 두드리니, 문지기들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그를 보고는 그 곳으로의 오심을 환영하더라. 이에 그가 수도원 안뜰로 들어가니 여러 이들이 모여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받아 마구간으로 이끌고 가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집 안으로 인도한 뒤 그가 머무를 방으로 데려가니라. 그곳에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벗겨내고 미지근한 물로 된 목욕통으로 그를 모셨더라. 그 후 그들은 그를 부드럽고 따뜻한 옷으로 입혀 주었으니, 그는 큰 편안함과 안위를 얻었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바그데마구스 경과 에와인 경을 발견하더라.〉

그가 이와 같이 차려입자, 그들은 그를 그 수도원의 대청으로 인도하였고, 거기서 그는 이미 두 명의 다른 기사들이 그곳에 있음을 보았노라. 그 중 한 분은 에와인 경이요, 다른 한 분은 한때 바그데마구스 왕이라 불렸던 바그데마구스 경이더라. 이 두 분은 모두 원탁의 기사들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맞이하여 큰 환대를 베풀었더라.

에와인 경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기사님, 어찌하여 이 곳에 이르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가 그 마법 호수 근처의 숲 한가운데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요정인 부인이 그를

그 곳으로 인도하였으며, 거기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방패가 있으니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

에와인 경과 바그데마구스 왕이 이 모든 말을 들은 뒤, 에와인 경이 갤러해드 경에게 이르되 "경이 함께한 그 부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호수의 부인이로다. 그녀가 경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그녀가 아서왕의 여러 신하들에게도 나타나셨기 때문이니라."

〈각주: 수도원장은 방패에 관하여 말하더라.〉

그때 마침 그 곳의 원장이 찾아와, 바데마구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원장님, 청하건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이곳에 그런 모양의 방패가 있습니까?" 원장이 그에게 대답하되, "소인, 있나이다. 이곳에 기묘하고 신기한 방패가 하나 있나이다. 그것은 제단 뒤에 걸려 있으며, 하나님이 아시듯 얼마나 오래 그곳에 걸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데마구스 왕이 이르되, "나는 그 방패를 보고 싶다." 원장이 대답하되, "내일 아침에 그것을 보여 드리겠사오나, 오늘 밤은 아니옵니다. 소인이 방패를 보여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저녁 식사로 인도하러 왔사오니이다."

그때 그들이 저녁 식사를 차려 앉아 있을 때, 갤러해드 경은 두 기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 어떻게 하여 이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리다," 에웨인 경이 이르되, "바데마구스 경과 저는 성배를 찾아 캐멀롯을 떠나 길을 나섰나이다. 우리가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한 후, 우리는 아로이 숲, 혹은 모험의 숲이라 불리는 숲의 한 부분에 도착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동안

방황하며 그 숲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는 모험의 숲은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종종 매우 어렵기 때문이옵나이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는 그 숲을 탈출하는 길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숲의 반대편에 이르렀나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래에 이 곳을 바라보았으며, 그리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나이다. 경이시여,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길이옵니다."

이렇게 세 명의 기사들과 수도원의 고위 관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매우 유쾌하게 담소를 나눴더라. 그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던 담소를 그치고 나니, 모두 피곤함을 느껴 각자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가 잠들었더라.

〈각주: _수도원장이 세 기사를 방패 앞으로 데려간다._〉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고,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때에, 바데마구스 왕이 수도원장에게 이르되, "나리, 우리가 어제 밤에 말하던 그 방패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니, 수도원장이 이르되, "내가 그러하오이다. 나를 따르소서." 하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성당으로 나아가게 하고, 제단 뒤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그들이 방패를 보았으니, 방패는 벽에 걸려 있더라. 그 방패는 매우 희고 빛나는데, 마치 빛나게 닦은 은인 듯하였더라. 그리고 그 방패 위에는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새김이 매우 강건하고 용감하였더라.

〈각주: 바데마구스 왕은 방패를 탐내니라.〉

그러나 바데마구스 왕이 그 방패를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몹시 탐내며 이르되,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방패라.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얻게 하소서. 대신에 저는 제 방패를 갤러해드 경에게 드리겠나이다.” 이에 수도원장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여, 저는 기꺼이 그 방패를 드리려 하나니, 전하옵건대 그 방패에 관하여는 그것을 취하는 자가 그 방패를 위해 정해진 한 사람 외에는 해를 입고 큰 시련을 겪으리라 전하옵나이다.” 바데마구스 왕이 이르되, “그럴 수도 있겠으나, 하필이면 제가 그 방패를 위해 정해진 자일지라. 어쨌든 저는 검증된 잘 알려진 기사이니, 제가 그것을 취한다면 기사의 체면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 하리이다.” 수도원장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영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취하시오.”

이에 바데마구스 왕이 방패를 받아 목에 걸고, 다른 두 기사에게 이르되, “경들이시여, 이 방패에 어떤 불운한 일이 얽혀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를 지키고 간직해 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여기서 나를 기다려 주기를 청하노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는 돌아와 그 일을 보고하리라.”

이때 갤러해드 경과 에웨인 경은 그 곳을 떠나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머물기로 대답하더라.

〈각주: 바데마구스 경이 숲 속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니라.〉

그 후 바데마구스 경은 말에 올라타서 떠나갔노라. 그가 말의 고삐를 숲속으로 향하게 하여, 수도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달렸더라. 그러자 마침내 두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돌

로 만든 십자가가 서 있었고, 바데마구스 경은 거기서 백의의 기사를 보았노라. 그 기사는 흰 말 위에 앉아 있었더라.

백의의 기사는 바데마구스 경이 지나가던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매우 위엄 있고 엄숙해 보였노라. 바데마구스 경이 백의의 기사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백의의 기사가 그에게 이르되, "영주여, 내가 당신의 목에 걸린 방패를 보았소이다. 그 방패를 어디서 얻었는지 내게 알려 주시오."

바데마구스 경이 그에게 이르되,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백색 수도승들의 수도원에서 이 방패를 얻었나이다."

백의의 기사가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명하노니, 그 방패를 거두어 되돌려 주시오. 그 방패는 당신 것이 아니오."

바데마구스 경이 이르되, "나는 강요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소이다. 이제 내가 이 방패를 얻었으니, 전투에서 빼앗기지 않는 한, 이는 내 것으로 간주할 것이오."

이에 백의의 기사가 대답하되, "좋소. 그렇다면 그 방패를 두고 우리가 싸워야 하겠소이다. 즉시 준비하오. 나와 결투하오."

〈각주: 바데마구스 경이 백기사에게 쓰러지다.〉

이에 각 기사들은 스스로를 준비하매, 그들이 모든 방면으로 준비되자, 그들은 큰 격렬함으로 서로 돌진하였더라. 그 충돌에서 바데마구스 경의 창은 백기사 방패를 매우 매끄럽게 지나갔으나, 백기사의 창은

바데마구스 경의 어깨를 관통하였으니, 그 어깨는 그의 몸을 보호하던 방패 위쪽에 있어 방패가 그 부위를 보호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백기사의 창끝은 바데마구스 경의 어깨를 관통하여, 그가 큰 충격으로 땅에 던져지게 하였더라.

그때 곧이어 백색의 기사가 와서는, 바데마구스 경이 누워 계신 곳으로 다가가 그에게 이르되, "경, 몸은 어떠십니까?" 바데마구스 경이 이르시되, "슬프도다, 영주여, 나는 매우 중하게 다쳤노라. 당신의 창이 내 어깨를 관통하였사오며, 나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이에 흰 기사가 자신의 말에서 내려 바데마구스 경을 들어 일으켰노라. 그가 상처를 살펴본 후, 바데마구스 경을 자신의 말 위에 눕혔더라. 그 후 그는 바데마구스 경의 마필의 고삐를 잡고, 부상당한 자와 함께 그가 그날 아침에 왔던 수도원으로 되돌아갔노라.

〈각주: 백마 탄 기사가 바게마구스 경을 수도원으로 데려가니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그 곳에 도착하였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바데마구스 경의 말을 거두어 들고, 그를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모셔와 침상에 눕힌 후 그의 상처를 살피니라. 그러나 흰 갑옷을 입은 기사를 찾으려 할 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들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바데마구스 경의 상처는 매우 깊어, 그는 오랫동안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더라.

그러나 바데마구스 경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 다음 날, 그는 갤러해드 경을 자기 곁으로 부르니라. 갤러해드 경이 나아오자 바데

마구스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내가 그 방패를 가졌던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었노라. 그로 인해 나는 고난을 겪었노라. 내가 믿건대, 그 방패는 실로 당신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이제부터는 그 방패를 가져가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만나 그 방패가 내 것임을 알았던 그 백기사의 정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며, 아마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오.”

이에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경이시여, 저는 그 방패와 그 방패에 따르는 모든 위난을 맡아 받사옵니다. 이는 그 방패가 내 것이라 믿고, 필요시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각주: 갤러해드 경이 방패를 든다.〉

이에 갤러해드 경은 방패를 받아들고 목에 걸어 매었다. 그 후 그의 말을 부르더니, 말에 올라타 그곳을 떠나 길을 떠났더라.

그러나 바데마구스 왕은 다시 여행할 만할 몸이 되기까지, 수일과 여러 주일이 지나도록 그 수도원에 머물렀더라.

그 후 갤러해드 경은 그 하루 종일 길을 떠났고, 곧 오후가 기울 무렵 그는 배가 고파져, 어디서 무엇을 얻어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때 그는 작은 숲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건너자 다른 쪽 끝에서 작은 열린 곳으로 나왔는데, 그곳에는 짧은 푸른 잔디로 된 아름다운 초원이 있었다.

거기서 그는 다채로운 비단으로 지어진 천막을 보았고, 그 천막 앞에는 흰 갑주를 입은 키가 크고 위엄 있는 기사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기사는 갤러해드 경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이에 갤러해드 경이 대답하되 “경, 나는 저쪽 수도원에서 왔나니, 거기서 이 방패를 얻었노라” 하니, 백의 기사가 이르되 “그대는 갤러해드 경이냐?” 하거늘, 갤러해드 경이 대답하되 “예, 내가 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백의 기사를 만나니라.〉

그때 흰 갑옷을 입은 기사(White Knight)가 그에게 이르되, “부디 말에서 내리시어 들어오소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 왔사오니, 잠시 쉬어가시오.” 하니 갤러해드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경, 경의 은혜에 감사하노라.”

이때 흰 갑옷을 입은 기사가 갤러해드 경을 말에서 내리게 도와드렸다. 그리고 그를 천막 안으로 모시니, 갤러해드 경은 자기를 위해 차려진 성찬의 잔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에 두 분은 식탁에 앉으시고, 녹색 사미트 천으로 옷을 입은 세 시종이 그들을 모셨으며, 그들 앞에는 지극히 훌륭한 음식과 음료가 차려져 있더라. 두 분은 그 음식과 음료를 드시며 식사를 마치셨노라.

이에 백마 탄 기사(White Knight)가 이르되, “각하, 내일 우리가 잠시 함께 말을 달리리니, 그 동안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시옵소서.” 하니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리다.”

그리하여 잠시 후, 두 명의 시종이 나타나 성 갤러해드를 모시고 내려와, 깃털로 채워 부드럽고 호화롭게 만든 침상으로 그를 인도하였더라. 그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쉬며 잠들었노라.

다음 날 아침이 밝자 갤러해드 경이 일어나셨고 백기사도 일어나셨으며, 시종들이 와서 두 분을 무장하게 하였더라. 이에 각자 자신의 말에 올라타 함께 떠나시니라.

〈각주: 백마 탄 기사가 갤러해드 경에게 방패에 대해 말하더라.〉

이때 두 사람, 즉 갤러해드 경과 백색 기사(White Knight)가 이같이 길을 가며 나아가니, 백색 기사가 갤러해드 경에게 이르되, “경이여, 성배의 이야기와 경이 목에 걸고 다니는 그 방패의 유래를 아느냐?” 하니,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아니오이다. 그러나 내가 경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노라.” 백색 기사가 이르되, “내가 말하리라.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서 펜드래곤의 옛날에 쌍둥이 형제인 두 기사가 있었노라. 그 중 한 기사의 이름은 발란이요, 다른 한 기사의 이름은 발린이더라.

“그때 마법의 도시 사라스에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니, 하나는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복된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요, 다른 하나는 그 깊고 불쌍한 상처에서 피가 흘러들었던 잔이었노라. 그러나 이 두

보물이 어찌하여 사라스 성에 이르렀는지는 말하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라."

〈각주: 발란 경이 사라스에 이르게 된 일.〉

"이때 발란 경은 사라스의 도시에 있어 그 나라의 왕, 곧 피셔 왕의 성에서 환대를 받고 있었노라. 이 왕은 발란 경과 원수지간이 되어 그를 매우 증오했노라. 그 밤, 발란 경이 침상에서 쉬고 있을 때, 피셔 왕은 여러 무리를 거느리고 무장하지 않은 채 누워 있는 발란 경을 습격하였노라.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자들로부터 도망쳐 성의 예배당으로 피하였노라. 그곳에는 두 가지 거룩한 유물, 곧 창과 잔이 보관되어 있었노라. 적들이 그를 뒤쫓아 제단 계단 위에서도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창을 본 발란 경은 그것을 집어 들고 그들을 향해 돌진하였노라. 그 공격에서 그는 피셔 왕에게 창으로 매우 크고 가혹한 일격을 가하였노라. 창끝은 피셔 왕의 갑옷을 뚫고 그의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혔노라. 그 후 발란 경은 피셔 왕과 함께 있던 다른 자들을 공격하여 모두를 쫓아냈노라. 그리하여 발란 경은 그 거룩한 창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였노라."

발란 경이 창을 들고 적들이 그 곳에서 물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하늘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발란이여, 발란이여, 네가 무엇을 했느냐?'

〈각주: 지진이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치자, 땅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공명음이 들려왔다. 그 울림은 점점 커져, 마침내 거대한 지진이 되어 땅이 발 아래로 흔들렸다. 이때 성당과 성채, 그리고 그 곳의 모든 것이 요동쳤고, 성채는 무너져 내려 한 돌이 다른 돌 위에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은 폐허 아래 묻혔다. 동시에 창과 잔은 그곳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것들을 본 자는 없었다. 다만, 환상 속에서만 그들이 보였을 뿐이다. 퍼시벌 경은 창과 잔을 모두 보았으며, 다른 이들도 때때로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각주: 발란 경이 탈출한 일화〉

"발란 경은 그 성채의 붕괴로 죽지 아니하였으며, 피셔 왕 또한 죽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성채 안의 그들 모두는 그 무너짐과 함께 모두 죽고 말았느니라. 그러나 차라리 피셔 왕이 죽었더라면 나았으리니, 이는 그의 어깨에 입은 상흔이 아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비록 그가 살아가는 날마다 그 상흔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피셔 왕은 오랜 세월 동안 죽지 못하였노라. 갈라해여, 이것이 바로 성배의 이야기니라."

"이 방패에 관하여 말하노니, 이는 발란 경의 방패라 알라. 이것이 백색 수도승들의 수도원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더라."

〈각주: 발란 경이 강가의 기사와 싸운 일.〉

어느 날 발란 경이 어느 나라의 한 곳으로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백색 수도승들의 수도원이 있었고, 또한 그 곳의 강 건너편을 지키는 한

기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노라. 이에 발란 경이 그 강으로 가서 보니, 과연 그 기사 하나가 강을 지키고 있더라. 그러자 발란 경이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그 기사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두 사람은 서로 싸우기에 이르렀노라.

그들은 한 아침 내내,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싸웠고, 서로에게 무수히 극심한 상처를 입혔노라. 피를 잃고 끊임없이 싸운 탓에 그들은 점점 더 약해져, 결국 둘 다 큰 힘들이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노라. 그러나 마침내 발란 경이 그 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그를 땅에 쓰러뜨렸노라.

그리하여 발란 경이 그의 투구를 벗겨 그를 끝장내려 하였으나, 투구가 벗겨진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죽이려 하던 자신의 쌍둥이 형제 발린 경의 얼굴임을 보았노라.

이에 그가 공포에 질려 외쳤노라. “슬프다, 내게 재앙이여! 내가 죽이려 하는 자는 바로 너, 발린이냐? 보라! 나는 너의 형제 발란이라!”

〈각주: _발란 경이 그의 형제 발린을 죽인 일._〉

그때 발린은 자신이 임종에 가까움을 깨닫고 크게 울었노라. 그는 형제 발란을 용서하고, 자신이 죽은 뒤 그 곳에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 아래 묻어달라 명하였노라. 그 나무는 온통 가시로 덮여 있어 마치 철제 장애물과도 같았더라. 그 후 발린은 숨을 거두었고, 발란은 그 명을 받아 그를 그곳에 묻어주었노라.

곧 근처 수도원에 있던 여러 백색 수도승들이 달려와 발란을 수도원으로 모셨으나, 그는 심히 중상을 입고 비통함에 마음이 찢어졌으므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더라.

〈각주: _바란 경이 방패에 표시를 남긴 일._〉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의 방패를 가져다가 자신의 피로 그 위에 큰 십자가를 그렸노라. 그리고 그는 그 곳의 수도사들에게, 그 성배를 성취하여 다시 사라스로 돌려보낼 자가 올 때까지 그 방패를 간직해 두라고 명하였노라. 그리고 발란 경은 그 방패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니, 그 방패는 그 때가 올 때까지 항상 은처럼 빛날 것이며, 피의 십자가는 그 날의 붉음처럼 항상 붉게 남을 것이요, 오직 그 방패가 의도된 자 외에는 아무도 그 방패를 쓸 수 없을 것이며, 인간의 손으로 벼려진 어떠한 무기의 날카로운 끝으로도 그 방패를 관통할 수 없을 것이니라. 이와 같았노라. 바로 이것이 네가 지니고 있는 방패니라, 갤러해드 경."

이 모든 것을 갤러해드 경은 듣고 듣거늘, 백마 탄 기사가 그 말을 마치자 그가 이르되, "경이시여, 내가 감히 묻고자 하노니, 경이 누구인지 알길 원하노라. 청컨대 그것을 내게 말해 주소서." 그러나 백마 탄 기사는 다만 미소 짓고 답하되, "내가 누구인지를 일러줄 수 없노라. 다만 이것만은 말하노니, 나는 이 방패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감시해 온 자라. 이제 내가 보기에, 이 방패는 옛날 발란 경의 손보다 더 능숙하고도 정성스럽게 이를 돌보고 아낄 수 있는 손에 떨어졌음을 알노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백기사에게서 헤어지니라.〉

이 두 기사는 해가 지는 때까지 함께 길을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도로가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백기사가 갤러해드에게 이르되, “영주여, 여기서 저는 당신을 떠나야 하오. 그 길로 계속 나아가시오. 곧 당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 있는 곳에 이를 것이며, 그곳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말한 백기사는 갤러해드에게 인사를 했고, 갤러해드도 백기사에게 다시 인사하였다. 그러자 백기사는 한쪽 길로 들어가 숲속으로 사라졌고, 갤러해드는 지시받은 대로 다른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갤러해드는 숲에 도달하기 전에 백기사를 뒤돌아보았으나, 보라,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나무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땅 위에 작은 동그란 반짝이는 금빛 원반들을 뿌린 듯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후 갤러해드 경은 길을 계속하여 나아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종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숲의 은수자의 예배당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갤러해드 경은 말을 재촉하여 앞장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배당을 보았고, 또한 베스퍼를 위해 종을 치고 있는 숲의 은수자를 보았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은 숲의 은수자와 함께 묵는다.〉

그때 갤러해드 경은 매우 고요하고 순결한 곳으로 다다랐으니, 이는 그 곳 나무 가지에는 수많은 새들이 앉아 있고, 숲의 여러 들짐승들과 함께 한 암사슴과 그 새끼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들이

숲의 은수자를 사랑하여 그가 그 곳 어딘가로 갈 때마다 그를 따라다녔더라.

그때 숲의 은수사는 갤러해드 경을 보고 그를 맞이하였으며, 그를 데려다가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고 밤을 지낼 숙소를 준비해 주었더라.

* * * * *

이때에 갤러해드 경은 방패를 두르니, 이로써 그는 온전히 무장을 갖추었더라. 그의 방어를 위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의 역사를 말하였으니, 너희가 그 일이 어찌 이루어졌는지 알지니, 이제 그를 온전히 무장하게 하였은즉, 우리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모험들의 더 깊은 역사로 돌아가리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갤러해드 경이 멜리아스 경을 만나다]

[일러스트레이션] 제삼장

갤러해드 경이 멜리아스 경을 만난 일. 멜리아스 경이 패배한 일, 그리고 갤러해드 경이 적들을 물리친 일. 또한 갤러해드 경이 처녀들의 성에서 행한 일.

이튿날 새벽, 아침 식사를 마친 갤러해드 경은 서둘러 길을 떠났노라. 그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숲 속을 헤매며 걸었더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두 길이 서로 교차하는 곳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돌로 만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노라. 그 곳에는 맑고 투명하며 차가운 물이 흐르는 샘이 있었는데, 갤러해드 경은 그 샘가에 앉아 있는 한 젊은 기사를 보았노라.

이 젊은 기사는 물 한 모금씩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더니, 이제 투구를 곁에 둔 채 앉아,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 그의 이마와 머리카락에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각주: 갤러해드 경이 멜리아스 경을 만나다.〉

갤러해드 경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젊은 기사에게 이르되, "기사여, 청하건대 당신께서 누구시인지 말씀해 주시오." 젊은 기사가 답하되, "그리하겠사오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과 신분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하겠소."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그리하겠소. 당신께 아뢰오니, 나는 갤러해드라 불리며, 아서왕의 원탁 기사로 막 임명되었노라." 다른 자가 이르되, "나는 멜리아스라 불리며, 덴마크 왕의 아들이라."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그대의 정보에 감사하노라." 그리고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께서 홀로 이 숲에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밤," 멜리아스 경이 이르되, "내가 이곳으로 왔노라. 그 후로 나는 이 숲을 가로질러 여행해 왔노라. 그때 나는 숲속에서 잠을 잤으며,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지 못했노라."

"하!" 갤러해드가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충고를 하노라.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이 도로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잠시 후, 너는 숲 속의

은수사의 예배당에 이를 것이라. 그곳은 그리 멀지 않으니. 그 은수사가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리라."

멜리아스 경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영주여." 하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 투구를 쓰고 말에 올랐으며, 갤러해드 경에게 인사를 드리니 갤러해드 경도 또한 인사로 답하더라. 이에 그들은 서로 헤어져 각기 자기 길로 향하였더라.

〈각주: 멜리아스 경이 두 기이한 기사와 조우하다.〉

이때 멜리아스 경이 그 곳을 떠나 반 마일도 채 가지 못하였을 때, 두 기사가 그와 마주쳤다. 멜리아스 경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한 기사가 말의 방향을 길목에 가로막으며 이르되, "경이시여, 내가 청하노니 경께서 누구시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 주시오." 이에 멜리아스 경이 매우 온화하게 답하되, "영주이시여, 제 이름은 멜리아스요, 저는 숲의 은수사의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나이다."

그 기사가 이르되 "그렇소, 경이여. 당신이 여기로 오시는지라, 내가 당신과 한 판 겨루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즉시 나를 맞서 대할 준비를 하시오."

이에 멜리아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여, 저는 귀하에게 원한이 없사오나, 만일 귀하께서 저와 싸우기를 원하시거든, 마땅히 이에 응할 수밖에 없사오리다" 하더라.

〈각주: 기이한 기사가 멜리아스 경을 쓰러뜨리니라.〉

이에 멜리아스 경은 그 대결에 모든 준비를 갖추었고, 다른 기사 역시 그에 맞서 준비를 다했더라. 양자가 모두 만반의 태세를 갖추자, 그들은 서로를 향해 최대의 격렬함으로 돌진하였노라.

그들은 길목 한가운데서 충돌하였고, 멜리아스 경의 창은 그 격돌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으나, 상대 기사의 창은 꺾이지 않고 멜리아스 경의 방패를 관통하여 그의 옆구리를 깊게 베었노라. 그는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던져져, 마치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웠더라.

그때 다른 기사는 말에서 뛰어내려 멜리아스 경에게 달려가 그의 투구를 벗겨내고, 자비창(미세리코르디아)을 그의 목에 대며 이르되, "기사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곧장 너를 죽이리라."

멜리아스 경은 의식을 되찾아 이르되, "경이시여, 저를 죽이지 마소서. 저는 크게 다쳤사옵니다."

이제 우리는 갤러해드 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노라.

그가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귀에 들리는 듯 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노라. 그 목소리가 이르되, "돌아가라, 갤러해드 경이여. 멜리아스 경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였노라." 하고 또 다시 이르되, "급히 돌아가라, 멜리아스 경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였노라." 하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멜리아스 경을 구하기 위해 말을 몰다.〉

그때 갤러해드 경은 자신의 말을 돌려 세우고 전진시켰으니, 이는 만약 그가 그 목소리를 잘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되돌아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가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더라.

곧이어 그는 멜리아스 경이 쓰러진 그 장소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한 기사가 땅에 엎드린 채로 미세리코르디아를 다른 기사, 곧 멜리아스 경의 목에 대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기사가 내뱉는 말과 멜리아스 경이 내뱉는 말을 모두 들었노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큰 소리로 외쳤노라. "기사여, 그 손을 거두라. 나를 돌아보라. 내가 여기 그 기사를 보호하러 왔노라."

그때 그 기사는 손을 거두며 외쳤노라. "너는 누구인가, 여기로 오는 기사여?" 갤러해드 경이 대답하시되, "내가 누구인들 어떠하리, 다만 내가 넘어진 기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왔노라." "좋다," 그가 이르되, "네 뜻이 그러하거든 그렇게 하라. 준비하라." 이에 그 기사는 일어나 말로 달려 올라타고, 창을 손에 쥐었노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두 기사는 서로를 향해 공격의 자세를 취하였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낯선 기사를 쓰러뜨리니라.〉

이에 두 기사가 천둥번개처럼 서로에게 돌진하여 각기 상대방의 방패 한가운데를 내리쳤다. 그러나 그 기사의 창은 갤러해드 경의 방패를 관통하지 못하였으니, 마치 방패가 강철로 만들어졌기라도 한 듯 창은 방패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며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노라. 그러나 갤

러해드 경의 창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관통하여, 상대방의 방패를 뚫고 그의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으며, 끝끝내 창끝이 그의 등 뒤로 한 손가락 너비만큼 나와 섰더라. 그 충격으로 그 기사는 거세게 땅바닥으로 던져져 목이 부러져 즉사하였더라.

다른 기사가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외쳤노라. "하, 경이여, 당신이 무엇을 했소이까? 당신은 나의 형제를 죽였소이다." 이에 그는 검을 빼들고 갤러해드 경을 향해 돌진하거늘, 갤러해드 경은 창을 던져버리고 방어를 위해 검을 빼들었노라. 이때 그 기사가 갤러해드 경에게 일격을 가하였으나, 그는 검과 방패로 이를 막아냈노라. 그러고 나서 그는 안장에 서서 그 기사에게 일격을 날렸으니, 그 속도와 위력은 번개와 같았노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다른 기사를 물리치니라.〉

다른 기사는 그 일격을 막으려 했으나, 그의 머리를 피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격은 그의 왼쪽 어깨에 거대하고도 두려운 힘으로 떨어졌더라. 칼날이 어깨 갑옷을 관통하여 팔의 살과 뼈를 베어냈고, 그 결과 팔이 몸통에서 완전히 잘려나갔더라.

그때 기사는 크고도 쓴 비명을 지르며 검을 내던지고, 말에 박차를 가하여 숲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박차를 가하며 큰 소리로 외쳤노라. "오, 주여! 슬프도다, 내게 재앙이 내리셨도다!"

〈각주: 갤러해드 경이 숲의 은수사를 찾아 멜리아스 경을 모시니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그의 검을 닦아 다시 칼집에 꽂았다. 그리고 그는 멜리아스 경을 돌아보며 이르되, “경, 몸은 어떠합니까?” 멜리아스 경이 이르되, “영주여, 저는 중상을 입었사오나 경께서 저를 구원하셨나이다. 저토록 격렬하고 두려운 타격을 가한 것을 본 적은 없사오며, 그토록 끔찍한 힘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자가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사오나이다.”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저도 또한 그런 타격을 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지 못하였나이다. 다만 저 두 기사가 두 가지 큰 죄를 상징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니, 하나는 교만의 죄요, 다른 하나는 잔학의 죄였사옵니다. 그 생각이 저에게 열 사람의 힘을 주었사오니, 그러므로 저가 타격할 때 열 사람의 힘으로 치었나이다.” 그 후 그는 땅에 누운 기사에게로 돌아가 그가 이미 죽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멜리아스 경을 일으켜 그의 말 위에 앉혔다. 그리하여 그를 그렇게 부축한 채 숲의 은수사의 예배당으로 함께 돌아갔다. 그곳에서 은수사가 멜리아스 경을 맞이하여 그를 안상 위에 눕혔다. 그리고 은수사는 그의 상처를 살피고 치료하였으며, 멜리아스 경은 그에게 가능한 모든 안위를 제공받았더라.

이것이 갤러해드 경의 첫 번째 모험이었노라. 나는 이를 일어난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내가 이러한 일들의 고대 기록에서 읽은 바와 같음이니라.

*****

〈각주: 갤러해드 경은 처녀들의 성에 대해 듣더라.〉

이때 그 숲을 떠난 갤러해드 경은 이튿날,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야로 나섰다. 곧이어 그는 노인과 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갤러해드 경은 그들을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노인에게 물었다.

"경건한 영주여, 간청하오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근처에 젊은 기사인 제가 명예를 위해 감당할 만한 모험이 있는지요?"

노인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나는 그런 모험을 하나 알고 있소."

이어 노인이 이른다. "알고 계시오? 이 근처에 '처녀들의 성'이라 불리는 성채가 하나 있소. 그 성에는 열 명의 기사가 머물고 있으며, 그들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모두 조세를 강요하오. 더욱이 이 기사들은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여, 마치 철의 지팡이로 이 땅을 다스리듯 백성들에게 마땅히 내야 할 조세 외에도 부당한 세금을 걷어대고 있소. 이로 인해 이 고을의 모든 백성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고 있소. 그러니 그 성을 지나치며, 존귀한 영주여, 그 열 명의 기사들로부터 충분한 모험을 거두어가시오."

그때 갤러해드 경이 물으니라. "그대가 말한 그 성은 어디에 있나이까?" 노인은 손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키며 이르되, "저쪽 길로 가면 찾을 수 있느니라" 하더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그에게 알려준 것에 감사하며,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말을 몰고 떠났노라.

그때 갤러해드 경은 높고 가파른 언덕의 정상에 다다랐으니, 그 언덕은 그리 넓지 아니하였더라.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니, 그 아래에는 크고 장엄한 성이 보였더라. 그 성의 지붕은 높고 붉은 기와로 덮여 있

었으며, 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벌들이 벌통 주위를 오가듯 지붕 위를 날아다녔더라.

한 강이 성을 지나 흘러내렸고, 그 강물은 성을 지나쳐 더 멀리 흐르니라. 성 벽과 강물 사이가 좁았으므로, 강가에는 가지치기 된 버드나무들이 성벽에 바짝 붙어 자라나 있더라. 성벽 옆에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인구가 매우 많았더라. 갤러해드 경이 앉아 있던 언덕 위에서 보기에, 돌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노라.

그때 갤러해드 경은 이것이 바로 처녀들의 성(Castle of Maidens)이리라 추측하였노라. 비록 그가 그것이 왜 그렇게 불리우는지 그 때나 이후까지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각주: 갤러해드 경이 그 성으로 오니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고삐를 거두어 잡고 그 언덕을 내려 성을 향해 달렸다. 그는 자신의 도착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성벽 아래를 지나갈 때에, 갑자기 위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가 고개를 들어 보니 작은 탑이 있거늘, 그 탑 위에 열 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서 있더라. 곧 이들이 그를 부른 자들이었노라.

이 열 명의 아름다운 공녀들을 그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갤러해드 경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들아, 하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

호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 성의 이름이 무엇이요,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름다운 경이여, 이 성은 처녀들의 성이라 일컬어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포로가 되어 있으며, 열 명의 사악하고 무례한 기사들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갇혀 있나이다. 하늘이 그들을 멀리하시기를. 이는 만약 당신이 당신이 여행하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당신은 이 성의 다리 입구를 지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내려와서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오."

이에 갤러해드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인들아, 내가 열 명과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만약 내가 이 기사들을 열 가지 치명적인 죄악으로 여긴다면, 내가 그들과 싸울 힘을 주심을 믿노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이 기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탑 위에 있던 한 부인이 이르되, "경, 경의 가슴 안에는 확실히 위대한 마음이 있나이다. 이제 경이 가는 길을 계속하시려거든, 곧 다리의 입구에 이를 것이오. 그곳에서 경은 돌 기둥에 매달린 쇠 나팔을 발견할 것이오. 만약 그 기사들이 나타나지 않거든, 그 나팔을 입에 대고 불게 하시오. 그리하면 곧 우리가 말한 열 명의 전사들을 보게 될 것이오."

〈각주: 갤러해드 경이 성의 나팔을 불다.〉

이에 갤러해드 경은 그들에게 인사를 올리고는 말을 달려 나갔노라. 곧이어 그는 시냇물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는 돌기둥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기둥에는 쇠사슬로 매달린 쇠 나팔이 걸려 있었더라. 갤러해드 경은 그 쇠 나팔을 입에 대고 매우 높고 날카롭게 불었노라. 그 소리가 성채의 벽에 반사되어 울려 퍼지니, 마치 그 뿔의 울음소리가 성채로부터 되돌아오는 듯하였더라.

그 후 곧이어 성문의 문이 열리고 내리닫이 쇠문이 떨어지자, 그곳에서 빛나는 갑옷을 두른 열 명의 기사들이 우레와 같은 발걸음으로 치솟아 나왔더라.

그 중 가장 앞선 기사가 갤러해드 경에게 다가가 이르되, "경, 고해성사를 하셨나이까?"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묻느냐?"

그 기사가 이르되, "이는 경이 곧 죽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그 점에 관하여는, 내가 죽기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노라."

그가 이르되, "그렇다면 경은 곧 낙원에서 깨어나리니, 이는 경이 그것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

각 기사는 자신에게 마땅해 보이는 위치를 취하고, 창을 받친 뒤, 온 힘을 다해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길의 한가운데

서 만나니, 그 충돌의 격렬함과 소음은 보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경이로울 지경이었노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첫 번째 기사를 물리치니라.〉

그 격투 중, 성채의 기사가 던진 창이 갤러해드 경의 방패를 맞고 산산조각이 났으나, 갤러해드 경의 창은 견고히 버텼노라. 이로 인해 그 기사는 극심한 타격으로 낙마하여 목이 부러지고, 땅 위에 죽어 누웠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아홉 명과 싸우니라.〉

이때 다른 기사들이 그 기사의 몰락을 목격하고는 외쳤노라. “하! 구원이라! 구원이로다!” 이에 아홉 명 모두 갤러해드 경을 에워싸고 수로 그를 제압하려 들었노라. 아홉 명이 동시에 그의 방패를 치었으나, 그 창들은 갤러해드 경의 방패를 스치며 뚫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공격에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노라. 심지어 그의 발이 등자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아니하였노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창을 버리고 빛나는 검을 뽑아 들었노라. 그는 아홉 기사들을 향해 돌진하여 그들 틈바구니로 들어가 좌우로 검을 휘둘렀노라. 그들의 타격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짧은 시간 동안 그가 세 기사를 땅에 쓰러뜨렸기 때문이라. 이로써 그들 중 여섯 명만 남았노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기사들을 물리치니라.〉

그때 여섯 기사들의 마음이 위축되자, 그들은 다시 다리를 건너 성 안으로 들어갈 의도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사이 성의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이 불리함을 보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성문을 닫아 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다리를 내리거나 성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기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갤러해드 경이 그들에게 다가가 두 명을 더 쓰러뜨렸다. 그러자 남은 네 명은 큰 속도로 도망쳤고, 갤러해드 경은 그들을 뒤쫓아 다시 다리를 건너갔다. 갤러해드 경은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며, 한 번, 또 한 번 치니, 좌우로 번갈아 가며 내리쳤다. 그들이 그에게서 피할 새도 없이, 갤러해드 경은 두 번의 타격으로 또 두 명을 쓰러뜨렸다.

그때 남은 두 명은 간신히 탈출하여, 그 곳을 힘껏 달아났다. 갤러해드 경도 또한 힘껏 그들을 추격하였으나, 그들의 말이 그의 말보다 더 신선하였으므로, 그들은 결국 그를 피하여 도망쳐 버렸다.

이에 갤러해드 경은 다시 천천히 성으로 돌아왔고, 그의 도착을 맞이하여 성문은 큰 환호성과 함께 열렸더라. 거리에는 온갖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크고 길게 이어지는 박수로 그의 영예를 높였더라. 그가 쓰러뜨린 여덟 명 중 모두 죽었으니, 그들 중 낙하로 죽지 아니한 자들은 백성들이 스스로 처형하였더라.

그때 갤러해드 경이 그 고을의 장관에게 이르되, “내가 이 곳에 오기 전에 나를 부르던 열 명의 처녀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장관이 대답하여 이르되, “경이시여, 우리가 그들을 경께 모셔오리다” 하더라.

이에 곧 그 부인들이 나아와 갤러해드 경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입맞추며 크게 찬미하고 큰 환호를 보였더라. 갤러해드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내 손을 입맞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경의 힘과 용맹 때문이옵니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로다. 내가 이 힘과 용맹을 스스로 얻은 바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힘과 용맹을 보였거든, 그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지언정, 그릇을 삼으신 나에게로 돌리지 말라” 하더라.

또 그가 이르되, “이 고을의 으뜸 영주는 어디 있느냐?”

〈각주: 갤러해드 경이 포로로 잡힌 영주를 구원하더라.〉

열 명의 처녀들이 이르되, “경이여, 그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니, 그는 지금 이 곳의 감옥에 갇혀 있사옵나이다. 곧 그 열 명의 기사들이 그를 넘어뜨려 포로로 삼았사오니, 그러므로 그는 지금 억압 속에 있나이다.”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그를 끌어내라 내가 그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자 몇몇이 달려가 그를 데려오니, 곧 그들이 그를 데리고 돌아왔고, 그를 묶던 사슬이 아직 그의 손발에 채워진 채였더라.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이 사슬들을 벗겨라.”

그 기사에게서 벗겨지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소유물을 되찾고 네 백성을 억압하지 말라. 이는 최근 그들이 열 명의 주군들에게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이니, 그 열 명의 주군들은 내가 넘어뜨린 열 명의 기사들이라. 그러나 이제 너의 원수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쳤으니, 너는 자유로우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아니하리라.”

그때 또다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더라.

그 열 명의 처녀 중 장녀가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잠시 우리와 함께 쉬지 않으시겠나이까?”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나는 경들과 함께 쉬지 못하노라. 나의 시간은 짧고 그 시간 안에 행할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나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하노라.”

이에 그가 작별을 고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감사와 축복을 품은 채 그곳을 떠났노라. 그러나 그 후 많은 긴 세월이 흐르도록, 그곳에서는 갤러해드 경의 기억이 간직되었더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다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러 대에 걸쳐, 성배의 기사 갤러해드가 그곳에 내려와 서술된 바와 같이 위대하고 두려운 무공을 세웠음을 일러주었노라. 그 때까지 세상이 본 기사 중 가장 위대한 자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것이 갤러해드 경과 처녀들의 성채에 관한 이야기라. 그 성채의 열 명의 기사들을 단 한 명의 기사로써 물리친 후, 그는 그곳을 떠나갔노라.

이제 우리는 갤러해드 경의 이야기를 떠나, 이때의 랜슬롯 경의 모험을 다루기로 하노라. 그러므로 뒤이어 이어질 이야기를 읽기를 청하노라.

[일러스트레이션]

[삽화: 성배가 현현하시니, 랜슬롯 경이 잠들었더라:]

[일러스트레이션] 제4장

어떻게 랜슬롯 경과 퍼시벌이 갤러해드 경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한 랜슬롯 경이 꿈에서 성배를 목격한 일.

랜슬롯 경이 그를 돌아보며 물으니, 소년은 겸손하게 대답하였노라. "저는 갤러해드라 합니다. 아버지는 랜슬롯 경이시라 하더이다."

랜슬롯 경은 이에 큰 놀람과 기쁨을 느끼며 그를 끌어안았노라. "내 아들아, 너는 참으로 나의 피를 이었구나. 그러나 너는 나의 아들이라기보다, 오히려 성배의 기운을 지닌 자라 보일지니라."

이 일 이후, 랜슬롯 경은 자신의 죄와 약함을 깊이 깨닫고, 성배를 향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노라. 그는 갤러해드와 퍼시벌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배를 찾을 자들이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리라. 나의 길은 이미 정하여졌노라."

랜슬롯 경이 캐멀롯의 왕궁을 떠난 후,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어디에서도 모험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에 어느 날, 그는 숲 가장자리 근처의 한 농가에 다다라 밤을 지낼 피난처를 구하였더라.

그를 맞이한 이는 농부의 아내였으니, 그녀는 피부는 누렇게 그을렸으나 몸가짐은 건장하고 활달하더라. 그 곁에는 두 아이가 서서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섰으니, 그녀는 랜슬롯 경에게 환대를 베풀며 이르되, "오늘 또 다른 한 기사가 찾아와서, 지금 당신께서 간청하시는 것과 같이 피난처를 구하더이다." 랜슬롯 경이 묻되, "그는 누구인가?" 그녀가 대답하되, "저는 알 수 없사오나, 그는 온순하고 자비로운 자라 하더이다."

〈각주: _랜슬롯 경이 농가에서 퍼시벌을 만난다._〉

이때 랜슬롯 경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거늘, 거기서 그가 목격한 이는 퍼시벌 경이러라. 이에 랜슬롯 경은 큰 기쁨을 느끼고, 퍼시벌 경 또한 랜슬롯 경을 뵙고서 크게 기뻐하더라.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서로 우정을 다지며 말을 타고 함께 길을 떠났노라.

그들이 그 아침의 대부분을 여행하는 동안, 정오 무렵 그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푸른 들판으로 덮인 언덕들이 있는 매우 아름다운 땅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수많은 시냇물과 수로가 흐르고 있었고, 젖은 초목이 무성한 목초지에서는 떼를 지은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이곳은 유리처럼 맑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 위에 작은 나무 다리가 놓인 골짜기였는데, 그들 앞에 다른 방향에서 한 기사가 오고 있었다. 랜슬롯 경과 퍼시벌은 다리의 한쪽에 있었고, 그 기사는 다른 쪽에 서 있었다. 그 다른 기사는 갤러해드였으나, 두 사람 중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때 랜슬롯 경이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노라. "영주여, 간청하오니 우리가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세 사람이 동시에 이를 건널 수 없사오며."

"아니오, 경,"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나의 임무가 기다릴 여유를 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지나가게 하소서."

〈각주: _랜슬롯 경이 다리에서 갤러해드 경에게 도전하다._〉

"그렇지 않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당신이 지나갈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신을 지나가게 할 수 없노라. 너는 나와 창을 겨누어 대결해야 하리라. 내가 너를 쓰러뜨리면, 너는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라. 그러나 네가 나를 쓰러뜨린다면, 우리가 너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리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 기묘한 그 기사가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각주: 랜슬롯 경이 쓰러지다.〉

각기 기사들은 창을 받침에 걸치고는 곧장 서로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였더라. 이렇듯 그들은 태풍처럼 서로를 향해 휩쓸려 들어

와, 다리의 한가운데서 격돌하였노라. 그 충돌에서 랜슬롯 경의 창은 갤러해드 경의 방패 정중앙을 정확히 찔렀으나, 그 타격은 마치 방패가 광택 나는 거울인 양 옆으로 튕겨 나갔노라. 그러나 갤러해드 경의 창은 랜슬롯 경의 방패 한가운데를 꿰뚫었고, 그 창끝은 단단히 박혔노라. 갤러해드 경의 타격이 그토록 격렬하였기에 랜슬롯 경과 그의 기마는 모두 다리의 널판지 위로 쓰러져 말았노라.

〈각주: 퍼시벌 경이 부상을 입다.〉

서 퍼시벌은 랜슬롯 경이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큰 경악에 휩싸였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경이여, 경은 무엇을 하였는가? 나를 향하여 자신을 방어하라!" 하고는 검을 뽑아 다리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때 갤러해드 경은 퍼시벌 경이 그러한 태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창을 내려놓으며 또한 검을 뽑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리 한가운데서 마주쳤을 때, 퍼시벌 경은 검으로 갤러해드 경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으나, 갤러해드 경은 방패로 그 일격을 막아냈더라.

그리하여 갤러해드 경은 안장에 몸을 일으켜 번개와 같은 일격을 퍼시벌 경에게 날렸노라. 퍼시벌 경은 방패로 그 일격을 막으려 하였으나 막아낼 수 없었으니, 그 검날이 그의 방패를 뚫고, 그 아래 있는 헬멧을 뚫고, 헬멧 밑의 철모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노라. 만약 갤러해드 경의 손에서 검날이 꺾이지 않았다면, 퍼시벌 경은 죽었을 것이었노라.

실제로 퍼시벌 경의 머리는 그 타격 아래로 어지러워졌고, 그는 의식을 잃었노라. 그는 안장에서 좌우로 흔들리다가 결국 안장으로부터 떨어져, 죽은 자와 같이 생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이 다리 위에 누웠더라.

그러나 갤러해드 경은 자신이 쓰러뜨린 두 기사가 누구인지, 혹은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를 묻기 위해 멈추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의 창을 수습하고 말에 채찍을 가하여, 그들을 다리가 놓인 그곳에 누인 채로 남겨둔 채 그 곳을 떠나 달렸다.

이때 랜슬롯 경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퍼시벌 경이 누워 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일어나 퍼시벌 경에게로 다가가 그의 투구를 벗겨내고, 그의 얼굴에 물을 뿌리니 잠시 후 퍼시벌 경이 기절에서 깨어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방금 입은 그 타격과 같은 것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고, 오늘 당한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적도 없으니,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 수만 있다면 좋으련다."

퍼시벌 경이 이르되,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나이까? 내 생각에는 그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경의 아드님인 갤러해드 경이시옵니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가 내 아들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련만, 그 외의 다른 것에는 위안을 삼지 못하리라."

그때마다 각기 기사들은 말에 올랐고, 함께 그 곳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랜슬롯 경의 머리는 그의 가슴 쪽으로 처져 있었으니, 이

는 그를 쓰러뜨린 그 타격의 기억과, 그로 인한 수치심 때문이었기 때문이라. 그 날까지 그의 평생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말에서 쓰러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때때로 그는 자신을 쓰러뜨린 자가 아마도 갤러해드 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때 그는 위안을 얻었으니, 갤러해드 경이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때때로 그는 그것이 갤러해드 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때 그는 자신의 쓰러짐으로 인해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각주: 랜슬롯 경과 퍼시벌이 헤어지더라.〉

이렇게 달리던 그들은 곧이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고,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경이여, 이제 서로 길을 나누옵소서. 경은 한 길을, 저는 다른 길을 가리이다"라고 하니, 퍼시벌이 이르되 "그렇다면 저와 함께 달리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묻거늘, 랜슬롯 경이 이르되 "아니로다. 나는 패배하여 부끄러울 따름이라"라 하더라. 퍼시벌이 이르되 "그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입니까? 패배시킨 자가 바로 경의 아들이시오"라 하나, 이에 랜슬롯 경은 아무 대답도 없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자기를 떠나려 함을 본 퍼시벌은 좌측의 길을 택하였고, 랜슬롯 경은 우측의 길을 택하였으니, 이로써 두 사람은 헤어졌더라.

이제 저희는 그들 이별 후의 랜슬롯 경을 따르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버려진 예배당을 발견하더라.〉

랜슬롯 경은 그 날의 나머지 시간을 더 이상 어떠한 모험도 마주하지 않은 채로 달렸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척박하고 황량한 언덕에 다다랐다. 그 야생의 한가운데서 그는 고대 유적지의 폐허가 된 예배당을 보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곳에서 밤을 쉬리라."

그래서 그는 예배당의 문을 찾기 위해 예배당 주위를 돌았으나, 예배당의 어느 쪽에도 문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높은 곳에 난 창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창문들 중 어느 것으로도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것들이 벽 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 그의 손이 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랜슬롯 경이 말하였다. "이것은 문이 없고, 오직 내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창들만 있는 매우 기이한 예배당이라. 이제 나는 이곳에서 쉬며 이 곳의 의미를 살펴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말에서 내려, 예배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시덤불 아래 누웠다.

이때 랜슬롯 경이 누워 있자, 어느새 졸음이 그를 덮쳤노라. 비록 그는 잠들지 못하였으나, 마치 잠든 자와 다름없었으니, 이는 그의 손발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는 주위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니, 마치 완전히 깨어 있는 자와 같았노라.

그는 머리 위의 어둡고 고요한 하늘 천장을 의식하였노라.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흩뿌려져 있었으며, 그는 어둠 속에서 곁에서 풀을 뜯는 자신의 말도 의식하였노라. 또한 그의 얼굴을 스치며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망토 끝자락을 살랑이게 하는 바람도 의식하였노라. 이 모든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으나, 자신의 뜻으로 머리카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는 없었노라.

〈각주: 상처 입은 한 기사가 오니라.〉

이윽고 그가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무리가 예배당으로 다가오는 것을 곧 알아차렸으니, 그는 길 위를 걷는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잠시 후, 한 기사와 한 시종이 그 곳에 이르렀더라. 기사는 크게 다친 상태였으니, 그의 갑옷은 전투로 인해 깨지고 찌그러져 있었으며, 시종이 그를 안장 위에 지탱해 주었으므로, 시종의 팔과 손이 받쳐 주지 않았다면 그는 곧장 땅에 쓰러졌을 것이더라.

그때 그 깨어 있는 꿈속에서 잠들어 있던 랜슬롯 경은, 한 기사가 소년에게 말함을 들으니, “플로라데인, 그 예배당이 가까운 곳에 있느냐? 내 눈이 어두워져 보이지 않노라.” 하니, 소년은 울며 대답하되, “예, 주님, 여기 있사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곧 그곳에 이르게 되리이다.”

이때 기사가 대답하되 “플로라데인,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노라” 하니, 시종이 이르되 “여기 있사옵니다”라. 기사가 이르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조금만 더 멀리 있었다면 나는 말에서 떨어졌을 것이노라. 이제 플로라데인, 나를 땅에 내리우라” 하였더라.

이때 시종이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내린 뒤, 그를 군마에서 들어 내렸다. 시종이 그를 들어 올릴 때, 기사는 매우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렸노라.

그리고는 숨을 매우 가쁘게 쉬며 큰 노력 끝에 기사가 이르되, “플로라데인, 빛이 있느냐?”

시종이 대답하되, “아직 없나이다, 영주여.”

다시 잠시 후, 기사가 이르되, “아직도 빛이 있느냐?”

다시 시종이 대답하되, “아직 없나이다, 영주여.”

그리고 다시 잠시 후, 기사가 세 번째로 이르되, “플로라데인, 아직도 빛이 있느냐?”

이때 기사는 그 말을 죽음의 속삭임처럼 내뱉었노라.

그런데 갑자기 시종이 크고 기쁜 목소리로 외쳤노라, “예, 영주여, 이제 빛을 보나이다!”

〈각주: 빛이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을 랜슬롯 경은 그 깨어 있는 꿈속에서 보았노라. 비록 밤의 어둠 가운데였으나, 정오의 태양 아래 있는 듯 선명히 보았으니, 이는 그가 그 기사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 얼굴은 순결한 밀랍처럼 희었으며, 이마에는 죽음을 알리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노라. 또한

그는 시종이 젊고 아름다웠으며, 어깨로 내려진 길고 곱슬거리는 금발의 곱슬머리를 지니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때 시종이 빛을 보았다고 말하자, 랜슬롯 경은 예배당의 창문들이 안으로부터 희미한 푸른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마치 새벽빛이 그 예배당 안에 비치는 듯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노래하는 목소리의 소리를 들었으니, 처음에는 매우 희미하고 멀리서 들리는 듯하였으나, 이내 예배당에서 나는 빛이 강해질수록 그 소리도 점점 더 크고 강하게 되어갔노라. 그 목소리들이 부르는 선율은 지극히 달콤하고 황홀하여, 마음속을 고통스러운 감동으로 녹여버릴 정도였노라.

그때 그 예배당의 벽문이 열리며, 놀라운 광채를 발하는 빛이 쏟아져 나와, 그 죽어가는 기사와 그를 부축하던 소년의 얼굴을 비추었노라. 동시에 노래가 큰 소리로 터져 나왔으니, 마치 합창의 우레와 같았더라.

그때 곧이어 성당으로부터 빛나는 창 한 자루가 나타나고, 두 손이 그 창 끝을 잡고 있었으나, 랜슬롯 경은 그 두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노라. 그리고 그 창 뒤에 잔 한 개가 나타나고, 두 손이 그 잔을 잡고 있었으나, 랜슬롯 경은 그 두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노라. 그리고 그 잔은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는 듯하여, 마치 영광스러운 태양을 바라보는 것 같았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꿈에서 성배를 바라보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성배임을 깨달았으나,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해도 어찌할 수 없었노라. 이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 뺨을 따라 강물처럼 흘러내렸으나, 그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노라. 그는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처럼 묶인 채 누워 있었노라.

이때 성배가 그 기사에게로 다가갔으나, 기사는 손을 뻗어 성배를 만질 힘을 얻지 못하더라. 이에 시종이 기사의 팔을 잡아 들어 올렸고, 기사의 손을 들어 성배가 닿게 하였노라.

〈각주: 성배는 상한 기사의 병을 낫게 하시니라.〉

그때 랜슬롯 경에게는 성배의 능력이 그릇에서 뿜어져 나와, 상처 입은 기사의 손을 지나 그의 팔을 관통하여 몸속 깊이 스며드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상처 입은 기사에게서 피가 멈추는 것과, 그의 뺨으로 생기가 되돌아오는 것과, 그의 눈에서 빛이 다시 타오르는 것과, 그의 몸으로 힘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기사 일어나 성배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성배 앞에서 기도하더라.

그때서야, 성배로부터 비추어지던 그 밝은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라. 먼저 창이 사라지고, 이어 그것을 들고 있던 손들이 사라지니라. 잠시 동안 성배는 희미하고 창백한 빛으로 빛나다가, 마침내 그것도 사라져 버렸고, 모든 것이 이전과 다름없이 어둠에 잠기니라.

이때 랜슬롯 경은 성배의 환상을 보았으나, 이는 내가 앞서 너희에게 일러둔 바와 같이 꿈속의 환상과 같았노라.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으니, 그는 깨어 있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힘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노라.

이 일 후, 기사와 시종은 랜슬롯 경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시종이 기사에게 물었노라. "영주님, 이 사람은 누구며, 어찌하여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그는 잠들고 있나이까?" 이에 기사가 대답하되, "이 기사는 지극히 죄 많은 자라. 그의 이름은 호수의 랜슬롯 경이니라." 시종이 이르되, "그는 어찌하여 죄를 지었나이까?" 기사가 대답하되, "그는 다음과 같이 죄를 지었노라. 그는 아름답고 온순한 부인을 두었으나, 구이니비어 왕비를 위해 그 아내를 버렸노라. 그러자 그 부인은 그를 떠나가, 곧 갈라해드를 낳았고, 그 출산 과정에서 그녀도 목숨을 바쳤노라. 랜슬롯 경은 그의 아내를 배신했으니, 그 배신으로 인해 이제 그는 잠들어 있으며, 우리가 이 곳을 떠난 후에야 깨어날 수 있노라."

〈각주: 그 기사는 랜슬롯 경의 말을 탈취하더라.〉

그때 시종이 기사에게 이르되, "영주여, 보소서. 이 기사에게 좋은 힘센 말이 있사오니, 그 말을 취하시고 대신 당신의 말을 남겨두소서. 이 말은 피로하지 않고 생기가 충만하오나, 당신의 말은 전투로 지쳐 허약하오이다." 이에 기사가 이르되, "그 말을 취하겠노라." 하였더라.

이때 그 기사는 자기 말 대신 랜슬롯 경의 말을 취하였으며, 자기 말은 그대로 남겨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 기사는 랜슬롯 경의 말에 올

라타고, 시종은 자기 말을 탔으며, 그 후 두 사람은 그 곳을 떠나 떠나 갔더라.

그들이 떠나간 후, 랜슬롯 경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노라.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이 꿈이었으리라 여겼으되, 그 기사(騎士)의 피폐하고 지친 말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말은 사라진 것을 보았노라. 이에 그의 영혼이 큰 고통에 잠기어 크게 외쳤노라. "주여, 나의 죄가 나를 찾아냈나이다!" 이와 함께 그는 미친 자처럼 허둥지둥 뛰며, 그 예배당으로 들어갈 길을 찾으려 하였으나, 길이 없음을 알았노라.

〈각주: 숲의 은수사가 랜슬롯 경을 사면하시니라.〉

해가 밝자 그는 그 기사가 남기고 간 닳고 지친 말에 올라타, 그 곳을 떠나 다시 숲 속으로 향하였다. 그의 머리는 가슴 쪽으로 푹 숙여져 있었다.

그가 숲 속으로 들어가 노승이 사는 오두막에 이르자, 그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노승에게 고해하였다. 숲 속의 노승은 그의 죄들에 대해 용서를 베풀어 주었으며, 이렇게 이르시되, "평안을 받으라, 내 아들아. 비록 네 육신으로 성배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영혼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이에 랜슬롯 경은 고해의 겸허함으로 일어나니라. 그는 자신의 갑옷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은수자의 옷을 입었노라. 그리고 그는 그 곳

을 떠나 숲의 더 깊은 속살로 들어갔노라. 거기서 그는 동굴과 황야에 거하며, 숲의 열매와 베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더라.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노라. 그 후 그는 다시 자신의 동료들 사이로 돌아왔으나, 그 날 이후로 그는 미소 짓는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았노라.

* * * * *

이와 같이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전해진 것은, 한 사람이 지은 죄악이 그 생을 통해 그를 따라다니며, 마침내 영혼을 극심한 고난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진실을 너희가 보게 하려 함이라. 그 진실을 바로 여기 서 랜슬롯이 겪고 견딘 바와 같으니라.

이미 이 책이 아닌 다른 책, 즉 「서 랜슬롯과 그의 동행자들의 이야기」라 불리는 그 책에서 서술되었거니와, 랜슬롯 경은 호수의 기사로서 아서왕의 궁정에 머물렀으나, 그의 부인인 아름다운 엘레인이 궁정을 떠났음이라. 랜슬롯이 그 궁정에 머물러 있던 것은 구이니비어 왕비의 꾀임과 마술 같은 매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노라.

또한, 엘레인 부인이 갈라해드를 낳는 고독과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한 일과, 그 죽음에 대해 서 랜슬롯이 얼마나 깊고 쓴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지가 이미 전해졌노라.

이러한 죄악 때문에 그는 이제 깨어 있는 눈으로 성배를 바라보거나, 살아있는 손으로 그것을 만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노라. 죄악을 뉘우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며, 회개한다고 해서

영혼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은 항상 그 죄와 함께 하며, 언젠가는 그가 한 번 저지른 그 죄에 대해 온전히 갚아야 할 때가 오느니라.

* * * * *

대소 모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있어 이와 같으니라. 그들은 후회나 회개로서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없노라. 오직 의로운 삶을 살아가되, 그 죄가 그들로부터 사라져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게 함으로써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느니라.

* * * * *

이와 같이 랜슬롯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는 그가 저지른 죄를 온전히 갚아야 할 때였기 때문이라. 그는 그 당시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는 성배를 본 일이 없었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었노라. 아니, 한 손가락 끝으로도 성배를 만진 적이 없었노라. 다만 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숲의 은수자의 작은 방과 이어진 자신의 작은 방에 은둔자로서 머무르며 지냈노라.

이곳에서 그를 떠나 이 이야기의 다른 부분들을 따라가리라. 여기서는 이제 퍼시벌 경의 이야기를 따르노니, 만약 당신이 이 책에 기록된 일들의 역사를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를 읽어야 하리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퍼시벌 경이 검은 말을 몰고 달린다]

[일러스트레이션] 제5장

퍼시벌 경은 자기를 거의 파멸로 이끄는 한 필의 말을 발견하더라. 또한 그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연회를 나누었노라. 마침내 그는 한 척의 배에 올라타 거기에 안식과 위로를 찾았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앞서 말한 대로 랜슬롯 경을 떠나 혼자 길을 재촉하더라. 그의 길은 이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땅으로 이어졌으며, 땅 위에는 온통 커다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잠시 동안 그 길을 달려가며, 눈앞에 자라나는 무언가를 바라보았더라.

〈각주: 퍼시벌 경의 말이 절름발이가 되니라.〉

이때 퍼시벌 경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그가 탄 말이 둥글고 헐거운 돌 위에 발을 디디자 돌이 발 밑에서 굴러가 말의 어깨에 무리를 주었다. 처음에는 퍼시벌 경이 이 불행한 일을 알지 못하였으나, 곧이어 말이 걸을 때마다 절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매 분마다 퍼시벌 경의 말은 한 분 전보다 더 심하게 절었더라. 그러므로 퍼시벌 경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에는 그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말이 있었고, 시야 안에는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 황량한 광야 위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에 퍼시벌 경은 말에서 내리셨고, 그의 팔에 말의 고삐를 걸치시니, 고삐를 든 채로 걸어가시며 말은 뒤따라 절며 따라왔더라.

이처럼 그는 먼 길을 여행하다가, 이내 그 바위투성이 황무지를 뒤로하고 푸른 식물이 자라는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초록빛 비옥한 초원이 나무 숲과 어우러진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참나무와 느릅나무가 심겨 있었다.

〈각주: 퍼시벌 경이 붉은 옷을 입은 처녀를 만나다.〉

그가 작은 분수 하나를 지나갈 때, 그 분수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낭자를 보았노라. 그 낭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붉은 옷으로 치장하였더라. 그 낭자는 곁에 팰프리와 큰 검은 말을 데리고 있었으니, 그 팰프리 옆에 검은 말이 서 있었더라. 그 검은 말은 너비와 힘줄의 힘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데, 그 어깨는 깊고 다리는 근육으로 단단히 조여 있었으며, 발목에는 길고 곱슬거리는 털로 장식되어 있었더라. 그 눈은 그 아래로 불꽃이 타오르는 듯 매우 밝고 빛나며, 그 귀는 날카롭고 뾰족하여 마치 날카로운 칼로 깎은 듯하였고, 그 갈기와 꼬리는 밤의 구름처럼 두껍고 검었더라. 그 코끝에서 꼬리 끝까지 흰 털 하나 없었더라.

〈각주: 처녀가 퍼시벌 경에게 말을 주니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하, 낭자여,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말을 거느렸구려.” 그녀가 이르되, “예, 영주여. 그는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퍼시벌 경이 이르되, “그대가 그 말을 내게 팔아 주었으면 하노라. 보시다시피 나의 말은 절뚝거리기 때문이라.” 낭자가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게일스의 퍼시벌 경이 아니신가요?” 이때 퍼시벌 경은 처녀가 자신을 아는 것을 크게 놀라며 이르되, “예, 낭자여, 그것이 내 이름이

라.”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나는 그 말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뚝거리는 말을 여기 두고, 그 대신 이 말을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내가 당신이 탈 말을 가지고 오도록 보내졌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에 퍼시벌 경은 처녀의 말을 듣고 더욱 놀라니, 그의 말은 절뚝거리게 되었거늘 어찌하여 이 처녀가 그곳에 신선하고 건강한 말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처녀에게 지극히 감사하며 자신의 말의 고삐를 그녀에게 건네고, 검은 말의 고삐를 받아 쥐었노라. 이때 그가 등자에 발을 걸치고 단번에 검은 말에 올라탔더라.

〈각주: 퍼시벌 경을 태운 말이 달아나더라.〉

그리하여 말은 퍼시벌 경이 안장에 올라 발을 등자에 걸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더라. 그 후 말은 고개를 숙이고 재갈을 물었으며, 곧바로 남쪽을 향해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더라. 그 속도에 말의 갈기와 꼬리는 곧게 뒤로 뻗어 서 있더라. 퍼시벌 경은 이를 조종하거나 길들이지 못하였으니, 말은 재갈을 물고 앞만 보고 달렸으며 마치 눈이 멀은 듯 바람처럼 전진하였기 때문이라. 말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오직 남쪽을 향해 달렸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인가, 사자인가, 아니면 요마(妖魔)인가?” 하였더라.

〈각주: 그 말은 그를 바다로 데려갔다.〉

이때 말은 앞을 향해 돌진하더니, 차차 바다 가까이에 다다랐으니, 밤이 깊어감에 따라 퍼시벌은 언덕 너머로 멀리 수평선 위에 빛나는 은색 실마리처럼 바다를 번갈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곧이어 바다의 굉음이 들렸으니, 그것은 수많은 바위들이 있는 곳으로 밀려와 물을 분출하고 거품 일으키며 하얗게 우유처럼 일렁이는 곳이었더라. 이때 말은 그 장소에 다다르자 갑자기 멈추어 섰으니, 숨을 헐떡이며 떨고 있고 땀으로 거품이 일었더라.

그때 퍼시벌 경은 말에서 내려 발을 내딛자, 즉시 검은 말은 사라져 버렸고 퍼시벌 경은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더라.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의심과 놀람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었노라.

〈각주: 퍼시벌 경이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다.〉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니, 먼 곳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 그가 본 바는 하나의 배였으며, 그것이 그의 있는 곳으로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배에는 돛도, 노도 없어 바람이나 힘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퍼시벌 경은 그 배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곧 배 안에 누군가가 타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부인임을 알았다. 또한 그녀를 모시는 일곱 명의 아름다운 처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그가 본 바에 따르면, 이 부인은 온몸을 붉은 옷으로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붉은 빛을 띠며 금빛 같았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금실로 엮은 그물망에 싸여 있었다. 그녀의 옷과 목둘레에는 금으로 된 사슬과 장신구들이 둘러져 있어, 그녀는 마치 보석과 금으로 만든 상처럼 빛나고 반짝였다.

그녀를 모시는 처녀들도 또한 붉은 옷을 입고 목에는 금 장신구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배 전체가 마치 금빛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이때 그 배는 서 퍼시벌이 서 있던 해변에 도착하였고, 부인은 배에서 내려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으며, 서 퍼시벌은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내려주었다. 부인이 이르되, “영광이여, 서 퍼시벌, 평강을 드리노라.” 하매, 그 부인의 모든 시종들도 또한 이르되, “평강을 드리노라.” 하였더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너희는 누구뇨? 나를 알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이에 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요정이요 이 땅의 자가 아니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낭자와 함께 잔치에 앉아 있더라.〉

그때 그 부인이 자신의 시종들에게 천막을 치게 하였고, 그들은 이에 따랐다. 천막은 붉은 사미트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는 흰 사미트 천으로 된 큰 깃발이 걸려 있었는데, 금실로 표범의 형상을 수놓아 두었다. 천막 안에는 금으로 된 식탁이 놓였고, 식탁 위에는 가장 고운 린넨 천으로 된 식포가 깔렸다. 그리고 배의 부인은 퍼시벌 경의 손을 잡고 그를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때 퍼시벌 경과 그 부인이 식탁에 앉으니, 부인을 모시던 처녀들이 음식을 차려 내었노라. 또한 몇몇 처녀들은 하프를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을 위해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하프를 연주하였으니, 그들이 내는 음률은 지극히 달콤하여 듣는 자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하였더라.

그들을 모시던 자들이 향신료와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낸 여러 가지 요리를 가져와서, 퍼시벌 경과 낭자는 함께 음식을 먹었더라. 그 다음 다른 이들이 흰 포도주와 붉은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이 포도주는 매우 강렬하고 달콤하였더라. 퍼시벌 경과 부인은 함께 포도주를 마셨고, 그 포도주는 퍼시벌 경의 혈관을 통해 매우 강하게 흐르며, 그 기운과 효력으로 그의 머리가 어지러워졌더라.

그때부터 그 부인은 서서히 퍼시벌 경에게 깊은 정을 품게 되었고,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으며 그를 자기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에 퍼시벌 경의 머릿속으로 포도주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밀려들었고, 그는 자신이 말하거나 행하는 바를 거의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르되, “부인이여, 내게 이르소서. 이것이 무엇이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퍼시벌, 너는 영광스러운 기사여! 이는 사랑의 천막이며, 나는 여기에 거하는 비너스의 정령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 정령에게 몸을 맡기고, 가능할 동안 생의 기쁨을 취하라.”

〈각주: 퍼시벌 경이 그 부인에게 키스하다.〉

그리하여 그녀가 다시 퍼시벌 경에게 팔을 내밀자, 그 역시 그녀를 향해 팔을 뻗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노라. 퍼시벌 경이 그녀의 입

술에 입맞추자, 그녀의 입술에서 불꽃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그의 영혼을 타오르게 하였더라.

그때 그는 왜인지 알 수 없었으나, 문득 그 아름다운 부인을 기억해내었노라. 그는 처음 기사로서 나섰을 때, 갈대 껍질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던 그 때, 그녀가 있는 천막에서 그녀를 만났던 일을, 그리고 그 때 그녀에게 키스를 했던 일을, 또한 성채의 차갑고 바람 부는 방에서 하얗게 죽어 누운 그녀를 보았던 일을, 그리고 그 때 성채에서 창과 성배를 보았던 일을 생각하였노라.

그때 그의 열정의 불꽃 위에 얼음 같은 바람이 불어 닥친 듯 하였으며, 그는 세 번이나 큰 소리로 외쳤노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죄를 지으려 하는고?" 이에 그는 그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그었노라.

〈각주: 부인이 사라지니라.〉

그때 옆에 앉아 있던 부인이 매우 높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의 주변은 혼란과 소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퍼시벌 경이 바라보니, 보라! 그에게 신비로운 여신처럼 곁에 앉아 있던 낯설고 아름다운 부인은 아니었으니, 붉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마법사 비비엔이었던 것이니라. 이는 그녀가 퍼시벌 경을 죄 짓게 함으로써 그의 몰락을 꾀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퍼시벌 경이 외쳤노라. "하! 나를 배신하려는 자가 바로 너냐?" 이와 함께 그는 벗어둔 칼을 향해 손을 뻗쳤더라. 이에 그의 의도를 눈

치챈 마법사 비비엔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마주쳤노라. 그 순간 그녀도 사라지고, 그녀를 따르던 모든 하인들도 사라졌으며, 천막과 식탁과 모든 연회와 포도주도 사라졌노라. 그녀가 타고 온 배마저도 사라져, 퍼시벌 경은 홀로 바닷가에서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더라.

그때 퍼시벌 경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였노라. 그가 이르되, "오 하나님! 부유하는 한 생각으로 어찌하여 종을 구원하셨나이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생각은 저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던 죄를 정화하셨나이다." 그가 또 이르되, "이 일에 어찌하여 감사해야 할지여, 보소서! 내가 매우 얇은 껍질 위를 밟았사오니, 만일 내 몸무게의 조금이라도 그 위에 실었더라면, 나는 불의 호수 속으로 그 껍질을 뚫고 떨어졌을 것이라."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매, 마침내 위로를 받았더라. 이에 일어나 몸을 일으켜 검을 단단히 허리에 두르니라. 그가 사방을 둘러보매, 홀로 있고 매우 황량한 곳에 있음을 보았더라. 그 때, 보름달이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더라.

그는 어둠 속 먼 곳에서 매우 빠르게 다가오는 하나의 물체를 발견하더라. 그 물체 또한 한 척의 배였으나,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노라.

배가 충분히 가까이 다다르자, 그는 그 안에 소파가 있음을 보았고, 그 소파는 흰 리넨으로 덮여 있음을 보았노라. 그러나 그 배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뇨? 여기에도 죄가 있사옵니까, 아니면 죄 없사옵니까?” 하고 말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만일 이것이 죄라면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내라” 하고, 이와 함께 그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그었노라.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떤 악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배는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배에 오르니라.〉

이때 퍼시벌 경은 그 배가 자신을 위해 마련되었음을 깨닫고, 이에 기꺼이 배에 올랐노라. 이때 달은 매우 가득하고 동그랗게 떠올랐으며, 달빛이 땅을 비추니 그 빛이 놀라울 정도로 밝았더라. 하늘의 달빛과 땅의 빛이 어우러져, 마치 기이하고 마법 같은 광채가 온 세상을 감싸 안은 듯하였노라.

〈각주: _그의 배가 저 멀리 사라지더라._〉

그때 배는 해안가에서 매우 빠르고도 매끄럽게 멀어져 갔더라. 날카롭고 속임수가 있는 바위들을 지나쳐, 모든 장애물을 피하여 드넓고 파도가 치는 바다 너머로 나아갔노라.

* * * * *

여기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하였으니, 이는 주위가 밤의 정적과 침묵으로 감싸여 있었기 때문이라. 그 고요함을 깨뜨릴 소리는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늘 위에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을 뿐이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소파에 누워 곧 깊은 잠, 꿈 하나 없는 깊은 잠에 빠졌더라.

이제 우리는 그 배 속에서 누워 있는 퍼시벌 경을 떠나, 이때에 그에게 닥친 일들을 따라 보르 드 가니스 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리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보르 경이 백색 기사와 함께 말을 몰다]

[일러스트레이션] 여섯 번째 장

보르 경이 어느 숲의 은수자에게 어떻게 고해성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한 기사를 쓰러뜨리고 바닷가에 이르러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주: 숲의 은수자가 보르 경에게 고해성사를 받더라.〉

어느 날, 보르 경이 숲 속을 타고 가던 중, 곧이어 그는 숲 속의 은수자의 예배당에 다다랐다. 은수자가 보르 경을 맞이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하니, 보르 경이 은수자에게 인사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은수자여,” 하였더라. 이에 보르 경이 그 밤을 은수자와 함께 머물렀고, 다음 날 아침이 이르자 그는 은수자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더라. 숲 속의 은수자가 보르 경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그는 보르 경의 영혼이 매우 희고 깨끗하며, 죄악에서 특별히 자유로움을 보았더라. 그러자 은수자가 그에게 이르되, “영웅심과 청결한 삶이 사람을 추천하여 그가 성배를 얻을 수 있게 한

다면, 당신도 확실히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육신의 손으로 그것을 만지게 될 것이오. 당신은 매우 용감하고 삶이 매우 청결하오."

이때 보르 경이 이르되 "어르신,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저에게 지극히 위로가 되옵니다. 저로서는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성배를 목격하고 그 거룩한 그릇을 손에 닿게 하고자 하옵나이다. 이제 간청하오니, 저로서 그 거룩한 잔을 찾아내기에 더 잘 어울리는 일이 무엇이 있사오며, 그것을 행할 수 있사오며 말씀해 주옵소서."

〈각주: 보르 경이 단식을 서원하다.〉

수사가 이르되 "마음에 품은 바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곧 고기를 일절 끊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빵과 물만으로 단식하며 성배를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그치지 말라" 하더라. 이에 보르 경이 이르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하오이다. 나는 고기와 포도주를 끊고 단식하겠사옵니다" 하니, 수사가 이르되 "또한 이것도 행할지니라. 너는 갑옷을 벗고 가죽 겉옷과 바지를 입어 나가고, 날씨가 혹독하거든 붉은 망토를 두르라" 하거늘, 보르 경이 이르되 "그것도 또한 행하겠사옵니다" 하니라.

이에 보르 경은 자신의 방어구를 벗어 던지고 붉은 망토로 몸을 감쌌으며, 이같이 하여 세상에로 나아가기 위해 말을 몰았더라.

그 후 보르 경은 온 종일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가 길가의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해 질 녘 무렵, 그는 전혀 낯설고 새로운 땅에 도착하였으니, 그곳은 습지와

늪지가 가득하고, 백로와 기타 물새들이 노니는 수많은 연못과 못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보르 경은 그 밤을 어디에서 묵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곧 그의 시야 너머로, 평평한 들판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나의 탑이 보였다. 그 탑은 하늘을 가리키는 돌로 된 손가락과도 같았다. 이에 보르 경은 그 성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고, 잠시 후 그는 성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각주: 보르 경이 성채에 이른다.〉

그 곳에 이르러서 보르 경은 성채의 문에 두드리니, 그가 또다시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라. 얼마 후에 한 사내가 나타나 문을 열었는데, 그 사내는 온몸에 버크럼 천을 두른 매우 노쇠한 문지기였으며, 그 버크럼 천은 수년 동안의 얼룩과 때로 얼룩져 있더라.

문지기가 보르 경에게 이르되, "경이 누구시오며 어디로부터 오셨나이까?" 하니, 보르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밤을 지내려 숙식과 피난처를 구하는 자라." 하거늘, 문지기가 이르되, "경이시여, 들어오소서. 경은 지극히 환영받으리니, 이 성의 부인께서 비록 지금 매우 큰 슬픔에 잠겨 계시나 곧 저녁 식사를 하시려 하나이다."

이에 보르스 경은 안뜰로 들어가, 성곽의 담장 옆에 박힌 철환에 말의 고삐를 매었다. 그러자 노쇠한 문지기가 바르스 경을 그의 방으로 안내하여, 그가 씻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둔 뒤, 말을 마구간으로 데려가 먹이를 먹이기 위해 다시 돌아갔다.

서 보르가 목욕을 하고 몸을 가다듬은 후, 다시 그의 방에서 내려와 보니 노쇠한 문지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 문지기가 이르되, "경, 저를 따라오소서," 하니 보르스 경이 그를 따랐노라. 문지기가 그 곳을 나서 한 홀로 그를 인도하였는데, 그곳에는 차림새를 갖춘 식탁이 차려져 있더라.

이때 보르스 경은 한 젊은 처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성의 여주인이었노라. 그 처녀의 얼굴은 희고 슬픔이 가득했으며, 눈꺼풀은 끊임없이 울어 붉게 부어올라 있더라. 그녀는 장식이나 꾸밈이 없는 긴 검은 옷을 입고 있었노라. 그녀는 보르스 경을 큰 예의로 맞이하였으나, 결코 미소 짓지 않았고, 곧이어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았더라.

〈각주: 보르스 경이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

이때 저녁 식사가 차려져 그들 앞에 내어졌고, 그들을 섬긴 이는 늙은 문지기였더라. 그러나 보르스 경은 고기를 먹지도, 포도주를 마시지도 아니하였노라. 다만 그들 앞에 차려진 빵과 물을 먹으며 마실 뿐이었더라.

이때 성의 여주인(Chatelaine)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당신 앞에 차려진 성의 음식을 드시지 않으니 이는 어찌 된 연고인가?"

그가 이르되, "부인, 저는 고기를 먹지 않나이다. 이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고기도 먹지 않겠노라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오.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로 대신하노라. 이는 포도주에 관하여도 같은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니이다."

여인이 이르되, "무슨 목적을 두고 그러한가, 경이여?"

그가 이르되, "저는 성배를 찾아 나선 자요, 그 목적을 위해 금식하며 육신을 괴롭히며 여행하는 자이니이다."

〈각주: 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다.〉

그리하여 잠시 후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당신께서 근심하시니 그 원인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소?" 그녀가 대답하여 이르되, "경,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사옵니다. 제 아버지는 서쪽으로 보이는 이 땅 끝까지의 모든 땅의 왕이셨나이다. 이 성채는 제 아버지의 영토 경계에 서 있으며, 이 곳과 이웃한 다른 왕의 땅과 매우 가깝사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제 아버지는 또 다른 부인과 재혼하였는데, 그 부인은 사악하고 잔인하였사옵니다. 그러므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부인이 제 상속권을 강탈하여 저를 세상의 구박 속에 내던지셨나이다. 이후 그녀는 저를 한 성채에서 또 다른 성채로 쫓아내어, 마침내 이 곳이 제 마지막 피신처가 되었사옵니다. 지금 저는 이 노파 문지기와 그의 아내 한 쌍만이 제 곁을 모시는 가운데 머물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이 가난한 집조차 제게서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으리니, 내일 그녀는 여러 기사들을 데리고 이 마지막 피신처에서 저를 쫓아내러 오리이다."

〈각주: 보르스 경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자청하다.〉

이때 그 곳의 부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며, 말을 마치자마자 격정적인 눈물로 흐느끼더라. 이에 보르스 경의 마음은 깊은 연민으로 크게 움직였으며, 그는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이여, 당신의 슬픔과 그 원인을 듣자 큰 근심을 느끼노라.” 하고 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 그녀가 이르되, “레이셋이라 하나이다.” 하거늘, 보르스 경이 이르되, “레이셋 부인이여, 내가 듣건대, 내가 입을 갑옷 한 벌만 있다면, 나는 이 일에서 당신의 수호자로서 서리라. 그리고 내일, 당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당신 사이를 막아 서리라. 비록 그녀를 따르는 기사들이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명일지라도.” 하니, 부인이 이르되, “경이시여, 한 명의 기사가 여러 명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거의 없으리이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건대, 이 성에는 (비록 옛날의 것이지만) 갑옷 한 벌이 있어, 경의 목적에 맞을 것이나이다. 그러나 경은 그것을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 부인을 따르는 기사들은 모두 전장에서 검증된 명장들이오며, 경은 아마 갑옷 입는 일에 익숙지 않으실 것이오. 경은 몸 어디에도 갑옷 없이 세상을 여행하시니.” 이에 보르스 경이 미소하며 이르되, “그렇든 말든 상관없소. 그럼에도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 이상 갑옷을 입어보았소. 그러니 오늘 밤 그 갑옷을 내 방으로 보내주게. 내가 그것을 살펴보고, 아마 입어볼 수 있겠소.” 하니, 부인이 이르되, “경이 청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날 밤, 늙은 문지기가 갑옷을 보르스 경의 방으로 가져왔고, 보르스 경이 갑옷을 입도록 도와주었다. 보르스 경은 갑옷이 자신에게 매우 정확히 맞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기뻐했다.

다음 날이 이르러, 보르스 경은 성의 정원에서 레이셋 부인과 함께 산책하였다. 보르스 경은 그녀가 지극히 아름다우심을 보았고,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기울어졌다. 이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제 생각에는 당신의 근심이 여기 있음을 아노니, 곧 당신을 위해 당신의 권리와 주장을 지켜줄 남편이 되는 기사가 없으시다는 점이오. 만약 당신이 그러한 기사와 결혼하셨더라면, 당신은 이러한 모욕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오." 그녀가 이르되, "나와 같은 혼수 없이, 소유한 유산 중 성 한 채만 남은 여인인 나를 아내로 삼을 기사가 어디 있겠소?"

〈각주: 보르스 경이 그 부인과 오랫동안 담소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힘과 용기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노라. 다만 이 말은 하노니, 만약 오늘 네 적들을 물리치는 행운이 내게 있다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되기를 자청하리라." 그녀가 이르되, "경,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만약 내가 한때 내 아버지의 것이었던 세 고을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경을 나의 구혼자로 받겠노라. 그러나 이제 나는 슬픈 운명의 인형이 되었으니, 경에게 무엇을 말하리요?" 그가 이르되, "예라고 하시오." 그녀가 이르되, "경은 누구이신가?" 그가 이르되, "나는 보르스 드 가니스 경이라 일컬어지노라." 그때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아 그가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라 말하였으니, 이는 보르스 경의 이름이 그의 힘과 용기 때문에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는 그와 함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더라.

그때 성문의 노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준비하라, 이 땅의 여왕께서 여러 영주들과 부인들, 그리고 그녀를 호위할 여러 기사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하거늘, 이에 보르스 경이 이르되 “이제 내가 전장을 위해 갑옷을 갖추러 가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라!” 하였더라.

이에 보르스 경이 방으로 물러가니, 성문의 문지기가 그를 따라가서 갑옷의 각 부품을 그에게 입혀 주었고, 매우 단단히 조여 매어 서로 이어지고 잘 맞도록 하였노라. 그리고 한쪽에는 큰 검을, 다른 한쪽에는 자비도(misericordia)를 매달았더라. 이때에 그가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그가 거대한 창을 손에 잡고 뜰로 내려가 말에 올랐더라.

그때 레이셋 부인이 그에게로 와서 문안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청하노니, 입고 다닐 만한 작은 선물을 주시오.” 부인이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고는 즉시 목에 걸었던 스카프를 벗겨 그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그녀가 그 스카프를 그의 팔에 동여 주었더라.

그때 성문의 문지기가 성문을 열었으므로, 보르스 경이 성을 벗어나 큰길에서 성 앞에 서서, 이제 그 장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다른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노라.

〈각주: 보르스 경이 대결을 자청하더라.〉

그 나라의 여왕이 서 있는 그 곳을 바라보며 서 있는 보르스 경을 보고는 그에게 외쳐 이르되 “경이 누구이기에 그곳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느뇨?” 이에 보르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인, 나는 이 성의 공녀

를 위한 시합자요, 그녀의 기사로서 경의 오심을 기다리며 서 있나이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네, 나는 잘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노라."

이때 여왕은 크게 노하여, 자신과 함께한 일곱 명의 기사 중 한 명을 향하여 외쳤다. "이 남자를 우리 길에서 물러나게 하라.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 지금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부인을 내쫓게 하리라."

이와 같은 말을 하매, 그녀가 말한 기사가 다른 이들로부터 벗어나 나아와서, 보르스 경에게 이르되, "경, 나와 결투를 벌이시겠나이까?" 하니, 보르스 경이 이르시되, "매우 기꺼이 하리니, 바로 그 목적으로 내가 여기 있노라."

〈각주: 보르스 경이 기사를 쓰러뜨리니라.〉

이에 각기 기사들은 전열을 갖추어 싸울 준비를 다하고, 제각기 제 자리에 서니,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우레와 같이 격렬히 돌진하여 서로 부딪쳤다.

그들이 길 한가운데서 충돌할 때, 보르스 경을 공격한 기사의 창은 스무 개 서른 개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으나, 보르스 경의 창은 꺾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텼으므로, 공격한 기사는 안장에서 힘차게 튕겨져 나와 땅바닥에 떨어졌더라. 그 충격이 심하여 그의 목이 부러지고 그는 곧 죽었더라.

이때 여왕은 자신에게 가장 신임을 받던 기사가 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놀라, 나머지 여섯 기사에게 외쳤다. “여러분, 일제히 그를 습격하여 쓰러뜨리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소!”

그 명령이 떨어지자, 여섯 기사 모두 칼을 뽑아 보르스 경을 향해 돌진하였다. 보르스 경은 그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창을 던져 치워버리고, 빛나는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한데 모여, 보르스 경이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형세가 되었다.

그 전투에서 그는 원탁의 기사 자격을 충분히 증명하였으니, 그가 말의 고삐를 좌우로 돌려 돌진할 때마다, 그의 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갈아 내려찍었기 때문이라. 그의 타격 앞에 두 명의 기사가 쓰러졌고, 이어 또 한 명이 쓰러지므로, 그에게 대항하여 서 있는 자는 단 세 명만 남았더라.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들을 다루는지 보고, 곧 그의 맹렬한 공격들 앞에 물러났고,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 숨을 헐떡이며, 그가 입은 여러 상처로부터 피가 흐르는 채로 앉아 있었다.

이때 왕후는 세 기사의 모습을 보며 꾸짖으며 소리 높여 이르되,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너희 세 기사는 이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한 기사 앞에 어찌 감히 두려워하느냐? 그에게로 나아가 그를 쓰러뜨리라!”

그러나 세 사람이 다시 그를 공격할 마음을 먹기 전에, 그는 그들의 습격을 기다리지 않고 외치며 그들 사이로 돌진하였다.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그는 또 한 명을 검으로 쓰러뜨렸다. 이때 남은 두 사람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내렸고, 그들은 고삐를 당겨 방향을 돌려 즉시 그 자리를 도망쳤다.

〈각주: 보르스 경이 도주하는 기사들을 쫓더라.〉

이에 보르스 경이 그들을 쫓아 외치며 달려가니, 두 사람은 왕비의 궁정 한복판으로 곧장 도망쳤고, 궁정 안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좌우로 흩어지며 공포에 질려 비명지를 지르더라. 그 궁정의 경계선 바로 밖에서 보르스 경은 도망치는 두 사람 중 첫 번째를 추격하여, 그를 말에서 주머니가 떨어지듯 내려쳐 땅에 굴러 떨어지게 하더라.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기사를 따라가니, 보르스 경은 안장에 몸을 일으켜 온 힘을 다해 그를 내리쳤다. 그 칼날이 그 기사의 투구를 관통하여, 투구 아래 있던 철모를 찢고, 결국 두개골을 목구멍까지 갈라버리더라. 그 기사 끔찍한 신음을 토해내며 죽어 땅에 쓰러졌고, 그의 말은 주인 없이 달아났더라.

그리하여 보르스 경은 다시 그 궁정으로 돌아왔노라. 그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여왕에게 다가가니, 그의 모습을 본 여왕은 나무의 재처럼 하얗게 질렸더라. 보르스 경이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당신이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오셨나이까?” 하니, 여왕은 그 앞에서 전율하며 곧장 대답하되, “경, 나는 나의 권리를 찾으러 왔사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이 찾는 그 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오. 나를 따라오시오."

〈각주: 보르 경이 왕비를 성채로 모시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갑자기 여왕의 말 고삐를 잡아당겨 그녀를 그곳에서 끌어냈고, 왕실의 그 누구도 그를 막아내려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보르스 경은 여왕의 말을 이끌고 그 외로운 석조 탑으로 향하였는데, 문턱에 다다르자 그는 크게 소리쳐 외쳤노라. "나를 열어주시오!" 이때 그 성의 문지기 하나가 성문을 열어주었고, 보르스 경은 여왕을 성 안으로 이끌어들였노라. 그러자 문지기는 다시 성문을 닫아버렸고, 여왕은 성벽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녀의 신하들과 귀부인들은 성벽 밖에 남겨지게 되었노라.

성벽 위에서 성의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광경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찼더라. 이에 곧이어 성벽 꼭대기에서 그녀가 있던 망루의 지붕 위에 서 있는 보르스 경이 나타나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상처 입은 그를 끌어안아 뜨거운 열정으로 포옹하였노라.

그러나 보르스 경은 그녀를 물러나게 하고 성벽 가장자리로 나아가 왕비의 궁정에 소리쳤다. 이르되 "어찌하여 거기서 기다리느냐? 너희 왕비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노라. 이 성의 부인에게 정의를 행하기 전까지 그녀는 우리의 포로로 남아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도시로 돌아가 내 말을 전하라. 이 부인에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왕비라 칭한 자는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하리라."

그 후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물러나, 자신의 상처를 씻고 다스릴 수 있는 방으로 향하더라. 그 사이 왕비의 궁정은 그곳을 떠나고, 두 사람은 홀로 남았노라.

그 날 오후, 세 명의 기사들이 그 곳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세 명의 시종들이 왔고, 각 시종은 말 한 필을 이끌었으며, 각 말 위에는 상자 하나가 실려 있었다.

이 세 기사 중 한 명은 그 왕국의 한 마을에서, 또 한 명은 다른 마을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또 다른 마을에서 왔다.

〈각주: 세 명의 기사들의 임무에 대하여.〉

그때 세 마을 중 가장 큰 곳의 기사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즉시 성탑의 성벽 위에 작은 누각이 있는 곳에서 보르스 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 밖의 기사들이 그에게 인사를 하며 이르되, "경에게 문안 드립니다. 저희 세 사람이 이곳에 온 것은 이 탑의 부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는 뜻을 전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녀를 저희의 여왕으로 받들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나니, 그녀가 경과 같은 훌륭하고 값진 기사 중 한 사람과 결혼하여, 그가 저희의 왕이 되고 그녀가 저희의 여왕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저희가 이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를 다스릴 여인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르스 경이 웃으며 이르되, “경, 말씀대로 하리이다. 잠시 후 이 낭자가 그대들을 다스릴 어떤 신사를 맞이하리라.” 보르스 경은 속으로 생각하되, “아마도 내가 그 사나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때 그 성의 문들이 열리자, 세 기사는 안뜰로 들어갔노라. 그 후 그들이 호위하던 기사보조병들이 성 안뜰로 가져온 세 개의 상자를 열자, 그 상자들 안에는 비단과 벨벳으로 지은 온갖 의복들과 보석들, 그리고 왕비가 자신을 치장하기에 알맞은 다양하고 정교한 금 장신구들이 가득하였더라.

이 의복들은 성의 부인의 방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그 옷을 입고 차려입었노라. 그녀가 이렇게 차려입자, 하늘의 안개가 그 얼굴 앞에서 사라질 때 해가 빛나는 것과 같이, 그녀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광채로 빛나더라.

〈각주: 보르스 경과 그 부인이 성채를 떠나 타러 가더라.〉

그 후, 성의 부인과 보르스 경, 그리고 세 기사와 그들의 시종들은 모두 말에 올라타 그 성을 떠나버렸다. 그들은 그곳 땅의 전 여왕이었던 부인을 뒤로 남겨두었는데, 그녀는 잠시 동안 그 곳의 노쇠한 문지기의 감시 아래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그 왕국의 중심 도시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그들을 맞이하려는 무리들이 크게 모여들었다. 새로운 여왕이 돌멩이로 닦인 거리로 나아오시자, 군중은 환호성과 함께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온 도시에는 다채로운 색의 비단 깃발과 리본들이 집들의 첨탑들

에서 햇살 아래 나부끼고 있었다. 그래서 햇살은 붉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색,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한 빛깔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많은 목소리의 함성으로 공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그들은 성에 도착하였고, 이로써 정당한 왕비가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더라.

* * * * *

〈각주: 보르스 경이 꿈을 꾸다.〉

이때 밤이 깊어 보르스 경이 꿈을 꾸었노라. 그 꿈속에서 보르스 경 앞에 한 기사가 서 있었는데, 그는 키가 크고 위엄이 있어 보였으며, 순백빛의 옷으로 온전히 덮여 빛나고 있었노라. 그 기사가 보르스 경에게 이르되, "보르스 경이여! 보르스 경이여! 그대는 무엇을 하려느냐?" 하거늘, 보르스 경이 꿈속에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기 머물며 이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고자 하나이다," 하니라. 그 기사가 이르되, "그대가 성배의 탐색을 그토록 빨리 잊었느냐? 짧은 시간 안에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저것은 잊었느냐?" 하였노라.

이에 보르스 경은 자신의 마음이 회개의 칼날로 찔린 듯하여 크게 소리치며 외쳤노라.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 부르짖음과 함께 그는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단지 꿈이었음을 깨달았으며, 그 몸이 열병에 걸린 자처럼 떨리고 있음을 발견하였더라.

그날 종일 꿈의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아, 오후에 왕후와 함께 성의 정원을 거닐 때 그에게 그 일을 말하였다. 그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모

두 말한 후, 이르되 “부인,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이 곳에 정착하기 전, 아직 수행해야 할 의무가 하나 있나이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나는 성배를 구하는 중이며, 아직 성배는 발견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보내어 그 찾기를 계속하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과 결혼하리이다.”

이에 왕후가 대답하되, “보르스 경, 당신은 이제 나흘 동안만 저와 함께 하셨사오며, 당신의 구애는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나이다. 그렇다면 구애가 뜨거워져서 더 쉽게 식을 전에, 저를 떠나시려 하나이까?”

보르스 경이 이르되, “제 구애는 식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그것을 당신의 기억 속에 품에 안고 따뜻하게 간수하리니, 제가 다시 돌아올 때면 그것은 다시 생명으로 피어오르리이다.”

그 부인이 이르되, “저를 떠나지 마소서, 보르스 경. 이제 나의 권리가 확보되었으니, 당신은 저 곁에 머물러 그 권리를 수호하는 데 도와주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적들이 다시 일어나 나를 무너뜨릴 것이오. 당신이 성배를 찾는 것은 좋은 일이오나,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성배나 당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효력이 있을 것이오?”

보르 경이 이르되 “부인,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치려 일어설 것이라 생각지 않나이다. 당신의 원수는 당신의 아버지의 아내이시니, 그녀는 내가 당신을 발견했던 그 외로운 성채에 여전히 갇혀 있나이다. 그러나 어찌되든 나는 이제 이 곳을 떠나 다시 나의 성배를 찾아 나서야 하나이다. 기사가 어떤 일을 서원하였거든, 비록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작은 일이라 여겨지더라도, 그는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추구해야 하나니이다. 그러나 이 성배를 찾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기사에게 있어 매우 크고 중대한 일이라 할 수 있나이다."

그때 그 고을의 왕후가 울기 시작하며 이르되, "보르 경이시여, 이제 저를 떠나시려 하시면, 저는 경이 영원히 저를 버리실 줄 아나이다. 성배를 찾으실 때 경은 저를 잊으시며, 다시는 이 곳으로 돌아오지 않으실 것임니다. 그렇다면 경 없이 저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보르 경은 얼굴을 깊이 숙이며 이르되, "부인, 그 말씀은 가혹하오이다. 비록 그러하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성배를 찾아야 할 것이오. 이는 원탁의 가장 위대한 업임이며, 만약 제가 그 회복에 공헌하게 된다면, 저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오. 그리하여 저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임니다."

〈각주: 보르 경이 그 부인을 떠남.〉

그후에 보르 경은 그 곳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세 명의 시종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의 갑옷을 입히도록 돕고, 그가 무장을 마치자 그는 마구간으로 내려가 자신의 말이 나오도록 명하였다. 그는 말에 올라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그 왕후 부인에게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그녀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고통만 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작별 인사 없이 떠나리라."

이와 같으니라. 옛날의 기사라야 서원을 세우면, 그 즉시 쾌락이나 이익이라 할지라도 모두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세운 그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곧장 전진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해 아서왕의 원탁에 앉았던 위대한 기사들은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서원을 다 이루어냈노라.

무릇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운명이 따르든 간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나은 법이니라. 의무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영광보다 위에 있나니,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그 행함에서 결코 어긋나지 못하느니라.

이때 보르 경은 그 날 종일과 다음 날의 일부를 달려가며 나아갔고, 둘째 날 저녁 무렵 그는 낯설고 황량한 땅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노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느 땅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방이 어둡고 음울한 광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 땅 위에는 잔디가 거의 자라지 않고, 잎사귀 하나 없는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노라.

그리고 곧이어 땅에서 송장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라, 회색빛으로 음울한 하늘을 향해 무겁게 날아갔노라. 그러나 그러한 것들 외에는 그 땅에 어떤 눈도 없었으니, 살아있는 영혼 하나 없는 어둠만이 가득할 뿐이었노라.

〈각주: 보르 경이 백기사와 조우하다.〉

그때 그가 한 갈림길에 이르렀거늘, 그 길목에 홀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한 기사가 있음을 깨달았노라. 그 기사는 온몸을 흰 갑주로 두르고 흰 말 위에 앉아 있었으니, 바로 보르 경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기사

였더라. 보르 경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기사가 인사하며 이르되, "보르 경이여, 안녕하시나이까? 어느 곳으로 가시나이까?"

이에 보르스 경이 이르되, "기사여,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지난밤 꿈속에서." 백마의 기사가 이르되,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치 않노라. 오직 이것을 알라. 내가 너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네가 성배를 구하러 가는 줄도 아노라. 갤러해드 경이 그 성배를 성취하리라. 그리고 너와, 그 다음으로 가장 순결한 기사인 퍼시벌 경이 그와 함께 그것을 발견하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해 오래도록 기다려 왔노라. 이제 그대들이 왔으니,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라." 이에 보르스 경이 이르되, "그리하겠나이다."

그 후 두 사람은 나란히 함께 말을 몰고 갔더라. 곧 해는 지고 달이 떠올라 매우 고요하고 밝았으며, 두 사람은 그 길로 계속 나란히 함께 달렸더라.

백마를 탄 기사와 보르 경은 서로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두 사람은 흰 달빛에 적셔진 채, 검은 그림자를 뒤로 끌며 고요히 말을 몰아갔더라.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들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광활하고 바위투성이의 황무지에 다다랐노라. 다만 그들 앞에 펼쳐진 땅 위에는 크고 작은 둥근 단단한 돌들이 두껍게 깔려 있을 뿐이었더라. 이때 흰 갑옷을 입은 기사가 보르 경에게 이르되, "저편이 우리의 길이라.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하니라.

그때 두 사람은 그 기사가 일러준 대로 곧장 길을 재촉하였으니, 그들 주변에는 하얗고 고요한 달빛이 순수하고 맑은 은빛 목욕탕처럼 가득 차 있었더라. 그리하여 얼마 후, 멀리서 큰 굉음이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두 사람이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났더라. 이때 백색 기사는 말을 멈추고 이르되, "경, 경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르스 경이 이르되, "그것이 무슨 소리이니이까?" 백색 기사가 이르되, "그것은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라.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니라."

〈각주: _그들이 바다에 도착하다._〉

이에 그들이 조금씩 나아가매, 마침내 작은 바다 만(灣)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 만 너머로는 거대한 파도가 해변을 향해 치솟아 올랐더라. 백마 탄 기사가 그 만의 해안가로 내려가시니, 보르 경도 그를 따랐더라. 그곳에는 순백의 모래로 된 단단하고 평평한 해변이 있었고, 그 모래 너머에는 몇몇 바위들이 서 있었더라.

이때 보르 경은 바위 곁에 한 척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노라. 배는 해안에 기대어 있었고, 그 내부는 순백의 린넨으로 치장되어 있더라. 배의 한가운데에는 침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기사가 깊이 잠들어 있었노라. 보르 경은 그 기사가 퍼시벌 경임을 간파하였더라.

이때 흰 갑옷을 입은 기사가 보르 경에게 이르되, “보르 경이시여, 저 배에 오르소서. 오직 그대만이 성배를 발견하리라” 하니라.

〈각주: 보르 경이 배에 들어오니라.〉

이에 보르 경이 말에서 내려 배에 올랐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깨어나 몸을 일으키니, 배 안에 서 있는 보르 경의 모습을 보고 인사를 드리니, 보르 경 또한 이에 답례하더라.

그때 흰 갑옷을 입은 기사가 해안에서 뱃전을 밀어 주니, 배는 곧 밤의 어둠 속으로 매우 빠르게 나아갔다. 그리고 보르 경과 퍼시벌 경이 뒤를 돌아다보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흰 갑옷 기사가 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는 대리석으로 조각된 것처럼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사가 서 발란의 영혼으로, 성배를 찾기 위해 그 기사들을 인도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그 희미한 형상은 달빛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들 주변에는 바다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바다는 매우 기이하고 신비로웠으나, 동시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달빛의 밝은 흰 빛은 파도의 물결 위에 떠있었고, 마치 파도 위에 부어낸 액체 은처럼 이곳저곳으로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다.

* * * * *

이때에 보르 경의 모험이 이러하였더라.

그가 약혼녀이요 아름다운 부인을 버리고 성배를 구하러 떠났다고 하여 그를 나쁘게 여기지 말라. 성배는 온 세상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 성배를 되찾는 일은 어떤 기사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고귀한 업적이라 판단되었노라. 그러므로 보르 경은 성배를 구하기 위해 사랑과 부, 그리고 세속의 영광에 대한 모든 희망을 기꺼이 버렸노라.

그가 이를 행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위함이요, 자기의 영예를 위함이 아니라 성배가 참으로 속한 낙원의 영예를 위함이더라.

이러므로 그는 세상이 그에게 제공할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 얼굴과 모든 노력을 거룩한 잔의 회복을 향한 일에 집중하리라. 만약 그가 그 잔을 회복하거나 그 회복을 돕게 된다면, 그 회복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에도 만족하리라.

이곳에서 말하거니와, 레이셋트 부인은 보르 경의 귀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가 이미 떠난 것을 알고는 그 왕국에 있는 한 고귀한 기사의 혼인 상대가 되었노라. 그 기사로써 그녀는 남편으로 삼았고, 그 남자는 그녀의 명을 대신하여 그 땅을 다스렸노라. 그의 심판에는 큰 자비로움이 있었고, 기사도의 지혜로써 높은 존엄을 지녔더라.

이제 우리는 보르 경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그 시기에 일어난 갤러해드 경의 더 먼 모험으로 시선을 돌리노라. 이어지는 바와 같으니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갤러해드 경이 그 부인과 함께 말을 달리다]

[일러스트레이션] 일곱 번째 장

갤러해드 경이 가웨인 경을 쓰러뜨린 일과, 그가 아름다운 낭자와 함께 해안가로 동행한 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이때 성배를 향한 갈라해드 경은 앞서 일렀거니와 랜슬롯 경을 쓰러뜨린 후, 광활한 숲 속을 오랫동안 달렸노라.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가지 기이한 모험을 겪었으니, 비록 내가 읽은 고대의 사서들에 그 언급이 있기는 하나, 그 상세한 내막은 전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가 그 숲에 머무르며 잠들고, 배가 고플 때면 숲의 사람들이 그를 먹여 살렸더라.

이러한 연유로, 어느 아침 그가 숲을 떠나 달리던 중, 그는 마치 땅의 깊은 대야와도 같은 계곡으로 매우 깊게 내려가는 평야 지대에 이르렀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은 계곡에서 몇몇 기사들을 목격하더라.〉

그때 갤러해드 경은 그 분지 가장자리에 앉아 말 위에 올라타, 그 깊은 곳을 내려다보았노라. 멀리서 한 성채가 보였으며, 그 성채 주변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른 아침 햇살이 기사들의 갑옷에 내려앉아, 갑옷이 빛을 받아 순수하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찬란한 점들로 되돌려 보내었기 때문이었노라.

이때 갤러해드 경은 스스로에게 이르되, “저 기사들의 무리는 무엇이며, 어찌하여 저 성채 주위로 모여드는고?” 하고 또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가 그 계곡으로 내려가, 그 모임의 뜻을 스스로 확인하리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그 기사들에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곳에 멈춰 말의 고삐를 당겨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그 먼 성곽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니라.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말을 걸기에 충분한 거리에 이르렀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에게 이르되, “경들아, 이 곳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이 곳에서 얼마 전 여덟 명의 기사들이 참여한 토너먼트가 열렸나이다. 그 토너먼트 중 한 젊은 기사가 살해당하였나이다. 우리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로서, 그를 위해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그 일곱 명의 기사들은 성벽 안으로 숨어 우리로부터 몸을 피하고 있나이다.”

“부끄러운 일이라!”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여러분이 여러 명이면서 너희에게 맞서지도 못하는 일곱 사내를 포위하다니, 부끄러운 일이라. 물러가라. 그들이 나오게 하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그 일곱 명을 데려가기 전까지 이 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여기로 온 목적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리라.”

"그렇다면,"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내가 이쪽에서 너희를 공격하리니, 그들이 나와서 다른 쪽에서 너희를 공격하리라. 그리하여 우리는 이 포위를 풀리라."

이때 그들이 모두 웃으며 이르되, "한 명의 기사가 일곱 대 일의 열세에 맞서 이들을 포위에서 구해낼 수 있다니, 가능하단 말인가? 자, 보자. 그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각주: 갤러해드 경은 그 기사들과 싸우니라.〉

이에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갤러해드 경 또한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가 창을 버리고 검을 뽑아 든 후, 방패를 높이 들어 올리고는 외침과 함께 그들을 향해 돌진하였노라. 그는 군중 한가운데로 깊이 침투하여, 이쪽저쪽을 가리지 않고 칼질을 하였노라. 그의 타격은 너무도 두려워 많은 이들이 그 앞에 쓰러졌고, 모두들 그에게서 도망쳤노라. 그리하여 그는 곧 자신 주위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내었노라.

이때 성을 포위하고 있던 무리 중에는 가웨인 경과 그의 사촌 에웨인 경이 있었노라. 그러나 갤러해드 경은 이 두 기사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 역시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갑옷이 전투와 그가 겪어 낸 여러 모험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 당시 그의 방패에는 가죽 덮개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노라.

이에 그들이 모여 서서 갤러해드 경을 바라보았고, 갤러해드 경 또한 그들을 바라보았더라. 그 사이 성의 기사들은 나올 준비를 갖추었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가웨인을 물리치더라.〉

그때 가웨인 경이 이르되, "한 사내의 손에 이렇게 밀려 물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로다! 내가 직접 저와 맞서리라." 하고는 갤러해드 경을 향해 나아갔다. 갤러해드 경은 그를 기다렸노라.

가웨인 경이 충분히 가까이 다다르자, 갤러해드 경은 등자 위에 몸을 일으켜 일격을 가하였으니, 가죽도 철도 이를 막지 못하였노라. 그 일격은 가웨인 경의 방패를 둘로 갈라냈고, 그의 투구도 둘로 갈랐으며, 투구 아래 있던 철제 모자도 둘로 갈랐노라. 그리고 그 칼날은 두개골의 뼈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노라.

이때 가웨인 경의 머릿속이 얕은 물결처럼 어지러워졌고, 그는 안장에서 여기저기 흔들리며 균형을 잃었다. 만일 에웨인 경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는 말의 발치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다. 에웨인 경은 그가 넘어지기 직전에 그를 붙잡아 안장에 앉은 채 붙들어 주었더라.

이때 가웨인 경이 이르되, "아, 에웨인! 그 일격을 가한 이는 곧 갤러해드라. 그런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이는 그 외에는 없노라. 그리하여 나는 대리석 돌에서 그 검을 뽑아내려던 죄로 인하여 이 고난을 겪었노라. 아! 내게 슬프도다." 이렇게 말하되, 그의 흐려진 정신이 그를 떠나가며, 그는 마치 죽어가는 양 기절하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가웨인을 성채로 들이다.〉

한편 성채 안의 기사들은 성문을 열라는 명령을 내렸더라. 이에 따라 명령대로 성문이 활짝 열리자, 성채 안의 일곱 기사들이 성문을 나서 그쪽에서 공격을 수행하려 했노라. 그러나 에웨인 경이 크게 외치되, "여러분, 물러서소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조카이시며 지극히 뛰어난 한 기사가 심하게 다치셨사오니." 하니, 갤러해드 경이 부르짖되, "슬프도다! 불쌍한 내가로다! 내가 바로 그 검에 관한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였노라. 이 검이 가웨인 경의 생명을 깊이 파고들리라 예언되었거늘, 보라,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하고 에웨인 경에게 이르되, "그분을 이 성채로 모셔가소서. 여기서 그분의 상처를 살펴보고 돌보아 주리이다." 하고 성채 안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신사의 모든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때 가웨인 경은 성채 안으로 모셔져 침상에 눕혔더라. 그의 상처를 살피고 거기에 발름을 바르니, 그제야 그는 그 곳에서 안위를 얻었노라. 이로써 그 검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졌더라.

이에 그들 모두는 갤러해드 경에게 잠시 그 성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나, 그는 그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일렀노라. 다만 그는 이르되,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노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노라. 내가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성취하는 동안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나는 알 수 없노라." 하더라. 이에 그는 고삐를 당겨 말을 몰아 떠나, 그들을 뒤로 남겨두고 갔노라.

* * * * *

이제 그 시절 기사들이 방랑의 길을 떠났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 날 한낮쯤 되어, 갤러해드 경은 한 농부의 가옥에 이르렀더라. 문 지방에는 농부의 처와 딸이 서 있더라. 처는 풍만하고 건장하였으나, 딸은 매우 마르고 갈색 피부였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휴식하는 법.〉

이때 갤러해드 경은 음식을 청하매, 그들은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치즈 한 조각, 그리고 사과주 한 항아리를 가져다 주었노라. 갤러해드 경은 넓게 퍼진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먹고 마시니라. 이 때 그 사람들은 멀리서 그를 큰 관심과 호기심으로 지켜보았으니, 그들은 갤러해드 경처럼 키가 크고 고결한 기사의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노라.

이와 같이 그 시절 세계를 떠돌던 빛나는 갑옷을 두른 기사들은 안식하며, 그들을 마주한 백성들의 접대를 받으며 지냈노라.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이를 알도록 하려 함이라.

그날 저녁, 해가 진 뒤, 별빛이 빛나는 어둠의 이불처럼 부드럽고 축축하며 따뜻한 밤이 땅을 덮자, 갤러해드 경은 넓은 황야에 서 있었다. 그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달이 떠올라 매우 밝고 고요하게 빛나자, 갤러해드 경은 그 빛을 따라 앞에 작은 예배당을 보았노라. 그가 스스로 이르되, "내가 여기서 밤을 묵으리라."

〈각주: 갤러해드 경은 예배당에 묵었다.〉

이때 갤러해드 경은 예배당 문 앞에 다다라 자기의 미세리코르디아 손잡이로 문판을 세차게 두드렸더라. 곧이어 그 예배당의 은수자인 은자가 나타나, 갤러해드 경이 서 계심을 보자 그를 안으로 들이기를 청하였노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은자는 그의 말을 예배당 곁의 마구간에 들인 뒤 돌아와 기사 앞에 앉아 있더라. 은자는 그에게 국물과 콩류, 그리고 갓 딴 과일을 차려 내었으니, 갤러해드 경은 큰 기운으로 이를 먹었더라.

〈각주: _한 부인이 예배당으로 오더라._〉

이때 갤러해드 경이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문이 또다시 두드려졌다. 은둔자가 문을 열러 나갔을 때, 그는 그곳에 서 있는 한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온몸을 흰 옷으로 두르고 있었고, 짙은 머리카락은 은빛 리본으로 동여매어져 있었다. 그 부인은 크림빛의 작은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 말의 안장은 붉은빛의 스페인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은판과 은 단추들이 장식되어 빛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 부인이 은둔자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청컨대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여기 안에 갤러해드라 칭하는 기사가 있사옵니까?"

이 말을 들은 갤러해드 경은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이르되 “부인, 나는 갤러해드라.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그녀가 이르되, “경이시여, 부디 저와 함께 타시기를 청하노라. 내가 경을 경이 평생 겪지 못했던 한 가지 모험으로 인도하리라.” 그가 이르되, “그 모험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그것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도다. 그러나 내가 그 이상 말하지는 못하리라.”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어디로 나를 인도하려 하느냐?” 그녀가 이르되, “오라. 내가 경에게 보여주리라.”

이에 갤러해드 경은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 무장을 갖추었고, 은수자는 갤러해드의 말을 마구간에서 끌어내었더라. 곧이어 온갖 무장을 갖춘 갤러해드 경은 은둔처를 나와 말에 올랐더라.

그가 곧장 말에 올라타자, 그 부인은 고삐를 당겨 돌아서서 그 곳을 떠나가니, 갤러해드 경이 그녀를 따라갔더라.

〈각주: 부인과 갤러해드 경이 함께 말을 몰아가더라.〉

그들은 함께 황야를 가로질러 떠나갔었다. 그들 주변에는 밤의 고요함이 가득했고, 머리 위와 그들 주변에는 빛나는 달의 고요한 백색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자와 각각의 말의 그림자가 매우 검고 신비롭게 황야를 따라 그들을 따랐다.

그들 두 사람은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며 길을 갔으니, 그 부인은 갤러해드 경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갤러해드 경 또한 그녀에게 말

을 걸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각자 말에 올라 침묵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더라.

〈각주: 갤러해드 경이 바다를 바라보니라.〉

이에 그들은 차차 고지대로 올라가 마침내 모어랜드의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갤러해드 경은 갑자기 언덕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노라. 달빛이 바다 위에 내려앉아,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 바다는 순결하고 빛나는 순은(純銀)의 광활한 면과도 같이 빛나더라. 이때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부인, 저기 바다로다." 하거늘, 다른 한 분이 이르시되, "그렇도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때부터 잠시 후, 그들은 바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곳에 다다랐고, 달빛이 파도에 비쳐 파도가 해안에 부딪는 소리를 들으며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바다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바위 곶이 물속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곶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그때 갤러해드 경은 달빛에 비친 배 한 척이 해안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줄로 묶인 것은 아니었으나 마치 해안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 모두 배에 가까이 다가가자, 갤러해드 경은 배가 흰 리넨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각주: _그가 배에 탄 퍼시벌 경과 보르 경을 보았더라._〉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기에, 뒤편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매우 선명하고 또렷하며 희게 드러났다. 갤러해드 경은 그 두 얼굴 중 하나가 성 퍼시벌 경의 얼굴이며, 다른 하나가 보르스 드 가니스의 얼

굴임을 알아차렸다. 이 두 사람은 해변에 서 있는 갤러해드 경을 보고 큰 소리로 기쁜 인사를 드리며 외쳤노라. “영광이 있기를, 성 갤러해드 경이시여! 당신을 환영하노라!”

그때 갤러해드 경은 말에서 뛰어내려, 바위에서 바위로 뛰어가며 해안가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배에 뛰어올라 두 사람 모두의 뺨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들도 또한 그의 뺨에 입을 맞추어 답하였다. 갤러해드 경이 그들에게 물으니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묻되, “당신이 이곳에 이르게 된 그 부인은 누구인가?” 그가 대답하되, “나는 그녀를 알지 못하나, 그녀가 나를 이 곳으로 데려왔노라.”

〈각주: 퍼시벌 경이 그의 자매를 바라보더라.〉

그때 그들이 보니 그 부인도 또한 말에서 내려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더라. 그녀가 바위 사이로 내려와 배 곁에 다다랐을 때, 퍼시벌 경은 그녀를 더 또렷이 보았고 그녀를 알아보았노라. 이에 그가 외쳤노라. “나는 너를 알노라! 너는 내 누이로다!” 그녀가 이르되, “그렇도다, 이는 참된 말이니이다.” 그가 그녀에게 물으니, “누이여,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그녀가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정보를 전하러 왔노라. 그 내용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곳을 떠나 항해할지니, 잠시 후 너희는 매우 장엄한 배 하나를 발견하리라. 그 배는 솔로몬의 배라 불리우며,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 배 안에는 성배가 안치되어 있으며, 그 배 자체는 성배가 마땅히 머무르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의 배에 담대히 오르라. 그 안에서 너희에게 해가 끼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배는 성배가 마땅히 머무르는 사라스의 성으로 너희를 모셔가리라."

그때 그녀가 돌이켜 갤러해드에게 이르되, "갤러해드, 내가 이 말을 네게 전할 허락을 받았노라. 네가 원할 때 네 영혼이 네 몸에서 떠나가도록 허락되었노라. 그 영혼은 네 몸을 남기고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승천하여, 네 명령에 따라 낙원으로 오르리라. 내가 전할 말은 다하였노니, 이제 안녕히 가라."

이때 그 부인은 그들 곁을 떠나 말에 올라타고 달아나니라.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울었으니, 이는 그녀가 퍼시벌 경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곧장 해안에서 떠나 순식간에 매우 빠르게 움직이더라. 그것은 곶을 지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고, 잠시 후 육지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달빛이 지상의 모든 어둠을 비추는 부드러운 광채 속으로 녹아드는 듯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다 위를, 그리고 바다의 거대한 파도 위를 빠르게 항해하였으니, 달빛이 그들을 사방에서 감싸 안았고, 그들은 바다의 품속에서 요람처럼 흔들리며 나아갔더라.

그들이 밤새도록 항해하니, 곧 아침이 밝아오며 그들 앞에 또 다른, 그들이 타고 있던 배보다 더 큰 배가 눈에 띄었더라. 그들이 탄 작은 배는 그 큰 배 쪽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마침내 그 배의 옆에 바짝 다다랐더라.

〈각주: 그들이 '솔로몬의 배'에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보니, 그 배는 지극히 기이한 형상이었더라. 배 전체가 상목(檀木)으로 만들어졌고, 주홍빛과 청금색으로 물들여졌으며,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배의 돛은 다채로운 비단으로 만들어져, 바라보는 자의 눈을 현혹할 만큼 놀라웠고, 갑판에는 비단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배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이 신기한 배는 솔로몬의 배라야 하리니, 우리로 하여금 성배를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지체 없이 이 배에 오르자."

그들은 자기들의 배에서 내려 솔로몬의 배에 올랐고, 그들이 그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때에 그들은 큰 경외심에 사로잡혀 말없이 고요하였더라.

〈각주: 성배를 발견함.〉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자, 우리 성배를 보자. 여기 있노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 그 배의 갑판 아래로 내려가니, 그곳에 새겨진 은으로 된 탁자가 있고, 탁자 옆에는 창이 기대어져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무언가를 덮은 자색 벨벳 천이 펼쳐져 있었다. 그 천은 금으로 매우 화려하게 수놓아졌고, 여러 가지 색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더라. 그 천 아래에서는 맑고 찬란한 빛이 비쳐 나왔으니, 그 빛은 성배에서 나오는 것이었더라.

갤러해드 경은 식탁으로 다가가 천의 모서리를 잡고 들어 올렸노라. 보라! 그 아래에는 성배 그 자체가 놓여 있었더라. 그것은 태양의 빛과도 같은 광채로 타올랐으니, 매우 찬란하고 휘황하여 그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더라.

그때 세 사람은 성배 앞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마주 잡으며 그 영광스러운 빛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니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이것을 전에 본 적 있으나, 이처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노라" 하더라. 다시금 세 사람은 성배를 찬양하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의 배는 그 세 명의 기사를 싣고 매우 신속하게 항해하여 갔으며, 그날 종일 내내 항해하다가 해 질 무렵, 높은 바위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성읍에 다다르니라.

〈각주: 그들이 사라스 성에 이르니라.〉

그 도시는 바로 사라스의 도시라. 세 기사에게 그 도시는 지극히 크고 아름다워 보였노라. 그들이 보니 그 곳에는 매우 많은 높은 첨탑들과 탑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해가 지는 빛이 그것들을 비추어, 마치 순금으로 지어진 것 같이 빛나 보였느니라.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도시를 향해 매우 빠르게 나아갔고, 곧이어 그곳에 있는 부두 옆에서 항해를 멈췄더라.

이에 갤러해드 경이 이르되 "우리는 이 성배를 성당으로 모셔가자. 진실로 이것이 그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니라" 하니, 보르 경과 퍼시벌이 이르되 "그렇게 하옵시다" 하더라.

세 사람은 그 은식탁의 세 모서리를 잡고 그것을 성문 쪽으로 들고 갔더라.

〈각주: _불구자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_〉

이 일들의 연대기에 의하면, 성문에는 한 불구자가 앉아 구걸하고 있었으니, 그 불구자는 서른 해 동안 걷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 탁자의 네 모서리 중 하나를 들어 옮기는 데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어찌 이 탁자를 들어 옮길 수 있겠는가? 보라, 나는 서른 해 동안 불구자였노라. 그 동안 나는 지팡이 하나 없이 한 걸음도 걷지 못하였노라." 갤러해드 경이 이르시되, "그러나 일어나 여기로 오시오." 그제야 그 남자가 일어나 지팡이에 의지하여 서니, 그들이 성배의 탁자를 그에게 가져다주었고, 그는 그 은탁자에 손을 대었더라.

그가 그 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힘이 그에게로 흘러들었더라. 그의 관절은 단단히 어우러지고 유연해졌으며, 그는 더 이상 절름발이가 아니었노라. 이때 그가 외치되, "보라! 내가 나았도다!"라 하였고, 그와 함께 그는 힘차게 뛰고 도약하였더라.

* * * * *

이때 성배가 성취되었으니, 이제 세 분의 위대한 기사들이 이를 본래 속한 사라스(Sarras) 성으로 다시 가져가던 과정과, 그곳에서 그들에게 닥친 일들을 기록하노라. 그러므로 이하에 기록된 이 여정의 결말을 읽기를 청하노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결론

이 불구자의 치유 소문이 널리 퍼지자, 마을 전체에 그 기적이 알려졌더라. 그들이 마을에 들어설 무렵, 이미 수많은 군중이 모여 그들을 따랐고, 그들을 따라가는 군중의 소리는 마치 많은 물결이 우렁차게 울부짖는 소리 같았더라. 군중은 날이 갈수록 더 불어나, 마침내 마을의 그 일대는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

〈각주: 성배가 대성당으로 옮겨지니라.〉

이때 그들이 대성당에 이르렀을 때, 그 대성당의 주교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은(銀) 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무슨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 갤러해드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교님, 이 상 위의 것은 성배이니이다. 우리가 그 사명을 성취한 자들이라 이 곳에 가져왔사오니 이는 그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니이다" 하니 주교가 이르되 "내가 그 성배를 보게 하라" 하였더라

이때 갤러해드 경은 성배의 벨벳 덮개를 네 모서리에서 잡아 들어 올렸노라. 그리하여 보라, 성배의 영광이 모든 이들의 눈앞에 타오르듯 드러났더라. 그 영광이 지극히 위대하여 성당의 내부를 온전히 비추었으니, 마치 그 곳에 햇빛이 쏟아져 든 것 같았더라. 성배와 그 갑작스러운 빛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성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성배가 제자리로 돌아왔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노라.

이때 성배와 창이 높은 제단 앞에 놓이니, 그들은 가려짐 없이 그대로 두었더라. 그들의 영광이 빛나며 모든 인접한 공간을 환하게 비추었더라.

이때 성배는 그 도시에서 사흘 동안 드러나 있다가, 그 시한이 다 차자 땅에서 들어 하늘로 올려졌으니, 이제 이에 대해 말하리라.

세 기사는 대성당 안에 있어, 성배가 모셔진 높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오니라. "영광이 있기를, 너희 용사들이여! 그리고 모든 찬사가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는 이제 그 성배를 찾아냈으니, 이는 지금 여기서 하늘로 옮겨질 것이라."

〈각주: 성배가 하늘로 오르다.〉

그 목소리와 함께 두 손이 이르렀으니, 그 손은 매우 희고 빛나더라. 그 손들이 성배를 들어 올렸으나, 그 손들과 함께 어떤 몸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손들만 있을 뿐이었노라. 또 다른 두 손이 이르러 창을 들어 올렸으나, 그 손들에도 역시 몸은 없었더라. 이에 네 손이 성배를 들어 올리고 창을 들어 올리니, 그 손들이 두 거룩한 유물을 높이 들어 그곳으로부터 멀리 옮겨 가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치 대성당의 지붕을 뚫고 올라가듯 승천하여,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영광의 빛 속에 흩어져 갔더라.

이와 같이 성배는 하늘로 들어 올려졌고, 이때 성당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였노라. 그 중 몇몇은 네 손을 보았고, 성배가 땅

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니, 이는 여기 서술된 바와 같이 믿어야 하리라.

그때 높은 곳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 있던 자들의 귀에, 감사의 찬가 같은 큰 노래가 울려 퍼졌으니, 그것은 위대한 오르간의 음조와 같았고, 혹은 놀랍고 선율적인 천둥의 소리와 같았더라. 세 사람은 그 음악의 선율을 들었으나, 그곳에 있던 다른 이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그 소리가 하늘의 기쁨, 곧 그 신성한 유물이 그 곳으로 돌아옴을 하늘이 기뻐하는 소리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황홀경에 사로잡혔노라. 그 기쁨은 크고 위엄 있었으며, 동시에 두려움과 같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더라.

이에 갤러해드의 영혼이 높아지고, 그가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니라. "나에게 남아서 살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각주: 갤러해드의 임종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그의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났고, 그 곁에 무릎 꿇고 있던 두 기사의 눈이 열리니, 그들은 갤러해드의 영혼이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또 천국의 광명이 그 주위를 비추는 것을 보았더라. 동시에 그들은 갤러해드의 영혼이 그가 성취한 성배와 함께 영광의 세계로 받아들여지는 때에, 더 크고 중대한 음조로 천상의 승리를 알리는 천둥 소리를 들었더라.

그때 그 눈앞의 빛이 거두어지고, 그들은 어둡고 텅 빈 대성당 안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들은 갤러해드 경의 시신을 바라보았으나, 보라! 그분은 이미 죽어 있었더라.

이와 같이 갤러해드 경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때 그의 나이는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보르 경은 그 성당의 주교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주교님, 이 분은 온전히 선하고 덕망 있으며 완전한 기사였나이다. 우리로서는 그의 시신이 지금 성배가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자리, 곧 이 성당 안에 안치되기를 원하오니, 부디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에 주교가 이르되, "그대의 청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거니와, 그 기사는 참으로 매우 선하고, 훌륭하며, 거룩한 사람이었노라."

그들이 성배가 하늘로 올라갔던 곳 곁에, 대성당 안에 갤러해드 경의 시신을 안장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시신이 그렇게 묻힌 후에도, 갤러해드 경의 무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볼 수 있더라.

〈각주: 퍼시벌 경은 성직에 입문하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 되자, 보르 경이 퍼시벌에게 이르되, "형제여,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하리요?" 하니, 퍼시벌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나는 머무르며, 거룩한 서원을 받고 이 서원 안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그러나 돌아가라, 보르 경이여.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 그곳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전하라. 곧, 우리가 세 사람 모두 성배를

얻었으며,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갔고, 우리가 그것이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음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므로 캐멀롯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전하라."

〈각주: 보르스 경이 왕의 궁정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퍼시벌 경이 말하니, 보르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대가 명하는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튿날 보르스 경이 퍼시벌 경의 뺨에 입을 맞추고, 서로를 향하여 짠 눈물을 흘렸노라. 그 후 두 사람은 갈라서니, 퍼시벌 경은 그 곳에 머물러 수도자가 되었고, 보르스 경은 그곳을 떠나 다시 캐멀롯으로 돌아가니라.

그는 일 년과 하루를 보내고 그곳에 도착하였더라.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의 귀환을 기뻐하며 크게 환호하였으니, 성배를 찾아 나선 기사들 중 그 여정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였기 때문이라. 다만 호수의 랜슬롯 경만이 예외였더라. 성배가 발견되어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으므로, 성배를 찾아 나선 자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

그때에 보르스 경은 성배를 발견한 경위와, 그것이 사라스의 대성당에서 높이 들어 올려졌던 일, 그리고 갤러해드 경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그의 영혼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았었는지를 그들 모두에게 일러주었더라.

아서왕은 그 역사를 세 권의 대저서에 기록하게 하시니, 한 권은 솔즈베리에, 또 한 권은 캐멀롯(곧 윈체스터)에, 그리고 제삼 권은 어스크 강가의 카를레온에 각각 간직되었더라. 이 세 권의 책들로부터 성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노라. 이에 나는 당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중 일부를 기록하노라.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보르 경의 이야기뿐이니라. 그가 성배를 찾기 위해 떠났던 그 부인을 찾아 다시 그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귀환을 기다림에 지쳐 이미 다른 이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보르 경은 캐멀롯으로 돌아와, 아서왕의 통치가 끝나는 원인이 된 그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무르니라.

너희는 알지니, 높은 곳을 지향하는 자는 종종 이 세상의 작은 기쁨을 놓치게 마련임을. 그리하여 간니스의 보르 경에게도 그와 같았으니, 비록 그가 성배를 성취한 자들 중 하나였을지라도, 그는 결혼 생활의 작은 기쁨과 자신들에게 속했던 그 왕국의 기쁨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이라.

* * * * *

이제 성배의 회복과 그것이 낙원으로 옮겨진 유명한 역사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아서왕의 치세에 있어 가장 빛나는 영광이었노라.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은 뒤, 여기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기사들 사이에는 분열과 전투가 일어나 서로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으니, 결

국 아서왕의 유명한 원탁은 갈라지고 부서져 다시는 하나로 모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하리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자 하거든, 이어지는 글을 읽으라.

[일러스트레이션]

제삼부

아서왕의 최후

여기서부터 아서의 최후와 그의 원탁, 그리고 그 원탁에 속한 수많은 빛나는 위대한 기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느니라. 이는 이 역사의 결론을 함께 가져오노니, 이에 관하여 더 이상 기록될 것은 없음이니라.

[그림: 왕비의 시종들이 랜슬롯 경에게 옷을 입히는 모습]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구이니비어 왕비가 숲 속의 랜슬롯 경을 방문한 일과, 랜슬롯 경이 이전처럼 궁정으로 돌아온 일, 그리고 그가 다시금 궁정을 피하여 달아난 일에 대하여

이제 성배를 찾던 여정 이후, 그 여정에서 죽지 아니하거나 돌아올 수 있던 모든 기사들이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이미 전해졌노라.

〈각주: _랜슬롯 경은 숲에서 지내느니라._〉

그러나 호수의 랜슬롯 경은 다른 기사들과 함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숲속 은자의 거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 그곳에서 그는 경건한 명상 속에 은자로서 지내며,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켜 보고 회개하였더라.

그가 거처하는 곳에 여러 기사들이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와 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 소식은 아서왕의 궁정에 알려졌다. 그곳에서는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며, 아서왕은 이르시되, "그토록 위대하고 고결한 기사인 랜슬롯 경이 이처럼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니라. 세속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이지만, 세속을 떠난 그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니라."

〈각주: 구이니비어 왕후가 랜슬롯 경을 부르시니라.〉

이 모든 일을 구이니비어 여왕이 듣고, 그녀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소년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숲의 어느 특정 곳으로 말을 달려가라. 그곳에서 랜슬롯 경을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여왕은 그 소년에게 랜슬롯 경에게 왕의 궁정으로 돌아오라고 전하라고 명하였노라. 또한 여왕은 그 소년에게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모든 궁중 사람들이 그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두 그대가 그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라고 말하였노라.

그때 그 소년은 왕비의 명대로 숲의 그 곳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자기 처소에 계신 랜슬롯 경을 발견하였노라. 랜슬롯 경의 뺨은 오그라들었고, 그의 팔다리와 몸은 끊임없는 금식과 명상 탓에 야위고 쪼그라들어 있었더라. 이에 그 소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경이시여, 왕비께서 경을 아서왕 궁정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니이다. 궁정의 모든 귀부인들과 영주들이 경의 귀환을 간절히 원하며, 경이 옛날처럼 그 궁정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랜슬롯 경은 시종에게 이르되, "너는 여왕께 돌아가서 내가 그녀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전하라. 여기에서 나는 평온과 고요함 속에 거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대로 나의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하노라. 그 죄악들이 성배와 나 사이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나니, 성배가 임재하실 때 나는 잠들었고, 그것이 떠나갈 때 나는 깨어나 그것이 떠난 것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노라. 이에 나는 남은 생을 다해 여기 머물며 그것들을 묵상하리라."

그때 시종이 구이니비어 여왕께로 돌아가, 랜슬롯 경의 말을 전하였다. 여왕이 이르시되, "어찌 된 일이뇨? 그가 오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를 데려오리."

〈각주: 구이니비어 왕비가 랜슬롯 경을 찾아가니라.〉

그리하여 그녀는 거대한 흰 말을 준비하고, 궁정에서 기사가 입는 듯한 화려하고 찬란한 의복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것들과 함께 기사들과 부인들, 그리고 여러 하인들을 거느리고 숲속으로 향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깊이 들어선 숲의 그 일면은, 그녀의 도착으로 인해 기쁨과 흥겨움으로 물들었으니라. 마치 햇살이 갑자기 숲의 잎사귀들을 뚫고 쏟아져 내린 듯하였기 때문이니라. 고요하던 수목들은 그녀의 명랑한 수다와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처럼 경쾌하고 즐거운 수다들로 가득 차 울려 퍼졌더라.

이에 왕후가 랜슬롯 경이 머무는 숲의 그 곳으로 나아가니, 랜슬롯 경이 오두막에서 나와 그녀를 맞이하러 나왔더라. 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이르되, "부인, 어찌하여 이 곳에 계시나이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랜슬롯, 내가 너를 이 외로운 곳에서 데려오려 왔노라. 왕의 궁정은 너에게 가장 마땅한 곳이니라. 너는 그리스도교 세계 최고의 기사이니, 황량한 이 곳에 스스로를 숨기는 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느니라."

그때 랜슬롯 경이 소리를 높여 외쳐 이르되, "부인, 물러가소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소서.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그러나 오직 당신 때문이라, 저는 아내를 버렸고, 그로 인해 그녀는 나의 무심함 때문에 죽었소. 그 죄와 당신이 잘 아는 다른 죄들 때문에, 성배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나는 잠들었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야 깨어날 수 있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누워, 그 일과 나의 많은 죄들로 인해 닥친 다른 불행들을 생각하며, 이 숲속에서 나의 영혼을 그 죄들로부터 정화하려 애쓰고 있소."

〈각주: 왕비가 랜슬롯 경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때 왕후가 그에게 다가가 이르되, “랜슬롯, 네 죄가 이같이 용서받을 줄로 아느냐? 네 죄가 적과 같음을 알라. 오직 그 죄들과 용감히 싸우고 도망하지 아니함으로써야 네가 그 죄들을 정복할 수 있느니라. 일어나라! 이 나태를 떨쳐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세상이 너를 기다리느니라. 오직 그곳에서만 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니라.”

이때 랜슬롯 경은 한숨을 쉬며 얼굴을 팔에 묻고 곧이어 이르되, “부인, 저를 시험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하되, “저는 부인과 함께 갈 수 없나이다. 저를 탈 말이 없사오니,” 하니라.

이에 구이니비어 왕후가 미소를 띠며 이르시되, “랜슬롯, 내가 너를 위해 말을 준비해 두었노라. 그 말이 여기 있느니라.” 이에 랜슬롯 경은 다시 절망에 빠진 자처럼 외치되, “여전히 나는 그대와 함께 갈 수 없나이다. 궁정에서 입기에 알맞은 의복이 없거든.”

그리고 구이니비어 왕후는 다시금 미소 지으며 이르시되, “또한 나도 너를 위하여 옷가지를 준비하였노라. 그것들도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는, 두 명의 시종들을 명하여 옷상자를 랜슬롯 경의 방으로 옮기게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상자를 열었고, 랜슬롯 경은 그 안을 바라보았으며, 비단과 벨벳, 금과 보석, 은과 레이스로 된 모든 고귀한 의복들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그 두 시종들이 그 의복을 입히도록 허락하시니라. 곧이어 그는 그 은신처에서 나오시니, 그 빛이 큰 영광을 띠고 빛나더라. 그가 여왕께서 가져다주신 큰 흰 말을 타시니, 이에 그들은 그 곳을 함께 떠나시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궁정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아서왕의 궁정에는 랜슬롯 경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여러 명 있었노라. 그들 중 일부는 악의에서 그를 미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명성을 시기하여 원한을 품었으며,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 적대시하는 자들도 있었노라.

그중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가웨인 경의 형제인 모드레드 경과 아그라베인 경이었노라. 또한 시종장 케이 경과, 가웨인 경의 아들들인 플로렌스 경과 로벨 경도 있었으니, 이들은 가웨인 경 때문에 랜슬롯 경을 시기하며 원한을 품었노라.

이들 외에도 여러 사람이 랜슬롯 경에게 적대시하였으며, 그들은 랜슬롯 경의 귀환에 대해 서로 많이 수군거렸다. "보라! 이 기사가 숲에서 나와 우리 모두 위에 다시 자신의 기사직을 차지하였도다. 처음에는 그가 오려 하지 않더니, 마침내 여왕이 그곳으로 가자 그는 그녀를 보고 그녀를 따라나왔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말을 듣다.〉

이와 같은 말들이 랜슬롯 경의 귀에 들어왔으므로, 그는 구이니비어 왕비 앞에서 물러나 다른 궁정 귀족들과 어울리며 지냈다. 이를 지켜본 왕비는 크게 상심하였으니, 그녀는 랜슬롯 경이 자신 곁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를 가까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왕비는 랜슬롯 경을 불러들여, 오랫동안 말 없이 그를 응시하였다. 잠시 후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랜슬롯이여, 어찌하

여 나를 멀리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폐하, 저는 폐하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폐하를 위해 멀리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왕비가 묻되, "어찌하여 그런 말이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 궁정에서는 너와 나에 관한 말이 많으니, 그 말이 우리의 이름을 서로 엮어 놓았노라. 나는 이 말로 인하여 내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없노라. 이는 그 말이 나를 해칠 수 없으나, 너에게는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노라."

이때 구이니비어 여왕이 울기 시작하더니 이르되, "아, 랜슬롯, 랜슬롯! 너는 예전과 같지 않도다. 예전에는 너는 항상 내게로 달려오기를 주저함이 없었거늘, 이제는 너 스스로 나를 멀리하노라. 네가 말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에 불과할 뿐, 그 부재의 원인이 아니니라."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말하되, "가라! 이 궁전에서 물러가라. 너는 내 영혼에 소란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느니라."

그때 랜슬롯 경이 매우 날카롭게 이르되, "부인, 당신이 저를 숲속의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고 성소로부터 벗어나게 유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둘에게 이로웠으리라."

그때 여왕이 그를 향하여 크게 소리쳐 이르되, "어찌 된 일이뇨?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지, 너를 시험하려 한 것이 아니노라. 만일 네가 다시 네 돼지 먹이를 그리워하거든, 그리로 돌

아가라. 어쨌든 내게서 물러가라. 다시는 내게 가까이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슬픔과 큰 시련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느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다시 궁정을 떠남.〉

이때 랜슬롯 경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니, 그의 마음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찼더라. 그는 보르 경과 라이오넬 경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노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리요? 나는 나의 피난처를 희생하였건만, 그 희생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이에 보르 경이 이르되 "네가 그 숲 속의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네게 이로웠으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그것을 떠났으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리라. 이는 이미 지나간 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함이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왕후의 분노에 관하여는, 곧 그녀가 그 분노를 잊으리니, 그녀가 그것을 잊는 즉시 다시 당신을 보고자 하리라. 그녀가 이전에 여러 차례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다시금 그러하리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나의 기쁜 가드 성으로 가서, 그녀가 나를 향하여 품은 분노가 다시 식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리라."

〈각주: 그가 브라시우스 경의 성으로 떠난다.〉

"그렇지 않노라," 보르 경이 이르되, "여왕께서 이 일에는 참말을 하였노라. 네 자리는 은둔자의 암자나, 그 성채의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선한 기사 브라시우스의 성채로 가서, 잠시 동안 머무르며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모험을 구하라. 여왕의 마음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너는 그 곳에서 쉽게 발견되리라. 그리고 나 또는 에커 경이 너를 찾아갈 것이라."

"네 말이 옳도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곳으로 내가 가리니, 네가 혹은 라이오넬 경이 나를 부르러 보내기 전까지 그곳에 머무르리라."

이에 랜슬롯 경은 말을 타고 브라시우스 경의 성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니라.

그러나 그이께서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자는 그 어느 때에도 없었노라. 비록 그이께서 기사로서의 초기에는 기쁜 마음과 경쾌한 영혼을 지니시고 자주 미소하셨으나, 이제 그 행복은 그이로부터 떠나갔고 그이께서는 결코 미소하지 않으셨노라. 그이의 일생에는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한 일들은 그 행복을 파괴하였으니, 이는 우박이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는 꽃들을 파괴하듯, 즉 들의 풀처럼 시들고 죽어 버린 꽃들을 파괴하듯 하였노라.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랜슬롯 경이 다시 궁정으로 돌아오기에 이르게 된 모든 정황과, 그가 다시 그곳을 떠난 일에 관하여. 이는 진실로 그러하니라. 비록 한 사람이 자신이 떠난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 생각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한 번 살았

던 삶은 다른 삶을 위해 내려놓아졌다면, 그 첫 번째 삶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 사람이 다시 그 삶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되살아나지 못하느니라. 오직 영원히 죽은 채로 남을 뿐이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의 사정도 그러하더라. 그가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을 남겨두고 떠난 그 죄를 범한 후, 이후 그에게 닥친 모든 일은 그 악한 사건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라. 그 죄로 인해 그는 육신의 눈으로 성배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또다시 그 죄와 그에 관한 말들과 그의 행적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기사도와 무력의 힘으로 진정으로 속해야 할 그 궁정을 다시금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삼가 배워, 이미 떠난 옛 삶으로 돌아가려 애쓰지 말자. 오직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선이든 악이든 그 새로운 삶을 살려 노력할지니라.

* * * * *

이제부터는 아일랜드의 패트리스 경이 구이니비어 왕후의 연회에서 독살된 일과, 그 때에 랜슬롯 경이 어떻게 왕후의 목숨을 구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노라. 만약 그 일을 듣고자 하거든, 이어지는 글을 읽으라.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마도르 드 라 포트 경]

[그림] 제2장

구이니비어 왕후가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에서 아일랜드의 패트리스 경이 독살당하였더라.

이제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랜슬롯 경이 아서왕의 궁정을 떠난 후, 구이니비어 여왕은 비록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가장하였다. "내가 성급했노라,"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랜슬롯 경도 성급하여 다시 나를 떠났노라. 그러나 이는 나의 잘못이니라. 나는 불평을 드러내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이 앞에 기쁜 모습을 보여야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연회를 베풀리라. 그리하여 나의 겉보기 기쁨이 세상에 드러나고, 아무도 내가 랜슬롯 경의 손실을 두고 불평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때에 여왕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이와 같이 말하였노라.

〈각주: 구이니비어 여왕이 잔치를 선포하리라.〉

이에 그녀가 큰 잔치를 선포하고, 원탁의 기사들 중 다음과 같은 이들을 그 잔치에 모시었더라. 가웨인 경과 그의 형제들, 곧 아그라베인 경, 게하리스 경, 가레스 경, 그리고 모드레드였더라. 또한 보르스 드 가니스 경과 블레베리스 드 가니스 경, 블라모르 드 가니스 경이 있었고, 갤러해드 경과 갤리하딘 경, 에커 경, 라이오넬 경, 팔라미데스 경, 사피르 경이 있었더라. 또한 페르사반 경과 아이언사이드 경, 브란딜레스 경이 있었고, 집사장 케이 경과 마도르 드 라 포트 경, 아일랜드의 패트리스 경, 그리고 알듀크 경과 아트아모어 경이 있었더라.

그때 갈레스의 랄로락 경이 전사하였으니, 그의 죽음이 가웨인 경의 손에 의한 것이라 전해졌더라(비록 이 소문이 진실은 아니었으나), 또

한 가웨인 경의 두 형제, 곧 아그라베인 경과 게하리스 경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서왕의 궁정에는 피날 더 새비지(Sir Pinal the Savage)라 불린 한 기사가 있으니, 그는 랄로락 경의 사촌이었고, 가웨인 경을 몹시 미워하여 복수를 갈구하였으나, 그 복수를 어떻게 거둘지 알지 못하더라.

〈각주: '새비지(사나운 자)'라 불리던 피날 경이 독이 든 사과를 준비하더라.〉

이때 가웨인 경은 식사 직후 사과 한 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으니, 이 사실을 피날 경이 알고 있었더라. 피날 경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과를 하나 가져다가, 그 속에 지극히 미묘하면서도 악독한 독을 넣었노라. 그리고 그 사과를 식탁 한가운데, 모든 과일들 사이에 놓았더라.

그가 스스로 속삭이기를, "거기 가웨인 경이 이 사과를 발견하리라. 그는 그것을 가져다 먹고 죽으리라. 그리고 구이니비어 왕비가 그 죽음에 대한 비난을 받으리라. 온 세상이 그녀와 가웨인 경이 사이가 좋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니라."

피날 경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랄로락 경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가웨인 경에게 갚고자 함이었노라. 그는 다른 방법으로 그 복수를 이루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노라. 랜슬롯 경 다음으로 가웨인 경은 왕실 기사들 중 가장 강인한 기사였으며, 또한 아서왕의 조카로서 왕의 가문

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피날 경은 그 독이 든 사과로 가웨인 경을 죽이려 꾀한 것이었노라.

〈각주: 아일랜드의 패트리스 경이 사과를 먹고 죽느니라.〉

그러나 그 잔치 끝에 가웨인 경은 그 사과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패트리스 경이 그것을 가져갔노라. 패트리스 경은 그 사과에다 큰 입을 내밀어 한 입 베어 물고, 그 조각을 먹었더라. 곧이어 그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기를, "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였고, 이어 무서운 목소리로 외치기를, "슬프다! 나는 이 사과를 먹어 독에 빠져 죽게 되었노라!" 하였으며, 다시 외치기를, "친구들이여, 내 죽음을 갚아주라!" 하였더라.

그때 그는 크게 고통에 시달리며 땅에 쓰러져 손과 발을 사정없이 마구 휘저으며 입에서 거품을 흘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더라.

이에 가웨인 경이 일어나 왕후를 향하여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였더라. 그가 이르되 "부인,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 사과에는 독이 들어 있도다. 이는 누구를 향하여 준비된 것이뇨?"

〈각주: 가웨인 경이 왕비를 고발하더라.〉

여왕이 목격한 광경의 공포에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날카로운 비명처럼 높은 목소리로 외쳤노라. "내가 그것이 독이 들어있음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독이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 사과는 독이 들어 있었노라. 너는 그것이 독임을 알았노라.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나를 향하여 준비된 것이었노라. 너는 늘 나를 적대시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그것을 먹게 하려 그 사과를 식탁 위에 두었노라. 너는 한때 무죄였으나, 이제 너는 더 이상 무죄하지 않고 악의와 간계로 가득 차 있으니, 너는 나를 독살하려던 의지를 가졌노라.”

그때 왕후가 큰 격정으로 외쳐 이르되, “가웨인, 당신과 나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노라. 오히려 나는 나의 오른손을 베어낼지언정,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려 하지 않노라. 당신을 독살하려 하다니!”

〈각주: _마도르 드 라 포트 경도 여왕을 고발하더라._〉

그때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이 모든 이들 앞에 일어나 이르되 “부인이여, 당신이 말씀하신 바는 여기 있는 어떤 자들을 속일지언정 나를 속이지 못하리이다. 내가 당신의 행차와 발걸음을 잘 아나니, 당신이 악의로 랜슬롯 경을 이 궁정에 묶어두어 그가 이 곳을 떠나 엘레인 부인을 따르고자 할 때에도 그를 막았음을 아나니, 랜슬롯 경이 이 곳에 머물렀기에 엘레인 부인이 죽었나이다. 이로써 내가 당신의 마음이 간사함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겠사오니, 그 죄악에서 독살의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한 걸음에 불과하옵니다.”

〈각주: 왕비가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도르 경은 그곳을 떠났고, 다른 기사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마도르 경은 왕의 아들이었으며, 궁정에서 매우 중요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왕비는 홀로 남겨져 큰 슬픔에 젖어 울었다. 그녀는 패트리스 경에게 독이 어떻게 주입되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후, 마도르 경의 수행원 중 몇몇 남자들이 와서 패트리스 경의 시신을 들어 올리고, 그 방에서 옮겨 나갔다.

〈각주: _마도르 경이 아서왕의 고법정에 나타나니라._〉

얼마 지나지 않아,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은 왕이 의논에 임하셨을 때 그 앞에 나타나, 왕과 모든 중신들 앞에서 여왕을 반역죄로 고발하였노라. 그녀는 살인자라 일컬었노라.

이때 아서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는 머리를 숙인 뒤 곧이어 이렇게 말하더라. “마도르 경이시여, 이 일에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그대는 왕비를 살인의 죄로 고발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믿건대, 그녀가 이와 같은 악하고 흉악한 일을 저지를 리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내가 이 경우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내게 분명히 말하여야 하리라.”

〈각주: _사이드노트: 마도르 경, 왕비에게 반역죄를 제기하다._〉

마도르 경이 이르되 “폐하, 전 이 여인이 연회에서 독약을 베풀어 사촌 패트리스 경이 죽게 하였노라 고발하옵나니, 이는 명백히 폐하와 우리 모두에 대한 배신이라. 그 연회가 이 성에서 열렸고 우리가 그분의 손님이었사온즉, 전 이 고발을 몸으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사옵나이다” 하고 말하더라.

이러고 그가 장갑을 땅에 던지며 외치되 “보라, 여기 내 장갑이 있노라. 이는 전투의 보증이요, 전 이 고발을 내 몸으로 방어하겠노라. 전의 고발은 이 여왕이 살인자라 함이니라” 하거늘, 왕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여왕인 이 부인에게 연민도 자비도 없느냐? 너의 왕인 나에게 명예도 존중도 없느냐?” 하시니라.

이에 마도르 경이 대답하되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사옵니다. 이 경우에는 죄인을 응징함 외에는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나이다” 하더라.

이때 아서왕이 일어나 이르시되, “여왕을 부르라. 그녀가 자신을 고발하는 자를 마주하게 하라.”

〈각주: 왕비가 고위 법정에 나타나느니라.〉

그때 곧이어 왕후께서 오시니, 두 부인이 각각 한쪽을 받들어 모셨더라. 왕후는 얼굴 위에 베일을 드리우고 계셨으니, 이는 그 잔치가 끝난 후부터 줄곧 눈물을 흘리며 크게 슬퍼하셨기 때문이라. 이때 그곳에는 많은 기사들과 여러 부류의 영주들과 부인들이 모여 있었더라. 그 중 일부는 왕후의 친구로서 그녀를 위해 슬퍼하였으나, 다른 일부는 그녀가 고발당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더라.

왕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부인이여, 서라.” 하시니 이에 왕후께서 왕과 마도르 드 라 포트 경 및 전체 평의회 앞에 일어나 서니라. 이때에 왕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부인이여, 이 기사,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은 네가 연회에서 독약을 사용했다고 너를 고발하노라. 이에 대해 너는 무슨 변론이 있느냐?”

이때 왕비는 자신의 베일을 벗어던지고, 울음을 그쳤다. 그녀의 눈빛은 매우 차갑고 자존심에 차 있었으나, 얼굴은 유난히 창백하였다.

"경," 그녀가 이르되, "경은 나를 잘 아나니,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요. 경은 또한 내가 수많은 허물이 있음에도(그리고 그것들은 참으로 많거니와), 내 식탁에서 적을 독살하는 것과 같은 일을 결코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느니라. 이 궁중에는 적들이 많으니, 그 중에는 경의 조카인 가웨인 경도 있노라. 그는 나의 가장 적대적인 적이며, 언제나 그러하였노라. 바로 그가 그 잔치에서 내가 독을 사용했다고 처음 고발한 자이니, 그가 경의 조카이고 궁중에서 막강한 힘을 지녔으므로, 그가 그 고발자들의 선두에 서서 내가 그에게 독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할 때, 나의 무고함을 변호할 기사는 이곳에 거의 없노라.

만약 랜슬롯 경이 이 궁중에 있었다면, 그는 나의 명예를 훌륭하게 변호해 줄 것이었으되, 나는 나의 교만과 분노로 인해 랜슬롯 경을 내게서 쫓아냈노라. 그러므로 그는 지금 나의 무고함을 변호하기 위해 여기 없노라. 그럼에도 나는 누군가가 일어나 나의 무고함을 변호할 것이라 믿노니, 그러므로 나는 이 기사의 결투 도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생이건 사이건, 이에 따르겠노라."

이에 아서왕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고, 마침내 이르시되 "부인, 그리고 왕비여. 당신은 나의 청춘의 아내이오. 내가 직접 당신을 변호하고 싶소.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오. 나는 왕이며, 모든 법의 수장이기 때문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 어떤 기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소. 이 궁정에는 당신의 무죄를 변호할 기사가 없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오. 그러니 당신의 말씀대로 하오. 여기서는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의 장갑이 땅 위에 놓일 것이오. 어떤 변호자가 일어나 그것을 들어 올릴 때까지. 만약 다른 변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오. 이제 떠납시다."

이에 그들 모두 일어나 그 곳을 떠났으나, 회의실 바닥에는 여전히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의 장갑이 놓인 채로 남아 있더라.

〈각주: 왕비가 서 보르에게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청한다.〉

그 밤, 한 사자가 와서 구이니비어 여왕께로 가라고 보르스 경을 불렀다. 보르스 경은 그 사자와 함께 갔으며, 사자는 그를 여왕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다. 보르스 경이 그 방에 들어서자, 아서왕이 여왕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때 여왕이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한 손의 손바닥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맞대며 이렇게 이르되, "보르스 경이여, 이 다툼에서 나의 수호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보르스 경이 고개를 숙이며 곧이어 이르되, "부인, 당신을 위한 시합자를 다른 이에게 청하셨더면 좋았을 것을."

여왕은 그를 매우 당당히 바라보며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오리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러한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그 봉사를 청하여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랜슬롯 경의 조카요, 또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기사로서 성배를 성취한 세 분 중 한 분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어찌하여 나의 수호자로서 싸우려 하지 않는지 묻는 것이오. 당신이 또한 내가 이렇게 고귀하고 훌

륭한 기사들을 접대하기 위해 준비한 연회에서 한 손님을 독살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오?"

"아니오," 보르스 경이 이르되, "저는 부인께서 그런 일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나이다. 다만 이 다툼에는 양편 모두에 내 친구들이 많사오니, 내가 한 편에 서서 싸운다면 다른 편에 있는 내 친구들은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게 될 것이옵니다."

"슬프도다!" 왕후가 이르되, "내 젊음의 시절에는 나를 따르는 기사들이 많았노라. 펠레스 경이 나를 위하여 어리석은 다툼을 떠맡지 않았던가? 또 랜슬롯 경은 늘 나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가? 오, 랜슬롯, 랜슬롯! 그대가 이 다툼에서 나의 수호자로 여기 있어만 준다면! 그러나 당신은 여기 없노라. 내가 성급하게 너를 내 곁에서 쫓아냈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노라." 구이니비어 왕후가 이같이 말하며, 그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울기 시작하더라.

〈각주: 보르스 경이 왕비의 수호자로 나서리라.〉

이에 보르스 경은 깊은 감동을 받아 이르시되, "부인, 울지 마옵소서. 아직 울 이유가 없나이다. 당신을 보호할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기사들이 여전히 많사오니이다. 오히려 더 나은 수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의 수호자가 되겠사오니이다. 그러니 이 일에서 당신이 이 죄악에 무죄함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수호하시리이다."

〈각주: 여왕이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느니라.〉

이때 왕비는 위로를 얻어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며 이르되, “보르스 경, 당신의 확신을 위해 나는 엄숙한 맹세를 하노라. 내가 죄목으로 지목받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누가 그 독이 든 사과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는지 나는 알 것 같노라. 그 식탁에는 한 시종이 커튼 뒤에 서 있었는데, 이 시종은 다른 이들이 그 방에 들어오기 전에 한 기사가 그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기사를 고발할 수는 없노라. 나 자신이 이미 고발당한 입장이기 때문이니, 만약 내가 그를 고발한다면 모든 이는 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고발을 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보르스 경이 이르되, “부인,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원하시는 대로 하겠사오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부인을 보호하겠사오.”

이에 아서왕이 말씀하시되, “보르스 경이여, 나의 왕비를 지키기에 너보다 더 적합하고 어울리는 기사가 이 궁정에 없다. 이제껏 살았던 기사들 가운데 가장 덕망 높은 기사 중 한 사람임이여,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는 네 덕이 빛을 발하리라. 또 이 높은 덕 외에도, 가웨인 경을 제외하면 이 궁정에서 너보다 강인하고 뛰어난 기사는 없다.”

이때 그들이 이같이 말하더라. 그 말들을 다한 후, 보르스 경은 의회청으로 가서 거기서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의 장갑이 놓인 것을 보고, 그 장갑을 들어 자신의 허리에 찼노라. 그 장갑을 차고 그는 궁정을 행진하였으니, 많은 이들이 그의 허리에 마도르 경의 장갑이 있는 것을 보았노라. 어떤 이들은 그에게로 와서 그가 왕비의 옹호를 맡은 것을 비

록 비밀로 하기는 하나 기뻐한다고 선포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에게로 와서 그가 그것을 맡은 것을 매우 분히 여겨 노하였노라.

〈각주: 가웨인 경은 보르스 경에게 노여움을 품더라.〉

그 중 마지막에 서 있던 가웨인 경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지금 경께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이오? 경께서는 저녁 상에 우리 앞에 내어졌던 독이 왕비께서 저를 향하여 준비하신 것이지, 그로 인해 독에 중독된 패트리스 경을 향하여 준비하신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시오?" 이에 보르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애하는 자여, 그대는 여기서 잘못 알고 있나이다. 비록 그 독이 그대를 향하여 준비되었을지언정 패트리스 경을 향하여는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을 그곳에 둔 이는 왕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그자를 누구인지 알 것 같사오니, 곧 왕비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누명을 벗고 난 후, 그 모든 것이 만백성 앞에 분명히 드러나리니이다."

이에 가웨인 경은 매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르되, "당신은 만족하기 쉬우시구려, 경."

"만약 내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보르스 경이 매우 평온하게 대답하되, "내 믿음에는 이 같은 덕이 있노라. 나의 왕비요, 내 왕의 아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하셨으리라 믿지 못하겠노라. 또한 자기네 왕비를 쉽게 악하게 여기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각주: 보스 경이 랜슬롯 경을 찾아간다.〉

다음 날이 이르매, 보르 경이 말을 타고 블라시우스 경의 성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해가 지기 전에 그는 그 곳에 도착하여, 랜슬롯 경을 만나 그가 겪은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랜슬롯 경이 이를 듣자 그는 크게 노하여 외쳤노라.

"이 무슨 일인가? 그들이 여왕을 이 죄악으로 고발하다니? 그들은 내가 부재하여 그녀를 변호할 수 없음을 알기에 감히 그러하도다."

이에 보르 경이 이르되, "사실 그와 같습니다. 궁중에는 그녀에게 이 악행을 돌리기를 원하는 세력이 크게 존재하오며, 그 세력은 궁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 몇몇이 이끄는 바이니이다."

〈각주: 랜슬롯 경과 보르 경이 서로 이야기하다.〉

"그렇구나,"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녀에 대한 이 악한 믿음을 품는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묻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녀에게 심판이 임할 때, 나는 반드시 그곳에 나아가 여왕을 변호하리라. 그 동안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그녀의 옹호를 맡으라. 만일 그 고결한 부인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있게 된다면, 너는 성배의 세 기사 중 한 사람이니 그 임무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느니라. 더욱이, 마도르 경은 매우 격렬하고 성급한 기사이니, 내가 올 때까지 그와 이 다툼을 계속한다면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투를 더 기꺼이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왕은 무력으로써 반드시 방어되어야 하느니라."

이에 보르 경은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구이니비어 여왕은 독이 든 사과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자가 야만인 피날 경이라고 여겨왔노라 하

였노라. 또한 여왕은 자신에 대한 그 혐의가 씻겨지기 전까지는 피날 경을 향해 그와 같은 고발을 감히 하지 못하였노라 전하였노라.

이 모든 동안 랜슬롯 경은 경청하며 찌푸린 채 앉아 있었으나, 보르 경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다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왕비의 수호자로서 그곳에 있겠노라. 그러나 네가 나에게 말한 바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에 보르 경이 이르되, “나는 이 일을 결코 누설하지 않겠사옵나이다.”

〈각주: 보르 경이 궁정으로 돌아오니라.〉

이에 랜슬롯 경은 보르 경과 작별을 고하고, 보르 경 또한 랜슬롯 경에게 작별을 고하더라. 보르 경은 그 밤 다시 캐멀롯으로 돌아와, 날이 새기 전 그 곳의 여관에 도착하였노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마도르 경이 자신의 생명을 간청하노라]

[그림] 제삼장

어떻게 보르 경이 여왕의 수호에서 해방되었고, 어떻게 마도르 드라 포르 경이 패배하였는가.

그때가 바로 그 날의 저녁이었다. 그 날은 왕비의 무고함이 무력을 통해 입증될 날이었다. 그날 저녁 왕비는 가니스의 보르 경을 불러내어 그에게 이르시되, “경, 내일 치러질 그 전투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보

르 경이 대답하되, “부인, 이는 예전과 다름없사옵니다. 저는 항상 부인의 무고함을 믿으며, 부인이 손님 중 한 명에게 독약을 베풀었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제 능력껏 부인을 위해 싸우리이다. 그러나 만약 무예에 있어 저보다 더 적합한 다른 기사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 나타난다면, 저는 그 영광을 그 기사에게 양보하리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이오.”

〈각주: 왕이 보르 경을 칭찬하시니라.〉

이때 구이니비어 왕비는 보르 경이 떠난 뒤 아서왕께 나아가, 보르 경이 자신에게 한 말을 모두 아뢰니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부인, 당신을 위해 이 일을 변호할 만한 가장 훌륭한 기사 한 분을 거느리고 있소. 이 일에 당신 명예를 수호할 만한 기사를 보르 경보다 더 잘 고를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하오. 그의 사촌인 호수의 랜슬롯 경이 아니라면 말이오. 가웨인 경도 보르 경보다 더 강하거나 뛰어나지 못했고, 퍼시벌 경 역시 보르 경보다 더 강하거나 뛰어나지 못하오.”

이렇게 말씀하시자, 왕비는 큰 위로를 받고 기쁨에 넘쳤더라.

〈각주: 왕후께서 왕과 함께 투기장으로 오시더라.〉

이제 시련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는 아침 열한 시쯤 되어 성벽 안의 넓은 광장에 왕과 왕비, 그리고 왕의 궁정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 곳에 이미 영주 영내총독이 도착해 있었고, 한쪽에는 마른 장작더미가 십자 모양으로 쌓여 있더라. 그 장작더미 한가운데에는 쇠말뚝이 서 있었

는데, 그 말뚝에는 발을 묶는 사슬이 달려 있어, 사람이 손을 뻗어 닿을 만한 높이까지 올라가 있더라.

그 곳에 모인 고귀한 영주들과 부인들은 왕비를 유심히 바라보았노라. 그들은 그녀가 사방을 둘러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으나, 그녀의 얼굴은 정제된 왁스처럼 희고 맑았더라. 왕비는 온통 흰옷을 입었으니, 그녀의 옷자락은 길고 얼룩 하나 없는 순백이었고, 허리에는 은장식이 달린 흰 가죽띠를 두르며 매었노라. 그녀의 머리카락은 양쪽으로 늘어뜨려졌고, 흰색과 은색 리본으로 감겨 있더라.

그녀의 이 고난을 보고 슬픔과 연민에 잠긴 자들도 있었으나, 다른 이들은 그녀가 생명의 심판과 명성의 심판까지 받게 되어 이렇게 낮아진 것을 보고 기쁨과 승리의 감정을 느끼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때 아서왕은 경호관을 불러 이르시되, "경호관 각하, 여기 내가 이 여왕의 연약한 몸을 당신에게 맡기노라. 이 여왕은 살해죄로 부당하게 고발당하였나이다. 그녀를 데려가시오. 이 투쟁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당신의 보호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왕은 여왕의 오른손을 잡고 경호관 앞으로 모셔가서, 여왕의 오른손을 경호관의 손에 맡기셨노라. 경호관은 여왕의 손을 잡고 아뢰되, "폐하, 여기 제가 이 부인의 몸을 받사오나, 이는 폐하의 보호 아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함이오. 그러니 이 부인을 폐하의 보호에 맡기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분 모두를 지켜주소서. 아멘."

〈각주: 왕이 여왕 곁에 앉아 있더라.〉

이때 경호관은 왕비의 손을 왕의 손에 다시 돌려놓은 뒤, 곁으로 물러섰다. 그 후 왕은 왕비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 자신의 자리 곁에 마련된 높은 자리로 그녀를 인도하였다. 이에 왕이 이르되, “이 여인의 고발자들을 부르라” 하시니라.

〈각주: _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이 나타나니라._〉

그때 포르의 경 마도르가 이르렀으니, 그는 매우 빛나는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적색의 말갈색 기마를 타고 왔더라. 그 말의 털은 붉은 비단처럼 광채를 띠고 있었더라. 이에 그는 왕의 관람석 앞에서 고삐를 당겨 멈추니라. 아서왕은 경 마도르를 바라보시며, 눈이 눈썹 아래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마의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꼬인 듯하게 되실 때까지, 그리고 온 얼굴이 피로 물들 때까지 심하게 찡그리시니라.

그는 곧 목소리를 되찾고 이르되, “경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나이까? 경은 내 궁정의 신하요 내 원탁의 기사라 일컫거늘, 어찌하여 왕비를 고발하는고? 경이 마땅히 명예로써 가장 굳게 옹호해야 할 모든 부인들 중의 한 분을.”

〈각주: _마도르 경이 왕비에게 도전하다._〉

그때 마도르 경이 매우 담대하고도 높은 목소리로 일어서 이르되, “위엄 있는 주군이시여, 여기 제가 정의와 정당한 권리를 위해 서 있나이다. 누구를 두려워함도, 아무것도 무서워함도 없사옵나이다. 아뢰옵기, 며칠 전 제가 여럿과 함께 왕비와 함께 연회에 앉아 있었사오며, 그

때 제 가까운 친족인 아일랜드의 패트리스 경이 그 연회에서 사과를 먹었사오나, 그 사과가 독이 들어 있어 그가 먹고 죽었사옵니다. 이제 그 연회는 왕비의 연회였고, 우리는 왕비의 손님이었사오니, 어떻게 그 독살이 행해졌사오며, 오직 왕비의 명에 의해서만이 아니겠사오며? 그러므로 여기 제가 서서 그 왕비를 독살의 반역죄로 고발하오니, 오직 누군가가 이 제 전투에서 저를 무너뜨릴 때까지만 그 고발을 쉬지 아니하리이다."

〈각주: 왕이 마도르 경에게 도전하다.〉

이때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경은 이 혐의에 관하여 진지하게 조사하였는가? 아니면 이 일에 관하여 누구에게든 질문을 하였는가? 진실로 타인에게 독을 먹이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매우 악한 일이로되, 경이 이유 없이 왕비를 부당하게 고발하는 것과 같은 배신적인 말을 내뱉는 것 또한 결코 덜 중대한 범죄가 아니며 결코 덜 악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경이여, 경의 고발이 확실한지 확신해야 하느니라."

마도르 경이 이르되 "폐하, 신은 자기의 눈이 증언하는 바를 믿사오니, 이는 자기의 입술이 말한 바를 자기의 눈이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신은 이 신의 정당한 대결, 곧 왕비의 강대한 챔피언에 맞서는 이 싸움에서 그 증언을 옹호하겠나이다."

이때 아서왕이 매우 위엄 있게 말씀하시니라. "경이여, 경은 자기의 사정을 눈의 증언에 맡겼거늘, 그 증언은 경을 속이고 오도하였노라. 그러나 나는 여기서 경에게 답하지 아니하리니, 곧 경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답함을 받으리라.” 이에 아서왕은 틸트 야드 아래에 서 있던 한 사환에게 말씀하시니라. “서두르라,” 이르시되, “가니스의 보르 경을 불러오라.”

〈각주: 보르 경이 나타나니라.〉

이에 시종이 물러갔다가 곧 돌아와서, 보르 경의 흰 말을 고삐로 끌어왔다. 보르 경은 순결하고 처녀 같은 희고 빛나는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그의 장구와 말의 장구도 모두 희었으므로, 그가 빛나며 빛나니 마치 순은으로 만든 형상 같았더라.

〈각주: 보르 경이 유예를 호소하더라.〉

“경,” 마도르 경이 보르스 경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고, 어떤 혐의에 의해서인지 아느냐?” 보르스 경이 이르되, “네, 나는 잘 아노라.” 이에 마도르 경이 이르되, “너는 상대방 편에 서 있느냐?” 보르스 경이 이르되, “네, 나는 온 마음과 혼을 다해 상대방 편에 서 있노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말하길 내가 이 논쟁을 여왕을 위해 맡겠노라 하였으나, 나보다 더 나은 기사가 이 싸움을 맡지 않는 한이라. 나는 당신을 아노니, 마도르 경이신 당신은 고결하고 용감한 기사요, 당신은 나를 당신이 보아온 바대로 아시나니, 내가 당신이나 전 세계의 그 어떤 기사와도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보다 작은 논쟁이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이 싸움을 정오까지 늦추소서. 그때까지 이 존귀하고 많이 모욕당한 부인을 변호할 더 값진 자가 올지도 모를지니라.”

〈각주: 마도르 경은 그에게 어떠한 유예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것이 네가 할 말이 다냐?"라고 마도르 경이 이르되, "좋으니라, 경이시여. 당장 나와 결투하든지, 아니면 물러나 다른 이에게 그 자리를 맡기라."

"말과 무기를 챙기시오," 보르스 경이 이르되,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니, 나도 또한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곧 당신과 함께하리이다." 이에 각기 기사들은 광장을 떠나 각각의 결전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였노라. 이 중 마도르 경이 더 신속하여, 그의 천막을 벗어나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나갔노라. 그 행렬을 박수로 환영하는 자는 없었으나, 결코 비웃는 자도 없었더라.

〈각주: 왕비를 위해 새로운 시합자가 나타나니라.〉

이에 보르스 경이 준비를 마치자 그의 천막에서 나와, 그의 시선을 숲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곳에서 한 기사가 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는데, 그 기사는 편안하면서도 빠르게 말을 몰고 오고 있었다. 이 기사는 낯선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방패에는 어떤 문장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또한 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어떤 표식도 없었다. 그러나 보르스 경은 그 기사가 호수의 랜슬롯 경 외에는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때 한 기사가 재빨리 보르스 경에게 다가가 이르되, "영주님, 왕비를 대신하여 이 논쟁을 맡아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논쟁을 스스로 맡으리니, 그대는 이 일에서 벗어나셨소이다." 보르스 경이 이르되, "아서왕께로 가시오." 그 기사가 이르되, "그분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주: 새로운 기사가 왕 앞에 나타나다.〉

이에 보르스 경은 그 기사를 모셔 아서왕이 앉으신 곳으로 나아가니라. 이르러 서니 아서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경이 누구이뇨? 내가 경을 보르스 경 대신 이 다툼에 세우려 할진대, 먼저 그대를 알지 못하면 허락치 못하노라" 하시거늘, 보르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기사를 아나이다.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기사인 줄 알사오니, 나는 이 다툼에 대한 내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노라" 하더라.

그때 아서왕이 마도르 경에게 이르시되, "경이여, 이 새로운 기사로써 당신의 원한을 풀겠는가?" 하시니, 마도르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폐하, 저는 이 기사를 받아들이겠사오며, 다른 어떤 기사라도 받아들이겠사오나이다."

〈각주: _마도르 경이 패배하더라._〉

각기 기사들은 투기장의 끝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준비를 갖추었더라.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각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속도와 맹렬함으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충돌하였고, 그 격돌에서 마도르 경의 창은 산산조각이 났으나, 다른 기사의 창은 단단히 버텨 내어 마도르 경과 그의 말은 모두 먼지 속에 쓰러졌더라.

그러나 마도르 경은 낙상에서 매우 급히 회복하여, 검을 뽑고 방패를 앞에 내밀고는 마치 이것이 전투의 막을 여는 순간인 양 적을 향해 돌진하더라. 이에 다른 기사도 매우 가볍고 빠르게 말에서 뛰어내려 방패를 앞세우고 검을 뽑아, 전투에 대한 큰 열의로 나아가니라.

〈각주: _마도르 경은 전투에서 패배하더라._〉

두 사람은 맹렬한 기세로 서로를 공격하니, 이는 마도르 경이 매우 강인하고 힘센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분노가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한 시간 이상 격전이 이어지매, 이때 랜슬롯 경은 자신의 힘을 유지하였으나, 마도르 경의 기력은 차츰 쇠약해져 거의 팔을 지탱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랜슬롯 경은 더욱 맹렬한 일격을 가하여 마도르 경이 방패를 완전히 낮추게 만들었으니, 이때 랜슬롯 경은 검을 들어 올려 마도르 경의 투구에 가혹하게 내리쳤고, 마도르 경은 땅에 엎어졌더라. 랜슬롯 경은 마도르 경을 다시 치려 가까이 다가가려 하였으나, 마도르 경은 몸을 조금 일으켜 검을 들어 랜슬롯 경의 허벅지 두꺼운 부분을 꿰뚫듯 쳤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자신이 이같이 상하여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의 허벅지 상처에서 피가 붉은 줄기로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물러서서 마도르 경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렸노라. 그리고 마도르 경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그에게 돌진하여 다시 한 번 내리쳤으니, 그 타격이 그리도 무서워 칼날이 철제 투구를 뚫고, 가죽으로 된 모자를 관통하여 그 아래 있는 뼈까지 파고들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마도르 경을 용서하시니라.〉

그때 마도르 경은 죽은 자처럼 땅에 쓰러져 누웠고, 랜슬롯 경은 그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덮고 있던 투구를 잡은 뒤, 자기의 미세리코르디아로 끈을 베어 내고는 그것을 머리에서 벗겨냈다. 그 순간, 빛이 마도르 경의 얼굴에 비추어 그를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였고, 끔찍한 모습으로 자신 위에 서 있는 랜슬롯 경을 바라보며 그는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제 목숨을 용서하소서, 기사여! 제 목숨을 용서하소서!"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네 목숨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네가 왕비에 대한 죄를 잘못 판단하였음을 고백하고, 그녀가 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시인할진대라." 마도르 경이 이르되, "저는 그 사실을 고백하옵니다."

이때 랜슬롯 경은 결투장의 영주 헌장관(Lord Constable)을 자기 곁으로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신사 앞에서 당신이 나에게 고백한 바를 고백하라" 하니라. 이에 마도르 경이 이르되, "신사여, 이 헌장관 앞에 서서 내가 고백하노니, 나는 왕비께 대한 죄목에 있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노라. 내가 그녀를 비난한 그 죄와 그 외의 모든 죄악에 있어 그녀는 무죄함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이 기사를 이 자리에서 옮겨라" 하더라

그때에 여러 시종들이 그 곳으로 달려와서, 마도르 경을 들어 올리고는 그를 그곳에서 옮겼더라.

이때 랜슬롯 경과 성의 수호관은 그 격투의 장소에서 물러나 아서왕의 어전으로 나아가니, 왕과 왕비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그를 영접하시더라. 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오늘 당신은 잘 싸웠노라. 당신이 누

구인지, 이 전투를 치른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나니.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리노니, 나는 당신이 나의 왕비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하고, 왕비는 당신이 그녀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 주셨기에 감사하노라."

〈각주: 마도르 경이 잘못된 고발을 시인하더라.〉

"영주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저는 이 상관을 데리고 왔사오니, 그가 증언하리니, 마도르 경이 왕비를 이 죄로 무고하였음을 자백하였고, 지금 이 죄뿐 아니라 다른 어떤 죄에도 왕비는 무죄함을 말하리이다." 그러자 상관이 이르되,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보증하노라." 이에 왕이 랜슬롯 경에게 이르시되, "경이 상을 입었도다. 포도주 한 잔으로 기운을 차리지 않겠는가?"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네, 영주여. 지금 이 포도주는 저에게 지극히 기쁘리이다."

이에 작은 시종이 달려가 잠시 후 반짝이는 황금빛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를 가져왔고, 랜슬롯 경은 그의 헬멧을 풀고 머리에서 벗겨내니, 모든 이들이 그의 얼굴을 보며 그가 랜슬롯 경임을 알았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왕비를 위해 축배를 드니라.〉

그때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방금 전 경이 어떻게 싸웠는지 내가 보았을 때, 경은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생각하였노라. 더구나 보르스 경이 왕비를 위해 일어서는 자가 그 자신보다 더 나은 기사라 말하였을 때, 그가 경을 뜻하는 줄 알았노라. 경이 그보다 더 나은 유일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경을 얻었으니, 다시는 놓아주지 않겠노라."

호수의 랜슬롯 경이 이르되, "주여, 제가 떠나라고 명하지 않으시는 한 이 궁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왕비의 명예를 모두 수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를 기사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의무가 있고, 둘째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나의 부인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포도주 항아리를 손에 들고 몸을 돌려, 그 항아리를 높이 들어 올린 뒤,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노라.

"이곳에서 나는 나의 왕비의 진실과 순결을 위해 이 황금빛 포도주 항아리를 마시노라. 그녀의 친구들에게는 건강을, 적들에게는 수치와 혼란을, 그리고 그녀에게 해를 꾀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리기를!"

이에 그가 잔의 가장자리를 입에 대고, 다시 들어 올리기 전에 포도주를 모두 마셔 버렸더라.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우리가 그 부상한 기사를 문안하러 가자.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라. 이에 랜슬롯 경과 헌병장, 그리고 아서왕이 전장의 초원을 건너 가며 마도르 경의 천막으로 향하더라. 그들이 천막에 들어가니 마도르 경이 소파에 누워 있고 외과의사가 그의 상처를 살피고 있더라.

〈각주: 아서왕이 마도르 경을 궁전에서 물러나게 하시니라.〉

아서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경, 왕후를 고발한 자가 경 외에 또 누구인가?"

Sir 마도르가 이르되 "폐하, 제가 왕후를 고발한 유일한 자이옵니다."

왕이 이르시되 "거짓말을 하노라. 그녀를 무너뜨리려 한 음모가 있었노라. 경은 다만 그 음모의 도구일 뿐이었느니라. 나는 경으로 하여금 이번 일에서 함께하던 자들을 배신하도록 더 이상 묻지 않겠노라. 다만 내가 경에게 이 한 마디를 말하노니, 내일 아침까지 이 궁궐의 경계 안에 있거나, 장차 다시 내 권력 아래 들어오거나, 또는 전장이나 그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이 경의 죽음을 의미하리라. 내 말을 잘 기억하라. 비록 내가 지금 왕후의 간청에 따라 경을 용서하리라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의 간청으로도 다시는 경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마도르 경이 왕께 매우 날카롭게 이르되 "폐하, 폐하께서는 건강하신 자가 매우 중하게 상하여 스스로 변명할 수 없는 자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시나이다."

"그렇지 않노라," 왕이 매우 평온하게 이르시되, "나는 첫째로 왕으로서 자신의 기사에게, 그리고 둘째로 자신의 기사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한 기사로서 말하노라. 네가 행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노라. 네 다툼은 나의 온 궁정 가운데 이견과 악한 생각을 심었노라. 그리하여 내가 전에는 온 궁정으로부터 사랑받았었으나, 이제 내가 누구를 친구로 삼고 누구를 적으로 삼을지 알지 못하노라."

이때 왕이 호위대장에게로 돌아서서 이르시되 “호위대장, 내가 말한 바를 들었노라. 내일 이 사람이 이 근처에서 발견되거든 즉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 사실을 나에게 보고하라. 만약 오늘 이후로 그가 나의 권력 아래 떨어지면, 그는 자신이 자신의 왕비를 불길에 넘기려 했었듯, 스스로 불길에 의해 파멸을 당하리라.”

이에 왕은 발꿈치를 돌려,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이 손톱을 깨물도록 내버려둔 채 떠나셨더라.

〈각주: 하인이 피날 경이 사과를 어떻게 두었는지 말하더라.〉

그날 왕은 주요 영주들과 종속 왕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노라. 그 회의를 앞두고, 앞서 예언된 대로 커튼 뒤에 숨어 있던 그 하인이 나아왔노라. 이 하인은 피날 경이 만찬이 열릴 식탁 위에 사과를 올려놓았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노라. 모든 이들이 그 증언을 경청하였고, 그 말이 끝나자 왕이 이르시되, “이 피날 경을 불러오라. 그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지 들어보자.”

이에 그들은 피날 경을 부르라 했으나, 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는 왕비의 적들이 그에게 그 증거가 채택될 것임을 알렸기 때문이요, 그는 궁정을 떠나 황야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각주: 그러나 왕비는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왕비의 무죄가 입증되었노라. 그러나 여전히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어떠하냐? 먼저 그들은

마도르 경을 무찌르고, 이 궁정에서 그를 쫓아내었노라. 그 후 그들은 왕비의 죄를 벗기기 위해 이 증거를 가져왔고, 그 죄를 원탁의 기사도 아닌 가련한 피날 경에게 전가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가련한 종놈의 증언에 반박할 자가 없으니, 이로써 왕비는 죄의 의심에서 벗어날 것이로다"라 하더라.

이같이 여러 사람이 말하더라. 그 소문은 가웨인 경의 귀에까지 닿았으나, 가웨인 경은 이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였노라. 비록 그가 왕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녀에 대해 가장 나쁜 추측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의심하는 바를 입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그녀를 고발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가며 자신의 생각만을 품고, 그 생각들을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였더라.

*****

〈각주: 궁정 내의 분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내가 직접 고문에서 읽은 바에 따라 이 일들의 역사를 말하노라. 이는 곧 종말의 첫 시작이었노라. 성배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자, 이제 더 이상 아서왕의 궁정이 예전처럼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각기 기사들은 이제 왕의 영광과 세상의 선을 위해 생각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왕의 궁전에서 곧바로 분열이 일어난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이 문을 수비하다]

[일러스트레이션] 제4장

그때 캐멀롯의 궁정에서 다툼이 일어났노라. 호수의 랜슬롯 경이 가웨인의 형제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된 연유를 들어라.

그때 궁중에는 큰 분열이 있었고, 서로 다른 두 진영 사이에는 격한 비난이 오갔다. 한쪽 진영은 여왕이 심한 박해를 받았으며, 호수의 랜슬롯 경의 방조가 없었다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쪽 진영은 여왕이 사악한 영혼을 가졌으며, 랜슬롯 경은 그녀의 불명예스러운 연인이라서 그를 위해 싸웠다고 주장했다.

〈각주: 모드레드 경과 아그라베인 경이 랜슬롯 경을 반역죄로 고발하더라.〉

이 무리 중에는 가웨인 경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 선봉에 서 있던 자들은 모드레드 경과 아그라베인 경이었노라. 이 기사들은 매우 대담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랜슬롯 경이 왕의 높은 명예를 해치기 위해 여왕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노라. 아그라베인 경이 이르되, "랜슬롯 경이 현세에 살아있는 기사 중 가장 위대한 기사라는 것은 사실이니라(갤러해드 경이 영광 가운데 떠난 후로는 더욱 그러하오). 그러나 그가 동시에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여러 기사들보다 힘이 더 세지는 않다는 점, 즉 여러 명의 기사가 동시에 그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므로 랜슬롯 경이 다음에 여왕을

방문할 때, 우리 여러 명이 그에게로 달려들면, 그 기사들이 그를 물리치는 것은 거의 확실하리라. 그리하여 왕의 명예가 갚아지리라."

〈각주: 가웨인 경은 그들과 합류하기를 거절하더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가웨인 경은 곁에 앉아 수염을 갉고 있더니, 일어나 이르되, "무슨 일을 하려 하시오? 랜슬롯 경과 왕비에게 배신을 저지르려 하시오? 하나님께서 아시거니와, 나는 왕비를 사랑한 일이 없거니와 지금도 사랑하지 않노라.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배신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온 세상에 대항하여 공격할 뿐이오. 호수의 랜슬롯 경에 관하여는, 그는 오랜 동안 나의 가장 친한 벗이요, 무기를 함께하는 동지였노라. 내가 어찌 그를 배반하려 하겠소?"

이후 가웨인 경은 게하리스 경과 가레스 경을 돌아보며 이르되, "형제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하라!"

그러자 게하리스 경과 가레스 경이 이르되, "가웨인이 말한 바를 우리도 말하노라."

가레스 경이 덧붙여 이르되, "나는 이제 호수의 랜슬롯 경이 나를 기사의 반열에 올렸던 일을 잊을 수 없노라. 어찌 내가 내 기사도의 후견인인 그에게 심판을 내리려 하며, 그를 해치려 하겠소?"

모드레드 경이 이르되, "나와 아우 아그라베인 경은 여왕이 온전히 사악하며, 랜슬롯 경이 그녀의 연인이라 하노라. 내가 이 말을 주장하며 내 생명의 위태로움을 감수하겠노라."

〈각주: 모드레드 경이 랜슬롯 경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하더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내가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에 모드레드 경이 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랜슬롯 경을 정탐하려 하노라. 그가 다시 한번 왕비의 거처를 방문할 때, 우리가 그에게 습격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이 그를 정탐한 후, 우리와 몇몇 다른 이들이 그에게로 달려들어 그를 사로잡아 왕 앞에 끌고 가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하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것은 이루기 쉬운 일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이루더라도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왕은 불확실한 고발만으로 랜슬롯 경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왕에게 감히 언급할 수 있는 랜슬롯 경과 왕비에 대한 어떤 고발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모드레드 경은 즉시 답하지 아니하고, 세 사람과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아그라베인 경에게 이르되, "형제여, 랜슬롯 경은 왕께 대한, 그대도 아는 그 반역을 저질렀노라. 내가 가웨인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를 체포하여 왕께 인도하리라 하였사오나, 내 진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왕비 침전에서 랜슬롯 경을 습격하여 그를 죽이려 하노라. 한 번 그가 죽으면 왕은 우리를 곧 용서하실 것이요, 왕비가 죄가 있음을 믿으시리니, 만일 랜슬롯 경이 살아있다면 그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하, 형제여,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여우보다 사람에게 덜 위험한 적이라. 그러므로 랜슬롯 경이 죽는 것이 가장 좋겠나이

다.” 이에 아그라베인 경은 그와 뜻을 같이하였는지라, 그 후 그들은 랜슬롯 경을 감시하며 그가 다시 왕비를 방문할 때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그들을 엿듣는 자에게 경고를 받아, 그 동안 왕비 침전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더라.

〈각주: 모드레드 경이 랜슬롯 경을 배반하더라.〉

그리하여 어느 밤, 모드레드 경은 여왕의 궁정의 소년을 불러 세웠다. 그 소년은 지나가던 참이었다. 모드레드 경이 그에게 이르되, “라나델이여”(소년의 이름이 바로 라나델이었노라) “호수의 랜슬롯 경에게 가서, 구이니비어 여왕께서 당신을 뵙고자 하신다고 전하시오. 여왕의 침전으로 오라 하시오.” 이에 소년은 악의가 숨어 있음을 짐작하지 못하고 랜슬롯 경에게로 달려가 그 말을 전하였다. 랜슬롯 경 또한 악의를 의심치 않고 그 명을 따랐으며, 몰래 여왕의 침전으로 향하였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왕비의 침전으로 향하더라.〉

구이니비어 부인을 그곳에서 발견한 랜슬롯 경이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오?”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경, 내가 경을 불러 말씀드릴 것이 하나도 없소.” 랜슬롯 경이 이르되,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의 시종 라나델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이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전했소.” 그녀가 이르되, “랜슬롯, 내가 그런 말을 당신에게 보낸 적이 없소. 그러나 진실로 오랜만이오, 당신이 이곳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나를 모욕하시는 것이오, 랜슬롯?”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내가 당신을 모욕한 바 없음을 아시옵나이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사정이 있사오니, 나는 당신의 명예와 평판을 내 자신의 그것과 같이 중히 여겨야 하옵니다. 그러나 부인, 최근 나에게 전해진 그 소식에 관하여 말하건대, 여기 분명히 어떤 배신의 기미가 있나니, 실로 그 소식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처럼 나에게 전달되었사오니, 이로써 내가 알기에 우리에 대항한 어떤 배신이 꾀해지고 있음이 분명하나, 그 배신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사옵니다.”

이제 우리는 랜슬롯 경의 원수들이 이 기회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보자. 모드레드 경은 왕비의 거실 입구에서 경계하다가, 랜슬롯 경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노라. 이에 그는 아그라베인 경에게 달려가 이르되, “형제여, 랜슬롯 경이 지금 왕비의 침실에 있음을 아느냐. 이제 서둘러 그를 잡자.”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랜슬롯 경과 원수인 몇몇 기사들을 불러 모아 이르되, “신사들이여, 지금 왕비의 침실에 있는 그 배반자 기사를 잡기 위해 서둘러라.”

그들이 동행을 청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으니, 곧 콜그런스 경과 진 갈라인 경, 그리고 로글리스의 멜리오트 경과 갈웨이의 갤러론 경이요, 산지의 멜리온 경과 윈치실라의 페티파스 경이더라. 또 그로머 소머주어 경과 아스타모어 경, 쿠살레인 경, 플로렌스 경, 그리고 러벨 경이 있었으니, 이 두 마지막 기사들은 가웨인의 아들들이라.

〈각주: 왕비가 경고를 받더라.〉

열한 명의 기사들과 아그라베인 경, 모드레드 경이 함께하여 모두 열셋이 되어 함께 여왕의 거처로 향하더라. 여왕의 시녀들은 그들이 다

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선한 뜻으로 온 것이 아님을 직감하였노라. 이에 시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재촉하여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갔노라. 그 후 그들은 여왕의 거처로 달려가서 랜슬롯 경이 거기에 있음을 보고는 소리쳐 외쳤노라. "마님, 일어나소서. 적들이 당신을 습격하옵니다!"

〈각주: 열셋 명의 기사들이 랜슬롯 경의 출정을 도전하다.〉

이 말들은 너무도 크고 힘차게 울려 퍼져, 성의 그 모든 구석구석에 메아리쳐 다시 울려 퍼졌노라. 그 소리가 왕비의 귀에 닿자, 그녀는 나뭇재처럼 하얗게 질리며 뒤로 쓰러져 소파에 기대앉았고, 손으로 가슴 위를 짚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자신을 보호할 갑옷은 보이지 않고 탈출할 길도 없었다. 바깥의 기사들은 문에 계속 두드렸고, 아그라베인 경은 소리쳐 외치되, "호수의 랜슬롯 경이시여, 어찌하여 왕비의 침전에 계십니까? 나오사 우리에게 그대 자신을 넘기소서," 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부인, 간청하노니 이 곳에 내가 입을 수 있는 갑옷이 있거든 알려 주시오." 그녀가 이르되, "아니오, 랜슬롯, 이 방에는 갑옷이 없소."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갑옷 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리라. 나는 이 기사들이 나를 왕에게 포로로 잡아가려 하지 않음을 아노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꾀하는 바는 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일 뿐이니." 이때 왕비는 두려움에 떨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이르되, "랜슬롯, 그대 나가지 마시오. 그들은 확

실히 그대의 죽음을 뜻하오." 그가 이르되, "부인, 나는 나가지 않을 수 없소. 그러나 내가 간청하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간청하노니, 만약 내가 이 싸움에서 패하여 죽는다면, 그대는 나의 친척들인 에커 경과 보르 경과 라이오넬 경과 유레 경과 함께 가서, 그대 나를 나의 성 조이우스 가드로 데려가 피난처를 마련해 주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시오. 이 곳에서는 그대에게 더 이상 안전이 없으며, 오직 크고 끊임없는 위험만 있을 뿐이니. 이 궁정에서는 그대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대를 향한 깊은 질투가 자라고 있나니, 만약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나의 적들이 그대를 완전히 짓밟을 것이오." 이때 왕비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노라. "랜슬롯! 랜슬롯! 그대 나가지 마시오!"

〈각주: 열세 명의 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 위협한다.〉

이같이 그들이 말할 때, 문 밖의 기사들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더욱 크고 격렬한 어조로 외쳤노라. "배신자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라!"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아니하고 닫힌 채로 남아 있었더라. 이때 그들이 사방으로 눈을 돌리니, 홀 한가운데에 커다란 긴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그라베인 경은 다른 몇몇 기사들에게 이르되, "저 의자를 여기로 가져오라. 우리가 그것으로 문을 부수리라. 이로써야 비로소 이 배신자에게 다다를 소망이 있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의자를 가져다가 문에 내려치니, 문은 그들의 타격 아래 균열이 가고 휘어졌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은 겉옷으로 자신을 방어하더라._〉

그때 랜슬롯 경은 그의 망토를 팔에 둘렀고, 손에는 검을 쥐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소란을 그치시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문빗장을 돌리고, 문을 조금 열었으나 매우 넓게 열지는 아니하였다. 그가 발로 문을 받치고 서 있으니, 그들이 밖에서 문을 부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그에게 돌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방패도, 갑옷도 없이 오직 팔에 두른 망토 하나만 걸친 채 서 있는 랜슬롯 경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를 쉽게 물리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기운을 차렸노라. 이때 키가 크고 힘이 매우 센 한 기사가 앞으로 나아왔으니, 그 이름은 고어의 콜그런스 경이라 하더라. 그는 랜슬롯 경을 베어 쓰러뜨리려 하며 무서운 강타를 가하였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자신의 검으로 이 격렬한 일격을 막아내고, 곧이어 즉시 역공을 가하였더라.

〈각주: _그가 콜그런스 경을 죽이니라._〉

그가 내리친 일격으로 랜슬롯 경은 콜그런스 경의 머리를 강타하매, 그 타격은 그의 머리에 쓴 바시넷을 뚫고 들어가 뇌골 깊숙이 박혔으므로, 콜그런스 경은 땅바닥에 엎드러져 쓰러졌고, 곧이어 그는 숨을 거두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콜그런스 경의 시체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이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는 즉시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그니, 이전과 같았다. 랜슬롯 경이 왕비께 이르되,

"부인, 천명이 갑옷을 내 손에 내리셨나이다. 내가 갑옷을 입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주: 랜슬롯 경은 콜그런스 경의 갑옷을 입는다.〉

그때 왕비와 그녀의 놀란 시녀들이 급히 랜슬롯 경에게로 달려가 함께 콜그런스 경의 시체에서 갑옷을 벗겨냈다. 그리고 그들은 랜슬롯 경이 그 갑옷을 매우 신속하고 민첩하게 입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콜그런스 경의 갑옷을 두른 랜슬롯 경은 방 문으로 나아가 밖의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경들아, 나를 두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나와서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아서왕께 데려가리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항복할 수는 없노라. 다만 내가 이를 약속하노니, 만약 너희가 물러가 나를 평화롭게 내버려둔다면, 나는 내일 아침에 아서왕께 항복하여 그의 심판에 따르리라." 아그라베인 경이 이르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를 믿지 아니하노라. 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죽이리라."

〈각주: 랜슬롯 경이 그의 적들을 공격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나가노라!" 하고는 즉시 문을 힘껏 밀어 열었더라. 랜슬롯 경은 사자가 개 무리 한가운데로 돌진하듯 그들 사이로 큰 걸음으로 나섰노라. 그들이 보니 랜슬롯 경은 콜그런스 경의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있더라. 랜슬롯 경은 아그라베인 경을 정면으로 마주하였으며, 그의 두 눈은 바시넷의 망 사이로 순수한 불꽃처럼

빛났노라. 랜슬롯 경이 아그라베인 경을 향해 “네가 먼저다!”라고 외치며 달려들고, 이에 온 힘을 다해 아그라베인 경을 내리쳤노라.

아그라베인 경은 그 타격을 막아냈으나,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하여 그의 방어조차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 타격은 아그라베인 경의 바시넷(투구)을 강타했고, 철제 바시넷을 관통하여 두개골의 뼈를 뚫고 결국 뇌수 자체에까지 도달하였다.

〈각주: _그가 아그라베인 경과 여러 명을 베어 죽이니라._〉

그때 아그라베인 경이 매우 비명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며 땅에 쓰러지니라. 랜슬롯 경이 아그라베인의 목에 발을 올리고, 그가 내어놓은 상처에서 검을 뽑아내었노라. 그 후 랜슬롯 경이 우편과 좌편을 향해 내리쳤으니, 아그라베인과 모드레드와 함께 있던 열한 명의 기사들 중 그 작은 방에서 아홉 명을 베어 죽였노라. 또한 그는 모드레드의 어깨를 치니 팔의 살을 베어 내어 뼈에서 큰 조각이 떨어졌고, 나머지 두 명의 기사들은 다소 부상을 입어 곧 그 자리에서 소란스럽게 도망쳤더라.

그리고 그 격투 속에서 랜슬롯 경도 여러 곳을 다쳐,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든 듯 붉게 물들었노라. 적들을 쫓아낸 후, 그는 몸을 돌려 다시 여왕의 침실로 들어갔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부상을 입다.〉

그러나 여왕이 그를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중상을 입었다고 여겨 비명 지르니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그녀에게 이

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부인. 당신의 적들은 도망쳤고 나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항상 나의 저주였으며,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이 같은 결말을 가져왔나이다. 당신의 방어를 위해, 그리고 나의 방어를 위해 나는 왕의 조카와 가웨인 경의 두 아들을 죽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은 나의 적이 되실 것이며, 이로 인해 나는 이 곳을 영원히 떠나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당신을 떠나갈 수 없나이다, 부인. 나 없이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간청하노니, 여행을 준비하시오. 나는 나가서 나의 친족들과 친구들인 많은 기사들을 모아, 당신을 이 곳으로부터 데려가리라. 내일 그들이 당신을 재판에 부를 것이요, 그들이 당신을 데려올 때, 우리가 당신을 붙잡아 데려가리라.”

이때 왕비는 매우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아, 랜슬롯! 불쌍하고 불쌍하도다. 이것이 곧 끝인가?” 하니, 그가 이르되, “그렇사옵니다, 부인.”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 그녀를 남겨두고 갔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은 보르 경과 상의하더라._〉

이때 랜슬롯 경이 보르스 경의 여관에 이르렀으니, 피투성이가 되어 온 그를 본 보르스 경이 소리쳐 외쳤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이는 무엇인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에 랜슬롯 경이 보르스 경에게 자기에 닥친 모든 일을 말하였더라. 그가 그 이야기를 마치자, 보르스 경은 에커 경과 리오넬 경, 그리고 우레 경을 불러들이고, 랜슬롯 경의 친척과 친구인 열 네 명의 다른 기사들을 소환하였으

니, 랜슬롯 경은 그들에게도 자신이 보르스 경에게 말하였던 바를 모두 전하였더라.

이에 보르 경이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르되, "이 일은 매우 슬프고 쓴 다툼이라. 내가 단언하노니, 내 친족인 랜슬롯 경은 여왕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완전무결하게 무죄라. 우리가 알기로, 그에게 적대시하며 그를 무너뜨리려던 누군가가 거짓된 소식을 전했으므로, 랜슬롯 경은 그 유혹에 넘어가 여왕의 처소로 들어갔느니라. 그러므로 이 부인 또한 속아넘어간 바가 크니,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해악이 그녀에게 미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한 기사로서의 그의 명예에 반하는 일이니라.

이제 나의 충고는 우리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이니라. 만일 아서왕께서 이 다툼을 용서하시거든, 모든 것이 평안하리라. 그러나 아서왕께서 여왕을 재판에 부쳐 랜슬롯 경을 벌하려 하시거든, 그는 그 재판을 막아내고 그녀를 구출하여 해롭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노라. 그곳은 기쁨의 성(Joyous Gard)이니, 그녀가 그곳에서 안전히 머무를 수 있으리라."

〈각주: 다른 기사들이 랜슬롯 경에게 충성을 맹세하더라.〉

그때 다른 기사들 중 보르 경이 말한 자들은 모두 손잡이를 앞세우고 검을 들어 올리며 이르되, "이 성스러운 십자가의 표징을 두고 우리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를 따르고 도울 것을 맹세하노라. 만일 우리에게 요구가 있거든, 우리는 이 부인을 기쁨의 성으로 데려오는 데 그를 도우며, 마지막 순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와 그녀를 우리 몸으로 보호하고 수호하리라."

* * * * *

〈각주: 모드레드 경이 아서왕에게 랜슬롯 경을 고발하다.〉

그 사이, 모드레드 경은 자신의 상처를 싸매고 말에 올라 아서왕의 여관에 이르렀더라. 이때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방에 계셨는데, 모드레드가 나타나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를 이같이 상처 입은 모습으로 보시자, 벌떡 일어나 외치시되, "하! 모드레드 경이여! 무엇이 너를 이 지경으로 내 앞에 이르게 하였는가? 그 상처는 어디서 얻었느냐?"

그때 모드레드 경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폐하, 주군이시여, 저는 폐하를 섬기다가 이 상처를 입었나이다. 랜슬롯 경이 최근 왕비의 침소를 방문하였사오며, 저와 열두 명의 다른 기사들이 그를 그곳에서 체포하여 폐하께 인도하려 하였사오나, 그가 그 체포에 저항하였사오며, 그를 습격한 열 세 명 중 아홉은 이미 죽었고 한 명은 죽게 될 지경이옵니다."

그때 아서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빨 사이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곧장 물으셨노라. "누가 죽었는가? 내 친구들 중 누군가인가?"

모드레드 경이 대답하되, "모두가 왕의 친구들이며, 그 중 세 분은 왕의 친족이옵니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 친족은 누구인가?"

모드레드 경이 말하되, “그 중 한 분은 왕의 조카인 아그라베인 경이오며, 나머지 두 분은 가웨인 경의 젊은 아들들인 플로렌스 경과 로벨 경이옵니다.”

〈각주: 가웨인 경이 슬퍼하더라.〉

그때 왕이 탄식하시니, 함께 있던 가웨인 경도 그의 머리를 가리며 슬픔에 겨워 함께 탄식하더라. 왕이 이르시되, “내일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하리라. 그리고 이 배신 행위에 대해 왕후를 심문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왕은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시니, 가웨인 경과 게하리스 경, 가레스 경, 모드레드만이 따랐고, 다른 기사들은 왕을 모시며 침묵에 잠겨,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더라.

이때 아서왕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자, 그는 앉으시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셨다. 그리고 그는 크게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슬프도다! 이는 멀린이 예언하던 끝의 시작이로다!” 하시고는 곧 가웨인 경에게 이르시되, “가웨인이여, 이 후속 조사를 네게 맡기노라. 너와 게하리스와 가레스는 백 명의 기사들과 함께 가서 여왕을 체포하고, 이 죄목으로 심판을 받도록 데려오라.”

그때 가웨인 경은 아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노라. “주재이시요, 합당한 주군이시여, 청컨대 이 일로 인해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아서왕이 물으시되, “어찌하여 너를 용서하리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두 가지 연유로 인해이다. 첫째, 저는 랜슬롯 경과 무기의 서약으로 맺어진 형제이기 때문이요, 둘째, 저는 여왕 폐하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폐하의 호위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의 거절을 내가 이해치 못하노라. 아그라베인 경은 경의 형제 아니었는가? 또한 그는 강인하고 고결한 기사 아니었는가? 그리고 플로렌스 경과 로벨 경은 경의 아들들이 아니었던가?”

“옳소, 폐하,” 가웨인 경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진실로 그러하나, 나는 이 일에 악의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며 그들에게 이를 삼가도록 간곡히 권고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랜슬롯 경과 정당한 싸움에서 무장한 채로 몰락하였으니, 그는 한 사람이 많은 적과 맞서 싸웠나이다.”

그때 아서왕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익어가며, 그는 게하리스 경과 가레스 경을 돌아보았다. “너희도 또한, 경들이여, 이 의무를 거절하느냐?”

가레스 경이 이르되, “폐하, 만일 폐하께서 이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아시옵소서, 랜슬롯 경이 저를 기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는 갑옷을 입고 왕비를 호위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폐하께서 가라명하시면, 저는 어떠한 갑옷이나 방패도 없이 가겠나이다. 이는 저를 기사로 만들어 주신 분의 공인된 부인 앞에서, 갑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 둘을 명하노니 가라. 이로써 이 논쟁을 끝내라. 그러나 여왕이 허리띠 없이 흰 평범한 옷을 입고, 죄인처럼 맨발로 재판대에 인도되도록 하라. 내가 그녀가 무죄로 입증될 때까지는 그녀를 무죄로 믿지 아니하리라.”

〈각주: 가레스 경과 게하리스 경은 무장 없이 랜슬롯 경을 체포하러 간다.〉

다음 날이 이르렀을 때, 해가 이미 열 시쯤 되었더라. 게하리스 경과 가레스 경은 백 명의 기사들을 거느리고 왕비의 숙소로 향하더라. 그 사이 왕비에게는 왕이 명하신 대로, 즉 허리에 띠를 풀고 흰 옷을 입은 채 맨발로 서 있을 것을 알리는 말이 전해졌노라. 또한 그녀에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러 나아가야 하며, 그와 같이 맨발로 띠 없이 허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채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일러주었더라.

〈각주: 여왕이 울었노라.〉

그때 왕비는 쓰라린 눈물을 많이 흘리며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님, 왕께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나를 심판하셨으니, 나의 재판은 곧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리이다.” 왕비의 여인들도 함께 울며 이르되, “부인아, 슬프도다 당신의 행복이여! 이는 확실히 종말이니이다.” 이때 왕비는 눈물을 닦고 그들에게 이르되, “위로하라! 내가 일생 동안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나, 너희는 내가 이번 일에는 무죄임을 아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렇사오며, 우리가 이를 증언하리이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랜슬롯 경에게도 전해지니라. 그가 이를 듣고는 몸을 일으켜 자신의 시종들을 불러 모으니라. 그 후 그는 전신 갑주를 두른 채로 나섰고, 그곳에서 보르 경과 라이오넬 경을 함께 만나니라. 랜슬롯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영주들이여, 너희와 몇몇 다른 이들이 왕비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도울 것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라. 그녀가 곧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나올 것이라. 그들이 그녀를 부르러 보냈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심판이라는 굴욕을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녀를 이곳에서 데려가리라. 너희는 나를 지지할 자들을 모두 소집하여 왕비의 여관으로 급히 데려오라. 내가 곧 그곳으로 가노라." 보르 경이 이르되, "우리가 도움을 소집하기 전에는 그곳으로 가지 마시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러면 서두르라."

이에 보르 경과 라이오넬 경은 그 자리를 떠나 재촉하여 물러났고, 랜슬롯 경은 방 안을 길게 걸어가며 큰 걸음으로 서성였더라.

한 사내가 달음질쳐 랜슬롯 경이 계신 곳으로 달려와 이르되, "경이시여, 왕비께서 급히 오라 명하시니이다. 그들이 그녀를 맨발로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있사옵니다."

〈각주: 랜슬롯 경이 왕비를 구원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니라.〉

이에 랜슬롯 경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왕비께로 달려가니라. 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의 기사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뒤를 이어 몇몇 기사들이 곧이어 도착하였더라. 랜슬롯 경이 다가오자, 그는 왕비가 맨발로 말 위에 앉아 있고, 왕이 보낸 무장한 호위대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았더라. 이때 왕비가 랜

슬롯 경을 보고 그를 부르며 이르되, “랜슬롯 경, 서두르소서!” 하며 그에게 팔을 뻗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가레스 경을 죽임.〉

그때 랜슬롯 경은 크고도 쓰라린 비명을 지르며 외쳤노라. 그와 동시에 그는 번개처럼 검을 뽑아 들었고, 그의 동료들도 또한 검을 뽑아 들었으며, 그들은 무리 속으로 돌진하여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내리쳤다. 그러자 공격을 받은 자들도 또한 그 기사들에게 맞서 싸우며, 수적으로 우세한 힘으로 그들을 여기저기로 밀어냈노라. 이는 여왕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랜슬롯 경의 기사들은 이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아서왕의 기사들은 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자들은 곧바로 흩어지고 밀려났노라.

이 작은 전투의 격분 속에서 가레스 경은 랜슬롯 경 곁으로 밀려났노라. 앞서 말했듯 그는 무장을 풀고 있었으며, 랜슬롯 경은 그를 보았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검으로 가레스 경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의 칼날은 가레스 경의 머리를 목구멍까지 갈라놓았노라. 가레스 경은 말들의 발치에 쓰러져 죽었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 일격으로 행한 일을 조금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분노와 격분 가운데서 오직 구이니비어 왕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자신이 쓰러뜨린 자가 누구인지 보려고 지면을 내려다보지도 아니한 채 앞으로 박차를 가하더니, 왕비를 안장 위에서 들어 올려 자기 안장 앞에 앉혔노라. 그 후 그가 외쳐 이르되,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 도망치자!” 하였더라.

〈각주: _그는 가헤리스 경을 죽이니라._〉

이에 가헤리스 경이 랜슬롯 경을 머물게 하려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길에서 그를 보았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또한 그의 검으로 그를 치고 죽였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왕비를 데리고 탈출하다.〉

이와 함께 그들은 모두 싸움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말을 몰아 내달렸다. 앞을 가르는 적들을 물리치며, 왕비 구이니비어를 데리고서였다. 그들은 그 장소와 그 도시를 떠나, 평화와 안식의 피난처인 조이우스 가드의 경계지대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다.

그 전투에서 아서왕의 기사 스물일곱 명이 전사했는데, 이 중 열한 명은 원탁의 기사들이었다. 또한 랜슬롯 경의 일당에서는 열여섯 명이 전사했고, 이 중 아홉 명 역시 원탁의 기사들이었다. 그 전투에서 대관 케이 경과 가레스 경, 게하리스 경, 그리플레트 경은 목숨을 잃었더라.

[일러스트레이션: 로체스터 주교와 왕.]

[일러스트레이션] 제5장

아서왕이 기쁨의 성채에서 랜슬롯 경을 공격하던 일과, 라이오넬 경이 살해되고 보르스 경이 부상을 입던 일

이제 우리는 브리튼의 아서왕이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통치의 끝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렀노라.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랜슬롯 경

이 왕비와 법의 사이에 가로섰기 때문이니라. 이미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이상, 그는 그 행동으로부터 물러설 길이 없었노라.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왕비를 보호하고 그녀를 아끼도록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요, 아서왕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왕비를 찾아내어 그녀를 다시금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게 하도록 구속되어 있었노라.

〈각주: 구이니비어 왕비와 랜슬롯 경에 관하여.〉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왕비는 아서왕에게 죄를 지은 바가 없었노라. 다만 그녀가 적들과 캐멀롯의 정의로부터 벗어나 탈출했을 뿐이며, 또한 아서왕이 그녀의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떠나 랜슬롯 경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노라.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 왕비는 그 오랜 세월 전, 카밀라드에서 처음 아서왕의 품에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정숙하고 존엄하셨노라.

다만 한 가지 사연이 있었으니, 호수에서 온 랜슬롯 경의 도래와, 한 기사로서 그의 위대함,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용모가 그녀를 깊이 매혹하여, 그가 자신의 운명과 얽히지 않고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녀는 그를 자신의 기사로 청했고, 그가 자신의 기사로서 홀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그녀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간섭이 있는 자에게는 노여워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 끝장에 이르렀으니라.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주군인 왕과, 그리고 정의로부터 벗어났고, 호수의 랜슬롯 경과 그의 혈육이자 친족인 기사들이 거처하는 조이우스 가드의 보호 아래 숨어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로써 그녀의 생에서 누렸던 모든

기쁨의 끝이 찾아왔으니, 아서왕은 이제 그녀의 죄과를 용서하거나 관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

〈각주: 아서왕이 슬퍼하시니라.〉

이 전투의 소식이 아서왕의 귀에 닿았을 때, 그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노라. "슬프다!" 그가 외쳤노라. "이 다툼이 시작되었도다. 그 속에서 나는 내 통치의 종말을 보노라. 이미 원탁의 기쁨은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지혜 있는 자여, 이미 지나간 기쁨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알라. 다만 그 기억만은 마음속에 살아남아, 현재의 슬픔에 희미하고 먼 빛을 더해줄 뿐이니, 아서왕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노라. 또한 그분은 원탁의 영광이 이미 떠났음을 아셨고, 원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닥쳐온 그 분쟁에서 많은 기사들이 죽을 것임을 아셨노라.

이때 아서왕이 이르시되, "고귀한 공자 가웨인 경은 그 두 아우가 살해되었음을 아느뇨?" 그들이 아뢰되, "아니옵니다, 폐하." (그들은 그 때 가웨인 경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왕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지금 그에게 말한다면 그는 성급한 나머지 서약한 동맹자이자 지극히 친한 벗인 랜슬롯 경에게 복수를 맹세할 것이요, 그리하여 이 전쟁에 또 다른 전쟁이 더해질 것이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그에게 알리지 않겠사오며, 그에게서는 이 사실을 감추어 두겠사옵니다."

〈각주: 가웨인 경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라.〉

그런데 그 즈음에 한 사자가 급히 달려와 가웨인 경에게 이르되, “영주여, 왕비께서 탈출하시어 현재 호수의 랜슬롯 경과 함께 조이우스 가드로 향하는 길에 오르셨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때 가웨인 경은 사신을 응시하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노라. 비록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나. 그리고 가웨인 경의 얼굴은 흰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으니, 이는 그에게 더 이상의 비보가 전해질까 두려워함이었노라. 곧이어 그가 이르되, “이 무슨 소식인가? 나의 형제들이 그녀를 호위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 어찌하여 그들이 그녀가 그들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방관하였는가?”

사자가 이르되 “경이시여, 랜슬롯 경과 그의 일족들이 그 수비대를 습격하여 여왕을 사로잡고 데려갔나이다. 그리고 그 혼란한 싸움 가운데 가레스 경이 본의 아니게 살해당하였나이다. 이어 게하리스 경도 랜슬롯 경을 저지하려다 전사하였나이다.”

〈각주: 가웨인 경이 슬퍼하더라.〉

그때 가웨인 경은 그의 망토로 머리를 가렸고, 머리를 가린 채로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그는 망토 아래에서 끊임없이 울었으나,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아무도 그의 눈물을 볼 수 없었노라. 그리고 곧 그는 숨 막힌 목소리로 이르되, “다섯 명이 사라졌도다! 다섯 명이 사라졌도다!”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두 아들과 세 형제가 이미 그 전쟁에서 죽었음을 의미함이더라.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이르되, “나에게는 위안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전에 죽은 세 명이 전투를 위해

무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이 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여했고 거기서 목숨을 잃었노라.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벌거벗고 무장하지 않았으며, 그 중 한 명은 기사 작위를 받을 때 랜슬롯 경이 대부였노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혈육과 형제들보다 랜슬롯 경을 더 사랑하였노라. 아, 가레스! 가레스! 랜슬롯 경에 대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네 죽음뿐이로다. 내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랜슬롯 경을 사랑하였으니, 그에게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었노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노라. 그 두 사람은 그의 적이 아니라 친구였고, 그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 선의를 품었었노라. 그러나 그는 그들이 벌거벗고 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였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왕께 나아가니라.〉

이에 가웨인 경이 이르되 "왕께서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왕께서 어딘가에 계시다" 하더라. 이에 가웨인 경이 곧 일어나 아서왕 계신 곳으로 가니라.

가웨인 경이 아서왕께 아뢰되 "폐하, 이제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할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폐하, 제 두 형제가 살해되었음을 아시나이까?" 아서왕이 머리를 숙이시며 이르시되 "그렇도다. 내가 알노라" 하시니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폐하, 이제 어찌하실 것인즉 제가 말씀드리리이다. 폐하는 이 거짓되고 반역적인 기사, 호수의 랜슬롯 경을 향하여 생명의 끝까지 전쟁을 치러야 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가 폐하의 왕비를 폐하로부터 빼앗아 자기 성채로 데려가지 아니하였나이까? 폐하의 피와 혈육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까? 폐하의 원탁 기사들의 피에 그의 손을 적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번 공방전에서 폐하의 양형제 케이 경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폐하의 기사들 중 무장하지 못하고 방어할 수 없었던 채로 그의 공격을 받았던 그리플레트 경과 제 친척 아글라발 경, 그리고 제 두 아들과 제 다른 두 형제를 죽이지 아니하였나이까?

폐하, 일어나소서. 폐하의 왕들과 공후들, 백작들과 남작들, 그리고 기사들을 부르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군대를 이루어 이 배반자와 살인자들의 둥지를 완전히 파괴하옵시다. 저는 제 종들을 제 주위에 모으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리니, 이는 이제 랜슬롯 경의 생명이 아니면 제 생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몸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이다.”

〈각주: 왕이 용서를 베푸니라.〉

왕께서 이르시되, “조카여, 만약 이 기사들이 내게 왕비를 돌려준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데, 너 또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들은 원탁의 기사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권고대로 원탁을 완전히 파괴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나는 랜슬롯 경을 용서할 수 없노라. 또 나의 무고한 형제들의 죽음도 결코 용서치 못하리라. 그들은 벌거벗고 무기도 없이 랜슬롯 경을 사랑하였거늘, 랜슬롯 경은 그들을 죽였노라. 이 일을 내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두 신사를 죽인 자의 피뿐이니라. 그러므로 전쟁을 준비하라. 내가 너희와 합류하리라.”

〈각주: 왕이 그의 종들을 소환하더라.〉

이에 아서왕은 자신을 무장시키고, 그의 원조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종속된 기사들과 공작들, 백작들과 남작들을 소집하였노라. 또한 그에게 여전히 동맹한 모든 기사들을 부르셨노라. 그는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이는 매우 꺼림칙하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이께서 랜슬롯 경과 그의 기사들과 전쟁을 벌이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노라.

이러한 아서왕의 소집 소식이 랜슬롯 경의 귀에 들어오자, 그는 이에 호응하여 자신과 동맹을 맺은 모든 영주들과 기사들을 소집하여, 기쁨의 가드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에게로 모여들고 힘을 보태줄 것을 명하더라. 그가 명한 바에 따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달려가니라.

〈각주: 아서왕이 기쁨의 성으로 오시다〉

이에 아서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조이우스 가드로 향하니, 그 군세는 지극히 광대하고 무수하여 진격하는 대로 모든 언덕과 골짜기를 가득 메웠더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붉은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해의 밝고 고요한 빛이 그 구름에 가려 어둡게 변하더

라. 또한 많은 시체의 피 냄새를 먼 데서부터 맡은 큰 까마귀 떼가 군대를 따라 날아다녔으므로, 이 군대는 조이우스 가드 주위에 진을 치고 머물렀는데, 마치 그곳에 내려앉은 메뚜기 떼와 같았더라.

그때 랜슬롯 경과 그의 아우 에커 경은 조이우스 가드의 성벽 위에 서서, 언덕 너머로 모여든 군중과 그들을 에워싼 대군을 바라보았더라. 에커 경은 그 끝없이 넓게 펼쳐진 군세의 광경을 보고는 심중이 위축되어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오, 아우여! 보시오, 우리를 에워싼 이 광활하고 끝없는 군대를. 우리가 어찌하여 그런 대군에 대항할 수 있겠소? 왕과 타협하여 왕비님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 아니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타협을 논하며, 어찌하여 왕비님을 넘겨주자 하오느냐? 아느냐, 지금 이 때에 왕비님을 넘겨준다는 것은 곧 그녀를 불명예에 빠뜨려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이니라. 그녀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이제 어찌하여 그녀의 안전을 보장할 조건을 맺을 수 있겠는가? 아니오, 아우여, 그들의 침입을 기다려 우리 힘껏 방어하자."

〈각주: 왕비가 랜슬롯 경을 조언하더라.〉

그 밤, 왕비도 또한 랜슬롯 경에게 말하여 이르되, "랜슬롯,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나이까? 나를 아서왕께 바치옵소서. 그리하시면 이 전쟁은 그칠 것이오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명장들이 죽으리이다. 원탁의 기사들이 여기 대거 모였사

오며, 또 다른 유명한 명장들과 귀족들과 왕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나의 한 목숨이 과연 그들의 모든 목숨보다 더 귀하나이까?"

이때 랜슬롯 경은 한숨을 쉬며 이르되, "부인, 당신의 안전이 보장되리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저는 당신을 넘기지 않겠나이다. 먼저 왕께서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시기를 바라며, 그 후 당신이 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고려하리라."

이때 왕후는 통곡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었노라. "슬프다, 내가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시름과 슬픔을 안겨주었노라!"

* * * * *

〈각주: 아서왕이 조이우스 가드를 습격하노라.〉

이때 아서왕의 군대는 조이우스 가드를 공격하여, 공격을 거듭하되 성벽에는 틈을 내었으나, 밤마다 그 틈이 메워지므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아서왕의 군대는 기사들과 평민 수백 명을 잃었으나, 성의 수비대는 수십 명을 잃었는데, 그 수십 명의 손실은 아서왕이 잃은 수백 명의 손실보다 더 큰 비애였으니, 수백 명은 다시 채울 수 있으나, 수십 명은 다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

〈각주: _랜슬롯 경의 친구들이 그와 상의하더라._〉

성채를 수비하던 기사들은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더라. 그 회의에 참석한 자는 바로 서 보어스, 서 라이오넬, 서 에커, 서 블레베리스, 서 블라모르 데 가니스, 그리고 서 랜슬롯의 혈족에 속한

다른 기사들과 영웅들이라. 서 라이오넬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성채 안에 머물러 있나이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만 가거늘, 머지않아 적들이 성채를 깨뜨리고 들어와 우리 모두를 칼날에 내맡길 것이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들을 포위하고 있는 자들에게 돌진하여, 어쩌면 그들을 뚫고 바닷가에 다다르고 프랑스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오. 그곳에서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자들로부터 안전할 것이오.”

서 랜슬롯이 이르시되, “형제여, 비록 우리가 이 일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며,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 시도 속에서 죽임을 당하겠는가!”

서 에커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리이까? 그들이 우리의 생명과 피를 노리고 있지 않나이까?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오. 그들은 우리의 적이며,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소.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 그들을 공격합시다.”

이 모든 말을 구이니비어 왕후가 들으시니, 그 회의를 듣는 동안 그녀는 많고도 매우 쓴 눈물을 흘리시더라. 서 랜슬롯에 관하여는, 그가 매우 깊은 한숨을 쉬었으나 곧이어 이르시되, “그러면 형제들이 말한 대로 하리다. 다만 먼저 아서왕께 말씀드려야 하오.”

그때 오후, 그는 성채의 성벽 위에 나타났노라. 그는 성벽 너머로 몸을 내밀어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 부르짖으며 이르되, “아서왕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와 말하고자 하노라.”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아서왕에게 달려가 이르되 "전하, 랜슬롯 경이 폐하와 뵙기를 청하오니, 혹시 그가 폐하께 항복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니라

〈각주: 아서왕이 랜슬롯 경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에 아서왕이 서둘러 랜슬롯 경이 있는 곳으로 향하시니, 가웨인 경과 북웨일즈 왕이 함께였더라. 아서왕이 랜슬롯 경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시오, 경들아? 이 성을 항복하시오?" "그렇지 않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말씀드리려 하노라."

"경,"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 외 다른 일로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시오?"

"주군,"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하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이 성을 공격하며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안에는 많은 고귀한 기사들과 원탁의 기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벗이셨고 주님의 신하들이셨나이다. 그들 중 일부는 주님께서 저를 기사로 만들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친히 기사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라. 그리고 그들 모두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주님의 버팀목이 되셨던 분들을, 주님을 위해 싸우려던 분들을 죽임으로써 주님께 무슨 이익이나 영광이 있으리이까. 주님께서 그들과 화평히 지내시려거든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 아니겠나이까. 주님께서

선량하고 가치 있으며 존귀한 기사들을 죽임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있으리이까?"

"경,"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은 경이 나의 왕비를 사로잡아 이 성에서 내게서 그녀를 가두고 있음을 잊었도다. 먼저 나의 왕비를 내게 돌려주라. 그리하면 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가 고려하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대로 답하리라."

"영주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여왕께서는 여기에서 높은 존경과 공경으로 모셔지고 있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녀는 어떠한 해악이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하옵니다. 만약 그녀가 폐하와 함께 계셨다면, 해악과 불명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겠나이까? 폐하께서 그녀에게 어떠한 해악이나 손상을 가하지 않으실 것을 먼저 저에게 확약하신다면, 그제야 우리는 진실하고 명예로운 기사로서 그녀를 폐하께 인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리이다."

"내가 과연 경과 조약을 맺어, 수년간 우호롭게 지내온 그 아내를 내게 돌려받으라는 것인가? 경이여, 내가 그러한 조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마땅치 않은 일인지 생각지 못하는구나."

〈각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을 책망하더라.〉

그때 가웨인 경이 일어나 이르되 "또한, 영주여, 당신은 또 하나의 일을 잊으셨나이다. 그것은 당신이 무방비로 서서 무장을 하지 않은 내 두 어린 형제를 죽이셨다는 것이오. 당신이 죽인 자들, 즉 무장을 하고 전투에서 맞섰던 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개의치 않소.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당신과 싸우지 말라고 권고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감행했고, 그 결과 당신에게 죽임을 당하였소. 하지만 저 두 형제는 싸움을 감행하지 않았나이다. 그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서서, 당신과 친구가 되려 하였소. 그럼에도 당신은 그들을 적인 양 대하여 죽였소. 나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소. 당신이 당신의 피로 그 죄를 갚든지, 아니면 내가 내 피로 그 죄를 갚든지 하겠소."

그때 랜슬롯 경이 한숨을 쉬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가웨인 경이여, 당신의 그리스도교적이지 못한 증오로 인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돌아섰다.

〈각주: 성의 수비대들이 돌출하여 출격하더라.〉

다음 날이 밝자, 성의 사람들은 전투와 탈출을 준비하더라. 그들은 왕비를 그들 한가운데에 모시고 사방으로 그녀를 호위하더라. 그러자 갑자기 성의 한쪽 문들이 모두 활짝 열리며, 그들은 전신 갑주를 갖춘 채 일제히 성문을 나서니라. 그때 해는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광택 난 강철 갑옷 위에서 불꽃처럼 반짝이며 빛나더라. 그러자 성의 수비수들은 크게 외치며 적들을 향해 돌진하되, 왕비를 그들 한가운데 모시고 나아가니라.

그들 일행은 잠시 동안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갔고,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만약 왕비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공격과 진격을 늦추지 않았을 것이니, 결국 탈출할 수 있었

으리라. 그러나 왕비가 함께했기에, 잠시 동안의 지체로 인해, 아서왕의 군대 중 일부는 무장을 갖추었더라. 그리고 또 잠시 후, 랜슬롯 경의 친구들은 거의 완전히 그 거대한 무리들에 의해 포위되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짧은 시간 내에 성채로 돌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리라 보았으나, 아직은 그 길이 열려 있음을 보았더라. 이에 그가 소리를 높여 외치되 "퇴각하라! 퇴각하라!" 하니라.

〈각주: 성의 사람들은 다시 그 안으로 물러났더라.〉

그때 전장의 굉음과 타격과 강철 갑옷에 부딪히는 검날 소리 속에서, 그곳에 있던 모든 이가 이 소리를 들었노라. "후퇴하라! 후퇴하라!" 그들이 바라본즉, 그 후퇴로는 거의 차단되었으나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말들을 돌려 서서히 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었노라. 그 여왕이 여전히 그들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라. 앞선 자들은 말을 성을 향해 돌렸고, 뒤따르는 자들은 적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싸웠노라. 그 무리를 습격한 자들 중 많은 자가 여왕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그녀를 둘러싼 기병들의 밀집된 진형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노라. 그 시도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만약 그들이 첫 번째 기병의 선을 뚫고 들어갔더라도, 두 번째 방어선의 기병들에게 즉각 살해되었기 때문이라.

〈각주: 가웨인 경이 라이오넬 경을 쓰러뜨리니라.〉

그 혼란한 싸움 속에서 가웨인 경은 언제나 랜슬롯 경을 찾아내려 애썼으나, 랜슬롯 경이 항상 왕비의 곁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에게 다다

를 길이 없었노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보르스 경을 향해 돌진하여 그의 창으로 그의 어깨를 꿰뚫었노라. 그 후 그는 거친 기세로 라이오넬 경을 향해 돌진하여, 그의 창끝이 라이오넬 경의 갑옷을 뚫고 등 뒤로 한 손 너비만큼 돌출되게 하였노라. 그때에 라이오넬 경은 말에서 떨어질 뻔하였으나, 그를 둘러싼 군중들이 그를 지탱하여 넘어지는 것을 막았노라. 그리고 이 라이오넬 경을 향한 일격으로 가웨인 경의 창끝이 부러져, 그 일부는 앞쪽으로, 또 다른 일부는 등 뒤로 드러난 채 라이오넬 경의 몸속에 박혀 남았노라.

그때 라이오넬 경은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음을 깨닫고 매우 처절한 신음을 흘렸더라. 가웨인 경은 그 신음을 듣고 그가 얼마나 중태인지 알았노라. 이에 그는 공격을 더욱 격렬히 하여 라이오넬 경의 몸을 빼앗으려 애썼노라. 그러나 그는 그 몸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몸은 여전히 여러 사람에 의해 지탱받아 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들은 그 몸을 지키려 모여들었기 때문이었노라.

〈각주: 라이오넬 경이 죽다.〉

이에 가웨인 경은 분노에 치밀어 미친 자처럼 싸웠노라. 그의 검은 번쩍이는 번개처럼 빛나며, 내리칠 때마다 그는 크고도 두려운 소리로 외쳤노라. “이것은 랜슬롯 경을 위한 것이요!” “이것은 랜슬롯 경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다시금 “이것과 또 이것, 모두 랜슬롯 경을 위한 것이요!” 그의 내리치는 타격이 이토록 사납고도 무서웠기에, 많은 자가 그 앞에서 쓰러져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웨인의 공격에서 라이오넬 경을 빼내어 성 안으

로 데려갔노라. 그리하여 그 밤, 그는 심한 갈증과 고통 가운데서 숨을 거두었노라.

〈각주: 아서왕이 전복되다.〉

그 전투에서 아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랜슬롯 경의 진영 중앙을 향해 여러 차례 돌진하였다. 곧 그들은 왕비가 있는 곳까지 매우 가까이 다다랐고, 아서왕은 거의 자신의 창으로 그녀를 건드릴 수 있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아서왕은 마침내 랜슬롯 경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에커 경이 랜슬롯 경 곁에 서 있었다.

종종 아서왕은 랜슬롯 경에게로 다가서려 애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랜슬롯 경이 때로는 스스로의 몸으로 타격을 막아냈고, 때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타격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에커 경은 아서왕이 랜슬롯 경을 공격함에 있어 자신의 방어를 소홀히 함을 깨달았다. 그는 등자를 딛고 일어서서 아서왕의 투구 위에 무서운 타격을 가하였다.

그 타격에 아서왕의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그는 균형을 잃어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다. 즉시 에커 경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여기서 나는 이 전쟁의 근원을 끊어내리라.” 이에 그는 아서왕의 투구를 벗겨내고 검을 휘두르며, 아서왕의 목을 베려 준비하였다.

〈각주: _그들은 왕의 목숨을 아끼니라._〉

그러나 구이니비어 왕후는 왕의 위태로움을 간파하고 매우 비통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경, 왕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이에 랜슬

롯 경이 에커 경에게 이르되, “경이여, 어찌 된 일이오? 경이 어찌 자기의 왕을 죽이려 하나이까? 기억하시오, 경을 기사로 삼으신 분도 그분이고 나를 기사로 삼으신 분도 그분이라. 비록 그분께서 경과 나를 기사로 삼으셨음을 잊으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오.”

이에 에커 경은 다시 검을 꽂아 두었고, 그와 랜슬롯 경은 아서왕을 들어 올려 다시 말 위에 태웠다. 아서왕은 랜슬롯 경이 얼마나 고결하고 기사다운 인물인지 보며 쓰디쓴 눈물을 흘렸고, 이르시되, “아, 랜슬롯, 랜슬롯,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 후 랜슬롯 경은 구이니비어 여왕과 함께 성 안으로 물러났고, 그의 뒤를 따라 문이 닫혔노라. 그러나 아서왕은 여전히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되, “아, 랜슬롯, 랜슬롯,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시더라.

이때 랜슬롯 경의 친구들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었노라. 그들은 다시 성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요, 그 곳을 포위하고 있는 자들로 인해 밖으로 나올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 매번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점점 더 약해져 갔으나, 아서왕의 군세는 약해지지 아니하였노라.

〈각주: 로체스터의 주교가 왕께 오시니라.〉

이때 로체스터 주교가 아서왕의 진영에 이르러, 두 편 사이의 화목을 꾀하려 했노라. 주교가 아서왕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보니, 아서왕은 깊은 슬픔에 잠겨 계셨더라. 이미 원탁의 기사 스물셋 명이 이 전쟁

과 분쟁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요. 아서왕은 그들을 위하여 매우 애통해하셨노라. 원탁을 둘러싸고 처음 모였던 그 기사들 같은 기사가 더 이상 없었으며, 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 같은 기사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니라.

이에 주교가 왕 앞에 섰다. 왕은 그의 눈물이 맺혀 시야가 흐려진 채, 마치 그가 아주 먼 곳에 있는 듯 멀리서 그를 응시하시더라. 주교가 왕께 이르되, "폐하, 폐하와 랜슬롯 경 사이의 이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주소서. 지금 이 땅은 온통 이 다툼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사오니, 친구가 친구를 대적하고 이웃이 이웃을 치며,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나이다. 폐하, 이 기사들은 폐하의 원탁과 폐하의 손으로 이루어진 자들이니, 그들을 멸하는 것이 폐하께 무슨 기쁨이나 영광이 되겠사옵니까?"

왕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경이여, 이 전쟁은 내가 꾸민 것이 아니며 내가 구한 바도 아니라. 오직 랜슬롯 경의 소치라. 처음에 랜슬롯 경은 정당한 이유로 체포됨에 저항하였고, 다음에는 왕비의 체포에도 저항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와 그의 동무들이 왕비를 내 곁에서 데려갔으며, 지금 그들을 이 성에 가두었노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왕비를 내게 인도하게 하라. 그리하면 랜슬롯 경의 친구들과 나의 친구들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각주: 주교가 여왕을 위해 중재하다.〉

주교가 이르되, "폐하, 그대가 명예를 걸고 왕비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을 선언하지 않는 한, 그들은 왕비를 그대에게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비는 그대에게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존귀한 부인이며, 그대가 그녀를 맞이한 날의 햇살처럼 순결합니다. 그녀는 어떤 죄악이나 잘못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왕비의 생명에 해가 끼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한, 그녀는 돌려 보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때 왕은 주먹을 이마에 대고 앉아서 주교가 한 말을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마침내 숨 막힌 듯한 목소리로 이르되, "좋소. 그러면 여왕을 캐멀롯에서 내게 인도하라. 나는 내 편에서 그녀의 생명을 해치지 않겠노라, 즉 그녀를 위협하거나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오." 주교가 이르되, "그것을 글로 써 주시오." 왕이 이르되, "그렇게 하겠노라."

이에 왕은 서기(書記)를 불러 그에게 그 말을 받아쓰게 하시되, 곧 만일 왕비가 그에게로 돌아온다면 왕비에게 해가 미치거나 그 생명이 어떤 형태로든 위협받지 말라 하더라. 왕은 그 문서에 서명하고 인장을 찍으시니, 주교가 그것을 가지고 기쁨의 성채(Castle of Joyous Gard)로 들어가니라.

〈각주: 주교가 왕비를 위해 애도하더라.〉

이때 주교가 랜슬롯 경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함께 있던 구이니비어 왕비 앞에 나아갔노라. 주교가 왕비의 얼굴을 바라보니, 슬픔에 잠겨 그 얼굴은 온통 희고 창백하였으며, 눈꺼풀은 끊임없이 울어 붉게 부어올라 있더라. 주교는 왕비와 그녀의 슬픔을 깊이 불쌍히 여겨, 왕비에

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이르되, “부인, 당신의 슬픔을 그치소서. 슬픔의 때가 이미 지났사오니이다. 여기에는 당신의 생명을 해치거나 어떠한 상처도 가하지 않겠다는 문서가 있사오니이다. 다만 왕비께서 왕께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면, 모든 것이 용서되리이다. 왕께서 이 성채의 돌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더라도, 왕비께서 그분께 돌아가실 것을 결심하셨음을 잘 아옵소서.”

그때 왕비는 주교가 가진 문서를 받아 매우 신중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읽기를 마치자 그녀가 이르되, “주교여,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여기 내 자신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으나, 다른 이의 안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도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그 선량하고 존경할 만한 기사들과 신사들은 어찌된 사정인가? 이 문서에 그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주교가 이르되 “내가 그 일을 왕께 아뢰리라. 그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공격하거나 탈출하려 들지 말라” 하니라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일 이 시각까지 이곳에서 평안히 머무르리라” 하더라.

이에 주교가 왕께 돌아가 그 뜻을 전하니, 곧 그 여왕을 보호하고 은신케 한 기사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한 보증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었노라. 이에 왕이 눈썹을 찌푸리며 이르시되, “저들이 또 무슨 조건을 내걸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이러한 보증을 주어야 하느냐?” 하시니라.

〈각주: 왕은 성의 기사들을 생명을 보존하기로 약속하시니라.〉

이때 가웨인 경은 왕의 소매를 잡아당겼고, 왕은 그와 함께 곁으로 물러서시었다. 가웨인 경이 잠시 동안 왕에게 속삭이더니, 잠시 후 왕은 다시 주교에게로 돌아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좋으니라, 이제 너는 내 말을 그 기사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이 브리튼 왕국 안에 머무는 한, 그들에게 결코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에 주교가 그 말을 성채 안으로 가져가자 그들은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랜슬롯 경이 주교에게 이르되, "왕께서 캐멀롯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삼일 내에 왕비를 모시고 올 것이니, 그녀의 높은 지위에 합당하는 모든 장엄함과 행렬을 갖추어 모시겠나이다"라고 하니라.

이에 아서왕은 그 곳으로부터 군대를 거두어 캐멀롯으로 돌아오셨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구이니비어 여왕을 캐멀롯의 아서왕께 모셔오기 위해 준비하였더라.

* * * * *

이처럼 슬프고 잔혹한 전쟁이 종결되었으니, 그 전쟁에서 많은 선량한 기사들과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원탁의 기사 중 열 네 명의 충실한 기사들이 생을 마감하였더라.

비록 모든 그 기사들이 군대와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그들에게도 신분이 낮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찾아왔으

니, 그들 중 많은 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조차도 이 비통한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더라.

이처럼 운명의 손이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군중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으니, 비록 모든 이가 전쟁을 두고 큰 슬픔을 앓고, 그 전쟁에서 죽어간 자들을 위해 애도하며, 동료가 동료를 잃은 슬픔을 나누었으나, 심지어는 적진에 선 원수들까지도 슬퍼하였으나, 운명의 손은 그들을 밀어내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고, 그 비통한 전투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게 하였노라.

그리하여 끝에 이르기까지 그러하였으니, 그 끝이 이르기 전에 그들 중 가장 앞장서고 가장 위대한 자들이 그들의 몸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땅의 품에 영원한 잠에 빠졌으니, 그 땅은 그들에게 형상을 부여하고 발판을 제공한 곳이었노라. 아직 더 많은 전쟁이 올 것임이여, 그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전쟁들에 바쳤으니라.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논하리라.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를 다룰 것이기 때문이니라.

* * * * *

이제 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 곧 여기서 더 나아가 펼쳐질 사건들의 연대기가 이어지니, 이는 곧 드러나리라.

[그림]

[그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도전하다]

[그림] 여섯째 장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여왕을 캐멀롯의 아서왕에게로 데려오니라. 그가 잉글랜드를 떠나자, 아서왕과 가웨인 경이 그를 추격하더라.

이에 아서왕은 캐멀롯으로 돌아가시니, 사흘째 되는 날 그 곳에서 구이니비어 여왕이 그에게로 인도되어 오니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왕의 궁정으로 구이니비어 여왕이 모셔져 왔을 때, 다음과 같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여왕을 캐멀롯으로 모셔오는 일.〉

먼저 갑옷을 두르고 초록빛 벨벳으로 장식을 다한 백 명의 기사들이 이르렀더라. 그 기사들은 모두 머리 위에 올리브 관을 쓰고 있어, 평화를 상징하였노라. 그 뒤를 초록빛 벨벳 옷을 입은 스물네 명의 시종들이 따랐는데, 그들도 또한 올리브 관으로 머리를 장식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여왕을 모시는 스물네 명의 시녀들이 왔으니, 이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초록빛 벨벳으로 옷을 지었고, 진주와 보석으로 수를 놓아 말의 발굽에 이르기까지 장식하였으며, 말의 고삐에도 올리브 관을 둘렀더라.

그 뒤를 이어 여왕과 랜슬롯 경이 이르렀으니, 둘 다 흰색 사마이트천으로 옷을 입었더라. 여왕은 손에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었고, 랜슬롯 경은 머리 위에 올리브 관을 쓰고 있었노라. 이 두 사람의 의복은 진

주와 보석으로 수를 놓아 빛나고 있었으니, 수놓은 자국이 옷을 딱딱하게 만들 정도였더라.

〈각주: 아서왕이 캐멀롯에 앉아 계셨음이라.〉

그때 아서왕은 캐멀롯 성의 홀에서 위엄 있게 왕좌에 앉아 그들을 맞으셨더라. 그가 앉으신 왕좌는 세공된 금으로 만들어졌고, 자줏빛 벨벳으로 쿠션이 깔렸으며 금실로 표범 형상이 수놓아진 자줏빛 벨벳으로 장식되었더라. 왕좌 위로는 금실로 표범 형상을 수놓은 자줏빛 벨벳의 큰 천장이 드리워졌더라. 왕은 온몸을 흰 옷으로 두르셨고, 목에는 보석이 박힌 금 사슬을 걸치셨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셨더라. 왕의 왼편에는 전례복을 입은 일곱 명의 주교가 서 있었고, 오른편에는 왕과 비슷한 왕좌가 놓여 있었으나, 그 왕좌에는 왕비가 앉아야 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더라.

왕의 좌편, 즉 왕좌에서 두 계단 아래에 왕의 사랑스러운 조카이신 가웨인 경이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홀 안에는 수백 명의 기사들이 전신 갑옷을 입고 검과 창을 지닌 채 둘러서 있어, 그 갑옷의 빛깔로 인해 홀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노라.

이때 아서왕은 구이니비어 여왕의 귀환을 맞이하고자 위엄 있게 좌정하셨고, 곧이어 여왕이 왕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오니라. 먼저 랜슬롯 경의 기사들과 시종들이 나와 두 무리로 나뉘어 홀의 양편에 줄지어 서서 그 사이에 한 줄의 길을 남겨두었더라. 그 후 랜슬롯 경과 여왕이 손을 잡고 그 길로 들어와 왕께 나아가니, 랜슬롯 경의 얼굴과 그 부인의 얼굴 모두 희뿌연 빛이 돌았노라. 부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랜슬

롯 경의 얼굴은 그녀를 향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였더라. 이 두 사람 뒤에는 여왕을 모시는 스물네 명의 처녀들이 따랐는데, 이들은 그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여왕과 랜슬롯 경이 아서왕께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기다렸더라.

이에 랜슬롯 경과 왕후가 아서왕이 앉아계신 왕좌의 발치에 이르렀으니, 랜슬롯 경은 그 곳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왕후는 아서왕 앞에 서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말하더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경외하올 주군이자 왕이시여, 여기 제가 약속드린 대로 왕비를 모셔왔나이다. 제가 슬픔과 재촉 가운데서 그녀를 데려갔사오나, 이제 그 슬픔에 비해 만 배의 기쁨으로, 그 재촉에 비해 만 배의 평온과 우정으로 그녀를 왕께 돌려드리나이다. 주군이시여, 그녀가 기쁨의 성에서 열 세 주 동안 왕실의 위엄과 예우에 맞게 거하셨사오니, 이제 그녀가 오시는 것은 카밀라드에서 처음 왕을 사랑하고 왕이 그녀를 사랑하던 그 때 그녀가 오셨을 때와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나이다. 주군이시여, 왕께서 왕비를 마음에 모시고, 한때 그녀를 아끼셨던 그 마음으로 그녀를 아끼시기를 간구하오니이다. 오직 왕께서 그녀에게 해가 없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계셨기에, 오늘 그녀가 이렇게 왕께 모셔진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않았으리이다."

〈각주: 아서왕이 랜슬롯 경을 책망하시니라.〉

그때 아서왕이 눈썹 아래로 눈을 감추고 눈매를 찌푸리시니,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잠시 후 이르시되, "경, 한때 경은 나의 친구였으며 나의 모든 기사 중 가장 사랑받는 자였노라. 그러나 그 때는 지나갔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제 나와 경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일이 있노라. 경의 그 차가움과 냉정함을 나는 감탄하노라. 경은 나의 왕비를 힘으로 빼앗아 갔고, 힘으로 이 여러 달 동안 그녀를 지켜왔노라. 많은 기사들이 경의 손에 죽었고, 경의 계략으로 인해 죽었노라. 그들 중 몇몇은 나의 원탁의 기사들이었으니, 그들은 한때 사랑과 우정의 끈으로 경을 그 원탁에 묶어두었노라. 그러나 이제 경은 내 앞에 서서 내가 다시 나의 왕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노라. 경은 알지 못하는가? 이루어진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완전히 끝났고 완성된 채로 남아야 하느니라. 경이 행한 일도 또한 그러하니, 그것도 또한 완전히 끝났고 완성된 채로 남아야 하노라. 보라, 경이여. 여기 내 곁에는 이 빈 왕좌가 있노라. 이 왕좌는 영원히 빈 채로 남으리라. 구이니비어 왕비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왕비도 다시는 이 왕좌를 차지하지 못하리라. 내가 여기서 그녀를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버리노라. 그녀가 나의 궁정과 침상에서 물러났으니, 그녀는 영원히 그것들로부터 물러난 채로 있을 것이요, 다시는 그녀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그녀가 한때 차지하던 지위에 다시 두지도 않으리라."

〈각주: 왕이 왕비를 수도원으로 보내시니라.〉

"나는 나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로 맹세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그녀를 교회에 맡기노라. 그녀는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은자로서 지내리라."

이와 같이 아서왕이 이르시니, 그의 손짓에 따라 로체스터의 주교가 나아와 부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데리고 갔더라. 그가 그녀를 데리고 갈 때, 그녀는 매우 비통하게 울고 있었더라.

로체스터 주교는 왕비를 로체스터의 성 브리지트 수도원으로 모셔 갔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죽는 날까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지내었으니, 이는 뒤이어 서술하리라.

이때까지도 랜슬롯 경은 아서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서 있더니, 잠시 후 왕이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경이여, 내가 직접 경의 형벌을 선포하지는 않겠노라. 다만 그 형벌을 선포하는 일을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 가웨인 경에게 맡기노라. 경이 그에게 끼친 해악은 내가 받은 해악보다 천 배나 크니라. 비록 경이 나의 왕비를 내게서 빼앗아 갔으나, 경은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노라. 그러나 그에게는 경이 그의 혈육 다섯을 죽였으니, 곧 그의 형제 세 명과 아들 두 명이었노라. 그 중 세 명은 무기를 들고 경에 대항했으므로, 경이 알면서도 정당방위로 그들을 죽인 것이려니와.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은 무장하지도,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경 앞에 섰었노라. 그리고 그 두 명은 온 세상 누구보다도 경을 사랑했노라. 그 두 명 중 한 명은 경의 손으로 기사가 되게 하였고, 다른 한 명은 경과의 많은 우정과 사랑의 행위로 맺어진 사이였노라. 그러므로 경의 형벌을 선포하는 일을 가웨인 경에게 맡기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추방의 심판을 선포하더라.〉

그때 가웨인 경은 랜슬롯 경을 향하여 매우 쓴웃음을 지으며 이르되, "영주여, 이는 내가 내리는 심판이니이다. 아서왕께서는 그 큰 자비로써,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왕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그 방식으로는 어떠한 해로도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이 그의 명령이니라—이 날로부터 열다섯 일 이내에 당신은 이 왕국을 떠나야 하며, 내가 사는 동안이나 왕이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와서는 아니 되느니라."

〈각주: _그의 기사들에게 대항하여._〉

"또한 나는 최근 일들에 너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즉 에커 드 마리 경, 가니스의 보르 경, 우레 경, 블라모어 경, 가니스의 블레베리스 경, 갈라오틴 경, 갈라후드 경, 메나두크 경, 갈라딘 경, 헤버스 경, 라베인 경, 아이슬의 멜리아스 경, 팔라미데스 경, 사피르 경, 클레기스 경 등에게 추방의 심판을 선포하노라. 이 왕을 대신하여 이 모든 자들에게 추방의 심판을 선포하노니, 만약 너희 중 어느 누가 지금부터 십오일이 지난 뒤에도 브리튼 섬 내에서 발견되면, 그 자는 반역자로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지리라. 그 동안 너희의 모든 성채와 백작령 및 남작령은 왕에게 몰수되리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폐하, 이는 가혹한 선고이옵니다. 이 섬에서 저는 일생을 살았사오며, 눈으로 보는 모든 나무와 돌을 사랑하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추방되어 이 왕국에서 쫓겨난다면, 저는 프랑스 땅의

칠리온 성으로 가리니, 그곳에서 저는 환영받고 보호받을 것이라 믿사옵니다. 그러니 오라, 나의 영주들이여. 우리가 떠나기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그 나라로 가자."

〈각주: _랜슬롯 경과 그의 기사들이 물러난다._〉

이에 랜슬롯 경과 그와 함께 죄를 지어 파면당한 모든 영주들은 잉글랜드의 해안을 떠나 프랑스 땅으로 들어가, 깊은 슬픔과 원망의 마음으로 거처를 정하였다.

이에 아서왕은 그들의 모든 백작령과 남작령, 그리고 영지를 모두 몰수하시니, 그 중 일부는 타인에게 하사하시고, 나머지는 왕실의 소유로 간직하시더라.

* * * * *

그 기사들이 프랑스 땅으로 떠난 후, 가웨인 경은 아서왕께 그들을 따라가 칠리온 성에서 그들을 공격하소서, 하고 간청하더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리요? 랜슬롯 경이 나의 왕비를 내게로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그의 행위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추방당하지 아니하였는가? 그의 모든 죄악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가 이제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게 두리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더라. "폐하, 제게 있어서는 이 사건에서 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나이다. 랜슬롯 경이 제 형제들과 제 아들들을 죽였사오니, 그 죄과를 결코 용

서할 수 없나이다. 그의 피가 제 피로 갚아지거나, 혹은 제 피가 그의 피로 갚아질 것이라. 그러므로 폐하께서 프랑스로 그를 쫓아가지 않으시거든, 제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를 찾아내어 응징하겠습니다. 폐하께서 한 사람으로서 그를 용서하실 수는 있겠으나, 한 왕으로서 그를 용서하실 수는 없나이다. 폐하께서는 법의 수장이시니, 법을 깨뜨린 자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호수의 랜슬롯 경 역시 법을 어기셨사오니, 그가 원탁의 기사들을 거느리고 폐하께 반기를 드셨사온즉, 폐하께서는 법에 따라 그를 공격하고 그의 배반을 응징하실 의무가 있사오며,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들의 배반으로 인해 응징하실 의무가 있나이다."

〈각주: 아서왕이 랜슬롯 경을 치러 나아가니라.〉

이때 아서왕은 이미 노년에 다다랐고, 슬픔과 근심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으므로, 가웨인 경의 이 말이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마침내 프랑스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건너가, 칠리온에서 랜슬롯 경과 그의 동지들을 공격하기로 동의하더라. 이에 아서왕은 브리튼의 정치를 조카이자 가웨인 경의 형제인 모드레드 경에게 위임하고, 자신과 가웨인 경은 대군을 거느리고 프랑스를 향해 떠났더라.

이때 이 군대는 칠리온 성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성 안으로 랜슬롯 경과 그의 친구들을 가두어 그 곳에서 포위 공격을 가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아서왕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우리의 목숨과 피를 원하시는가? 만일 그가 우리의 목숨과 피를 원하시거든, 그러면 우리 사이에는 잔혹

하고 쓰디쓴 전투가 많게 될 것이며, 많은 기사들이 쓰러질 것이요, 그리하여 원탁은 온전히 끝날 것이니라. 아, 어쩔 수 없도다. 하느님께서 그와 같이 원하시거든, 그리 될진저."

〈각주: 실롱 성 주변에서의 전투에 대하여.〉

그리하여 칠리온 주변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더라. 아서왕의 기사들이 랜슬롯 경의 기사들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그들은 그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으니, 브리튼에서 새로운 기사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아서왕의 군대를 보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랜슬롯 경의 군대에는 새로운 기사들이 오지 않았으므로, 그의 손실은 결코 보충되지 못하였더라.

* * * * *

그때 아서왕의 진영에는 지혜롭고 박학한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가웨인 경이 그 박식한 자를 불러내라 명하였다. 그 지혜로운 자가 가웨인 경 앞에 서자, 가웨인 경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경은 내게 어떤 상처도 치유하여 나를 온전하게 해 줄 연고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각주: 현명한 자가 가웨인 경을 위해 약을 준비하더라.〉

지혜로운 자가 이르되 "경이여, 이는 불가능한 일이로소이다. 그러나 내가 경에게 이와 같은 약재 하나를 주리니, 경이 그것을 복용하거든 오전 아홉 시부터 정오의 첫 번째 시까지 경의 사지와 팔에 열 명의

힘과 같은 기운이 넘치리라." 가웨인 경은 웃으며 이르되 "그런즉 그 약재를 내게 준비하라."

지혜로운 자가 그 약을 준비하여 가웨인 경에게 주었으니, 의사가 약속한 바와 같이 그에게 효험이 나타났더라. 오전 아홉 시부터 정오의 첫 번째 시(제1경)까지, 가웨인 경은 팔과 몸이 열 사람의 힘만큼이나 힘차게 들려졌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다.〉

이 약을 전해 받은 이튿날, 가웨인 경은 성벽으로 나아가 성 아래를 행진하며 소리쳤다. "랜슬롯 경이여, 나와서 나를 상대하라. 이는 네가 나의 친족을 죽인 대가로 네가 내게 갚아야 할 보상이니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나와서 싸우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여전히 가웨인 경을 사랑하였고 아서왕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지난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한쪽은 가웨인 경이요 다른 한쪽은 아서왕이었으므로, 그는 나와서 싸우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오히려 이 두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에, 랜슬롯 경은 가웨인 경이나 아서왕이 있는 전투의 한복판에서는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의 전투를 선택하였노라.

다음 날이 이르자 가웨인 경이 다시 나타나 그 팔과 몸에는 열 명의 힘이 서려 있더라. 그는 성벽 아래를 드나들며 행진하듯 거닐었고, 행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노라. "랜슬롯 경이여, 너는 비겁한 기사도다! 나와 싸우기 위해 나와라! 너의 심판이 이미 임했고, 이 전쟁에서

너는 죽으리라. 그러므로 나와 싸우라, 아니면 내가 너를 두려워한다고 선포하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그를 맞아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성채 안에 앉아 영혼의 슬픔과 쓰라림으로 신음할 뿐이었더라. 이때 에커 경이 랜슬롯 경에게 나아가 이르되, "사촌이여, 내가 나가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게 하소서. 이 자가 우리의 명성을 이 도전으로 욕보이려 함이니이다."

이때 랜슬롯 경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감히 가시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을 내 피보다 더 사랑하였노라. 그가 죽임을 당한다면 내 마음은 다시는 비워지지 않을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리라. 그리고 네가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내 형제 없이 남겨지게 되며, 네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가웨인 경과 싸우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감히 나가 그를 맞서지 말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나 에커 경은 끝내 랜슬롯에게 간청하며 이르되, "형제여, 내가 가도록 허락하시오!" 하더라. 마침내 랜슬롯이 이르시되, "좋으니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하였노라.

이에 에커 경은 갑옷을 갖추고 성채를 나서 가웨인을 만나러 갔더라.

그때 가웨인 경이 에커 경에게로 다가가 물었노라. "경이시여, 경은 어떤 기사이신고?" 에커 경이 이르되, "나는 호수의 랜슬롯 경의 아우, 에커 드 마리스라 하노라." 가웨인 경이 말하되,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기로 왔는가?" 에커 경이 대답하되, "나는 내 형을 대신하여 경과 결투하려 왔노라." 이때 가웨인 경이 웃으며 이르되, "경이시여, 경을 환영하노라. 차라리 내가 랜슬롯 경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가 없다면 경을 그의 대리자로 받아들이리라. 그러니 나를 상대할 준비를 갖추게."

〈각주: 가웨인 경이 에커 경을 쓰러뜨리니라.〉

이 두 기사는 각각 일정한 거리를 달린 뒤, 그 맞대임을 위해 몸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였노라. 그 격돌에서 에커 경의 창은 산산조각이 났으나, 가웨인 경의 창은 꺾이지 않고 견고하였노라. 그 창 뒤에는 열 명의 남자가 모인 듯한 힘이 실려 있었으므로, 에커 경의 방패를 뚫고 그의 몸을 관통하여 등 뒤로 한 손 너비만큼이나 밖으로 돌출하였노라.

이에 에커 경은 말에서 떨어졌고, 지나가던 가웨인 경의 창이 부러져, 그 창봉은 에커 경의 몸속에 박힌 채로 남았노라. 창끝은 앞쪽으로, 창꼬리는 뒤쪽으로 각각 드러나 있더라.

이에 가웨인 경은 에커 경이 누워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 그를 향하여 물었노라. "경하, 몸은 어떠신가?"

에커 경이 대답하되, "슬프도다, 영주여! 내가 치명상을 입었노라."

이에 가웨인 경은 매우 비통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르되, "이와 같이 배신자에게는 항상 이렇듯 되느니라. 너와 같은 자에게 말이라."

그때 가웨인 경은 말머리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며, 에커 경을 그대로 두었다.

그때 성채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누워 있던 에커 경을 들어 올렸노라. 그들이 그를 방패의 움푹 패인 곳에 눕히고 성채 안으로 모셔갔더라.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이 에커 경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노라.

그들이 그를 안고 한 방으로 들어와 부드러운 침상에 눕혔더라. 에커 경은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 매우 처참하게 신음하거늘, 랜슬롯 경과 여러 다른 이들이 그의 앞에 서서 서 있었노라. 랜슬롯 경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두 눈에서 솟아나 반짝이는 보석들처럼 뺨을 따라 흘러내렸더라.

이때 밤의 열한 번째 시에 에커 경이 랜슬롯에게 이르되, “경이여, 이 상처는 내 생을 마치는 상처라. 그 창봉을 뽑아 내게서 빼내어 주시오. 내가 죽게 하소서.” 랜슬롯이 이르되, “뽑아낼 수 없나이다.” 에커 경이 이르되, “이 창봉을 뽑아 내게서 빼내어 주며, 내가 죽게 할 벗이 여기 없느냐?”

이에 보르스 경이 이르되 “내가 이를 뽑아내리이다” 하고, 즉시 에커 경의 침상 곁으로 나아가 창봉을 잡았더라. 그가 힘껏 당기매 창봉이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이와 함께 다량의 피가 쏟아져 나왔노라.

〈각주: 에커 경이 죽다.〉

이에 에커 경은 깊은 탄식을 터뜨리며 이르되 "내가 죽노라" 하더니, 그와 함께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더라. 그때 함께 있던 자들은 모두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으니, 이는 에커 경이 그들 모두에게 지극히 사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더라.

이튿날 아침이 이르자, 가웨인 경은 다시 성채 앞까지 와서 전과 같이 말을 몰고 나아갔노라. 그는 말을 몰아가며 항상 외쳐 부렀노라. "랜슬롯 경이여, 너는 겁 많은 기사라. 나와 싸우기 위해 나와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그에게 맞서 나오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였더라. 이때 가니스의 보르스 경이 랜슬롯 경에게 나아가 이르되, "경이여, 이 기사와 싸우게 하소서. 그가 우리 모두에게 치욕을 안겨오나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간청하오니 이 곳으로 가지 마옵소서, 경. 이 기사 가웨인은 지극히 강인하고 힘센 기사임이라. 이미 그가 에커 경을 죽였사오니, 경께서도 목숨을 잃으시게 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큰 손실이 되리이다."

그러나 보르스가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막아내려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느님께서 승리를 주시어, 그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리니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임이라."

이때 랜슬롯 경은 고개를 돌리며 곧이어 이르되, "가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좋은 운명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나에 관해서는, 내가 가웨인 경을 대적할 수 없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 품었던 사랑 때문이니라. 그가 나를 죽인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불운이 될 것이요, 내가 그를 죽인다면, 나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원망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에게 대적할 수 없노라.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느니라."

이에 보르스 경은 무장을 갖추고 성을 나서니라. 가웨인 경이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이가 랜슬롯 경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더라.

이때 가웨인 경이 그를 마주 보고 달려가며 물으니, "영주여, 당신은 어느 기사이신고?" 이에 보르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보르스 드 가니스 경이니이다. 호수의 랜슬롯 경을 대신하여 나와 대적하려 왔나이다."

"경," 가웨인 경이 이르되, "당신은 매우 환영하오이다. 비록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호수의 랜슬롯 경과 대적하기를 원하오. 이는 내가 당신과는 원수가 없거니와, 그와만은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오."

"그러나"라고 보르스 경이 이르되, "내가 지금 그를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 여기 서 있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러면 너는 싸움에 대비하라" 하거늘, 이에 보르스 경이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크게 격렬하고 맹렬히 서로 돌진하였더라.

그 대결에서 각 기사의 창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으며, 창을 쥔 주먹 바로 앞까지 산산이 부서졌다. 각 기사의 말은 후퇴하여 뒷발로 주저앉으려 하였으나, 기사의 기교가 없었더라면 넘어졌을 것이다. 이때 각 기사는 창자루를 던져버리고 말에서 내려와, 큰 재주로 검을 뽑아

매우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그리고 맹렬하게 전투에 돌입하였다. 서로에게 많은 무거운 타격과 일격을 가하여, 각 기사들은 여러 곳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웨인 경은 열 명의 힘을 지니고 있었고, 보르스 경은 오직 한 명의 힘밖에 지니지 못하였으므로, 가웨인 경의 거듭된 격렬한 공격에 지친 보르스 경은 차차 방패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더라.

〈각주: 가웨인 경이 보르스 경을 상하게 하다.〉

이때 가웨인 경은 자신이 방어를 위해 열어둔 틈을 간파하고, 이를 악물며 검을 휘둘러 검을 들고 있던 팔의 어깨를 향해 베어내었다. 그 타격이 얼마나 격렬하고 포악하였던지, 철로 된 갑옷을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 살과 뼈까지도 가르고 말았으니, 보르스 경의 팔은 어깨에서 축 늘어졌고, 그가 쥐고 있던 검도 손에서 떨어졌다.

〈각주: 보르스 경이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더라.〉

이때 가웨인 경은 웃으며 앞으로 달려나와 발을 보르스 경의 검 위에 얹었노라. 보르스 경은 무릎을 꿇고 앉으며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르되, “가웨인 경이시여, 내가 크게 다쳤사오니, 만약 경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가웨인 경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너의 목숨을 아껴야 하느냐? 너는 배반한 간사한 자요, 내가 너를 아껴 주기는 마땅치 아니하도다. 오히려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때에 너를 죽여야 마땅하리라. 그러나 나는 우리의 오랜 인연과 수많은 교분을 잊을 수 없노라. 또한 너는

성배를 성취하고 다시 사라스로 성배를 가져온 세 기사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목숨을 아껴 주리라. 다만 하느님도 또한 너의 목숨을 아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니라."

이에 가웨인 경이 돌아서서 검을 칼집에 꽂고, 말에 올라타서 그 자리를 떠났더라. 그리고 곧 찰리온 성에서 보르스 경의 친구들이 달려와 그를 들어 올리고 들것에 눕힌 뒤, 그를 성 안으로 모셔갔더라.

그들은 그를 성채의 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갑옷을 벗기고 그의 상처를 살폈다. 그 상처는 참으로 끔찍하고도 참담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였고,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너무 많아 보르스 경은 기절하였으며, 잠시 동안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유하듯 위태로웠다.

〈각주: 보르스 경은 죽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는 그때나 이후에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 그 상처가 낫아, 차차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강건한 몸이 되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보르스 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에게 물었다. "보르스 경, 어찌 지내오시나이까?"

보르스 경이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하되, "경, 가웨인 경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지 못하오. 내가 그를 만나 보니 그토록 놀랍도록 강건하여, 그보다 더 강한 자는 내가 만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오. 그가 나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내가 입은 이 상처를 입혔소. 이로 인

해 나는 아마도 죽게 될지도 모를 것이오. 내 팔이 어깨에서 거의 찢겨져 나갔고, 내가 다시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소."

이때 랜슬롯 경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슬프도다, 어찌하여 이같이 되었는가! 이제 나는 가웨인 경과의 결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노라. 어제 그가 내 형제 에커 경을 죽였고, 오늘 그는 너를 거의 죽이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일 나는 반드시 그와 맞서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곧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멸망하리라."

이에 보르스 경이 이르되 "경이시여, 그이를 경계하소서. 그에게는 인간을 초월한 힘이 있사오니, 그가 경을 파멸케 할까 두렵소이다."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와 같기를 나는 원치 않노라.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러하든 아니든, 나는 이 성채 안의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기회를 걸고, 그와 반드시 맞서야 하노라."

이리하여 랜슬롯 경은 가웨인과 결투할 준비를 갖추었더라.

* * * * *

이제 이 유명한 싸움, 곧 랜슬롯 경과 가웨인 경 사이의 격투에 대해 더 듣고자 하거든, 이어지는 글을 읽기를 청하노라. 거기에는 이 일들을 다룬 여러 고대 사료들에 전해진 바와 같이, 그 전말이 상세하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림: 가웨인 경의 최후:]

[그림] 일곱 번째 장

아서왕이 작은 브리타니아로 돌아오심과, 랜슬롯 경과 가웨인 경 간의 싸움에 대하여

이때 다음 날이 이르렀고, 가웨인 경은 자신의 시종들을 불러 온몸을 견고한 갑주로 감싸게 하였고, 말에 올라타 손에는 단단한 물푸레나무 창을 쥐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금 전과 다름없이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서니라.

가웨인 경이 성벽 아래에 이르러 성벽 앞을 행진할 때, 그는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부르짖었노라.

"나오라, 호수의 랜슬롯 경이여! 나오라, 너 추한 기사여, 나와 결투하라!"

이때 랜슬롯 경은 이제 자신이 그 싸움을 치러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가웨인을 치러 가니라.〉

이에 랜슬롯 경은 말에 올라타 방어용 단단한 물푸레나무 창을 손에 쥐었노라. 이렇게 무장한 그는 명령을 내렸고, 성채의 포트큘리스는 들려 올라갔으며 도개교는 내려졌노라. 랜슬롯 경은 그 무적의 갑옷을 두른 채로 가웨인 경을 만나기 위해 성채 밖으로 나섰더라.

이때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다가가 인사를 올리고 호수의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청컨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경이 호수의 랜슬롯 경이시요, 아니면 다른 기사이신가요? 경의 용모와 행실, 그리고 방패에 새겨진 문양을 보아 경이 랜슬롯 경임을 알겠사오나, 경이 그분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는 제가 세 번째로 도전하는 것인데, 이전 두 번에는 그분께서 저와 맞서 나오시지 않았사오기 때문이옵니다.”

〈각주: _랜슬롯 경이 가웨인 경에게 말하였다._〉

호수의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경이시여, 저는 바로 랜슬롯 경이로소이다. 가웨인 경이시여, 들어주시오. 저는 이 싸움을 피하려 애써 왔사오니, 이는 이 싸움이나 그와 비슷한 다른 싸움에서 당신이나 제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전에 우리 사이에 흐르던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나이다. 그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으며, 저는 그것을 매우 귀중히 여기나이다. 그러므로 이 싸움이 피할 수 있다면, 저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나이다.”

가웨인 경이 이르되 “무슨 사랑의 수다를 떨고 있소이까, 경이여.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사오니, 비록 내가 일찍이 경을 사랑하였을지라도 그 사랑은 이미 사라졌거나, 차라리 증오로 변하였음을 아시오. 경이 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였사오니,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나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입히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사오며, 그리하여 우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니,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러하리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가웨인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다치게 하였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너에게 이토록 큰 상해를 입혔는가? 내가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내게 말하라.”

〈각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을 비난하더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네가 먼저 내 아들 둘과 내 형제를 죽였으며, 그 후에 또 내 형제 둘을 죽였음을 내가 여러 번 일러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모욕을 받아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때 랜슬롯 경이 한숨을 쉬며 이르되, “경이시여, 들으소서. 그 두 아들과 그 형제는 제가 전투에서 죽인 자들이니, 그들은 갑옷을 입고 저를 습격하였으며, 저는 그들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또 그 후 제가 죽인 두 형제에 관하여는, 저는 싸움의 혼란과 격분 가운데서 그들을 죽였사오니, 그 격분 가운데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만약 제가 그들을 알았더라면, 들으소서, 저는 손을 거두어 그들을 용서하였을 것이나이다. 경이시여, 이로 인해 저는 마음 깊이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그들을 모두 매우 사랑하였사오니, 특히 제가 전장에서 기사로 봉한 가레스 경을 더 특별히 사랑하였나이다.”

이때 가웨인 경은 매우 쓴웃음을 지으며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매우 훌륭한 변명을 늘어놓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한 바를 행하였고, 행한 바를 행하였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하오. 모든 사람은 그가 행한 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나이다. 자, 영주여, 전투를 준비하시오. 내가 당신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

그때 다시 랜슬롯 경은 한숨을 쉬었으니, 그 한숨이 깊어 그의 가슴 속 심장이 줄에서 떨어져 나올 듯하였다. 그 한숨과 함께 그는 투구를 닫고 말의 고삐를 당겨, 자신에게 할당된 전투의 장소로 물러가니라.

〈각주: 많은 이들이 그 전투를 바라보았더라.〉

그때 성의 수비대 다수가 성벽으로 내려가 서서, 그 높은 성벽 위에서 두 사람이 전열을 갖추어 서 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더라. 그리고 아서왕과 많은 이들이 포위군의 진영에서 나와, 멀리서 그 대결을 지켜보았으니, 성벽 위의 자들과 진영에서 온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이 군중은, 어떤 기사들이라 해도 더없이 좋은 전투의 관중으로 삼을 만한 모임이었더라.

해는 매우 맑고 강하게 빛났으나, 지나치게 뜨겁지 아니하였다. 바람은 매우 자유롭게 불어와 성채 주위의 모든 포플러 나무를 흰 빛으로 물들였고, 성채 옆을 흐르던 강물은 바람에 의해 어두워지고 물결이 일었으며, 강가의 모든 갈대들은 물속으로 굽혀져 잠기더라.

이때 두 기사들은 돌격을 준비하며, 온갖 방법으로 갑옷을 단단히 매고 견고히 갖추었다. 그들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자, 말들을 향해 외치며 돌진에 올랐다. 두 기사는 서로를 향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말들을 몰아갔다.

그들이 길목 한가운데서 마주쳐 서로의 방패 중앙을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인해 각자의 창은 손잡이 부분까지 쪼개져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 타격의 반동으로 각각의 말은 떨리며 뒷발로 주저앉

으려 하였으나, 기사의 뛰어난 기량이 박차와 고삐, 그리고 목소리로 말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기에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 후 각 기사들은 부러진 창자루를 던져버리고 검을 뽑아, 서로를 맹렬하고도 용감하게 돌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큰 힘과 기세로 서로를 내리쳤다.

〈각주: 랜슬롯 경이 실패하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그의 모든 힘을 다해 내리쳤으나, 가웨인은 열 사람의 힘을 다해 내리쳤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후방으로 밀려나 작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았으며, 그 공격 속에서 그는 가웨인의 격렬함과 힘에 대해 완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이는 그가 가웨인이 열 사람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 힘이 그가 복용한 약초로 인해 부여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방어할 뿐,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검과 방패로 가웨인 경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만 매진하였노라. 랜슬롯은 생각하되, 일생 동안 이처럼 강인하고 힘센 기사와 싸워 본 적이 없었노라. 아니, 터킨 경의 성 앞 여울에서 터킨 경과 싸웠을 때조차도 이처럼 치열한 상대는 없었노라.

곧이어 랜슬롯의 피가 그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흐르기 시작하였으니, 잠시 후 그가 서 있던 땅은 그 피로 온통 붉게 물들었고, 그의 갑옷은 붉은 강물이 흐르듯 피에 젖었노라. 반면 가웨인 경은 거의 상처 하나 입지 않았으며, 그는 적을 제압하려 온갖 힘과 기운을 다해 싸웠노라.

그러나 가웨인 경이 그와 같이 싸웠을지라도, 시간이 흘러 정오가 다다랐을 때에도 그는 랜슬롯 경을 쓰러뜨리지 못하였더라. 이때 그가 복용한 약초로 인해 얻었던 열 배의 힘이, 양초의 밀랍이 다 타 소모될 때 불꽃이 흔들리며 꺼져가는 것처럼, 서서히 약해지고 사라져 갔다. 그러자 곧 랜슬롯 경은 가웨인 경의 공격이 예전처럼 격렬하고 맹렬하지 않고, 오히려 약해졌음을 깨달았노라. 이에 그는 자신의 싸움을 열 배나 더 격렬하게 재개하였노라. 이제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아니하고, 방어 대신 공격에 나섰노라. 그의 힘은 이미 약해져 있었으므로, 가웨인 경은 그 공격의 맹렬함 앞에 서 있을 수 없었고, 랜슬롯 경에게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더라.

〈각주: 가웨인 경이 패배하고 격퇴당하더라.〉

이에 가웨인 경은 그 타격을 받으며 물러났고, 곧 지친 나머지 방패를 낮게 내려 들기 시작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의 틈을 보았으므로, 두 배의 맹렬함으로 공격을 재개하여 곧장 검을 휘둘러 가웨인 경의 머리에 힘껏 내려쳤다. 그 타격이 이토록 격렬하여 투구와 모자가 갈라졌고, 모자 아래의 머리가 다쳤더라.

이에 가웨인 경은 무릎을 꿇고 앉았으니, 그의 손은 힘을 잃었고 손에 쥐었던 검이 손에서 풀려 땅 위에 떨어졌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달려와 가웨인 경의 검 위에 발을 얹고, 가웨인 경의 투구를 벗겨내며 맹렬히 외쳤노라. “경이여, 나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나 가웨인 경이 이르되, “내가 경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리니, 경이 기꺼이 나를 죽이게 하라!” 하니라.

이에 랜슬롯 경이 가웨인 경을 바라보았노라. 그가 그를 바라볼 때, 전투의 격분은 해의 얼굴 앞 안개처럼 그의 영혼에서 사라졌더라. 랜슬롯 경은 가웨인 경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동정을 느끼니,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

〈각주: 랜슬롯 경은 그에게 목숨을 아끼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가웨인 경이여, 비록 당신이 내게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관대히 베풀리이다. 일어나서 물러가시오!" 이에 가웨인 경이 이르되, "영주여, 당신이 여기서는 어리석은 일을 하시는구려.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나는 당신을 향해 돌아와서 오늘 내가 당신을 공격했듯이 다시 당신을 공격하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이 다툼에서 당신이나 내가 죽는 것 중 하나가 필연이니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경이여, 이는 내게 관계없는 일이오. 지금 나는 그대를 죽일 수 없으며, 또한 죽이고자 하지 않소."

이에 랜슬롯 경은 그 곳을 떠나시니라. 그는 말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노라. 성채로 돌아가시는 길에 랜슬롯 경은 눈물을 흘리시니, 그의 눈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눈물로 인해 앞길을 거의 보지 못하시더라.

그때 아서왕 편에서 그 전투를 지켜보던 자들이 모여들어 가웨인 경을 일으켜 그의 천막으로 모셔갔노라. 그가 침상에 이르자 그들은 가웨인 경의 갑주를 벗기고 그의 상처를 살폈으며, 그 상처가 매우 깊고 곪아 있음을 발견하더라. 이에 그들은 가웨인 경의 상처를 치료하고 연고

와 약재를 바르니,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회복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였노라.

그때 가웨인 경은 그에게 힘의 약을 주었던 지혜롭고 박식한 의사를 불러내어 이르되, “그보다 더 강력한 약, 나를 스무 명의 힘이 있게 하는 약을 줄 수 없나이까?” 의사가 대답하되, “경이시여,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사오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가웨인 경이 다시 묻되, “그렇다면 정오가 되기 전까지만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게 하는 약은 없나이까?” 그러나 의사도 또한 대답하되, “경이시여, 그것 또한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이에 가웨인 경이 한숨을 쉬며 이르되, “슬프도다! 나는 결코 랜슬롯 경을 이기지 못할 것 같구나.”

그사이 성채 안에서 랜슬롯 경의 상처를 살피니, 그 상처가 매우 심하고 깊음을 알 수 있더라. 그러므로 가웨인 경이나 랜슬롯 경이 그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노라. 그러나 그 여러 주일이 지나고 나자, 각기 기사들은 다시금 전과 다름없이 강건하고 건강하였더라.

〈각주: 가웨인 경이 낫다. 그는 랜슬롯 경에게 도전한다.〉

이때 가웨인 경은 온전히 치유되어 다시금 갑옷을 입고, 매우 강인하고 위력적인 창을 손에 쥐고 말에 다시 올랐다. 가웨인 경은 성채로 향하여 성벽 앞을 오르내리며, 말을 몰아가며마다 높은 소리로 외쳤노라. “랜슬롯 경, 나오라, 너 비겁한 기사여, 나와 결투하라!”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랜슬롯 경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경이시여, 가웨인 경이 성곽 아래를 타고 지나가시며 경께 도전장을 던지시나이다” 하니, 랜슬롯 경이 한숨을 쉬며 곧장 이르시되, “내 갑주를 내게로 보내라” 하시며, “갈리아르를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라. (갈리아르는 랜슬롯 경의 시종 이름이었노라.)

이에 시종이 나아와 랜슬롯 경의 갑옷을 입히며 그의 사지를 감쌌으니, 랜슬롯 경은 온전히 갑옷으로 무장하여 전신에 두른지라. 그 후 랜슬롯 경은 튼튼하고 단단한 창을 손에 쥐고 말에 올랐더라. 성의 문은 이전과 같이 열렸고, 랜슬롯 경은 햇살 가득한 밖으로 나아가 전처럼 가웨인 경을 맞이하러 나갔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가웨인 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이르되, “경, 제가 여기 그대를 만나러 왔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대를 보았노라. 환영하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경, 오늘 그대를 만나러 나선 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슬픔으로 가득하오. 이는 그대가 나에게 내건 네 번째 도전이기 때문이오. 더 이상 그대의 도전을 받을 수 없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대나 나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오. 그대가 날마다 찾아와 나에게 도전을 걸며 항변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오.”

가웨인 경이 이르되, “영주여, 오늘 우리 중 한 명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도 내 마음과 같소. 만약 죽어야 할 자가 나라면, 그대가 죽인 나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리다. 만약 죽어야 할 자가 그대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대를 희생하는 것을 더

욱 기꺼이 받으리다. 비록 그대가 무장하지 않은 그들을 죽였으나, 그들을 위해 그대를 죽이는 것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이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준비되었는가?" 하거늘, 가웨인이 이르되 "예, 모든 면에서 준비되었사옵나이다" 하더라.

그때도 다시금 예전과 다름없었으니, 성채의 많은 이들이 나와 성벽 위에 서서 그 전투를 구경하더라. 또한 아서왕의 진영에서도 많은 이들이 와서, 둘러싼 언덕들 위에 섰으니, 모든 언덕이 그 격투를 지켜보는 군중으로 가득 찼더라.

각기 기사가 제각기 전투의 위치를 점하고, 모든 방면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각기 창을 받치고 말에게 나아가라고 외치니, 그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큰 속도와 격렬함으로 돌진하매, 둘은 길의 중간에서 천둥과 같은 굉음과 함께 서로 부딪쳤더라.

〈각주: 두 사람은 서로 격투를 벌이더라.〉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창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창끝 끝자락의 나무 손잡이조차 찢겨 나갔다. 그리고 각 기마병의 말은 그 돌진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때 각 기사들은 채찍과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다시 진정시켜, 물러서며 넘어지지 않도록 하였더라.

이에 각기 기사들은 창끝을 내던지고 말에서 뛰어내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돌격에 임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달려들며, 온 힘을 다해 치고 베었노라.

그러나 다시금 랜슬롯 경은 가웨인이 놀라울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그가 열 사람의 힘과 맞서 싸우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라.

그 전투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 중한 상처를 다수 입었으니, 이는 가웨인 경이 정오가 되기 전에 이 싸움을 결단지으려 큰 절박함으로 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언제나 매우 강인하고 힘 있는 방어를 펼쳤노라. 그는 공격의 일격을 거의 가하지 않고, 오직 방어 태세에 자신을 두었노라. 그러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감싼 갑옷과 그가 서 있던 땅 모두, 그가 그 전투에서 입은 많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적셔졌더라.

마침내 정오가 되었고, 정오의 도래와 함께 가웨인 경의 힘이 정점에 달하여 한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제야 그의 힘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랜슬롯 경은 가웨인 경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방어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상대를 향한 공격의 태세를 갖추었다. 가웨인 경은 뒤로 물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의 방어를 취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그에게 돌진하여 검으로 그를 연이어, 또 다시, 거듭하여 내리쳤다. 가웨인 경은 여러 곳에서 부상을 입었으니, 갑옷 판 사이로 깊은 상처들이 나고 그 곳으로부터 피가 줄기처럼 분출하였기 때문이었다.

〈각주: _랜슬롯 경이 가웨인을 치명상 입히다._〉

그때 가웨인 경의 방패는 피로에 의해 완전히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고, 랜슬롯 경은 이를 눈치채고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랜슬롯 경은 검

을 휘두르며 온 힘을 다해 가웨인 경의 목 왼쪽을 내리쳤다. 랜슬롯 경의 검날은 그 자리에서 갑옷을 가르고, 목과 가슴을 관통했으며, 그 상처는 깊어 가웨인 경은 그 일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노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만약 할 수 있었다면 싸우기 위해 서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서 있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며, 그의 손은 땅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려 그 아래 땅을 적셨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그에게 달려들어가 가웨인 경의 투구를 벗겨내며 외쳤노라. "가웨인 경이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영주여, 이미 당신은 저를 죽이셨나이다. 이 상처가 곧 저의 죽음의 상처임이라. 생명이 이 상처를 통해 이미 빠져나가고 있음을 저 스스로 느끼나이다."

이때 랜슬롯 경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경,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제 비오니, 이 상처로 인해 그리고 제가 경께 저지른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각주: 가웨인 경은 랜슬롯 경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그의 팔을 따라 폭포처럼 흐르는 피를 내려다보며 이르되, "난 너를 용서하지 않겠노라, 랜슬롯. 그렇지 않으면, 너에 대한 증오로 인해 나는 죽을 것이오. 너는 내 형제들을 죽인 것처럼 나

를 죽였소.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나의 저주와 그들의 저주를 함께 선포하노라. 나의 저주와 그들의 저주는 이러하니라. 이 날 이후로, 네가 무엇을 시작하든 번성하지 못할 것이오. 이 때부터 어느 전투에도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네 손으로 그 소망을 잡으려 할 때, 그것은 네 손에서 사라질 것이오. 너는 슬픔 가운데 살다가, 기사들의 전투에서 나는 소리나 보이는 것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나의 저주이며, 내 아들들과 내 형제들의 저주이니, 비록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가 죽은 자보다 더 비참한 신세에 빠질 것임을 알라."

그때 랜슬롯 경은 눈물을 흘리며 가웨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웨인이 이르되, "거기서 물러가라, 기사여. 내 친구들이 오고 있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아서왕의 기사들이 그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그는 몸을 돌려 말에 올라타 성을 향해 힘차게 달렸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성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근심하더라.〉

이에 그들 기사 중 많은 이들이, 곧 랜슬롯 경이 가장 아끼던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가웨인 경을 격파한 것을 칭찬하였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그들을 응시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피하며 자신의 여관으로 물러갔노라.

너희는 알지니, 랜슬롯 경이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웨인 경을 사랑하였음을, 아니 그의 피와 혈육보다도 더 사랑하였음을 말이라. 이

제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자, 그 중 가장 사랑하던 자를 죽였음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그는 벽을 등지고 누워, 슬픔이 검은 겉옷처럼 온몸을 감싸 안았노라.

그사이 가웨인 경은 기절하여, 그의 친구들이던 기사들과 신사들이 그에게 달려왔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땅에 누워 있었다. 그들이 그를 일으켜 거적매에 눕히고, 그를 그 거적매에 실어 그의 천막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갑옷의 끈을 풀고 그것을 벗겨냈고, 곧이어 외과의가 그의 상처를 살피러 왔다. 그러나 외과의가 그의 목에 있는 그 큰 상처를 보았을 때, 그는 가웨인 경이 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외과의는 아서왕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살 수 없사오며, 반드시 죽을 것이옵니다." 아서왕은 울었고, 외과의에게 이르되,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어찌 아느냐?" 이에 외과의가 대답하되, "주여, 제가 그의 목 아래쪽의 그 상처를 들여다보았을 때, 제게는 그 아래에서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이 보인 듯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알기에, 만약 그의 상처로 인해 심장이 차가워진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옵니다."

이에 아서왕은 얼굴을 가리고 잠시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후 아서왕은 가웨인 경의 침상 곁으로 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경이여, 그대의 몸은 어떠하오?"

〈각주: 가웨인 경이 왕께 조언을 드리다.〉

가웨인 경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이르되, "폐하, 제가 이 상처로 말미암아 죽게 될 줄을 아시나이까?"

아서왕이 이르시되, “나는 믿지 아니하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리 생각하시나이다. 여기 내게는 치명상의 상처가 있사오니, 잠시 후면 반드시 죽게 되리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마음을 굳게 가지라.”

가웨인 경이 이에 답하되, “내 마음이 꺾인 것은 아니나, 내 생명은 입술 위에서 떨며 매달려 있을 뿐이라. 곧 내게서 떠나가리이다.”

그리고 가웨인 경이 이르되, “폐하, 이것을 아시옵소서. 왕의 처지도 나의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왕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브리튼으로 돌아가소서. 비록 모드레드가 내 형제라 할지라도, 그의 신의를 너무 믿지 못하리이다. 그는 항상 어둡고 음울한 영혼을 지니고 있사오니이다. 또한 그는 왕좌를 향한 야망을 품어 왔사오니, 이제 그 야망을 뒷받침할 힘이 생겼고, 또 왕께서 이 성에서 수많은 훌륭하고 가치 있는 기사들을 잃으셨사오니, 왕께서 직접 그의 손에서 왕좌를 빼앗지 않으신다면, 그는 필연코 왕좌를 차지하려 할 것이오. 그러므로 왕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브리튼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청하오니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이는 경의 망상이라. 모드레드 경은 원탁의 기사요, 내게 충성을 맹세한 바가 있노라. 그런즉 어찌하여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 생각하느뇨?”

가웨인 경이 이르되 “주여, 이제 저는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매우 가까이 누워 있사오니, 모든 사물이 제 눈앞에 유난히 또렷하고 명확하게 비추나이다. 모드레드 경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나

이다. 그러므로 저는 그가 주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제물로 바치고, 주님의 왕좌를 탈취할까 두려워하옵니다. 주여, 내일 아침까지 저는 살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제가 죽은 뒤에는 저를 이 곳에 급히 묻고, 즉시 잉글랜드로 떠나시옵소서. 브리타니아의 왕국을 두고 제가 두려워함이 있사오니이다."

〈각주: 가웨인 경이 죽다.〉

그리하여 자정 이후 제2시간, 가웨인 경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생을 마쳤노라. 이때 아서왕이 그 임종에 함께하셨고, 원탁의 기사 중 몇몇 동료 기사들도 함께하였으므로 가웨인 경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노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아서왕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이르시되

아서왕의 애가

〈각주: 아서왕의 탄식.〉

"이와 같이 그 사나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노라. 남은 자들 중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던 이와는 또 다시 없노라. 비록 그의 분노와 격분은 격렬하였으나, 그는 항상 내게 사랑스럽고, 공경과 자비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나의 왕좌의 오른손이요 지주였으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보강하던 가장 굳건한 기둥이었노라. 나는 그가 이 땅을 떠난 뒤 그 왕좌를 차지하리라 믿었노라."

"그러나 이제 그 일은 지나가고 없으니, 호수의 랜슬롯 경 다음으로 내 원탁 기사들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이가 거두어졌노라."

"그는 내 청춘의 벗이었노라. 내가 싸움을 마치고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먼저 찾아와 그의 손을 내 손바닥 사이에 놓은 자 중 하나였노라. 또한 그는 원탁의 기사들 중 그 탁자에 앉아 그 명성을 떨친 자들 중 첫 번째였노라."

"그러나 이제 그는 떠났고, 나는 홀로 남았도다. 마치 우박에 맞은 숲속의 나무와 같노라. 진실로, 그 나무와 같이 나의 잎사귀는 시들었고, 이제 나는 하늘을 향해 벌거벗고 서 있노라. 나의 왕비, 곧 내 청춘의 연인이었던 그녀가 나와 결별하였기 때문이니,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하리라. 나의 원탁은 다른 면에서는 내 통치의 가장 큰 영광이었으나, 이제 깨져 흩어졌고, 한때 사랑으로 내게 가장 가까웠던 많은 이들이 이제 나의 원수가 되었노라. 나의 왕좌를 수호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떠났으며, 그 왕좌 자체도 무너지려 흔들리고 있노라."

"이 모든 일은 슬프고 비통한 일이로되, 그 중 가장 슬프고 비통한 일은 이 선량하고 존귀한 기사가 죽었다는 것이니라. 내가 그의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으련만, 그가 죽지 않고 내가 그 대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가 죽었다는 것보다 더한 재앙이 내게 남아 있으랴?"

이와 같은 말로, 혹은 이와 비슷한 말로 아서왕은 가웨인 경을 애도하였노라. 이는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니, 곧 가웨인 경의 죽음이었노라.

* * * * *

〈각주: 모드레드 경에 대한 소식이 아서왕에게 전해지니라.〉

그날 아침, 아서왕은 슬픔의 침상에서 일찍 깨어나셨는데, 브리튼에서 온 사신이 그에게 한 통의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이라. 그 소식은 이렇더라. 곧, 모드레드 경이 브리튼의 왕좌와 왕관을 탈취하여, 이를 자기 것으로 삼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노라.

이 소식은 Cornwall의 Sir Constantine에게서 왔으니, 그는 Sir Gawaine의 사촌이요 아직 England에 살고 있었더라. 그리고 Sir Constantine가 이르되, "서둘러라! 서둘러 돌아가라, 나의 왕이여! 그 귀환을 막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아서왕은 칠리온의 포위를 풀고, 가웨인 경을 장사지낸 뒤 모두 브리타니아로 돌아가라 명하시니라.

〈각주: 가웨인 경이 매장되니라.〉

그 날 가웨인 경의 장례는 큰 장엄함 가운데 거행되었노라. 네 명의 주교가 그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 미사를 집전하였고, 온 군대가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또한 실론 성의 백성들도 또한 성벽의 난간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였노라. 그는 랜슬롯 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였기 때문이었노라.

이에 그들이 그를 그 곳에 안장하였으니, 그는 선량하고 가치 있는 기사요, 당시와 이후의 모든 기사도 궁정에서 널리 인정받은 자라. 비

록 그의 성품은 격렬하였고, 아들의들과 형제들의 죽음으로 인해 랜슬롯 경에게 복수를 꾀하였으나, 그는 그 분노와 그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노라. 그리하여 그의 친족들의 넋이 평안히 쉴 수 있었기 때문이라.

* * * * *

이로써 가웨인 경의 사화가 끝났노라.

[일러스트레이션: 배신자 모드레드 경]

[일러스트레이션] 제8장

아서왕이 잉글랜드로 돌아오던 일과, 그가 경 모드레드와 치렀던 최후의 전투에 대하여

아서왕은 프랑스 땅을 떠나 잉글랜드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슬펐으나, 왕의 위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서쪽으로 나아가고, 바람은 돛을 불어넣으며 그를 고향으로 이끌었다.

배가 잉글랜드 해안에 닿았을 때, 아서왕은 갑판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 전쟁의 피로와 함께, 다가올 운명에 대한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왕은 항상 자신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상륙하자, 그의 기사들과 신하들은 그를 맞이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다. 그들은 아서왕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도, 모드레드의 반역과 그에 따른 내전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서왕은 즉시 군대를 소집하고, 모드레드와 맞서 싸우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하였다. 그의 군대는 크고 강했으며, 기사들의 용기와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아서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후의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두 군대는 도버 근처의 평원에서 마주쳤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차가웠다. 아서왕은 그의 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우리의 명예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졌다. 칼과 창이 부딪히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기사들이 쓰러졌다. 아서왕은 맨 앞에서 싸웠으며, 그의 검 엑스칼리버는 빛나며 적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모드레드의 군대도 용감하게 싸웠고, 전투는 끝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아서왕은 모드레드를 마주쳤다. 두 왕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순간 멈추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였다.

아서왕과 모드레드의 대결은 짧았으나 치명적이었다. 아서왕은 모드레드를 쓰러뜨렸으나, 모드레드의 마지막 일격도 아서왕을 관통하

였다. 왕은 쓰러지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느 정도의 평화가 서려 있었다.

그때, 호수의 부인이 나타나 아서왕을 태우고 배를 타고 갔다. 배는 물결 위로 사라져 갔고, 아서왕의 최후는 전설 속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아서왕은 잉글랜드로 돌아왔고, 그의 최후의 전투는 역사와 전설에 길이 남게 되었다.

〈각주: 모드레드 경이 절망에 빠지니라.〉

이때 브리튼에 아서왕이 그 왕국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식은 모드레드 경이 있는 곳까지 전해졌다. 모드레드 경이 이를 듣자 깊은 슬픔에 잠겨 앉았으니, 그의 머리는 가슴에 기대어 있고, 곁에 놓인 음식과 포도주는 손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더라.

그때 아서 왕의 친구들 중 몇 명이 모드레드 경과 함께 있었고, 그들 중에는 랜슬롯 경과의 전투 이후 아서 왕을 원수처럼 여기던 모드라 포트의 마도르 경도 있었더라. 그들이 모드레드 경에게 이르되, “경하소서, 어찌 그리 낙담하셨나이까? 아서 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아시나이까. 그가 돌아올 때면 반드시 경과 싸워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

모드레드 경이 이르되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알린 바, 아서왕이 쉬لیون 성 앞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문이 나의 힘이라. 이제 아서왕이 브리튼으로 돌아오시어 백성이 그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그들은 왕께로 돌아가 나를 쫓아내리라.”

〈각주: 그의 친구들이 그를 권고하더라.〉

모드르 드 라 포트 경이 이르되, "이제 임금이시여, 이는 임금이 백성들에게 고지하고 선포하시어, 아서왕과 함께는 전쟁이 계속되나, 임금이시와 함께는 평화와 안온함이 있을 것임을 알리셔야 하옵니다. 아서왕이 지난 일 년 내내 랜슬롯 경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셨음을 백성들이 아나니, 그 기간 동안 브리튼 전역에서 임금이 치르신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사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평화를 사랑하나니, 임금이시와 함께할 것이옵니다. 이 밖에 임금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부르사 왕으로 즉위하게 하옵소서. 만일 임금이 스스로의 권리로 왕이 되시거든, 임금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우실 힘이 한층 더 강해지실 것이옵니다. 이제 가까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사오니, 그를 부르사 임금이 원하시면 즉위하게 하옵소서."

〈각주: 모드레드 경은 대주교에게 자기를 관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들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부르니, 그가 시어 모드레드 있는 곳으로 왔더라. 시어 모드레드가 그에게 이르되, "대주교여,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를 아시오? 나는 당신이 나를 브리튼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하려 함이라."

〈각주: 대주교가 거절하다.〉

대주교가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요청한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라. 아서왕이 브리타니아로 귀환한다는 소문이 있거든. 어찌하여 정당한 브

리타니아의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당신이 브리타니아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겠는가?"

이때 모드레드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과 변론하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이 왕국의 왕으로 나를 옹립하게 하려 왔노라. 당신이 나를 왕으로 삼거든, 내가 내 관과 내 왕권을 굳건히 지키리라 믿노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나는 아서왕을 위법한 자로 간주하고 그와 싸워, 그 대신 내가 왕이 되리라."

그때 대주교가 이르되, "경이여,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왕국의 교회 수장으로서, 이제 귀환한 정당한 lawful한 왕께 경의 권리와 주장을 양도할 것을 명하노라. 그는 영국을 떠나 있는 동안 잠시 동안만 경에게 왕권을 위임하였지, 영구히 넘겨준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경은 그 양도를 영구히 만들고자 하도다. 경은 그를 대신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경이 아서왕의 상륙当日에 아서왕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면, 나는 경을 다른 이의 권리를 강탈한 자로서 종과 책과 촛불로 저주하리라."

그때 에커 경은 대주교를 향하여 격분하여 외치되, "사나여, 물러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자제를 잃고 검을 빼어 경을 죽일지도 모르노라."

〈각주: 대주교가 물러나니라.〉

이때 대주교는 모드레드 경의 시선을 피하여 물러났고, 그의 사환들을 불러 모아 자신과 모드레드 경 사이에 오간 모든 일을 그들에게 아뢰었노라.

"이곳을 떠나야 하노라. 여기는 위험하오."

이렇게 말한 후, 대주교는 튼튼한 말을 하나 타고 그 위에 올랐으며, 그의 사환들도 또한 말에 올라탔노라. 그러므로 대주교와 그의 일행은 그 곳을 매우 빠른 속도로 떠나 도버로 향하였으니, 그곳은 아서왕이 곧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던 곳이었더라.

대주교가 떠난 뒤, 모드레드 경이 그가 이미 떠난 줄 알게 되었을 때, 모드레드 경은 근처에 있던 자신의 군대 일부를 모았다. 그리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도버로 내려갔으니, 그 의도는 만약 그가 할 수 있다면 아서왕이 상륙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에 아서왕 도버에 이르러, 절벽 위에 선 자는 그 시야 닿는 곳까지 바다를 가득 메운 그의 선박들과 갤리선을 바라보았더라. 왕이 해안에 가까이 다가가니, 그가 내려올 해변에는 상당한 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왕은 그 진영이 자신을 영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싸우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노라. 그러나 마침내 왕은 그 진영의 선두에 모드레드 경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군대가 자신을 치기 위해 왔음을 깨달았노라. 그때 왕은 크게 탄식하며 이르되, "아직도 피가 더 흘러야 하느냐? 좋으니라, 그렇다면 흐르게 하라.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결코 왕좌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왕좌를 지킨

지 이십팔 년이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 남자, 내 조카 모드레드에게 그것을 넘겨주랴? 결코 아니니라!"

〈각주: 도버 전투에 대하여.〉

보트들이 해안에 가까워지자, 그 안에 있던 자들은 물로 뛰어들어 물을 헤치며 해안으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모드레드 경의 군대가 물가까지 내려와 상륙하려던 자들과 전투를 벌였더라. 그리하여 물가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으니, 부상을 입거나 죽어 물에 빠진 자들의 피로 인해 물은 온통 붉게 물들었더라. 그러므로 매번 밀려오는 파도마다 이 붉은 물이 하얀 모래사장으로 밀려올랐다. 그리고는 물러가며, 자신이 흘렀던 곳의 모래사장을 온통 붉게 얼룩지게 남겼더라.

그러나 모드레드 경은 그 군대가 상륙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니, 끊임없이 기사들과 평민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얕은 물가로 내려왔기 때문이라. 이에 마침내 모드레드 경의 군대는 물가에서 밀려나야 했고, 아서왕의 군대는 드디어 해변에 발을 디디었더라.

그때 모드레드 경은 그 곳에서 군대를 철수하였고, 아서왕은 브리튼의 그 일부를 차지하시니라.

그 후 캔터베리 대주교가 아서왕이 계신 곳으로 와서 인사를 드리며 이르되, "왕이시여, 평안하시옵고 이 땅에 발을 디디심을 기뻐하옵나이다. 저는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왕의 왕국으로 오심을 환영하오니, 아시거니와 모드레드 경은 제가 자기를 왕으로 봉해 주기를 간절히 원

하였사오나, 왕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는 말을 듣고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아서왕은 주교를 포옹하고 그의 양 뺨에 입을 맞추며 이르시되 "경, 경의 환대를 감사하노라. 또한 경이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호해 주신 데 감사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도버에서 쫓겨난 뒤, 모드레드 경은 베어름다운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늦게 합류하던 부하들을 모두 모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자들, 즉 아서왕과 적대 관계에 있던 랜슬롯 경의 지지자들도 모두 함께 모았다. 그리하여 모드레드 경은 그곳에서 아서왕과 맞서기 위한 매우 막강한 군대를 갖추게 되었더라.

이때 모드레드 경은 그 군대를 세 개의 가파른 언덕이 있는 높은 땅에 배치하였더라. 이는 그가 적들을 향해 언덕을 내려가 돌격할 수 있는 반면, 적들은 그를 향해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이니라.

이에 아서왕이 이르러 보니 모드레드 경의 군대가 흩어짐을 깨닫고, 또한 그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진을 쳤더라. 중군을 스스로 거느리고, 우익은 북웨일스 왕에게 맡기며, 좌익은 이 때까지 브리튼을 떠나지 않았던 에웨인 경의 지휘 아래 두었노라.

〈각주: 베어름다운의 전투에 대하여.〉

이에 아서왕은 그의 군대를 지시하여 그 언덕을 향해 적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그 언덕이 매우 가파랐고 정상에서는 적의 방어 또한 견고하

였으므로 왕은 그 언덕을 오를 수 없었더라. 그 후 왕은 여러 차례 다시 공격을 명하였으나, 여전히 그 언덕의 정상은 점령하지 못하였더라.

이때 에웨인 경의 부대는 모드레드 경의 군대와 겹쳐졌고, 그는 그 언덕을 앞뒤로 모두 향해 돌진하더라. 그리하여 모드레드 경의 일당을 제자리에서 뒤엉키게 하여 크게 혼란에 빠뜨렸노라.

그러나 모드레드 경의 군대 우익은 에워인 경의 기사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후퇴할 수 없었으므로, 오히려 군대의 중앙부로 후퇴하여 그곳을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더라. 이때 아서왕이 네 번째로 돌진하여, 세 개의 언덕 가운데 중앙의 언덕을 점령하시니, 모드레드 경의 군대는 무너지고 도망쳤더라. 모드레드 경의 군대는 솔즈베리 쪽으로 도망쳤고, 그 도주 중 수많은 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모드레드 경의 군대는 솔즈베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에서도 가까운 곳에 진을 쳤더라.

이때 아서왕은 베어름다운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슬프고도 쓰라린 대가를 치렀노라. 그 돌격에서 수많은 기사들이 전사하였으니, 그중에는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는 에웨인 경도 있었더라.

〈각주: _에웨인 경이 부상을 입는다._〉

이때 아서왕은 에웨인 경이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천막에 누워 있는 부상 기사의 곁으로 달려가셨다. 에웨인 경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해쓱하며, 이마에는 죽음의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에 아서왕은 에웨인 경의 침상으로 다가가 그 곁에 무릎을 꿇고, 두 팔로 그

의 몸을 감싸 안으셨다. 눈물이 아서왕의 얼굴을 흘러내려, 그 아래에 누운 에웨인 경의 얼굴을 적셨다.

에웨인 경이 이르되, "임금이시여, 그대가 계십니까? 눈으로는 뵙지 못하나, 어찌된 일인지 그대가 저를 위해 흐르는 눈물을 느끼나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에웨인, 나니라."

〈각주: 에워인 경이 아서왕에게 랜슬롯 경을 부르라 권하더라.〉

이에 에웨인 경이 이르되, "폐하, 이 전쟁을 위해 랜슬롯 경을 부르시어 원조를 구하십시오. 랜슬롯 경은 폐하의 모든 기사 중 가장 뛰어난 자이며, 그와 함께 매우 유능하고 강인한 여러 명의 기사가 함께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그들을 청하시거든, 그들은 반드시 폐하를 도우러 올 것이니, 그리하시면 모드레드 경을 쉽게 물리치실 수 있사옵니다. 현재 모드레드 경의 군대에 있는 많은 기사들이 랜슬롯 경과 친분이 있사온데, 그들은 폐하께서 랜슬롯 경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모드레드 경을 따르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랜슬롯 경이 폐하께 오시거든, 그 기사들은 모드레드 경을 버리고 폐하께 붙을 것이옵니다. 만일 폐하께서 랜슬롯 경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모드레드 경이 폐하를 물리칠지도 모를지니, 그러므로 간곡히 청하오니 랜슬롯 경과 그의 기사들을 부르사 폐하를 도우게 하소서."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하리오? 또 내가 어떤 권리로 그의 도움을 청해야 하리오? 랜슬롯 경은 나의 원수라. 그가 나의 부인을 빼앗아 수개월 동안 그녀를 내게서 떼어 놓았기 때문이요.

또한 그는 나의 조카들을 죽였고, 나의 가장 사랑하던 가웨인 경을 죽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리요?"

〈각주: 에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서한을 쓰니라.〉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나에게 양피지와 먹을 가져다 주라" 하거늘, 그들이 에웨인 경에게 먹과 양피지를 가져다 주니, 그들이 그를 침대에 기대어 앉혔더라. 이에 그의 상처들이 다시 피를 토해 내며 터져 나왔으므로, 그가 자신은 잠시도 오래 살지 못함을 알았더라.

이에 에웨인 경은 랜슬롯 경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되, "경이시여, 오늘 베어름다운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사오며, 제 삼촌이신 아서왕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셨나이다. 그러나 많은 기사들이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치명상을 입었사옵니다. 경이시여, 청컨대 과거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경과 아서왕 사이에서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소서. 그리고 경이 받으셨거나 혹은 주셨던 모든 상처를 잊으시고 용서하소서. 이 전쟁에서 아서왕께서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셨사오니, 그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경께서는 지체 없이 그분께 나아가시어, 그분으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실한 것으로 만드소서."

"경, 나도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나이다. 한 시간도 지나면 나는 이 땅을 떠나리라. 그러므로 죽어가는 힘으로 경에게 왕께로 오라 하노라. 그 왕은 경을 기사로 임명하신 분이시니라."

이와 같은 것이 에웨인 경의 서한이었고, 그가 그것을 쓴 후 그는 그 서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였더라.

이 편지를 아서왕은 프랑스의 호수 랜슬롯 경에게 사신을 보내 전달하였노라. 호수 랜슬롯 경은 그 편지를 받아 그 내용을 숙고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기사들을 모아 편지를 낭독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경들이여, 아서왕의 이 요청은 매우 절박한 것이니라. 이제 누구든 나와 함께 브리튼으로 가서 아서왕을 위해 싸우려 하느냐?"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기사들이 일제히 "내가 가겠나이다!" "나도 가겠나이다!" "나도 가겠나이다!" 하며, 마침내 모두 브리튼으로 가서 아서왕을 위해 싸우기로 동의하였더라.

〈각주: 에웨인 경이 죽다.〉

이제 다시 아서왕의 이야기로 돌아가노라. 아서왕은 에웨인 경의 침상 곁에서 무릎을 꿇고 서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왕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있더니, 얼마 후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나의 선하신 주군이시여, 그대가 여기 있소이까?" 하니라. 이는 에웨인 경의 눈이 죽음의 어둠에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노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렇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며 에웨인 경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시니, 에웨인 경의 손은 납덩이처럼 차갑고 무거웠노라.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내 손을 잡고 놓지 마시오." 하므로 아서왕은 에웨인 경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았노라. 그리하여 에웨인 경은 잠시 동안 숨을 깊게 들이쉬며 죽음의 숨결을 쉰 뒤, 이내 매우 깊은 한숨을 쉬고는

움직임을 멈추었노라. 그 깊은 한숨과 함께 그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니라.

이에 아서왕이 일어나 이르시되, "슬프도다, 이 선량하고 훌륭한 기사가 떠났다. 그는 내 조카요, 내게 지극히 충성스러운 자였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오늘 우리는 그를 장사 지내고, 내일 우리는 모드레드 경을 추격하리라. 그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리라. 그를 통해, 그리고 그의 행위로 인해 이 고결하고 고귀한 사내가 죽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거나, 내가 그를 죽이거나 하리라."

이에 아서왕이 일어나 그 곳을 떠나시니라. 해가 밝자, 그 곳의 대성당에 서 에웨인 경이 장사되었으니, 이 일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두개골은 이 역사가 기록된 날까지도 그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하더라.

〈각주: 아서왕이 모드레드 경을 치러 나아가니라.〉

이후 모든 예의를 다해 서 이웨인의 시신을 안장한 후, 아서왕은 군사를 모아 Salisbury로 향하여 서 모드레드를 추격하셨다. 이튿날 아서왕은 서 모드레드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군사를 멈추고 진을 쳤더라.

그 밤, 아서왕은 그의 천막에서 누워 깊이, 그리고 진하게 잠들었으니, 이는 노역과 행군에 지친 자가 누리는 잠과 같았더라. 그리고 곧 그가 잠든 사이, 그에게 한 꿈이 들었으니, 그 꿈은 이러하였더라.

〈각주: 왕이 꿈을 꾸었노라.〉

아서왕은 꿈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의 보좌는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더라. 그가 보좌에 앉아 있는 동안 수레바퀴는 높이 치솟았으며, 곧이어 그 바퀴는 지구의 가장자리 너머로 올라가 아서왕은 태양이 온전한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노라. 태양의 빛이 그에게 반짝이며, 그는 그 햇살의 모든 기쁨과 모든 희열을 느끼었노라. 아서왕에게는 그 햇살 속에서 그가 매우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으니, 수레바퀴는 그와 함께 매우 느리게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수레바퀴는 그 정점에 도달하였고, 곧이어 하강하기 시작하였노라. 바퀴는 점점 더 빠르게 하강하였으며, 이내 그것은 세상의 가장자리 아래로 내려가 햇살은 왕을 떠났노라. 수레바퀴는 점점 더 빠르게 하강하였으므로, 아서왕은 수레바퀴의 회전으로 인해 자신의 보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노라.

아서왕은 꿈속에서 자신 아래를 내려다보았노라. 그리고 그는 수레바퀴가 매우 빠르게 거대한 연못, 즉 호수 같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노라. 이 연못은 흑암과 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보라, 그 연못에는 바닥이 없었노라. 이때 아서왕의 보좌는 그 연못을 향해 매우 크게 기울어졌고, 왕은 자신이 자신의 보좌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느꼈노라. 그 순간 그의 영혼은 공포로 가득 찼노라.

그리하여 그는 깨어나려 하였으나, 깨어날 수 없었노라. 그러므로 그의 공포 속에서 그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노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떨어지리이다!” 그의 부르짖음

이 이토록 날카로웠으므로, 몇몇 기사들과 시종들이 그가 있는 천막으로 달려들어 왔노라. 그들이 바라보니 왕은 잠결에 몸부림치고 있었노라. 그들이 외쳤노라. "주님, 주님! 무엇 때문에 그러시나이까? 깨어나소서!" 그와 함께 아서왕은 깨어났노라.

아서왕은 침상 위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시며, 깊은 놀람에 잠긴 자처럼 계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나는 잠들었노라. 그리고 한 꿈을 꾸었노라. 그것은 끔찍한 꿈이었노라." 또한 곁에 모신 이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내 곁을 떠나지 말라. 그 꿈이 나를 무서워하게 하였노라."

그들이 모두 그 곁에 앉아 잠시 후, 그가 매우 깊고도 고요하게 숨을 쉬는 것을 보았으니, 이로써 그들이 그가 다시 잠들었음을 알았더라. 이때 모든 이들이 천막에서 물러났으나, 그의 시종 둘만이 여전히 그 곁에 앉아 있었노라.

그러나 아서왕은 잠들지 아니하셨더라. 비록 그 잠은 일종의 잠이요, 그는 주위가 반쯤 깨어 있는 자처럼 모든 것을 보았으나, 그는 움직일 수 없었노라.

〈각주: 왕이 또다시 꿈을 꾸시니라.〉

그가 이 잠결에 있을 때, 아서왕은 한 환상을 보았노라. 문패막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요, 곧장 그 문패막이가 들어 올려지며 가웨인 경이 천막 안으로 들어섰노라. 가웨인 경이 문패막이를 곁으로 치켜들자, 아서왕은 가웨인 경 뒤로 열네 명의 여인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노라.

이 여인들 모두 장막 안으로 들어간 후, 가웨인 경은 문지방의 덮개를 내려뜨렸고, 그리하여 아서왕이 누워 계신 곳으로 나아갔노라. 가웨인 경의 얼굴은 매우 평온하고 미소 띠며 쾌활하였더라. 아서왕은 그를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실 때 큰 평안과 희열을 느끼셨노라.

그때 아서왕은 꿈속에서 가웨인 경과 말문을 열었노라. 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이는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생각하건대 경은 이미 죽었거늘, 여기에서 경이 살아있는 것을 보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 프랑스에서 매장했던 경이 아닌가?"

가웨인 경이 이르되, "아니옵니다, 폐하. 그것은 제가 아니었사옵고, 다만 폐하께서 묻으신 것은 제 껍데기, 곧 썩어지고 망할 제 가엾은 육신뿐이니이다. 이는 바로 제 영혼이오며, 저는 낙원에서 이리 왔나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네가 데리고 온 이 아가씨들은 누구뇨?"

이에 가웨인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제가 과거에 한때 위하여 싸웠던 아가씨들이라. 그들 중 일부는 근심에서 구원하였고, 일부는 불운에서 구원하였으며, 또 일부는 위난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목숨을 구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왕께 말씀드리려 하오니, 그들이 낙원에서부터 저를 따라 여기까지 동행하였나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 조카 가웨인 경이여,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가웨인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폐하, 저는 내일 전투를 벌이지 마실 것을 당부하러 왔나이다. 당신 앞에 큰 위태로움이 도사리고 있사오니, 만약 싸움을 벌이신다면 반드시 패망하리이다. 그러므로 원하건대 적들과 전쟁에 돌입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을 도와주러 랜슬롯 경이 곧 장 올 줄 아옵나이다. 이미 에웨인 경의 서신이 그에게 거의 다다랐사오니, 그 서신이 그에게 닿는 즉시 그는 속히 당신을 찾아오리이다. 그러므로 원하건대 모드레드 경과 가능한 한 협상을 맺으시되, 그와 결전하지 마시옵소서."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한 바가 예언의 환상이요 꿈이 아님을 어찌 알리오? 만일 꿈이요, 많은 꿈이 그릇됨과 같이 그릇된 것일진대, 그러나 만일 예언의 환상이요, 그진대 내가 진실인 줄 믿으리라."

"경," 가웨인 경이 이르되, "이 표적이 당신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니, 이로써 믿으시오. 이로써 당신이 지금 보는 바가 꿈이 아니라 예언의 환상임을 알 수 있느니라."

〈각주: 가웨인 경이 표지를 남기니라.〉

이에 가웨인 경이 손가락을 뻗어 아서왕의 손등에 가볍게 닿았노라. 그 손가락이 왕의 손에 닿자, 보라! 아서왕의 손등에는 밀랍처럼 희고 뚜렷한 자국이 남았더라.

그때 가웨인 경의 형상은 서서히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여인들 또한 자취를 감추었으며, 아서왕은 잠에서 깨어나셨다. 아서왕은 침상

에서 몸을 일으켜 바라보시니, 해가 이미 떠올라 천막 안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더라.

아서왕은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노라. 거기에 가웨인 경이 손끝으로 만진 자국이 있어, 그 자국은 밀랍처럼 희었더라. 이때 아서왕의 마음은 크게 동요하였으니, 이는 그가 방금 본 것이 꿈이 아니요, 예언의 환상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각주: 왕이 자문관들과 상의하시더라.〉

이에 아서왕은 자기 곁에 있는 기사들과 신하들, 그리고 평민들을 불러모으라 명하셨다. 또한 그와 함께 있던 주교들과 지혜로운 고문관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라 하셨다. 이들이 모여들자, 아서왕은 그들께 자신의 꿈에서 본 환상을 일러주시고, 가웨인 경의 손가락이 닿았던 자국, 곧 그의 손등에 남은 하얀 자국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노라.

"경들아, 오늘 적들과 교섭하는 것이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 나은가? 랜슬롯 경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모드레드 경의 군대에 있는 기사들 중 그로 인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모두 그 군대를 떠나 랜슬롯 경을 위해 우리 편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많은 목숨이 구원되고 많은 피가 흐르지 않을 것이라. 랜슬롯 경이 오면 모드레드 경과의 전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에 모든 고문관들이 그와 뜻을 같이하며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바는 참되나이다. 오늘 모드레드 경과 싸우지 마시고, 그와 교섭하

시옵소서. 주님의 꿈과 환상이 그와 싸우리라 하면 주님의 죽음을 예언함이니이다."

이에 아서왕은 두 명의 주교를 택하시고, 원탁의 기사들 가운데서 집사(Bottelier) 서 루시안과 그의 아우 서 베디버를 선택하시니, 이 두 기사와 두 위인들이 아서왕의 사신이 되어 서 모드레드에게 파견되니라. 왕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과 재산을 아끼지 말고 약속하라. 다만 한 달과 하루의 휴전을 맺게 하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 랜슬롯이 우리 편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주: 사신들은 모드레드 경과 교섭한다.〉

그 두 사신은 모드레드 경에게로 가서, 그와 그의 고문들과 조약을 맺으려 했다. 그들은 온 종일 논쟁을 벌였으나, 해가 저물 무렵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튿날 그들은 다시 모드레드 경에게로 갔고, 그 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아서왕께서 생을 다하시던 그 날까지, 모드레드 경은 콘월과 켄트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며 다스릴 것이며, 아서왕께서 돌아가신 후면 브리튼 전역이 그의 것이 되어 그가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라 정하여졌노라.

이 조약을 아서왕에게 가져가자, 왕이 그것을 읽으시자 눈이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눈썹을 찌푸리셨다. "자, 이 배반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가 요구하는 모든 땅 대신, 단지 누울 여섯 자의 땅만이라도 주었으니 감사할 일이라 하라."

이에 모드레드 경과 아서왕은 다음 날 정오, 두 군대 사이에 있는 한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정하여졌노라.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가 이 계약을 서명하고, 그 후 온 땅에 평화가 도래하기로 정하여졌노라.

이 회견이 열릴 곳은 좌우로 경사가 완만한 매끄러운 계곡이었더라. 그 계곡의 한쪽 끝에서는 멀리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고, 다른 쪽 끝에서는 솔즈베리 평야가 펼쳐져 있었더라. 이 장소에 두 군대는 언덕 위에 모여 그 계곡 한가운데를 내려다보고 있었더라.

〈각주: 아서왕과 모드레드 경의 회견에 대하여.〉

그 계곡 한가운데에는 아서왕과 모드레드 경을 위해 다채로운 실크로 지어진 큰 천막이 서 있었다. 천막 꼭대기에는 아서왕의 문장이 새겨진 큰 깃발과 모드레드 경의 문장이 새겨진 또 다른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아서왕이 여섯 명의 기사와 함께 도착하였고, 모드레드 경도 여섯 명의 기사와 함께 도착하였으니, 이 열두 명의 기사들은 각각 여섯 명씩 양편에 서서 서로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아서왕과 모드레드 경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식탁 위에는 조인될 조약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식탁으로 다가가 서명하려 하였더라.

이제 아서왕과 모드레드 경을 따라온 열두 기사는 어떠한 무기도 빼어서는 아니 되며, 모두 칼을 칼집에 낀 채로 머물러야 함이 명백히 이해되었다. 아서왕은 모드레드 경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모드레드 경 또한 아서왕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이 자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자라. 그의 영혼은 흑암하고 그는 배신과 간계로 가득 차 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기사 중 어느 자가 칼을 빼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칼을 빼어 그들과 모드레드 경에게 돌진하라.”

그러자 모드레드 경이 이르되, “나는 이 왕을 결코 신뢰하지 못하노라. 그는 자신이 베풀 수 없는 것을 너무 쉽게 베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여 두라. 그리고 그의 여섯 기사 중 어느 자가 칼을 빼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칼을 빼어 돌진하고, 가능하거든 아서왕 자신에게 해를 가하여 그를 죽이도록 하라.”

〈각주: 한 기사가 뱀을 죽이니라.〉

이때 두 무리의 기사들이 각각 여섯 명씩 마주 서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우연히도 가시덤불 속에 숨어 있던 한 독사가 그 은신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모드레드 경의 무리에 속한 한 기사가 제자리에서 물러나 서 있던 중, 그 독사를 밟고 말았다. 독사는 그 기사의 발꿈치를 쏘았다.

기사는 자신이 무엇에 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을 내려다보았고, 자신의 발꿈치 아래에 있는 독사를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받아둔 명령들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 독사를 죽이기 위해 검을 뽑아 들었다.

아서왕의 기사들이 이를 목격하였노라. 기사들이 그 기사에게서 검을 빼는 것을 보았고, 뱀을 베려 검을 휘두를 때 햇살에 빛나는 날카롭고 밝은 칼날을 보았노라.

그때 아서왕의 무리들은 즉시 검을 빼 들어 큰 소리로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구원하라! 구원하라!" 하였고, 모드레드 경의 무리들도 또한 검을 빼 들어 모드레드 경을 구원하려 달려들었더라.

그러나 아서왕은 기사들의 비명을 들으셨고, 그 비명을 듣고서는 모드레드 경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셨다. 이에 아서왕은 끔찍한 목소리로 외치시되, "하! 너는 나를 배반하려느냐?" 하시고, 그와 함께 모드레드 경의 목을 잡으시며, 그를 잡은 채로 자기를 죽이려 그의 미시코르디아를 뽑으셨노라. 그러나 모드레드 경은 아서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탈출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노라.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각주: 두 군대가 전투를 향해 돌진하더라.〉

그때 아서왕도 천막에서 뛰쳐나와, 자기 여섯 기사가 모드레드 경의 여섯 기사와 격투를 벌이는 것을 보았노라. 또한 자기 군대와 모드레드 경의 군대가 서로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을 보았노라. 다가오는 두 군대의 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우렁차게 울려오는, 먼 곳의 천둥소리 같았노라. 그리고 그 군대 뒤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은 하늘 높이 치솟는 거대한 불길의 연기와 같았노라. 그 먼지 구름 한가운데에서, 기수들이 급히 경사면을 내려오며 자신들을 향해 돌진할 때, 광택 나는 갑옷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타오르는 모습이 보였노라.

이때 두 군대는 큰 소란과 천둥소리, 그리고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번개처럼 번쩍이는 빛을 내며 마주쳤다. 아서왕은 자신의 말로 달려가

가볍게 올라타고, 그의 군대를 마주하기 위해 말을 돌려 몰았다. 그 군대와 함께 달리던 한 시종이 그에게 단단한 물푸레나무 창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때 두 군대는 마주쳐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으니, 그 소리는 한 리(league) 밖에서도 들릴 만하였다. 그 격돌의 한복판에서 한쪽 군대는 자신들이 가한 타격의 힘으로 인해 서로 밀려났더라. 첫 번째 공방에서 많은 기사들이 쓰러졌고, 그 중 대다수는 쓰러진 채로 생을 마감하였으니, 말들이 그들의 발굽으로 그들을 밟아 죽였기 때문이라. 기수들이 지나간 뒤에는 보병인 평민들이 이어졌고, 이들은 사방으로 뛰어들어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무수히 베어 죽였더라.

그때에 아직 말 위에 오른 기사들은 좁은 고개에서는 창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창을 버리고 검을 빼들었더라. 그들은 검으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휘둘렀고, 잠시 후 땅은 갑옷의 조각들과 말발굽 아래 쓰러져 죽거나 죽어가는 자들로 뒤덮였더라.

이 처절한 전투는 한낮의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즉 정오가 되기 조금 전에 시작되어 오후 내내 이어졌고,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더라.

〈각주: 모드레드 경이 패배하더라.〉

이것이 아서왕이 싸운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전투였노라. 그 전투에서 만 이천 명의 기사들과 신사들, 그리고 평민들이 죽임을 당하였노

라. 그러나 밤이 내리자 모드레드 경의 군대는 무너져 전장에서 도망쳤고, 아서왕은 그 전투의 승자로 남았노라.

그러나 아서왕이 전장의 한가운데서 말에 오르셨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그의 얼굴을 따라 강물처럼 흐르니라. 참으로 그는 그 눈물을 입맛으로 맛보았노라. 그 눈물은 그의 혀에 짠물이었노라.

일찍이 아서왕의 궁정을 둘러싸고 그것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였던 모든 기사들 중에는 살아남은 자가 드물었더라. 또한 일찍이 그의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원탁의 기사들 중에도 살아있는 자가 열둘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나머지 모두는 이미 죽었으며 그들의 시체는 마치 해안가에 바닷돌이 빽빽이 깔려 있는 듯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었더라.

이러한 연유로, 아서왕은 자기의 일생이 이토록 파멸한 것을 보고, 부상자들의 슬픈 신음 소리를 들으며, 또 죽은 자들이 눈 감은 채 하늘을 우러러 시체로 누워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큰 줄기로 흘러내려 그의 얼굴과 수염을 적셨으니, 그가 그 눈물의 짠맛을 맛보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의 통치에 빛나던 영광은 이미 지나갔으며, 그에게 남은 것은 명예와 가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진 빈 왕국뿐이었노라. “슬프도다, 내게 재앙이 닥쳤구나!” 그가 외쳤노라. “내 운명이 이제 나를 따라왔고, 나의 날은 다하였노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아서의 떠남]

그림

아홉 번째 장

아서왕이 모드레드 경을 죽이고, 스스로 치명상을 입어 죽을 문턱에 서게 된 일. 엑스칼리버가 던져져 버린 일, 그리고 아발론에서 세 명의 여왕이 와서 그를 데려간 일.

〈각주: 왕이 전장을 누비시니라.〉

그 밤, 앞서 말한 전투가 끝난 뒤, 달이 매우 차고 동그랗게 떠올라 매우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때 아서왕이 전장을 가로질러 타고 가시니, 아군과 적군 중 누가 전사했는지 확인하려 하심이었더라. 왕께서 보니 그곳에는 아군인 기사들이 많이 누워 있고, 또 다른 적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

그때 하늘에는 구름 하나 없었노라. 달빛은 낮과 같이 또렷하고 밝았으므로, 땅 위의 모든 것과 사방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모두 볼 수 있었더라.

그때 아서왕과 함께 베데베어 경과 그의 아우인 부총관 루시안 경이 함께 타고 가더라. 루시안 경은 매우 중하게 다쳐 죽게 되었으나, 그는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서왕과 그의 형제 베데베어 경과 함께 말타기를 계속하였노라. 이 두 사람은 그가 어떠한 상처도 입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각주: _그가 데 라 포트의 마도르 경의 죽음을 발견하더라._〉

그리고 전장 위에 죽어 누운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그들은 데 라 포트의 마도르 경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때 아서왕이 마도르 경의 시체를 가리키며 이르시되, "보라, 이 기사들이여. 저 남자는 한때 선량하고 강인하며 매우 용감한 기사였노라. 그는 한때 내 친구였으나, 이후 왕비에게 반역죄를 뒤집어씌웠으므로, 나는 그를 나와 내 궁정에서 추방하였노라. 그러자 그가 나를 향해 무력을 행사하였고, 이제 그가 여기 죽어 누운 것을 너희가 보나니. 슬프도다! 그가 그러한 거짓된 고발을 하였음은, 나의 파멸을 초래한 끝의 시작이었노라. 그를 위한 애도도 깊거니와, 그는 강인한 훌륭한 기사요, 원탁의 기사였노라. 또한 그는 한때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노라."

이렇게 아서왕이 이르시니, 그들이 그의 말씀을 경청하더라.

그들이 전장을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들은 가시덤불 옆에 홀로 서 있는 한 기사가 있음을 점차 알아차렸다. 그 기사는 마치 철로 만든 동상처럼 매우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달빛이 그에게 내려앉아 그의 갑옷에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갑옷의 몇몇 곳에는 붉은 얼룩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여러 곳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각주: 그가 모드레드 경이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

그들이 그 기사에게 다가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알아보고는 그가 혼자 서 있는 것이 모드레드 경임을 알았다. 모드레드 경 주변에는 여러 명의 죽은 기사들이 누워 있었는데, 이는 모드레드 경이 자신의 기사들과 함께 마지막 항전을 벌인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일

부는 모드레드 경의 기사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아서왕의 기사들이었다.

그러나 모드레드 경의 말은 죽임을 당했고, 모드레드 경 자신도 허벅지에 상처를 입어 그 전투의 현장에서 도망치던 자들과 함께 탈출할 수 없게 되었더라.

이때 아서왕이 베디버 경과 루시안 경에게 이르시되, "보라! 저곳에 모드레드 자신이 있도다. 그는 나의 모든 기사들과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을 파괴한 자라.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후일의 재앙이 내게 닥쳤으니, 그는 내 손에 죽음을 당할 자격이 있노라." 하고 아서왕은 베디버 경에게 이르시되, "너의 창을 내게 빌려다오. 내가 가서 그를 죽이리라."

베드비어 경이 이르되 "그를 놓아두소서, 폐하. 곧 그를 아는 자들이 와서 그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그 죽음의 책임을 내 손이 아닌 다른 자에게 맡기려 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 모든 재앙을 내게 가져왔으니, 나도 내 손으로 그를 죽이리라. 그러므로 경이여, 내게 검을 주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에 베드비어 경이 왕께 아뢰되 "폐하, 보소서. 달빛 아래 그가 우리 쪽을 응시하며 서 있사오니, 이는 자기를 다치게 한 자들을 노려보는 상해한 매와 같사옵나이다. 폐하, 경계하시옵소서. 그리고 어젯밤 꿈, 곧 가웨인 경이 꿈속에 나타나셨던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폐하는

지금까지 모든 해악을 면하셨사오나, 만약 이 비참한 자를 공격하시려거든, 지금이 바로 폐하의 죽음이 닥칠 때이며 그의 손에 의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어찌 알겠사오며?"

그러나 아서왕이 이르시되, "이제 내게 내 생명이 무엇이랴? 내 생명을 잃는 데에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이랴? 나의 청년 시절 연인이었던 나의 왕비를 잃지 않았느냐? 나의 치세의 가장 큰 영광과 자랑이었던 이 기사들을 모두 잃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랴? 오직 빈 왕좌의 허망함뿐이겠는가? 삶이든 죽음이든, 나는 이 남자를 죽이리라. 그러니 당신의 창을 내게 주시오, 경."

그때 베드비어 경이 자신의 창을 아서왕에게 건네었고, 아서왕은 그것을 손에 거두었노라. 그리고 그는 그 창을 안장 받침에 걸고 모드레드를 향해 겨누었더라.

이때 모드레드 경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였으며, 왕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왕이 자신과 함께 있던 기사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들었으니, 이제 자신의 목숨이 왕에게 빼앗길 것임을 알았노라.

〈각주: 아서왕이 창으로 모드레드 경을 관통하시니라.〉

이때 모드레드 경이 검을 뽑아 들었으니, 달빛 아래 그 칼날이 흰 빛처럼 번쩍였더라. 그는 아서왕과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나아가며 검을 높이 휘둘렀노라. 아서왕은 말에 박차를 가하여 모드레드 경을 향해 돌진하였더라. 아서왕은 창끝을 모드레드 경

의 몸, 곧 방패가 가슴을 가리고 있는 그 부근을 향해 정확히 겨누었으니, 창끝은 모드레드 경의 몸을 뚫고 들어가 등 뒤로 한 엘(ell)만큼이나 튀어나왔더라.

〈각주: 모드레드 경이 칼로 아서왕을 치더라.〉

그때 모드레드 경은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음을 깨달았으므로, 오직 아서왕에 대한 복수심만 간절히 품었노라. 이에 그는 온 힘을 다해 창을 자신의 몸쪽으로 밀어 올렸노라. 그는 창을 따라 몸을 들어 올려, 마침내 창 끝의 돌출부(burr)에 닿을 때까지 올라섰노라. 그의 몸이 창 끝에 닿자, 그는 양손으로 검을 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검날로 아서왕의 투구를 강타하였노라.

그 일격에는 모드레드 경의 생애 마지막 절박함이 모두 담겨 있었으며, 그 힘이 너무 강하여 아서왕의 투구를 베어 넘어갔고, 투구 아래 있는 머리쓰개도 가르고, 나아가 왕의 두개골을 뚫고 뇌 속 깊이까지 파고들었더라.

이때 아서왕은 안장 위에서 비틀거리며 몸을 좌우로, 사방으로 흔들었다. 만일 베드비어 경이 그를 붙잡아 안장 위에 지탱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안장으로부터 떨어졌으리라.

그때 모드레드 경은 자신이 아서왕에게 치명상을 입혔음을 깨달았으므로, 땅에 쓰러져 웃으며 이르되, “이제 내가 죽거니와, 죽기 전에 나의 일을 마쳤노라. 왕 역시 죽을 것이라.” 하고는 깊게 숨을 들이켰

으니, 이는 그의 마지막 숨이었더라. 그 숨과 함께 그의 영혼은 몸을 떠났더라.

베디버스 경이 아서왕께 여쭈었다. "폐하, 다치셨습니까?"

아서왕이 숨을 헐떡이며 이르시되, "경이여, 이 상처는 그 기사가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죽음을 부르는 상처라. 이 상처로 내 뇌수까지 찔렸으니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노라. 경들이여, 나를 데리고 피신처로 가라."

아서왕이 다시 이르시되, "저편에 그 건물은 무엇인가?"

베디버 경이 이르되 "폐하, 그곳은 전장 위의 작은 예배당이니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내가 잠시도 더 살지 못하리니, 평안히 쉬게 하라."

〈각주: 베데버 경과 루시안 경이 부상을 입은 아서왕을 예배당으로 모셔오다.〉

이에 베드비어 경은 말에서 내리니, 그가 아서왕의 말 고삐를 잡고 그 말을 예배당 쪽으로 이끌었더라. 루시안 경은 아서왕을 안장 위에 일으켜 세우니, 아서왕은 이쪽저쪽으로 흔들리며 넘어질 뻔하였으나 루시안 경이 그를 붙들어 일으켰으므로 무사하였더라.

이들 두 사람이 아서왕을 무사히 예배당으로 모셔가, 그 안에 모셔와 한 벤치 위에 누이웠노라. 이때 아서왕을 들어 벤치 위에 눕히는 도중, 루시안 경의 상처들이 다시 터지며 피가 흐르니라. 이에 아서왕이

벤치 위에 눕혀지자, 루시안 경은 땅에 주저앉아 거품 섞인 피를 입에서 흘리며 쓰러져 누웠노라.

〈각주: 루시안 경이 죽다.〉

이때 베디버 경이 소리쳐 부르짖었노라. "아, 내 형제여! 내 형제여! 너 다치셨느냐?"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를 살펴보아 상해가 있는지 보라." 베디버 경이 루시언 경을 살피며 그의 얼굴과 손을 더듬어 보매, 곧이어 이르되, "폐하, 제 형제는 참으로 죽었나이다. 저는 그가 상해까지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상해를 인내로 견디며, 그 일에 대해 말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이다. 아,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어찌 당신이 죽으셨나이까!"

그때 아서왕이 매우 깊은 한숨을 쉬며 이르시되, "슬프도다, 슬프도다! 나의 원탁의 귀한 기사 중 또 한 분이 죽고 나를 떠났도다!" 하시고는, "내가 그를 위해 울고 싶으나 울 수 없노라. 잠시 후 나도 그와 이미 간 자들과 함께하리니." 하시고는 베드비어 경에게 이르시되, "나의 투구를 벗기고 내 상처를 살펴보라." 하시니라. 이에 베드비어 경이 아서왕의 투구를 벗기고 보니, 그 머리에 난 상처가 매우 깊고 쓰라려서 두뇌가 드러나 있더라. 베드비어 경이 그 상처를 보고는 울었으니, 그로부터 아서왕이 죽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서왕이 이르시되 "슬퍼하지 말라, 베드비어 경아. 다만 내가 명하는 바를 즉시 행하라." 하시고 "보라, 엑스칼리버가 내 허리춤에 매여 있느냐?"

베드비어 경이 이르되 “예, 주여” 하니라. 베드비어 경은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더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 칼을 가져다가 그를 물가로 모시고 가서 물에 던져라. 그런 다음 여기로 돌아와 네가 무엇을 보는지 내게 말하라.”

〈각주: 베드비어 경이 엑스칼리버를 거두다.〉

그때 베디버 경은 아서왕의 허리춤에서 끈을 풀고, 그 끈을 왕의 몸 밑에서 빼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끈으로 엑스칼리버의 칼날을 감싸 싸매고, 칼을 손에 쥐고서는 그것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베디버 경이 달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왔을 때, 달빛은 엑스칼리버의 칼잡이에 매우 밝게 쏟아져 내렸고, 베디버 경은 칼잡이와 손잡이가 온통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음을 보았노라. 그 보석들이 박힌 금빛은 달빛 속에서 천 가지 빛깔로 타오르며 빛나더라.

이에 베드비어 경은 속으로 생각하되, “어찌하여 이 화려한 검을 바다에 던져야 하랴? 보라, 이 검이 어찌하여 보석으로 수놓아져 순수한 빛을 발하며 타오르는가. 진실로, 왕은 바다에 던지라 명하시니 미친 듯이 말씀하시도다. 차라리 이 검을 간직하리라. 이는 장차 올 세대들에게 아서왕의 나라가 어찌 크고 화려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각주: 베데레어 경은 검을 던지지 아니하더라.〉

이에 베드비어 경은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달빛 아래 서 있는 마른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그 나무는 가지가 모두 꺾이고 잎이 하나도 없

이 헐벗어 있었다. 이에 그는 검 엑스칼리버를 가져다가 그 나무 뿌리 아래에 숨겨 두었노라. 곧이어 그는 아서왕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폐하, 폐하의 명을 받들어 그 검을 바다에 던졌사옵나이다"라고 아뢰었더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베드비어 경이여,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베데레브 경이 이르되, "무엇을 보았어야 하오리까, 폐하? 저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달빛은 그 파도 위에 비추어, 마치 살아 움직이며 빛나는 은빛 길과 같았사옵니다."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아, 거짓말쟁이이며 비겁한 기사여! 내가 너를 믿었으므로 나는 패망하였노라. 이는 네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믿었거늘, 네가 검의 손잡이에 박힌 보석을 탐내어 바다 물속에 던지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에 베드비어 경이 이르되,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나 아서왕이 이르시되 "가라, 내가 명하는 바를 행하라. 이번에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 나의 때가 이미 가까이 왔노라. 이제 내게 남은 생명은 잠시뿐이니라."

〈각주: 베드비어 경이 다시 나아가니라.〉

그는 검을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때 베디버 경이 다시 나아가, 그가 검을 숨겨 두었던 곳으로 향하였더라. 그는 숨겨진 자리에서 검을 꺼내 들어 그 손에 들었노라. 달빛이 금으로 된 검의 손잡이를 비추고, 그 손잡이에 박힌 보석들 위에 타오르는 빛을 다시 보았을 때, 그의 마음과 결의는 약해졌더라. 그는 스스로 이르되, "이 검을 버리는 것은 죄가 되리라. 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검이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는 이 검을 파괴해야 하겠는가? 이 검이 왕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세상 전체에도 속함이 아니냐. 진실로 왕은 이 일로 미쳐버렸으니, 후세와 장차 올 자들을 위해 나는 이 검을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리라."

이에 베디버 경이 왕께 돌아오매, 왕께서 말씀하시되 숨을 헐떡이며 "경아, 내가 명한 바를 행하였느냐?"

베디버 경이 이르되 "그러하옵니다, 폐하."

아서왕이 이르시되 "이러한 일을 행하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느냐?"

베디버 경이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달이 높은 하늘에 빛나고, 파도가 해변의 자갈에 시끄럽게 부딪히더라.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노라."

그때 아서왕은 잠시 동안 침묵하시더니, 이어 큰 소리로 외치셨다. "슬프도다! 내 권위가 내 힘과 함께 사라졌도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 짐작하였거늘, 나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노라. 보라, 나는 이제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허덕이고 있

거늘, 내 신하이자 종인 이 기사가 내 명을 따르지 않으니, 이는 바로 그 검의 손잡이를 수놓은 보석들 때문이로다."

이에 베디버 경이 울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겠사옵나이다" 하거늘, 아서왕이 이르시되 "행하라, 서두르라" 하시니라.

〈각주: 베드비어 경이 검을 던져 버리니라.〉

이에 베디버 경은 그 예배당을 뛰쳐나왔노라. 그는 검이 숨겨진 곳으로 달려가 검을 거두어 들고, 검띠로 검을 감싸 안았노라. 이어 그는 바위 절벽을 내려 바다 곶에 이르렀고, 그곳에 다다르자 검을 머리 위로 여러 번 휘둘러 물 밖 멀리 던졌노라.

〈각주: _한 팔이 검을 잡는다._〉

그리고 베드비어 경은 검이 휘두르는 것을 보았으니, 달빛 아래서 순결한 빛의 고리처럼 번쩍이며 어둠 속에서 돌고 있었더라. 그리하여 검이 수면 위를 따라 원을 그리더니 물속으로 내려갔고, 검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 물에서 한 팔이 솟아올랐더라. 그 팔에는 흰 사미트 천으로 된 소매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보석이 박힌 많은 금팔찌가 차려졌더라. 그 팔이 검의 손잡이를 잡고 세 번 휘두르더니, 다시 물속으로 끌어내렸더라. 그리고 물결이 그 위로 닫히자, 검과 팔은 사라졌더라.

이 모든 것을 베디버 경이 목격하매, 그는 명상하며 다시 그 절벽 위의 작은 예배당에서 누워 계신 아서왕께로 돌아왔더라.

그가 돌아오자 아서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경아, 내가 명한 대로 하였느냐? 엑스칼리버를 물 속에 던졌느냐?" 베디버 경이 대답하되 "폐하, 신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사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베디버 경이 이르되 "내가 이같이 그 검을 바다의 물 속에 던지매, 그 물에서 한 팔이 솟아올랐노라. 그 팔에는 흰 사미트 천으로 된 소매가 감싸여 있었고, 그 둘레에는 많은 금팔찌가 둘러져 있었으며, 그 팔찌에는 여러 가지 보석이 박혀 있었노라. 그 팔의 손이 엑스칼리버의 칼잡이를 쥐고, 그것을 세 번 공중으로 휘둘러 올린 뒤, 다시 물 속으로 끌어내렸노라. 내가 본 바가 바로 이것이니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이 일로 너는 나를 잘 섬겼도다. 그러나 시간은 짧아지고 나의 끝은 가까워지노라. 나를 네 어깨에 업고, 엑스칼리버를 바다에 던졌던 그 곳으로 바다 모퉁이로 나를 데려가라. 거기서 너는 여러 부인들이 탄 배를 보리라. 그 배는 나를 위한 것이요, 이제 내가 알노니 그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 팔이 솟아오르고 그 팔의 손이 엑스칼리버를 잡았을 때부터 이미 그러하리라."

〈각주: 베디버 경이 아서왕을 배까지 모셔간다.〉

이때 베디버 경은 어깨를 숙이고, 아서왕의 팔을 각각 자신의 목 뒤로 감았다. 왕의 팔은 병든 어린 아이의 팔처럼 매우 약하고 축 늘어져 있었더라. 베디버 경은 몸을 일으켜 왕을 침상에서 들어 올렸고, 왕은 들어 올려지는 순간 신음소리를 내었더라. 베디버 경은 아서왕을 그 예

배당에서 들어 올려 달빛 아래로 데려갔으며, 이리하여 바닷가 절벽까지 왕을 모셔 내려갔더라. 이때 밤공기는 이미 서늘하여 베디버 경의 거친 숨결이 콧구멍에서 얇은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그가 걸을 때마다 철구두가 바위를 두드려 바위가 그의 발걸음 아래서 울려 퍼졌더라.

이때 베디버 경은 아서왕을 그 절벽 아래로 모셔 내려가, 바닷물이 암반에 부딪혀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 곳으로 이르렀더라. 베디버 경과 왕의 그림자는 그곳 암반 위에서 매우 짙고 형체 없이 어둡게 드리워졌으며, 그 그림자들도 함께 바다 쪽으로 걸어 내려가더라.

이에 베디버 경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검을 바다에 던졌던 그 장소에 이르렀더라.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니, 그가 검을 던졌던 그 자리에는 배 한 척이 해안에 매어 있는 것이 보였더라. 베디버 경은 그 배 안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 중에는 세 명의 여왕들과 그들의 시종들이 있었더라.

〈각주: 세 여왕이 왕을 배에 태우니라.〉

베디버 경은 그 여왕들 중 두 명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모르가나 레 페이 여왕이요, 다른 하나는 북웨일스 여왕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 번째 여왕에 대해서는 그녀를 알지 못하더라. 다만 그는 그녀가 매우 키가 크고 몸매가 곧으며, 매우 얇고 빛나는 녹색 옷을 입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녀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고 윤기가 나며, 달빛 아래서 마치 곱고 매우 유리질 같은 실크 실처럼 빛나더라. 그녀의 얼굴은 매우 하얗고, 그 하얗기는 밀랍 같았으며, 그녀의 눈은 매우 검고 빛나서, 그 상아빛 얼굴에 박힌 빛나는 보석 같더라. 그리고 이 부인의 목에

는 에메랄드 돌이 박힌 금 보석 목걸이들이 여러 개 둘러져 있어, 매우 밝고 빛나더라.

이 낭자는 기이한 배의 키를 잡고 서 있었는데, 그녀는 호수의 부인이었노라. 비록 베디버 경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되. 그녀는 키를 매우 단단히 쥐고 있었으며, 이로써 배를 해안가에 가까이 붙이고 있었노라.

그 배 안에는 또 다른 여러 부인들이 서 있었으니, 그들은 매우 고요히 서서, 항상 베드비어 경이 있는 쪽으로 된 해안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러나 이들은 바로 그 왕후들을 모시던 시녀들이었노라.

이에 베디버 경이 아서왕을 어깨에 메고 그 곳으로 다다르자, 여인들은 날카로운 애곡을 터뜨려 베디버 경의 마음을 찢게 하였노라. 그리하여 모르가나 르 페이 여왕과 북웨일즈의 여왕이 일어나 아서왕을 받아들일 팔을 내밀었더라. 베디버 경은 아서왕을 그들의 손에 건네주었고, 두 여왕은 그를 들어 올렸노라. 모르가나 여왕은 그의 어깨를, 북웨일즈의 여왕은 그의 무릎을 잡은 채로, 그들은 그를 배 안으로 들어 올렸노라.

그들은 그를 배 안의 침상에 눕혔고, 그는 모르가나 여왕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더라. 그리고 베드비어 경은 기슭에 서서 모르가나 여왕의 무릎 위에 누운 아서왕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니, 그의 얼굴은 나무재와 같이 희었더라. 이에 베드비어 경은 그가 죽었음을 깨달았더라. 베드비어 경은 크고 애달픈 소리로 울부짖으며 이르되, “나의 주군이

시요 왕이시여, 저를 버리고 가시려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리이까? 여기 내가 적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사오니."

〈각주: 아서왕이 베드비어 경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때 아서왕이 눈을 뜨며 이르시되, "하, 경이여, 당신에게 적수가 없나이다. 당신의 적들은 이미 도망쳤고, 곧 랜슬롯 경이 나타나 당신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으로 돌아가, 당신이 이 곳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당신에게 아뢰오, 내가 이 곳에서 죽지 않을 것임을 나는 이제 알았노라. 오히려 나는 이 배를 타고, 나의 자매인 모르가나 여왕과 함께 아발론으로 갈 것이오. 아발론의 계곡에서 나는 살아가며, 세월이 흘러 많은 해가 지난 후 다시 브리튼으로 돌아올 것이오. 그러나 나의 귀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이다. 그러나 그 귀환과 함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리니,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평화의 예술들은 번성할 것이오. 그러니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오.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나가노니, 안녕히 가시오."

그때 세 번째로 그 여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애도를 드렸고, 그 애도의 소리에 배는 떨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배는 해안에서 서서히,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멀어져 갔고, 밤의 달빛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 동안 베디버 경은 배를 보았으나, 이내 그가 정말로 그것을 보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이내 배는 달빛의 흰 빛 속으로 사라져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에 베디버 경은 눈물을 흘리며 그 해안가를 떠났고, 그의 눈물은 그토록 많아 다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조차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노라. 그리하여 베디버 경은 그 해안가를 떠났고, 그의 슬픔에 잠겨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그 밤 내내 오직 전진할 뿐이었고, 아침이 밝자 그는 큰 도시 근처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노라. 이에 그는 그 도시로 향하여 갔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 있음을 보았노라.

〈각주: 베디버 경이 대주교에게 나아가니라.〉

이에 베디버 경은 성 안으로 들어가 이르되 "여기 있는 자는 누구뇨?"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계시는 이는 캔터베리 대주교라" 베디버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인도하라"

〈각주: 그가 대주교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그를 대주교가 있는 곳으로 모셔갔다. 그곳에는 다른 여러 명의 주교들도 함께 있었다. 대주교가 베디버 경을 보고는 이르되, "경이 어찌 그리 창백한가?" 하니, 베디버 경이 이르되, "폐하, 내가 보았던 모든 일들 때문에 창백하나이다."라 하더라.

이에 베디버 경은 대주교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그 전날 살즈버리와 바다 사이에서 치렀던 그 거대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 전투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거기서 죽임을 당한 기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들려주었다. 그리고 모드레드 경이 죽임을 당했으며, 아서왕이

모드레드 경에게 부상을 입은 뒤, 전에 예언되었던 대로 밤중에 그 배를 타고 떠났음을 전하였더라.

이 모든 말을 대주교는 큰 경악을 가지고 들으며 외쳤노라. "어찌 된 일인가, 또 내가 듣는 이 말은 무엇인가? 아서왕이 떠났는가, 그 선량하고 지혜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신비롭게 사라졌는가?" 그가 물으니, "왕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남겼는가?" 베디버 경이 대답하되,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콘월의 콘스탄틴 경이시니, 그는 가웨인 경의 사촌이시라."

대주교가 이르되,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브리튼의 다음 왕으로 관을 씌우리라. 그는 우서 펜드래곤 왕의 정통 혈통에서 마땅히 계승하리니."

그리하여 대주교가 말한 대로 행하여지니, 곧 그 후 콘월의 콘스탄틴 경이 캐멀롯에서 브리튼의 왕으로 즉위하였더라. 이 일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캐멀롯은 곧 오늘날의 윈체스터라 하더라.

* * * * *

이제 내가 아서의 최후를 네게 말하였으니, 이는 다른 모든 사적(史蹟)들이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별개의 기록들이 존재하느니라.

그러나 옛적부터 잉글랜드 백성들이 받아들여 온 그 역사는 이러하니라. 아서왕은 죽지 아니하고, 모르가나 르 페이 여왕과 또 다른 두 여

왕들이 그를 아발론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그가 치유되어 죽지 아니하게 되었노라. 그 역사는 그가 아직 그곳에 살아있으며, 언젠가 그가 맹세한 바와 같이 브리튼으로 돌아올 것이라 전하노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돌아올 때, 그가 약속한 바와 같이 평화가 영원히 이어지고 풍요와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리라.

〈각주: 아발론에 관하여.〉

아발론에 관하여는 이같이 전하니, 곧 이 땅은 모르가나 르 페이 여왕의 거처요, 서쪽 바다 위에 영원히 떠다니는 기이하고 놀라운 섬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목격하였다고 일컫되, 항상 먼 곳에서 바라보았을 뿐이라. 때로는 그들은 이를 파타 모르가나라 부르고, 때로는 아발론이라 부르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높은 탑과 빛나는 첨탑을 보며, 숲의 나무와 그늘을 만드는 나무들이 어우러진 나무 그늘을 보며, 어둡고 음울한 이 땅의 언덕과 계곡보다 더 아름다운 그 신비로운 나라의 언덕과 계곡을 보느니라. 아발론은 때로는 아발론의 계곡이라 불리며, 때로는 아름다운 아발론이라 불리느니라.

그곳 그 즐거운 땅에는 눈도 없고 얼음도 없으며, 여름의 타오르는 더위와 가뭄도 없노라. 다만 영원히 봄날의 온화한 따뜻함이 머물러 있더라.

아발론의 백성들은 항상 기쁨에 차 있더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으며, 서로 원수를 맺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모두 평

화와 고요함 가운데 살며, 눈처럼 하얀 양떼와, 야생 백리향과 파슬리 향기가 나는 소떼를 돌보았노라.

사람들은 아서왕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믿노라. 그는 죽지 아니하셨고, 아직 깨어나지도 아니하셨노라. 다만 늘 평안히 잠들어 누워 계시느니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가 다시 깨어날 때가 올 것이라 믿노라. 그때에 그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모든 이 사이에 평화와 화목이 있을 것이니라.

이때가 이미 코앞에 다다랐다고 믿는 자들이 적지 않더라. 세상의 전쟁이 점점 잦아들고, 인간들 사이에는 평화와 화목과 선의가 점점 더 많아짐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웃과 평화를 지키며, 그들에게 선을 바라고 선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아서왕이 그의 잠에서 깨어나시리라. 그때에 그의 무서운 상처가 낫고, 다시금 그의 백성들께로 돌아가시리라.

* * * * *

이러한 방식으로 아서의 최후가 있더라.

[일러스트레이션: 구이니비어의 임종]

[일러스트레이션] 제십장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왕비에게 이르러, 구이니비어 왕비가 수녀가 된 일. 그리고 랜슬롯 경이 숲으로 들어가 은수자가 되며, 그의 동료 일곱 명이 그곳에서 그와 합류한 일. 또한 호수의 랜슬롯 경의 죽음에 관하여.

이미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드렸다. 호수의 랜슬롯 경이 에웨인 경의 편지를 받았고, 그와 그의 기사들이 아서왕을 돕기 위해 결심한 일 말이다.

〈각주: 랜슬롯 경이 도버에 도착하다.〉

이에 랜슬롯 경과 그의 기사들, 그 수가 이백십이 명이나 되니, 배와 갤리선으로 잉글랜드에 도착하여, 아서왕이 그랬던 것처럼 도버에 상륙하더라.

랜슬롯 경이 도버에 도착하였을 때, 한 사신이 그에게 달려와 살즈버리 근처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 관하여, 그리고 모드레드 경이 전사하고 아서왕이 그 상처로 인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 사신은 또한 콘월의 콘스탄틴 경이 아서왕의 뒤를 이어 브리튼의 왕으로 즉위하였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모든 것을 랜슬롯 경과 그와 함께 있던 기사들이 들었노라. 랜슬롯 경은 심히 슬피 울었고, 그와 함께 있던 기사 중 몇몇 또한 함께 울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크게 외쳤노라. “아, 나의 사랑스럽고 고결하며 자비로우신 주군, 아서왕이여! 내가 첫 번째 전투에서 모드레드 경이 아

닌 아그라베인 경을 죽였음은 내게 참으로 슬픈 일이로다. 이제 나는 모드레드 경이 이 모든 재앙의 장본인이었음을 믿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나 이제 아서왕은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은 모두 파멸과 손실로 가득 차 있구나. 여기 원탁의 기사들 중 아직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으며, 그들 중 가장 훌륭하고 고결했던 많은 이들이 죽었노라. 가령 가웨인 경이 죽었고, 라이오넬 경과 에커 경이 죽었으며, 에웨인 경이 죽었고, 나의 사랑스럽고 친밀한 친구였던 가레스 경이 죽었으며, 게하리스 경이 죽었노라. 이 모두와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죽었으니, 만약 모드레드 경과 그의 배신이 없었다면 이들은 모두 살아있었을 것이로다. 그러나 이 모두는 모드레드 경의 배신 때문에 죽었노라. 그가 처음부터 죽었더라면, 이들이 모두 구원되었을 것을!"

이때 랜슬롯 경은 슬픔을 토로하며, 그 눈물도 강물처럼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지금 우리 중 누가 콘스탄틴 왕의 종으로 섬길 자가 있으리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중 그에게 섬길 자가 없나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도 그에게 섬길 수 없노라." 이에 그가 다시 이르되, "지금 구이니비어 여왕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폐하, 그녀가 지금 로체스터에 있는 성 브리지트의 수도원에 계시며, 그곳의 원장님이시라. 아서왕께서 그녀를 교회에 드리신 후로, 그녀는 교회의 서원을 받고 흑백의 수도복을 입은 수녀가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각주: 랜슬롯 경은 왕비를 찾기 위해 로체스터로 향하더라.〉

그 밤, 랜슬롯 경은 말에 올라 홀로 길을 떠났노라. 그는 로체스터로, 그리고 세인트 브리지트의 수도원으로 향하여 달렸노라. 랜슬롯 경이 수도원의 한 방에 들어서자,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곳의 원장 부인과 말문을 열고 싶다"고 하였노라.

그때 곧이어 구이니비어 왕비가 그의 있는 곳으로 이르렀고, 랜슬롯 경은 방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더라. 그가 보니 그녀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야위었으며, 그녀는 검은색과 흰색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 왕비가 랜슬롯 경을 바라보며 그를 알아보았노라. 그녀가 그를 본 순간, 그녀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오! 당신이오?"라 하였노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눈이 먼 자처럼 뒤를 더듬었노라. 그녀가 뒤쪽에 어떤 형체가 있음을 느끼자, 그 형체 위에 앉아 버렸노라. 그리고 그녀는 그 형체 위에 기절하여, 그녀의 머리가 뒤로 젖혀져 그 형체의 등 위에 떨어졌노라. 랜슬롯 경은 그녀가 기절하였음을 깨달았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 수도원의 처녀들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노라. "서두르라! 서두르라! 여왕께서 기절하셨노라!" 이에 여러 처녀들이 재촉하여 달려와 여왕의 목둘레 옷매무새를 풀고, 그녀의 손을 비비며, 식초로 관자놀이를 적셔주었더라. 곧이어 여왕은 기절에서 깨어나, 자신을 향해 무릎 꿇은 랜슬롯 경을 보았노라.

〈각주: 여왕이 랜슬롯 경에게 말을 걸다.〉

그때 여왕이 손을 뻗어 랜슬롯 경을 만지며 이르되, "당신은 실체이신가, 영혼이신가?" 하니 랜슬롯 경이 대답하되, "부인, 나는 당신과

같이 살과 피로 된 자이니이다." 이에 여왕이 그에게 이르되, "경, 여기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하니 랜슬롯 경이 대답하되, "저는 부인을 구하러 왔나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인은 항상 저와 함께하시며, 저의 생각에서 단 한 순간도 떠나심이 없나이다."

구이니비어 여왕이 이르되, "아, 랜슬롯이여! 여기서 나를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니, 나의 마음은 언제나 이 곳에 있고,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리라. 여기에서 나는 나의 생애와, 나의 생애에 있던 모든 기쁨과 쾌락,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악을 돌아보았노라. 그리고 내 주님인 아서왕이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음을 나는 알노라. 비록 내가 그 때 아서왕을 피하여 너와 함께 기쁨의 성(Gard)으로 달아났으나, 기쁨의 성에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은 언제나 내 주님인 왕께로 향하였노라. 그는 나의 청춘의 연인이셨고, 나의 모든 기쁨과 모든 고난 속에서 나의 마음은 처음과 끝까지 그에게로 향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 왕이 떠나셨으니, 나의 마음은 낙원에서 그분께 붙어 있고, 그곳에서 나는 아마도 내 왕과 재회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 가운데 있게 되며, 슬픔이나 불확실한 것이 결코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리라."

그때 랜슬롯 경이 소리쳐 이르되 "나도 있나니, 부인이여, 당신의 생각 속에 저를 위한 것이 없사옵니까?"

그녀가 이르되 "랜슬롯, 너를 향한 우정과 사랑은 크도다. 그러나 그런 연모는 아니니라. 그러므로 기쁨의 성으로 돌아가거라. 그곳의 아

름답고 온화한 공녀 중 한 명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리하면 멀리 떠나간 갤러해드 경을 대신하여 너는 자손을 낳아 기를 수 있으리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부인, 저는 이 세상에서 당신 외에는 그 어느 여인과도 혼인할 수 없나이다." 하니, 구이니비어 여왕이 이르되 "아, 랜슬롯, 그것이 슬프도다."

〈각주: 랜슬롯 경이 왕비에게서 떠남.〉

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의 담화가 끝난 후, 랜슬롯 경은 그 곳을 떠나 가슴에 머리를 깊게 숙인 채 길을 떠났노라. 랜슬롯 경은 계속하여 숲을 향해 나아가고, 곧이어 숲속으로 들어섰노라. 랜슬롯 경이 그 곳에 이르러서는 숲 속의 은수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르되, "은수사여, 저를 용서하시고 고해성사를 받아 주소서. 저로써 이제부터 생을 마치기까지 이 숲 속에서 당신과 같이 은수자의 삶을 살리이다. 여러 차례 저는 이곳에서 은둔자의 삶을 살았사오나, 언제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서 거두어졌고, 저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남아있지 않나이다."

〈각주: 랜슬롯 경이 숲속의 은자라 되니라.〉

이에 랜슬롯 경은 숲의 다른 곳으로 물러나, 자신의 갑옷을 벗어 근처 나무 가지에 걸어 두었노라. 또한 그의 말에서 마구와 안장을 벗겨 내고, 그 말을 풀이 무성한 그곳에서 마음껏 뜯어먹게 풀어 놓았더라.

그리하여 랜슬롯 경은 다시는 다른 어떤 신분이 되지 않겠노라는 결심으로, 숲의 은둔자가 되었노라.

* * * * *

도버에서 랜슬롯 경을 모시던 기사들이 그가 자신들을 떠났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여 사방을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그를 찾아내지 못하더라. 이에 기사들 대다수는 헤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오직 랜슬롯 경과 혈연이 닿은 몇몇 기사들만이 함께 모여 그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들이 바로 랜슬롯 경을 찾는 기사들이라. 바로 보르스 경과 블레베리스 경, 가니스의 블라모르 경, 그리고 갈라후드 경과 갈라딘 경, 빌리아르스 경, 클라루스 경이 있었으니, 이 일곱 기사가 브리튼의 끝에서 끝까지, 땅을 가로지르며 드넓게 수소문하였더라. 그들은 언제나 랜슬롯 경을 찾았노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랜슬롯 경이 머무르던 숲의 한 부분이었더라.

그때 기사들은 숲의 벌판에서 한 마리의 말이 풀을 뜯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자 보르스 경이 다른 이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여, 내가 보기에 저것은 랜슬롯 경의 말이라.” 하니, 그들이 조금 더 나아가니 랜슬롯 경의 갑옷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더라. 보르스 경이 그 갑옷을 자세히 살피며 이르되, “확실히 이는 랜슬롯 경의 갑옷이라. 이제 그이가 이 근처를 떠나지 않았음이 분명하도다.”

그때에 그들은 작은 베스퍼 종소리를 멀리서 들으니, 보르스 경이 이르되, “저기 숲 속의 은수사의 종소리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 보자. 아마도 랜슬롯 경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이에 그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숲 속의 은수사의 예배당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예배당 문 안을 들여다보았거늘, 은수사와 또 한 명의 은수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더라. 예배당 안에는 작은 새들이 있어, 바닥 위를 오가며 두 무릎 꿇은 자들 주위를 뛰어놀았으나, 그들 중 어느 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각주: 기사들의 동료들이 랜슬롯 경을 발견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기도를 마치자 일어나니, 그 기사들은 그 은수자의 얼굴을 보았고, 그가 바로 랜슬롯 경임을 알았노라. 비록 랜슬롯 경의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금식 때문에 매우 야위고 볼이 패었으나, 그들은 그 얼굴이 그임을 알아볼 수 있었노라. 랜슬롯 경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거의 단식하며,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굶겼기 때문이었노라.

그때 보르스 경이 말하여 이르되, “랜슬롯 경이여, 이는 당신인가?”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렇도다. 내가 바로 네가 보는 자라.” 보르스 경이 이르되, “경이여, 이 삶은 경에게 마땅치 않사오니, 갑옷을 입고 나와 다시 세상으로 나가소서. 당신의 삶은 그 세상에 있어 반드시 가치 있는 바임이라.”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아니로다. 나는 이 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세상과 평화와 우정으로 거하노라. 그러므로 어찌 다시 옛날처럼 싸움 속으로 나아갈 것인가?”

보르스 경이 이르되, “경이여, 경이 지금 영위하는 삶은 다만 의무를 소홀히 함이라. 모든 기사의 의무는 세상 안에 거하여 세상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 일이 전쟁이든 노력이든. 그러므로 어찌 이 암자에서 아무런 행위 없이 쉬고 있는가?”

“영주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부름이 있거든, 나는 마땅히 나아갈지라. 나의 의무가 그때에 다시금 나의 기사도 갑옷을 갖추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러한 부름은 없으며,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젊지 않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쉴 때가 왔으니, 나는 이 숲속의 고요함 속에 머무르리라.”

〈각주: 기사들의 동료가 은자(隱者)가 되니라.〉

보르스 경이 이르되 “경이여, 우리는 경의 신하요 추종자라, 경께서 이 숲 안에 머무시거든 우리 또한 경과 함께 머무르리이다. 경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경의 식사가 곧 우리의 식사가 되리니, 최후까지 그러하리이다”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그 기사들은 모두 그 숲 속에 머무르며, 모두 성스러운 은수사의 서원을 맺었노라. 이에 그들은 삼 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그 동안 큰 평화와 화합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들이 숲 속에 사는 모든 생명을 괴롭히지 아니하므로, 숲의 들짐승들은 곧 그들의 곁에 친숙하게 다가

왔노라. 그들이 숲의 암사슴의 허리를 손으로 더듬어도, 그 사슴은 그들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짐승이 그들 자신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노라.

이들 그 고요한 곳에 거하며 완두와 보리를 가꾸었노라. 그들의 덕과 거룩함이 널리 퍼지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와 축복을 구하여 그 곳으로 모여들었더라.

그리하여 어느 밤, 랜슬롯 경이 잠들었을 때, 그의 꿈이 들려왔으니, 그것은 밤의 두 번째 야경 때에 이르렀더라. 랜슬롯 경의 꿈은 이러하였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꿈을 꾸다.〉

그는 꿈속에서 구이니비어 여왕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마치 밝은 빛이 그녀의 얼굴 뒤에서 비추어 들어오는 듯 매우 광채가 나고 있었노라. 그 빛으로 인해 그녀의 얼굴은 변하여 온통 장엄하고 장미빛 분홍빛으로 물들었더라. 그리고 여왕은 금실로 짠 매우 단정하게 내려앉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매우 특이한 광택으로 빛나고 있었노라. 그녀의 목과 팔에는 수많은 금 장신구가 둘러져 있었고, 그녀가 움직이거나 숨을 쉬는 때마다 그것들도 빛나고 반짝였노라. 그리고 이 구이니비어 여왕의 환상은 이르되, “기뻐하라, 오 랜슬롯 경이여! 나의 고난과 근심이 이제 끝났노라. 내가 이제 낙원에 있고, 나의 몸은 잠들었으며 죽었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깨어났으니,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성직자를 찾아갔고, 그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성직자가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내 생각에는 이 꿈으로 보아 왕비는 더 이상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고 그 영혼은 낙원으로 옮겨졌나니, 서둘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이것이 진실인지 확인하시오."

이에 랜슬롯 경은 그의 말을 타시고, 그의 일곱 동행자들도 또한 말을 탔으며, 함께 그들은 로체스터로 향하여 달렸더라. 랜슬롯 경은 그곳의 수녀원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온 자들에게 이르되, "이 수도원의 수녀원장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그분은 지난밤 제2경에 숨을 거두셨나이다"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를 그분께 데려가라" 하였더라.

〈각주: _그가 죽은 왕비를 바라보니라._〉

그들이 랜슬롯 경을 모셔 가니, 그곳은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라. 큰 윗방이었고 창문들은 열려 있었으며, 찬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더라. 랜슬롯 경이 여왕의 시신을 바라보니, 그 몸은 흰 리넨으로 만든 소파 위에 누워 있었고, 그의 눈에 비친 시신의 얼굴은 밀랍처럼 희었더라. 또한 그는 시신의 입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미소는 전날 밤 그가 꾸었던 꿈에서 여왕이 짓던 미소와 같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울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그는 두 손을 꽉 쥐어 쥔 채 서서, 자신과 그녀에게 닥친 모든 일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노라. 그는 캐멀롯의 왕궁에 처음 찾아가던 때를 되새겼고, 여왕을 사랑함으로 인해 자신의 여인의 생명을 희생하였던 일을 되새겼노라. 또한 여왕을 위해 싸웠고, 그 전투로 그녀의 목숨을 구하였던 일을 되새겼으며, 그녀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해 내기 위해 기꺼이 친구들을 죽였던 일까지도 되새겼노라.

이 모든 일들을 그가 되새기니, 그 중 일부는 그에게 평화를 주었고, 또 일부는 그를 고통에 빠뜨렸노라. 이때 그가 말하여 이르되, "아, 부인이여! 내가 당신처럼 누워 있기를 바랐소이다. 그리하면 나도 또한 평안을 얻으리니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평안을 얻지 못하오."

이때 구이니비어 왕후가 죽으니라. 그녀가 죽을 때 나이는 마흔여섯이었고, 그 미모는 지극히 아름다웠더라.

그때 여덟 기사는 수도원에서 이틀을 머물렀고, 셋째 날 구이니비어 왕비의 시신이 수도원의 제단 앞에 안장되니라. 그 시신을 덮던 돌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더라.

구이니비어는 옛날 브리타니아의 여왕이었더라.

그리고 그 엔타블레처는 여러 해 동안 로체스터에서 볼 수 있었으니, 이로써 구이니비어 여왕이 과연 그곳에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노라. 이에 관한 연대기가 그러하다고 기록하였으니, 그 일이 반드시 그러했음이니라.

이 모든 일이 있은 뒤, 그 기사들은 다시 숲으로 물러가 옛날과 다름없이 그곳에 거처를 정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두 해 또는 세 해를 더 그곳에서 살았으니, 그 후 그들이 그 숲을 떠나는 일은 곧 이어 설명하리라.

이제 우리는 랜슬롯 경의 임종에 관해 말하리라. 그 일은 다음과 같았노라.

〈각주: 랜슬롯 경은 기도하러 오지 아니하였노라.〉

어느 날 아침,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일찍 깨어나 성무일도를 드리러 갔다. 그 날 아침은 오월이었으며, 모든 나무들은 푸른 잎을 틔우고 사과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올 때마다, 그 꽃들은 향기로운 분홍빛 눈송이처럼 흩어져 떨어졌고, 이로 인해 주변의 모든 잔디밭은 꽃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새들은 모든 수풀과 나무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그 아름다운 화음은 온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주위를 두루 살피며 랜슬롯 경이 없는 것을 보았고, 이르되 "어디에 랜슬롯 경이 있느냐, 그가 아침 기도에 임하지 않음이 어찌 됨이뇨?" 하더라. 이에 보르 경이 랜슬롯 경의 처소로 가서 보니, 랜슬롯 경이 매우 평온하게 그의 침상 위에 누워 있더라. 보르 경이 랜슬롯 경을 깨우려 나아갈 때, 그는 랜슬롯 경이 죽은 것을 보았노라. 랜슬롯 경의 두 손은 그의 가슴 위에 겹쳐졌고, 그의 입술에는 큰 평안과 깊은 만족의 미소가 머무르니라.

〈각주: 보르 경이 그를 죽은 채 바라보더라.〉

이에 보르 경은 랜슬롯 경의 작은 방 문으로 가서 다른 이들을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하매 그들이 이에 따랐더라. 보르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 누워 있는 이는 한때 랜슬롯 경이었던 자라.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사가 아니니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 죽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들이 모두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과연 큰 평화와 고요함 가운데, 그의 하나님과 함께 숨을 거두었음을 보았더라.

이에 보르 경이 이르되 "우리는 이 선량한 기사의 시신을 거두어 조이어스 가드로 가져가야 하노라. 그곳에 그를 묻어주자. 그가 원하시던 바는 그의 시신이 조이어스 가드에서 묻히기를 바랐음이니라."

이에 그들은 그 숲속 장소로 말 탄 빈상을 가져왔고, 그 위에 랜슬롯 경의 시신을 안치하였으며, 지나가는 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시신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시신을 그곳에서 옮겨 조이어스 가드로 옮겼으며, 이와 같이 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겪은 후, 랜슬롯 경의 시신은 그 곳에서 평온과 고요함 속에 안치되었더라.

〈각주: _그가 조이어스 가드에서 쉬고 있더라._〉

그와 함께 있던 기사들은 숲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의 성채(Joyous Gard)에 머무르니라. 그들 중 한 기사는 항상 랜슬롯 경의 무덤 곁에서 밤을 새우며, 일곱 개의 밀랍 촛불을 켜두었노라. 그리

하여 그 기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 무덤은 늘 그 촛불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졌더라.

〈각주: 보르 경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은 기사들 중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이는 가니스의 보르 경이었으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미 여든이 넘은 고령이었기 때문이라. 어느 날 아침, 사제가 그 곳으로 왔을 때, 그는 보르 경이 랜슬롯 경의 무덤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 이미 보르 경은 숨을 거둔 뒤였더라. 일곱 개의 촛불 중 하나, 곧 보르 경의 촛불은 켜지지 않은 채 타버려 잿더미가 되어 있었으니, 이는 보르 경의 생명이 마치 그 촛불의 빛이 사라지듯 희미하게 꺼져갔음을 나타낸 것이었더라.

* * * * *

이로써 그 기사들의 일대기 역사가 막을 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였노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결론

이와 같이 내가 아서왕과 그의 원탁을 이루었던 여러 기사들의 역사를 기록하였노라. 이로써 너희는 그 기사들이 얼마나 인내와 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다하여 자신들의 왕과 원탁, 그리고 동료들을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느니라.

그 기사들은 매우 기개 있는 신사들이라, 근심과 번거로움은 거의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를 버림이 친구를 도우거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때에만 자기를 버림을 실천하였더라.

그들은 항상 곤경에 빠진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노라. 주린 자들에게는 양식을,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시기를 가져다주었으며, 항상 거인들과 괴물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켰노라. 이로써 그들이 거닐던 이 세상을 더 나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안식처로 가꾸었노라.

그리고 너희는 명심하라.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나은 일은 있을 수 없노라. 곧,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며, 근심하는 자들에게 시련에서의 해탈을 가져다주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노라.

"그렇노라. 내가 이 책들을 집필하는 데 일곱 해를 바쳤노라. 이 책들에는 이러한 일들의 역사가 담겨 있느니라. 그 동안 나는 또 많은 일을 행하였노라. 내가 이 책들과 그와 같은 다른 저작들을 남긴 것 외에, 수많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니라.

이 책들은 모두 네 권이라. 첫째는 『아서왕의 책』이요, 둘째는 『원탁의 용사들의 책』이며, 셋째는 『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들의 책』이요, 이제 네 번째인 『성배 이야기와 아서의 최후』가 있노라. 이 책이 바로 마지막이느니라. 이 책들이 곧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기 때문이니라. 비록 그들 속에 아직 말하지 않은 일들이 많을지라

도, 그것들은 모두 작은 일들이라. 더 중요한 모든 일들은 여기 충분히 기록되었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노라. 너희는 알지니, 한 남자가 일곱 해의 생명을 바쳐 한 사업을 완수하려 할 때,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지, 즉 살아남을지 알 수 없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를 완수하였노라. 이로 인해 완수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완성함. 은혜의 년도 천구백십 년 사월 십육일

[일러스트레이션]